



## 문화 · 종교

제1장 증평군의 문화재

제2장 증평군의 민속문화

제3장 언론과 출판

제4장 종교







## 제장 증평군의 문화재

노병식 집필

### 제1절 개 관

### 제1절

#### 1. 문화재의 의미

문화(文化 ; culture)는 만물의 영장인 인류(人類)가 갖는 고유한 특성으로서 어떠한 주어진 환경에다가 인위적(人爲的)인 사고(思考)나 행위(行爲)를 더해 이상(理想)을 실현하고자 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문화는 인류의 정신적(精神的)·물질적(物質的) 소산(所産)의 총체로서 역사의 발달과 함께 창조·계승·발전하는 것이다.

문화재(文化財)는 인류가 발달하면서 생성하는 모든것이 문화와 관련한 산물(產物)로서 대개가 역사적(歷史的)·종교적(宗教的)·세속적(世俗的)인 근거를 가지고 남아 있는 자취로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화재(文化財 ; cultural properties)라고 하는 것은 편협하게 재산(財産)이라는 의미를 내포해 너무 물질적 가치만을 지향하는 입장을 취하기 보다는, 어느 한 민족이나 인류 공동사회의 모든 문화를 포함해 전해져 내려오는 것으로서 우리 모두가 지키고 보존해 나아가야 할 것이기에 정신적인 가치를 강조해 문화유산(文化遺産 ; cultural heritages)이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기도 한다.

문화재(文化財)라는 용어의 성립은 영국에서 산업혁명 이후 천연자원의 개발이 활기를 띠게 되면서 자연의 파괴와 역사적 문화유산의 손상·파괴·소멸 등을 우려해 1895년에 자선단체 성격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장소들과 자연환경을 위한 전국협회(National Trust for Places of Historic Interest or National Beauty)’가 설립되었고, 1907년부터 자연과 문화재보호를 위한 ‘내

서널트러스트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일어난 민간의 자연보호와 문화재보호운동 과정에서 시작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제강점기(日帝强占期) 이후부터 유적(遺蹟)·유물(遺物)·고적(古蹟)·명승(名勝)·보물(寶物)·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 등의 용어가 사용되어 왔다. 그리고 1961년 10월 2일 각령(閣令) 제 181조에 근거한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이 문교부(文教部)의 외국(外局)으로 설립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었고, 1962년 1월 10일 문화재보호법(文化財保護法)이 제정·공포되면서 문화재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오면서 국민들에게 문화재에 대한 인식변화를 가져오게 했다.

문화재는 조상들의 슬기에 의해 창조된 것으로 시대적 배경과 사상 등 조상의 얼을 되새기고 조상의 숨결을 느낄 수 있으며, 삶의 지혜가 담겨 있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 주변 각처에 보존되고 있는 각종 문화재는 단순히 세계적인 것만을 내세워서 역사가 오래 되었거나 기교면에서 뛰어난 것만이 제일이지 아니고, 그 자체로서도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보존할 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재는 당연히 후손에게 물려줄 만한 산물로서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세계적인 문화재는 소유자 나름대로의 자긍심을 갖기도 하나, 문화재는 인류 공영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공동의 문화유산으로서 지켜 나아가야 할 것으로 어느 한 당사국의 전유물일 수는 없는 것이며, 문화재의 보호는 한 나라의 관심사인 동시에 세계적인 관심사로 중요시되고 있기도 하다.

우리의 문화재는 반드시 역사적으로 오래된 것만이 최고일 수는 없으며, 지정되어 세계적이거나 혹은 특별히 국보(國寶)나 보물(寶物) 등의 문화재로 선정되어 물질적 가치가 높게 평가되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지역의 얼이 숨어있는 작은 향토문화재(鄉土文化財)는 보다 큰 의미를 갖는 것일 수도 있다.

문화재는 한 지역 사람들의 발달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어서 가능한 본래의 자리에 있는 것이 큰 의미를 갖는 것이라 하겠다. 우리 지역의 작고 초라한 것처럼 보이는 무명의 문화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그것이 곧 내 향토에 대한 사랑이고, 나아가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사랑은 물론 인류 공영의 바탕이 되는 길이므로 그 자체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이다.

## 2. 문화재의 종류

문화재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고 광범위해 서술자의 입장에 따라 차이를 보

일 수도 있으며, 최근에는 문화재의 정의를 인공적(人工的)인 것뿐만 아니라 자연적(自然的)인 미적(美的)가치로까지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기도 하다.

일반적으로 문화재라고 하는 것은 인공(人工)에 의해 물질적으로 표출된 것으로 고고·미술사적(考古·美術史的) 유적(遺蹟)이나 유물(遺物)을 포함할 수 있다. 유적(遺蹟)은 건조물(建造物)·기념물(記念物)·민속자료(民俗資料) 등과 같은 유구(遺構)로 일정한 장소에 있으면서 그 안에 유물(遺物)을 포함하기도 해 지상에 돌출되어 있을 수도 있으며, 지하(地下)나 수중(水中)에 매장(埋葬)되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이동이 가능한 고고자료(考古資料)·공예품(工藝品)·전적(典籍)·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 등과 같은 소규모의 유물들은 반드시 유적과 연관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으며, 유구(遺構)가 남아 있지 않은 유적지는 유허지(遺墟地)로 구분해 부르기도 한다.

그리고 문화재는 비물질적인 것으로 민족적 체질의 본질을 포함하면서 구전되어오는 전설(傳說)이나 민요(民謠) 및 생활양식이나 습관과 관련한 풍속(風俗) 등을 포함하기도 하며, 이밖에 자연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도 자연의 미적(美的) 가치를 중시해 천연의 명소로서 경승지(景勝地)나 희귀한 동물(動物)·식물(植物)·광물(鑛物) 등은 인간생활속에 반드시 직접적이지는 않더라도 문화를 형성하는 주변요인으로 작용했던 것으로 인간의 문화와 관련해 문화재로 취급하기도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문화재는 특별히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보호조례에 의해 지정되고 있다. 현행 문화재보호법(2005년 3월 28일 개정)에서는 “문화재라 함은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歷史的)·예술적(藝術的)·학술적(學術的)·경관적(景觀的) 가치가 큰 다음의 것을 말한다”고 하고, 문화재를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기념물(記念物)·민속자료(民俗資料)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①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건조물(建造物)·전적(典籍)·서적(書籍)·고문서(古文書)·회화(繪畵)·조각(彫刻)·공예품(工藝品)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를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보(國寶)·보물(寶物)과 도에서 지정하는 도 유형문화재(道 有形文化財)가 있다.

②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는 전통 생활 속에서 전래되어온 연극(演劇)·음악(音樂)·무용(舞踊)·공예기술(工藝技術)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



동파시 필사본(東坡詩 筆寫本)  
북송의 대표적인 시인인 소동파의 시를 엮은 책

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무형문화재(重要無形文化財)와 도에서 지정하는 도 무형문화재(道 無形文化財)가 있다.

③ 기념물(記念物)은 사지(寺址)·고분(古墳)·패총(貝塚)·성지(城址)·궁지(宮址)·요지(窯址)·유물포함층(遺物包含層)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경승지(景勝地)로서 예술적(藝術的)·경관적(景觀的)가치가 큰 것, 동물(서식지(棲息地)·번식지(繁殖地)·도래지(渡來地)를 포함한다)·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광물(鑛物)·동굴(洞窟)·지질(地質)·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사적(史蹟)·명승(名勝)·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과 도에서 지정하는 도 기념물(道 記念物)이 있다.



가마(도안면 광덕리)  
증평향토사료전시관

④ 민속자료(民俗資料)는 의식주(衣食住), 생업(生業), 연중행사(年中行事) 등에 관한 풍속(風俗)·습관(習慣)과 이에 사용되는 의복(衣服)·기구(器具)·가옥(家屋) 등으로 국민생활의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을 말하며, 국가에서 지정하는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와 도에서 지정하는 도 민속자료(道 民俗資料)가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지정은 지정권자에 따라 국가 지정문화재(國家 指定文化財), 시·도 지정문화재(市·道 指定文化財),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등으로 구분해 분류되고 있다. 그리고 문화재의 지정은 직접적으로 소유자 등이 신청하거나 문화재의 발견, 신고 등이 있을 때에 관계전문가들이 조사해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게 된다. 그런데 문화재의 지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방적·명령적 행위로 지정에 대한 이의나 거부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정문화재가 되면 문화재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에는 변동이 없으나 민족 공유의 유산이란 점에서 공물(公物)이 된다.



장들두레놀이 소품(증평향토사료전시관)

그리고 지정문화재가 아닌 건조물 또는 기념이 될만한 시설물형태의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50년 이상 경과된 근대의 문화유산 가운데 중요한 것은 등록문화재(登錄文化財)로 지정해 보호하기도 한다.

이와는 달리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재인

데도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는 비지정문화재(非指定文化財)로 분류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의 의미나 중요성을 따지자면 지정문화재는 단지 보호·관리적인 측면에서 우선적으로 지정된 것일 뿐이며, 수많은 비지정문화재들의 대부분은 그리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들이지만 결코 소홀히 취급될 수 없는 것이다.

## 제2절 증평군의 문화재 현황

## 제2절

증평지역의 향토문화사 가운데 문화유적을 살피기 위해서는 전통 생활 속에서 전래되어온 유·무형의 문화적 소산 등 지역민의 생활 추이를 이해함에 불가결한 것은 모두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대부분 이동이 가능한 동산문화재(動産文化財)로서 개인의 소장(所藏) 등으로 인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무형문화재 및 민속자료 등은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으나 아직 조사가 미진한 현실이다.

따라서 여기에서 언급하는 증평지역의 문화유적은 극히 한정된 것들로 이미 학술적으로 보고된 것들이나 혹은 현저한 것들만을 다룰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그리고 민속자료는 뒷장의 민속문화와 관련한 문화재 등을 참고하면 되겠다.

증평의 문화재는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건조물(建造物)이나 조각(彫刻) 등과 같은 일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분명히 기념물(記念物)과 구분될 수도 있으나, 일부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는 기념물(記念物)로 분류되는 사적지(史蹟地) 안에 위치해 있기도 하다. 따라서 증평군의 문화재에 대해서는 서술의 편의상 유적(遺蹟) 및 유물(遺物)을 중심으로 해 구분했다.

구체적으로는 구석기(舊石器)·신석기(新石器)·청동기시대(靑銅器時代)를 포함하는 선사시대를 하나로 해 선사유적(先史遺蹟)으로 구분하고, 역사시대의 문화유적은 삼국시대 이후 조선시대에 이르는 폭넓은 시기로서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국가의 정치 및 국방과 직결되었던 관방유적(關防遺蹟)과 종교적 근거에 따라 불교(佛教遺蹟)·유교유적(儒敎遺蹟)과 관련된 유적 및 유물 등으로 구분하고, 기타 세속적인 것의 기념물적 성격을 갖는 고



증평읍 죽리 선돌(암선돌)

분유적(古墳遺蹟)·도요지유적(陶窯址遺蹟), 독립지사(獨立志士)의 생가 유적(生家 遺蹟), 전승기능보유자(傳承技能保有者) 및 전통민속(傳統民俗)놀이 등의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자연적인 기념물과 천연기념물로 분류되는 동물(動物)·식물(植物) 등으로 분류했다.

구 분		위 치	시 기	비 고
선사 유적	송정리 고인돌	도안면 송정리 355	청동기시대	중평군 향토유적 제8호(2004. 4. 30 지정)
	광덕리 선돌	도안면 광덕1리	미상	.
	죽1리선돌	중평읍 죽1리	미상	.
	연탄리출토석검	중평읍 연탄리	청동기시대	.
관방 유적	이성산성	도안면 노암리	삼국~고려	중평군 향토유적 제7호(2004. 4. 30 지정)
	두타산성	도안면 연촌리	삼국~고려	.
	시화역터	중평읍 미암리	고려~조선	.
불교 유적	광덕사석불입상	도안면 광덕리 산 21-2	10세기경	도 유형문화재 제75호(1980. 11. 13 지정)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	중평읍 남하리 산 35-2	9세기말 ~10세기초	도 유형문화재 제197호(1998. 12. 31 지정)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	중평읍 송산리 산 1-5	고려 중기	도 유형문화재 제198호(1998. 12. 31 지정)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	중평읍 남하2리 135-5	고려 초기	도 유형문화재 제208호(2001. 7. 13 지정)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중평읍 율리 77-2	1704년	도 문화재자료 제36호(2002. 3. 15 지정)
	남하리 3층석탑	중평읍 남하리 산 35-2	9세기말 ~10세기초	도 유형문화재 제141호(1984. 12. 31 지정)
	율리3층석탑	중평읍 송산리 253	고려 중기	.
	연탄리3층석탑	중평읍 연탄2리	고려 중기	.
유교 유적	구계서원지	중평읍 남차리 산 9	조선시대	
	구암서원터	도안면 석곡리	1613년	.
	단 군 전	중평읍 중평리 347	1948년	중평군 향토유적 제1호(2004. 4. 30 지정)
	기 성 전	도안면 노암1리 159	1914년	중평군 향토유적 제2호(2004. 4. 30 지정)
	정 후 사	도안면 도당1리 767-3	1789년	중평군 향토유적 제3호(2004. 4. 30 지정)
	양무공사	중평읍 죽2리	1595년	중평군 향토유적 제4호(2004. 4. 30 지정)
	청 연 사	중평읍 남차1리	1992년	.
	안동김씨사	중평읍 남하1리 807	1805년	.
	연종록부부정효각	도안면 화성1리 91	1859년	.
	곡산연문 쌍효각	도안면 화성3리 174	1887년	.
	김창익 효자각	도안면 광덕리 310	1900년	.
	곡산연문 효열각	도안면 화성5리 312	1796년	.
	강릉유문 쌍열각	도안면 도당1리 216	1884년	.
	곡산연씨 열녀각	중평읍 용강3리 331	1892년	.



구 분		위 치	시 기	비 고
유교 유적	김환극부부정효각	증평읍 남하1리	1972년	·
	장용기부부정효각	증평읍 용강3리 547-1	1926년	·
	배극렴 묘와 신도비	증평읍 송산리 산28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98호 (1994. 12. 30 지정)
	연사종 묘와 신도비	도안면 화성리	조선시대	·
	연음 묘와 신도비	도안면 화성리 명암마을	조선시대	·
	청주 양씨 묘역	증평읍 증천동 산 38	조선시대	·
	신경행 묘와 신도비	증평읍 남차1리	조선시대	도 기념물 제132호 (2004. 9. 17 지정)
	연충수 묘와 묘갈	도안면 송정2리	조선시대	·
	김치 묘와 묘갈	증평읍 울리	조선시대	·
	김득신 묘소	증평읍 울리 산8-1	조선시대	증평군 향토유적 제6호(2004. 4. 30 지정)
고분 유적	노암리고분	도안면 노암리	미상	·
도요지 유적	송정리도요지	도안면 송정2리 칠송마을(통미)	조선초기	·
	울리도요지	증평읍 울리 점촌마을	조선후기	·
생가 유적	독립지사 연병호 생가	도안면 석곡1리 555	1910년	도 기념물 제122호 (2002. 1. 11 지정)
무형 문화재	대장장이 최용진	증평읍 중동 85-17	·	증평군 향토유적 무형 제1호(2005. 4. 24 지
	증평장뜰두레놀이	증평군 일원	·	정)
동·식 물	백로서식지	증평읍 덕상리	·	·
	보호수	느티나무, 은행나무, 버드나무 등	·	·

증평의 지정문화재(指定文化財) 가운데 국가지정문화재는 아직 없으며, 도 지정문화재는 유형문화재(有形文化財) 5점 · 기념물(記念物) 3점 · 문화재자료(文化財資料) 1점 등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는 증평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면적이 협소하고, 지역의 문화 유적에 대한 발굴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겠다.

여기에서 언급한 문화재 외에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수많은 문화재들이 있을 것이다. 특히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와 민속자료(民俗資料) 등은 정신적인 요소가 강하게 남아 있지만, 새로운 문화의 급속한 유입 속에 단순히 구태의연한 습관처럼 이해될 수 있어 그 중요성을 인식되지 못한 채 점차 사라져 가고 있을지도 모른다.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해서는 모두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문화재로서의 의미를 되살려야 한다. 새로이 발굴된 문화재나 혹은 아직 남아 있으나 점차 사라져 가고 있는 문화재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체계적인 보호 및 보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발굴해 우리의 전통 문화에 대한 명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문화재는 시간이 흐를수록 사라지는 것이므로 중요한 것은 지정해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밝혀지지 않은 중평의 문화유적과 유물은 지속적으로 발굴·연구해 체계화시켜 향토문화재(郷土文化財)로 인식시킴이 필요하며, 나아가 우리 민족 문화의 자긍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중평향토문화연구회의 끊임없는 노력은 향토의 사적·문화적 자취를 조사 연구해 발전시키고 지방문화의 선양발전과 보존을 위한 활동을 통해 일부 문화재를 지정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 제3절

## 제3절 중평군 문화재의 성격

중평지역의 문화유적은 이 지역의 향토문화재로서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발자취이자 인류의 문화유산으로서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소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중평의 문화사와 관련한 문화유적의 성격은 이미 알려져 있는 유형문화재나 기념물 등에 대해서는 편의상 유적을 중심으로 해 살펴보고, 이밖에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로서 중평 장뜰두레놀이와 전통기술의 명맥을 잇고 있는 전승 기능보유자인 대장장이, 그리고 기념물적 성격을 갖는 자연문화유산(自然文化遺産)으로서 동물의 서식지(棲息地)와 보호수(保護樹)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1. 선사유적(先史遺蹟)

중평지역은 금강(錦江)의 지류인 미호천(美湖川)의 상류지역으로서 주변에 넓은 평야가 발달한 지역이어서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찍이 선사시대(先史時代)부터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중평지역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선사시대의 유적들 가운데 아직 구석기시대 유적(舊石器時代遺蹟)은 확인된 바가 없다. 하지만, 구석기 유적이 전국에 걸쳐 조사되고 있고, 특히 주변의 미호천유역과 연결되는 주요 하천을 따라 청주 봉명동유적·오창 소로리유적·진천 장관리유적 등 우리나라 중부내륙

지방의 대표적인 구석기시대 유적이 발견된 바 있으므로 증평군 지역에서의 존재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증평지역의 신석기시대유적(新石器時代遺蹟)은 아직 확인된 바는 없다. 하지만, 증평에서 가까운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갈궁저리에서 채집한 빗살무늬 토기조각 1점이 확인된 바 있어 증평지역에서도 신석기시대의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많다고 할 수 있다.

증평지역의 청동기시대유적(靑銅器時代遺蹟)은 거석문화(巨石文化)로서 고인돌·선돌 등이 일부 남아 있는데, 지금까지 확인된 증평지역의 고인돌로는 도안면 송정리 고인돌이 유일한 것이며, 연촌리 저수지에도 고인돌이 수장(水藏)되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증평읍 죽리 및 도안면 광덕리에는 선돌이 남아 있다. 그리고 도안면 석곡리·광덕리 등지에도 입석이 있었다고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일찍이 이 지역도 거석문화(巨石文化)가 유행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평읍 연탄리에서는 마제석검(磨製石劍)이 발견된 바 있어 이 지역에서 청동기시대의 유적이 상당수 확인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알려져 있는 증평지역의 대표적인 선사시대유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송정리 고인돌

- 위 치 : 도안면 송정2리 355번지
- 규 모 : 가로 267cm, 세로 157cm, 높이 34cm
- 시 기 : 청동기시대
- 증평군 향토유적 제8호(2004. 4. 30 지정)

송정리 고인돌은 도안면사무소에서 충주방향으로 2km쯤 가다가 도안농공단지 4거리에 서 좌회전 해 1.5km를 가면 도안면 송정2리(통미) 칠송(七松)이 있던 언덕(통미마을 언덕제 제당) 바로 서남쪽 평지에 있는 김정수 씨 집안에 위치해 있다.

고인돌이 위치한 송정리 마을은 평야지대를 이루며, 칠송언덕 동쪽으로는 마을 진입로 옆으로는 보강천의 지류인 문암천과 연결되는 소하천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고 있다.

고인돌의 덮개돌은 화강암으로서 평편하고, 두께는 약 35cm 정도로 고르며, 평면 형태



도안면 송정리 고인돌

1) 우종윤, 1994, [금강유역의 선사유적·유물(1)] 『年報』2, 忠北大學校博物館.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308쪽.

는 사다리꼴의 부정형으로 동북쪽면의 외면에 땀질한 자국이 보인다. 덮개돌의 크기는 가로 267cm·세로 157cm이고, 남-북 방향이 장축(長軸)이며, 고인돌은 거의 없는 듯이 지표에서 조금 떠 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sup>1)</sup>

현재 이 집안에서는 여러 가지 일이 있을 때마다 고인돌에 소망이 이루어지를 기원하고 있다고 하며, 매년 대(代)를 이어가면서 정월에 고사(告祀)를 지내주고 있다.

고인돌은 청동기시대의 무덤(墓)이다. 이 고인돌은 중평지역 청동기시대의 대표적인 거석문화재로서 중요한 자료이다.

## 2) 광덕리 선돌

- 위 치 : 도안면 광덕리
- 규 모 : 아래 폭 40cm, 높이 90cm
- 시 기 : 미상

광덕리 선돌은 도안면 광덕1리(덕암)에서 청광마을 안천광 중평 쓰레기 매립장으로 가는 길 바로 옆에 1기가 위치해 있다.

선돌이 위치한 광덕리 마을은 완만한 구릉지대로서 주변지역이 평야지대를 이루며, 주변의 하천으로는 북쪽 백마령에서 발원(發源)하는 문암천이 남쪽 보강천으로 이어져 흐르고 있다. 이 선돌이 있는 뒤편 언덕에는 청주 한씨 가문의 묘소들이 위치해 있다.

광덕리 선돌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아래쪽의 폭은 약 40cm이고, 높이는 약 90cm 정도 노출된 남근형태의 모습이다.

선돌은 고인돌과 함께 거석문화의 일종으로 입석·선바우·수구막이·돛대바우·쫓바우 등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우리나라 선돌은 형태상 성별을 구분하기도 하는데, 윗부분이 둥글거나 네모난 것은 여성, 뿔죽하거나 삿갓모양은 남성을 상징하며, 이곳의 선돌은 형태상 남성으로 보인다.

선돌은 위치에 따라 기능을 구분하기도 해 고인돌과 함께 세워진 것은 묘표(墓標)기능, 논밭이나 얇은 구릉에 있는 것은 풍요상징, 마을 입구의 것은 벽사나 수구막이, 이정표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광마을의 입구에는 선돌(立石)이 4개가 있었다고



도안면 광덕리 선돌

한다. 선돌과 관련해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도사(道士)가 마을을 찾아 먹을 것을 요구하자, 청주 한씨는 먹을 것을 주지는 않고 거름을 퍼내며 박대했다. 도사는 돌아서면서 선돌을 세우면 한씨네가 매우 잘 될 것이라고 했고, 이를 들은 한씨네는 마을에 4개의 선돌을 세웠다. 선돌을 세우자 마을은 점차 쇠락해 가고 주민들도 하나둘씩 마을을 떠나 마을은 끝내 폐허가 되고 말았다”고 전하고 있다.

최근까지 이곳은 청주 한씨들이 살던 천광리 마을이었고, 이 선돌은 그 마을 앞에 있었던 것으로 천광리 주민들의 수호신(守護神)으로 벽사(僻邪)나 풍요(豐饒)를 기원했을 것이다. 그리고 옛날 이곳은 광덕리에서 사리면으로 가는 길목으로서 오고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했던 것으로 보인다.<sup>2)</sup>

2)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말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376쪽.

### 3) 죽리 선돌

- 위 치 : 증평읍 죽리
- 규 모
  - 남성선돌 : 아래 폭 45cm, 높이 120+60cm, 두께 20cm
  - 여성선돌 : 아래 폭 110cm, 높이 140cm, 두께 20cm
- 시 기 : 미상

죽리 선돌은 증평읍 죽리초등학교 북쪽 농로에 남성선돌 1기가 있고, 남쪽의 농로 옆에 여성선돌 1기가 있어 모두 2기가 쌍을 이루고 있다.

선돌이 위치한 죽리 마을은 증평에서 미원·조정으로 이어지는 평야지대로 주변의 하천으로는 북쪽 삼기저수지 쪽에서 발원하는 삼기천이 북쪽 보강천으로 이어져 흐르고 있다.

남성선돌은 화강암으로 크기는 아래쪽의 폭은 약 45cm이고 높이는 약 120cm 정도이나, 옆에 60cm 정도 높이의 박혀 있는 부분은 부러진 하단부로 보인다. 이곳의 선돌은 남자로 부르고 있으며, 남근(男根)의 모습이다.

여성선돌도 화강암으로 크기는 아래쪽의 폭은 약 110cm이고, 높이는 약 140cm 정도 돌출되어 있다. 이곳의 선돌은 여자로 부르고 있으며, 평평한 판석으로 되어 있다.

이 선돌은 죽리 주민들의 수호신으로 귀신을 물리치고 풍요를 기원했을 것이다.



증평읍 죽리 선돌(♂선돌)

그리고 옛날 이곳은 증평에서 미원 방면으로 가는 길목으로 오고가는 사람들의 안녕과 복을 기원한 것으로 보인다.

#### 4) 연탄리 출토 석검(石劍)

- 위 치 : 증평읍 연탄리
- 시 기 : 청동기시대



마제석검(증평읍 연탄리)

증평읍 연탄리 마을에서 1977년 8월 6일에 마제석검이 출토된 바 있어 주변지역의 송정리 고인돌 등과

같이 증평지역의 청동기시대 문화를 보여주고 있다.

출토된 석검의 재질은 흑색 혈암제(頁岩製)이고, 크기는 길이 26cm이다. 일단병식(一段柄式)의 작은 검으로 검끝이 약간 떨어져 나갔으나 완형에 가깝다. 검끝에서 자루까지 능각(稜角)을 세웠으며, 봉부(鋒部)는 형성되지 않아 검날에서 자루로 이어진다. 검자름면은 마름모형이고 자루면은 육각형이다.

출토된 마제석검(磨製石劍)은 현재 국립청주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sup>3)</sup>

3)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17쪽.

## 2. 관방유적(關防遺蹟)

관방(關防)은 군사적 방어를 위한 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길이 모이거나 고갯길 등의 교통상의 요충지를 막아 지키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직접적인 군사적 방어시설로 성곽(城郭)을 들 수 있으며, 영토국가가 생겨나기 이전의 방어시설인 목책(木柵)이나 토루(土壘) 등을 비롯해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토목 시설을 구축한 것을 총칭하기도 한다. 그리고 군사적 통신시설로서 전통사회에서 운용되던 것으로 봉수(烽燧), 그리고 교통과 숙박을 위한 시설인 원(院)·역(驛) 등을 비롯해 교통로와 관련한 도로와 고갯길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지금의 증평군 증평읍(曾坪邑)과 도안면(道安面) 지역은 이미 삼한시기(三韓時期)에 정치세력이 성장해 삼국시대 초기에는 백제의 주요한 남방지역으로 되었다고 여겨지고, 고구려가 5세기 말부터 6세기 중엽까지 세력을 확장했을 때에는 고구려의 한 영역으로서 금물노군(今勿奴郡)에 속했다가, 신라의 북진정책 이후에는 경덕왕(景德王) 16년(757)에 각각 청연현(淸淵縣)과 도서현(都西縣)으로 흑양군(黑壤郡)에 속했다. 그리고 고려시대 태조 23년(940)에는 각각 청당현(淸塘縣)과 도안현(道安縣)으로 바뀌고, 현종 9년(1018)에는

청주목(淸州牧)에 속했다. 조선시대 태종 5년(1405)에는 청당현(淸塘縣)과 · 도안현(道安縣)은 백성이 적고 땅이 좁은 이유로 청안현(淸安縣)으로 통합되었다.

고대의 증평지역은 남북선상에서 상주 - 보은 - 미원 - 증평 - 진천 - 천안으로 이어지는 주요 교통로이며, 고려시대에는 청주 - 시화역(옛 도안현) - 충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교통의 요충지였다.

증평지역에는 역대 지리지에 기록되어 있거나 현존하는 성곽으로 중심지역에 이성산성(二城山城)이 위치해 있으며, 진천군 지역과 경계를 이루는 보다 높은 곳에 위치한 두타산성(頭陀山城)이 있다.

이성산성은 1993년 충청전문대학에 의해 지표조사가 되어 정확한 위치와 현황이 학계에 보고 되어진 바 있는데, 남성(南城)과 북성(北城) 등으로 각각 구분되어 있으면서 남성과 북성은 내성(內城) · 외성(外城) · 자성(子城) 등이 복합된 복곽구조(複廓構造)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런데 이와 같은 복곽구조(複廓構造)의 산성은 충청북도 지역의 고대 산성으로서는 가까운 진천(鎭川)지역의 대모산성(大母山城)이나 청원 부용면의 남성골산성(南城谷山城) 등 고구려(高句麗) 유물이 발견되는 산성에서 보이는 특징이기도 하며, 중세 후기의 주요 해안(海岸) 읍성(邑城) 등에서도 보이는 특징이기도 해 주목된다.

최근의 문화재조사 연구 추세에 비추어 보면 아주 희미한 토루(土壘)등의 자취가 하나의 산줄기에서도 여러 유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기저기서 보고 되고 있는데, 증평군의 주변지역 산봉우리 등에 대한 정밀한 조사를 실시한다면 더 많은 관방 관련의 유구가 찾아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증평지역내에 봉수(烽燧)는 없으며, 시화역(時和驛)이 역원(驛院)으로 기록돼 남아 있다. 시화역은 지금의 증평읍 미암리 일대로 추정되며, 적어도 지금의 도안지역이 중심이 되었던 고려시대 이전에는 성립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증평읍 죽2리 원평일대 지역은 원(院)과 관련한 지역으로 추정될 뿐이다. 대체로 우리나라의 역(驛)은 이미 신라(新羅)에서 시작되어 고려(高麗)를 거쳐 조선(朝鮮)으로 이어지면서 원(院)과 마찬가지로 조선전기까지 성황을 이루다가 임진왜란 이후 쇠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 유적은 간혹 지표에서 발견되는 기와조각과 토기편 및 자기편 등의 분포를 보아 위치가 추정되므로 추후 구체적인 확인을 위한 시굴 등의 조치에 의해 위치를 확인하고 보존이 가능한 유적은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방 분야에서는 도로와 고갯길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었으나, 현재의 도로가 옛 도로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으며, 앞장의 인문 환경 분야의 도로와 환경에서 다루었으므로 여기에서는 제외하였다.

## 1) 이성산성(二城山城)

- 위 치 : 증평읍 미암리와 도안면 노암리의 경계
- 규 모 : 남성(南城) 1,411m 북성(北城) 429m
- 시 기 : 삼국~고려
- 증평군 향토유적 제7호(2004. 4. 30 지정)



이성산 토성

이성산성은 도안면 노암리와 증평읍 미암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해발 259.1m의 이성산(추정산) 정상에 축조된 토성(土城)으로 각각 독립된 형태로 축조되어 정상부(해발 259.1m)에 위치한 북성(北城)과 남쪽으로 400m 떨어진 곳(해발 242m)에 축조된 남성(南城)이 나란히 평면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성산성과 연결되는 교통로는 북쪽으로 두타산 연봉의 곡부를 통해 진천·천안·안성 등의 육로로 연결되며, 동쪽은 백마령을 넘어 지금의 괴산·음성·충주 등의 육로로 연결되고

있다. 서쪽으로는 금강수계의 미호천(美湖川)유역 상류지역에 해당해 주변에는 미호평야가 펼쳐져 있어 증평·청주·조치원·공주 등으로 연결되고, 남쪽으로는 미원·보은·상주로 이어지는 전략적 요충지이기도 하다.

북성(北城)은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8부에서 9부 능선상에 축조된 2중의 테포식 산성으로서 내성과 외성, 그리고 외성에 덧붙여 두 개의 자성(子城)이 있는 4중 구조이다. 북성의 평면형태는 장방형에 북고남저, 동고서저의 지세를 하고 있으며, 내성은 반월형이고 외성은 내성과 붙은 벽을 빼면 “ㄷ”자형이다. 내·외성에 붙은 부분을 제외한 북성의 전체둘레는 429m이고, 내성이 219m, 외성이 310m이며, 내외성의 공유벽은 100m이다. 외성의 자성은 각각 101.8m, 98.8m 정도이다.

남성(南城)은 산의 정상부를 중심으로 7부에서 9부 능선상을 감아 돌면서 축조되었으며, 산의 정상부를 에워싼 테포식 산성과 지형상으로 계곡을 포함해 가지능선을 연결하는 포곡식(包谷式)산성이 복합된 산성으로서 전체적으로 불가사리 모양의 부정형이다. 내성과 외성을 갖춘 2중 구조로 내성이 741m, 외성이 1,052m이고, 내·외성에 붙은 191m를 제외한 전체 둘레는 1,411m이다.

이성산성의 체성(體城) 구조는 남성과 북성에 모두 곡성(曲城)구조가 있으며, 특히 남성에는 체성의 보호를 위해 보축한 상태가 보이고 있다. 남성 남서



부의 외성벽을 제외하고 대체로 높이 1.5m, 폭 1.5m이며, 성기(城基)에 판축(版築) 또는 잡석(雜石)을 넣지 않은 순수 토루(土壘)이다.<sup>4)</sup>

이성산성이 위치한 산의 이름은 유성산(楡城山)·니성산(尼聖山)·이성산(二城山)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는데, 이 산성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청안현(淸安縣) 산천조(山川)에 유성산이 청안현 서쪽 20리에 있다는 기록이 있다.<sup>5)</sup> 이것은 이후 『여지도서(輿地圖書)』나 『대동지지(大東地志)』에도 그대로 이어져, 『대동지지(大東地志)』에는 도안의 유성산에 옛 성이 남아 있다고 전하고 있어 조선시대까지는 유성산으로 불리웠음을 알 수 있다.<sup>6)</sup> 일제강점기의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미암리 동방 니성산(尼聖山)에 있으며, 토축(土築)으로 기록되어 있다.<sup>7)</sup> 그리고 이성산이란 것은 이 산에 두개의 성이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성산성은 지금의 청주·청원지역에 처음 백제가 진출했을 시기인 3세기 후반경 초기 백제시대에 처음으로 축조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5세기 후반경 고구려의 진출에 의해 삼국의 접경지대를 이루었고, 6세기 중반에 신라가 차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산성 주변은 5세기 후반부터 6세기 중반까지 삼국이 첨예하게 대립하던 지역으로서 백제는 청주·문의지역, 고구려는 도안(증평)·괴산·진천지역, 그리고 신라는 보은 등지를 차지했던 것으로 보이며, 이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삼국사기(三國史記) 지리지 등의 분석을 통해 지금의 도안(道安)지역은 고구려의 도서현(道西縣)이 있었던 곳으로 기록되어 있어 도서현성을 이성산성에 비정하기도 한다.<sup>8)</sup> 그리고 김정호는 『대동지지(大東地志)』에서 이성산성을 도안고성(道安古城)으로 비정하기도 하였는데<sup>9)</sup>, 이는 고려시대 초기에 도안현으로 개칭된 사실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

## 2) 두타산성(頭陀山城)

- 위 치 : 도안면 연촌리
- 규 모 : 둘레 913m, 높이 1.2m, 폭 2.7m
- 시 기 : 삼국~고려

두타산성은 도안면 연촌리와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신통리의 경계를 이루는 두타산의 정상(해발 598m)에 걸쳐 위치해 있는 석축(石築)의 산성이다. 이 산성은 증평군 도안면 연촌리에 걸쳐 있다고 해 ‘연촌리 산성’이라고도 하며, 두타산에 있기 때문에 ‘두타산성’이라고 한다. 그리고 현재는 문화유적 지표조사 관련 보고서 등에서 상세히 다루어져 있다.<sup>10)</sup>

4) 충청전문대학박물관, 1997, 『曾坪 二城山城』

5) 『新增東國輿地勝覽』 淸安縣 山川, 6) 『輿地圖書』·『大東地志』

7)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8) 민덕식, 1983, [高句麗道西縣城考] 『사학연구』 36.

9) 『大東地志』

10) 진천군, 1998, 『鎭川郡의 文化遺蹟』, 138~139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256쪽.



두타산성 원경

- 11) 『新增東國輿地勝覽』, 淸安縣 山川.
- 12)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90쪽.
- 13) 이원근, 1975, [三國時代 山城 研究](단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14)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77, 『文化遺蹟總覽』.

이 산성은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진천 동쪽 20~21리의 청안 경계에 있고, 산 위가 오목하고 그 안에 샘이 있어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1)</sup> 일제강점기의 조사자료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괴산군의 성지(城址)에서 도안면 연촌리에 있는 산성으로 기록되고, 진천군 성지에서는 초평면 영구리와 신통리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으며, 모두 괴산과 진천의 두 군에 걸쳐 있는 산성으로 둘레 500간 · 높이 4척 · 폭 9척으로 절반

이상이 무너진 상태라고 해 같은 산성임을 알 수 있다.<sup>12)</sup>

이원근은 두타산성의 둘레는 913m · 높이 1.2m · 폭 2.7m 정도의 석성(石城)으로 남문과 동문자리가 확인되었으며, 성안에서는 삼국시대의 경질토기와 통일신라시대 및 고려시기의 토기편이 수습되었다고 했다.<sup>13)</sup> 『문화유적총람(文化遺蹟總覽)』에는 영구리와 신통리 경계에 위치해 주위 900m의 석축으로 높이 약 1.2m, 폭이 약 2.7m가 잔존하나 거의 황폐되었다고 했으며,<sup>14)</sup> 이후 대부분의 기록은 이전의 기록을 그대로 따라 통용되고 있다.

두타산성과 관련된 전설에 의하면 신라의 장군 실죽(實竹)이 성을 쌓고 백제군을 막았다고 한다. 실죽은 신라 소지왕 8년(486)에 이찬(伊飡)에 임명되어 보은의 삼년산성(三年山城)과 청산의 굴산성(屈山城)을 고쳐 쌓았으며, 동왕(同王) 16년(494년)에는 살수(청천) 전투에서 고구려군과 맞서 싸운 인물이다.

### 3) 시화역터(時和驛址)

- 위 치 : 증평읍 미암리 시화마을
- 시 기 : 고려~조선



시화마을 이정표

시화역터는 증평읍 청사에서 보강천을 경유해 동북쪽으로 약 2km 떨어진 미암리 시화마을에 해당한다.

지금의 시화마을은 시화역이 있었던 것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보인다. 시화라는 이름은 ‘때때로 변한다’는 뜻에서 붙여졌다고 전해지고 있으며, “이 마을에는 옛날에 동헌(東軒)과 시장(市場)이 있었던 곳이며, 지금의 삼거리에 옥(獄)이 있었고, 각처에는 말 때문에 역마촌(驛馬村)을 이루고 있었다”고 전해져 온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에는 “시화역은 고을 서

쪽 17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고 하고,<sup>15)</sup> 『청안군읍지(淸安郡邑誌)』에는 시화역은 고을 서쪽 17리로 율봉역(栗峯驛)에 속했다고 했다.<sup>16)</sup>

시화역터의 바로 동쪽은 이성산성(二城山城)이 위치해 있으며,<sup>17)</sup> 주변의 경작지에서는 고려시대의 기와편 및 자기편 등이 다량으로 산포되어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구전(口傳)과 지표조사(地表調査)등을 통해 원래의 위치를 확인하고, 안내판을 설치해 유적현장을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이다.

### 3. 불교유적(佛敎遺蹟)

증평군 지역은 불교사(佛敎史)에 있어서 불교신앙의 중심지라고는 말할 수는 없으나, 지금도 남아 있는 불교유적들을 고려하면 적어도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는 하나의 거점이 되어 나름대로 불교(佛敎)가 성행하면서 지방 민에 의해 숭상되어 불교신앙이 어느 정도 수준을 영위했던 것으로 보인다.

증평군 지역의 불사는 대부분 폐사되어 현재 남아 있는 것은 없으며, 대부분 불상(佛像)이나 석탑(石塔) 등이 현재 전해져 내려올 뿐이다.

대표적인 절터(寺址)로는 광덕사지(光德寺址)·남하리사지(南下里寺址)·미암리사지(彌巖里寺址)·율리사지(栗里寺址)·연탄리 사지(連灘里寺址) 등을 들 수 있으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다수의 절터가 존재할 것으로 여겨지나 조사가 미진한 실정이다.

이들 절터는 구체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이름이나 기록이 없이 단지 석탑이나 불상 등의 조형물이 남아 있을 뿐이며, 그 중에서 일부는 도 문화재(道文化財)로 지정되었다.

증평지역의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불교 유적을 단적으로 말할 수 없는 실정이다. 남하리 마애삼존불의 본존불이 취하고 있는 통인(通印)의 수인(手印)은 6세기 후반에 조성된 근교의 청원군 북일면 비중리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이나 비중리 석조여래입상의 수인을 그대로 따르고 있어 주목되지만, 지금까지의 조사연구성과 등은 남하리 마애불상군의 경우 대략 9세기경에서 10세기 초를 즈음해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불적(佛蹟)은 주로 고려시대에 집중되어 있다.

증평군 지역은 고대로부터 내려오는 교통로상의 중요 거점지역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불상들은 주로 교통로상의 한 구석에 분포되어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에 분포하는 석조보살입상(石彫菩薩立像)들은 고려 초기에 충청지역에서 미륵사상과 함께 유행하는 거불계통(巨佛系統)의 불상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충청북도 지역의 거불들은 대개가

15) 『新增東國輿地勝覽』  
淸安縣 驛院.

16) 『淸安郡邑誌』驛院.

17) 충청전문대학박물관,  
1997, 『曾坪 二城山城』, 13쪽.

라말려초(羅末麗初)에 각 지방에서 득세했던 호족(豪族)들과 관련되어 조성되었던 것들로 충주의 미륵리사지의 석불입상을 비롯한 지금의 5번 국도를 따라 연결되는 석불입상이나, 청주 용화사의 석조보살입상을 들 수 있다.

증평군의 불적(佛蹟)들은 파손이나 도난에 위험하게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보호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점차 복원 정비를 필요로 하는 것들이라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절터(寺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이들 절터에 남아 있는 불상 및 석탑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겠다.

## 1) 불상(佛像)

### (1) 광덕사 석불입상(光德寺 石佛立像)

- 위 치 : 도안면 광덕리 산 21-2
- 규 모 : 높이 3.98m
- 시 기 : 고려 초기(10세기경)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75호 (1980. 11. 13 지정)

18)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광덕사 석불입상

광덕사 석불입상은 도안면 소재지에서 충주 방면 36번 국도를 따라 가다 도안농공단지 입구에서 1km 쯤 접어들어 도안면 광덕2리 마을회관에서 약 700여m 쯤 더 들어서면 농경지를 지나 외딴 곳에 광덕사(光德寺)라는 작은 절의 경내가 위치해 있다.

지금의 광덕사(光德寺)는 1949년 이묘연(李妙蓮) 보살이 석불의 몽조(夢兆)를 얻어 석불 옆에 3칸의 암자(庵子)를 짓고 마을의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이라고 하며, 광덕사 석조여래입상(光德寺 石造如來立像)의 명칭도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라고 한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탑(塔)과 불상(佛像)을 거론해 도안면 광덕리 덕암리 마을의 남방 약 100간에 있는 석탑은 훼손(毀壞)되어 기초부는 종횡 각 2척이고, 석불의 높이는 12척으로 안면의 길이는 4척으로 되어 있다고 했다.<sup>18)</sup>

이 석불입상은 지름 1.84m · 높이 0.83m의 둥근 연화대좌(蓮花臺座)위에 서 있으며, 높이는 3.15m이다. 불두(佛頭)는 넓은 얼굴에 코가 크고, 두 귀는

긴 편이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소발(素髮)의 머리에 육계가 있고, 미간에는 백호(白毫)가 표현돼 있다. 불신(佛身)은 얼굴에 비해 짧은 편이고,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팔에 걸쳐 있으며, 배 아래로 활모양의 주름이 조각돼 있다. 오른손은 가슴으로 올려 외장(外掌)하고 왼손은 배 위에 붙이고 내장(內掌)했다.<sup>19)</sup>

이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坐像)은 전체적인 조각수법이나 규모의 장대함 등으로 보아 대략 10세기 전후인 신라 말기 내지는 고려 초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평지역에 있는 다른 불상들과의 양식적인 관련성과 신앙형태에 대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불두(佛頭)의 턱과 귀로 이어지는 부분에 균열이 발생해 시멘트로 보강되고, 이마 부분에 철띠가 둘러져 있다. 밑에는 콘크리트로 시공해 발 모양을 확인할 수 없다.

## (2)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南下里寺址 磨崖佛像群)

- 위 치 : 증평읍 남하리 산 35-2
- 규 모 : 높이 2.11m~2.98m
- 시 기 : 신라 말~고려 초(9세기 말~10세기 초)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7호(1998. 12. 31 지정)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南下里寺址 磨崖佛像群)은 증평읍 남하3리 염실마을 뒤편의 남대산을 배경으로 동향해 자리잡은 '탐동 마을' 서편의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마애불상군은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그리 흔치 않은 삼존불(三尊佛)과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의 형식을 비롯해 여래입상(如來立像)을 한 곳에 모아 놓은 불상군(佛像群)이다. 화강암벽의 3면에 모두 다섯 구(軀)의 불상이 새겨져 있는데, 앞면에 본존불(本尊佛)과 좌우 협시불(脇侍佛)의 삼존불을 두고 왼쪽에 여래입상(如來立像), 오른쪽에 반가사유상(半跏思惟像)이 배치돼 있다. 이곳 다섯 구의 마애불상 모두 원만자비형(圓滿慈悲形)의 상호(相好)와 당당한 체구를 보여주고 있고, 목에는 삼도(三道)가 모두 생략되어 있다. 이 불상군은 전체적인 조각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대략 9세기경에서 10세기 초를 즈음해 같은 시기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마애삼존불의 본존불이 취하고 있는 통인(通印)의 수인(手印)은 6세기 후반

19) 충청북도, 1982, 『寺誌』, 458~459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2~89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43~44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 十年史』, 285~286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22~123쪽.



남하리사지 마애불상군

20) 충청북도, 1982, 『寺誌』, 477~478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4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45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 十年史』, 291~292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27~128쪽.

21)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하는 근교의 청원군 내수읍 비중리 일광삼존불(一光三尊佛)이나 석조여래입상(石造如來立像)의 수인(手印)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삼존불의 중앙 본존불 아래 바닥에는 사각형의 우물을 파 놓았고, 그 주위에는 각종 불기(佛器)가 놓여 있어 지금도 기도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삼존불의 왼쪽에 있는 여래입상은 남대산으로 오르는 길에 인접해 있으며 하단부는 땅 속에 묻혀 있다.

마애삼존불 입상(磨崖三尊佛立像)이 새겨진 암면의 앞쪽에는 우협시불(右脇侍佛)앞에서 직각으로 꺾이어 돌출한 바위 북쪽면의 수직으로 단절된 편편한 면에 반가사유형(半跏思惟形)의 마애불(磨崖佛)이 조각되어 있다. 삼존불 측에서 이 반가상을 보면 우측에 시위(侍位)한 듯한 배치라 하겠으나, 형상으로 보아서는 독립된 마애불상으로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곳에는 1954년 암자(庵子)가 있었으나, 지금은 마애불상군(磨崖佛像群)과 20m 가량 떨어진 곳에 남하리 삼층석탑(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41호)이 위치해 있다.<sup>20)</sup>

### (3)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彌巖里寺址 石造觀音菩薩立像)

- 위 치 : 증평읍 송산리 산1-5
- 규 모 : 높이 2.6m
- 시 기 : 고려 중기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98호 (1998. 12. 31 지정)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

미암리사지 석조관음보살입상(彌巖里寺址 石造觀音菩薩立像)은 증평 시가지에서 보강천을 건너 서북쪽으로 약 2km쯤 떨어진 미암1리 미륵댁이 마을의 미륵사라는 전통사찰 경내의 300여년 된 느티나무 아래 있으며, 보호각이 세워져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증평면 미암리마을에 있는데 높이 8척 5촌이고, 어깨의 폭은 2척, 머리부의 길이는 2척 3촌의 석불로 완전하다고 했다.<sup>21)</sup>

이 불상은 높이 2.6m로 얼굴이 넓으며, 머리에는 화불을 양각한 보관(寶冠)을 쓰고, 이마의 눈썹 사이에 백호(白毫)가 양각되어 있고, 목 부분에는 삼도(三道)가 선명하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양팔에 걸쳐 배 아래로 흘러내려 활모양의 주름을 어깨에 걸쳐 옆으로 내려졌고, 연꽃을 쥔 오른손은 가슴으로 올렸으며, 왼손은 배 위에 붙여 내장(內掌)했다. 현재

두발이 땅 밑에 묻혀 있고, 시멘트로 목부분을 보강해 놓았으며, 보살입상 앞에는 길이 1.23m, 폭 0.57m, 두께 0.12m의 화강암 배례석(拜禮石)이 놓여 있다.<sup>22)</sup>

보관 위에 놓여졌던 보개석(寶蓋石)으로 추정되는 6각형의 석재가 보호각 앞의 느티나무 밑에 있었으나, 1993년 5월에 잃어버렸다고 한다.

보관의 화불이나 옷무늬, 상호 등의 조각수법으로 보아 고려시대 중엽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평지역에 남아 있는 다른 불상들과의 양식적인 관련성과 신앙형태에 대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이 불상은 마을의 수호불(守護佛)로 보호하고 매년 마을제로 불공을 드려오고 있으며, 이로 인해 '미륵댕이'라는 마을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의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문화재로서 보존관리가 필요함을 각계에 인식시킴으로 1998년 12월 31일 도 유형문화재 제198호로 지정되었다.

#### (4)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南下里 石造彌勒菩薩立像)

- 위 치 : 증평읍 남하2리 133-5
- 규 모 : 큰 불상 높이 3.5m, 작은 불상 1.3m ~ 1.5m
- 시 기 : 고려 초기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208호 (2001. 7. 13 지정)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군(南下里 石造彌勒菩薩立像群)은 증평 시가지에서 청원군 초정 방면으로 가다 남하2리 미륵마을의 논과 밭 사이 공터에 위치해 있다.

이중 가장 큰 불상은 아랫부분이 땅 밑에 묻혀 있어 정확한 크기를 알 수 없으나 현재 땅 위에 노출된 높이는 3.5m이다. 머리에는 관대가 있는 비교적 높은 보관(寶冠)을 썼는데, 두 귀 위에 장방형의 홈이 있어 보관(寶冠)에 장식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크고 원만한 상호에는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으며, 이마의 눈썹 사이로 백호(白毫)가 양각돼 있다. 두 귀는 길며, 목에는 삼도(三道)가 있다. 수인(手印)은 오른손을 배 위에 붙여 외장(外掌)하고, 왼손은 가슴 앞으로 올려 연꽃을 잡고 있다. 양쪽의 팔목에는 팔찌를 끼고 있어 주목된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두 팔에 걸쳐 흘러내려 배 아래에서 활모양의 주름이 조각돼 있다. 옷무늬의 조각양식이나 수법 및 규모의 장대함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시대 초기 10세기 때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증평지역에 남아 있는 다른

22) 충청북도, 1982, 『寺誌』, 479~480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44쪽./ 증평문화원, 2003, 『앞책』, 293~294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28~129쪽.



남하리 석조미륵보살입상

23) 충청북도, 1982, 『寺誌』, 478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44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十年史』, 295~296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30~131쪽.

불상들과의 양식적인 관련성과 신앙형태에 대한 연구자료가 되고 있다.

왼쪽에 세워져 있는 두 구의 작은 불상들은 현재의 위치가 본래의 자리였는지 알 수 없으며, 얼굴 등에 시멘트가 덧붙여 있는 등 원형이 훼손돼 있다.

마을의 구전에 따르면 “예전 이곳에서 가까운 절에 보살이 있었는데 자신의 절이 미륵불 때문에 번창하지 못한다고 오해하고 이 불상들을 넘어뜨려 오랫동안 쓰러진 채 방치돼 있었다고 했다. 그리고 작은 불상들은 1949년 속리산 법주사의 윤월인(尹月印)스님이 이 마을 뒤편 골짜기에 성주사(聖住寺)라는 절을 짓고, 마을주민들의 협조로 쓰러진 불상을 세웠으나 보관(寶冠)은 찾지 못했다”고 한다.

마을 주민들은 이들 불상들을 마을의 수호불(守護佛)로 보호하고 불공을 드리고 있으며, ‘미륵마을’이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생겨났다고 한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의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문화재로 보조관리가 필요함을 각계에 인식시킴으로서 2001년 7월 13일에 도 유형문화재 제208호로 지정되었다.<sup>23)</sup>

#### (5)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栗里 石造觀音菩薩立像)

- 위 치 : 증평읍 율리 77-2
- 규 모 : 높이 2.1m
- 시 기 : 1704년
- 충청북도 문화재자료 제36호(2002. 3. 15 지정)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

율리 석조관음보살입상(栗里 石造觀音菩薩立像)은 증평 시가지에서 청원군 초정 방면으로 503번 지방도를 따라 가면 증평읍 율리에 위치해 있다.

이 불상은 율리 마을 앞의 들판에 있던 석조물인데, 1979년에 율리 저수지가 건설되면서 수몰되자 지금의 위치인 저수지 서편 언덕으로 옮겨졌다. 당시 보살입상(菩薩立像) 밑에서는 지석(誌石)이 출토되었는데, “대시주(大施主) 서정민(徐丁民) 서경술(徐京戌) 석수(石手) 박노적(朴老赤) 박성립(朴成立) 화주(化主) 한두성(韓斗星) 송정후(崇禎後) 갑신년(甲申年) 10월(十月) 일(日) 입(立)”이라는 지석(誌石)의 기록으로 보아 보살입상은 조선 숙종 30년(1704)에 조성된 것으로 보여 진다.

화강암으로 다듬어진 보살입상은 높이 2.10m로 불신(佛身)은 육중하며, 머리에는 보관(寶冠)을 쓰고 있다. 상호는 마멸이 심해 원형을 알 수 없고, 귀는 어깨에 닿았고, 목에는 삼도(三道)



가 없다. 오른손은 손바닥을 밖으로 하고 위로 들어 가슴에 얹은 시무외인(施無畏印)이고, 왼손은 아래로 늘어뜨린 여원인(與願印)의 수인(手印)을 하고 있다. 법의(法衣)는 통견(通肩)으로 활모양의 주름을 하고 있는데, 허리에 띠를 두른 듯하다.<sup>24)</sup>

## (2) 석탑(石塔)

### (1) 남하리 3층석탑(南下里 三層石塔)

- 위 치 : 증평읍 남하리 산 35-2
- 규 모 : 높이 1.65m
- 시 기 : 신라 말~고려 초(9세기 말~10세기 초)
-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 141호 (1984. 12. 31 지정)

남하리 3층석탑(南下里寺址 三層石塔)은 증평읍 남하리 3리 염실마을 뒤편의 남대산을 배경으로 동향해 자리잡은 ‘탑동 마을’ 서편의 산기슭에 위치해 있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인『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탑을 언급하면서 증평면 남하리 염곡(廉谷)의 북서쪽 약 400간의 거리의 계곡에 있는 석탑은 3층으로 높이는 10척이며, 완전하다고 했다.<sup>25)</sup>

이 석탑은 4.4m 3.4m 1.7m 크기의 자연 암반 위에 한 면의 길이 1.8m · 높이 0.35m의 네모난 대석(臺石)을 기반으로 삼은 높이 1.65m의 3층 석탑으로서 탑신부(塔身部)와 상륜부(上輪部)의 노반(露盤)이 남아 있다.

이 석탑 대석의 하면에는 자연 석재를 끼워 수평을 맞추었으며, 대석의 윗면이나 옆면은 물론 탑신(塔身)에는 우주(隅柱)와 탕주(撐柱)등 아무런 조각이 없어 단조로움을 주고 있다. 1층 탑신의 한 모서리 위에는 암석에서 돌을 쪼아 낸 흔적이 남아 있고, 1층 탑신에 비해 2층 탑신의 높이가 급격히 낮아졌다.

이 석탑의 2층 탑신과 1층 옥개석은 하나의 돌로 조성했으며, 나머지 부분의 탑신과 옥개석은 각각 하나의 돌로 조성했다. 1층(層) 탑신(塔身)의 크기는 너비 80cm · 높이 60cm이다. 1층 옥개석은 3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너비 134cm · 높이 53cm이며, 2층탑신은 1층에 비해 높이가 급격히 낮아져 크기는 너비 61cm · 높이 29.5cm이다. 2층 옥개석은 3단의 받침을 마련하고 너비 114cm · 높이가 50cm이다. 3층탑신은 크기가 너비 45cm · 높이 25.5cm이며, 3층 옥개석은 3단의 받침을 마련해 너비 94cm · 높이가 43cm이다. 3층옥개석 상면의 노반은 너비 30cm · 높이 25cm이며, 지름이 9.5cm의 찰주공(擦柱孔)이 3층 탑신에 이르

24) 충청북도, 1982, 『寺誌』, 480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4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45~46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33~134쪽.

25)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남하리 3층석탑

- 26) 충청북도, 1982, 『寺誌』, 477~478쪽./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8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50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 十年史』, 287~289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23~124쪽.

기 까지 관통되어 있다.

이 석탑은 옥개석의 낙수면이 평탄하고 전각(轉角)의 반전이 약하며, 2층 탑신과 1층 옥개석이 일석으로 조성된 점, 탑신(塔身)에 우주(隅柱)가 조각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고려후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남하리 3층석탑은 1994년 충청전문대학 박물관의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며, 고려시대에 인근의 염곡소(焰谷所)에서 많은 불을 다루면서 청안 남쪽의 높아지는 화기(火氣)를 누르고, 마을의 화재와 주민들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산천비보사상(山川裨補思想)에 의해 건립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을 주민들에 따르면 가뭄이 심하면 이 노반의 방향을 다르게 놓아 비가 오기를 기원했다고 한다.<sup>26)</sup>

## (2) 율리 3층석탑(栗里 三層石塔)

- 위 치 : 증평읍 송산리 253
- 규 모 : 높이 1.6m
- 시 기 : 고려 중기



율리 3층석탑

율리 3층석탑(栗里 三層石塔)은 증평 시가지에서 청원군 조정 방면으로 503번 지방도를 따라 가면 증평읍 율리에서 동북쪽 계곡을 따라 약 2km 쯤 들어서면 절골이란 마을 뒤편 구석산(龜石山)의 구석사(龜石寺)터에 3층석탑의 탑재가 흩어져 있었으나, 현재 증평향토자료전시관에 전시되어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청안현(淸安縣) 불우(佛宇)조에는 “구석사는 좌구산(座龜山)에 있다. 세상에서 전해지는 말에, 이 고을을 세웠을 때 남쪽 산이 높은 것을 꺼려 이 절을 세우고 수족(水族)의 신인 거북의 이름을 따서 구석이라 했다는 조희(曹繪)의 기록이 있다(龜石寺在座龜山 世傳 建邑初 忌離山之鼓 取水族之賢者 而名龜石 有曹繪記)”라고 기록되어 있다.<sup>27)</sup>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사지(寺址)와 탑(塔)을 언급해 구석산 국유

림의 율리에 있으며, 전(田)으로 변해서 반 헥서 깨진 석탑이 있다고 했다.<sup>28)</sup>

이탑은 복원하는 과정에서 본래의 모습을 잃었다. 높이 1.6m이며, 기단(基壇)의 갑석(甲石)과 1층 탑신(塔身)·옥개석(屋蓋石), 2·3층 옥개석(屋蓋石)이 남아 있을 뿐이며, 상륜부(上輪部)는 결실되었다.

27) 『新增東國輿地勝覽』 淸安縣 佛宇.

28)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1쪽.

기단갑석(基壇甲石)은 복련(伏蓮)의 연판(蓮瓣)을 조각하고 고임을 마련했으며, 너비 68cm · 높이 16cm이다. 1층 탑신(塔身)은 우주(隅柱)가 조각되어 있으며, 너비 40.5cm · 높이 20.5cm이고, 옥개석(屋蓋石)은 3단받침에 고임을 마련했으며, 너비 80cm · 높이 30.2cm이다. 2층 옥개석은 3단의 받침에 고임을 마련했으며, 너비 67cm · 높이 28.3cm이다. 3층 옥개석(屋蓋石)은 3단의 받침에 고임을 마련했으며, 너비 51cm · 높이 17cm이다.

이 탑은 옥개석(屋蓋石)의 전각(轉角)이 파손됐으나, 기단갑석(基壇甲石)의 복련(伏蓮) 등에 보이는 조각수법 등으로 미루어 보아 고려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29)</sup>

### (3) 연탄리 3층석탑(連灘里 三層石塔)

- 위 치 : 증평읍 연탄2리 (탑선)
- 규 모 : 높이 1.3m
- 시 기 : 고려 중기

연탄리 3층석탑은 증평읍 연탄2리 탑선마을과 공병부대 사이의 34번 국도에서 100m 쯤 떨어진 밭 가운데 위치해 있다.

이 탑은 마을 주민들이 밭 주변에 나뒹굴고 있던 탑재(塔材)와 갑석을 모아 높이 1.3m 정도의 높이로 세워 놓았으나, 원형을 크게 잃어 버렸다.

일제강점기의 기록인 『조선보물고적조사자료(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에는 탑으로 언급해 탑선부락(塔仙部落)의 서쪽 약 30간의 전(田)에 있는 석탑으로 반 훼손(毀壞)되었으나 하부 3층만 존재한다고 했다.<sup>30)</sup>

현재 기단부(基壇部)의 石材 가운데 갑석(甲石) 및 우주(隅柱)가 조각된 너비 0.61m · 높이 0.225m의 탑신(塔身), 3단 받침에 1단 고임이 있는 너비 0.72m · 높이 0.33m의 옥개석(屋蓋石)으로 된 1층 탑신(塔身)이 본래의 탑재이다. 그리고 무늬가 없는 너비 0.33m · 높이 0.2m의 옥신(屋身)과 3단 받침이 있는 너비 0.68m · 높이 0.3m의 옥개석으로 된 2층 탑신이 남아 있을 뿐이다.

남아 있는 탑재(塔材)의 옥개석(屋蓋石)은 전각(轉角)이 파손됐으나 낙수면(落水面)이 평탄한 특징을 보이며, 탑신에 표현된 우주(隅柱) 등의 양식으로 보아 고려중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된다.<sup>31)</sup>



연탄리 3층석탑

29)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9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51~52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집년사』, 135~136쪽.

30) 조선총독부, 1942, 『朝鮮寶物古蹟調査資料』, 80쪽.

31) 괴산군, 1990, 『槐山郡誌』, 899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52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집년사』, 136~137쪽.

#### 4. 유교유적(儒敎遺蹟)

조선시대에는 국가적으로 유교정치의 구현이라는 목표를 지향하면서 유교사회로의 확고한 기반을 형성했다. 따라서 충(忠)·효(孝)의 가치 덕목을 중시해 군신관계(君臣關係)가 절대 명분으로 고정화되어 갔고, 효자(孝子)·효부(孝婦)에 대한 표창이 장려되었다. 여기에 제도적 안정을 기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새로이 학교를 설립하고, 『주자가례(朱子家禮)』에 입각한 가묘(家廟)의 설치, 서원(書院)과 사우(祠宇), 재실(齋室), 정려각(旌閭閣), 신도비(神道碑) 등 다양한 유교적인 시설물이 전국 도처에 설치되었으며, 중평지역에도 이와 관련한 유적들이 전해오거나 현존하고 있다.

중평군의 유교유적은 서원(書院)·영당(影堂)·사당(祠堂)·효열각(孝烈閣)·효자각(孝子閣)·묘(墓)와 묘비(墓碑)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각종 지리지나 관련 문서 등을 통해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 학계에 보고되어 있기도 하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사상을 강학(講學)하기 위한 기관으로 지방의 주(州)·현(縣)이 관장하는 관학(官學)인 향교(鄉校)와 사학(私學)인 서원(書院)과 서당(書堂)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중평군 지역에도 서원이 건립되어 선비들의 마음 수양처로서 선현(先賢)에 대한 봉사(奉祀)와 후학들의 교육에 힘을 기울이기도 했다.

그런데 중평군 지역에 현존하는 향교는 없다. 이러한 이유는 조선시대 태종 5년(1405)에 청안현(淸安縣)으로 통합되면서 청안향교(淸安鄉校)가 이 지역의 관학(官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이다.

한편, 중평군에는 기록상으로 광해군 5년(1613)에 구계서원(龜溪書院)이 창건되었으나,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훼철됐다. 서원은 선현(先賢)을 봉축(奉祝)하는 사(祠)와 제자를 교육하는 재(齋)의 결합형식으로 사학(私學)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16세기 중엽 사림정치(士林政治)라는 사회사적인 동향과 관련해 등장했으며, 인재양성과 학문진흥에 목적을 두고 인격도야와 강학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17세기 후반부터는 향촌사회에서 양반의 사회적 기능을 유지 보강하려는 같은 목표를 가진 것으로 변질됨에 따라 교육적 기능보다도 선현을 받들어 제사하는 종교적 의미를 갖는 기능에 큰 비중을 두었다.

중평군에 있는 사우(祠宇)는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과 경천송조사상(敬天崇祖思想)을 길러 민족정기를 빛내기 위해 건립된 단군전 및 기성전 등의 영당(影堂)이 있어 주목된다. 그리고 정후사(靖厚祠)·청연사(淸然祠)·양무공사(襄武公祠) 등의 사묘(祠廟)를 비롯, 효자나 열녀를 표창하기 위해 설치한 정려각(旌閭閣)이 다수 전해지고 있어서 이 지역이 충절(忠節)과 효행(孝

行)을 중시하는 의향(義鄉)임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사우(祠宇)나 정문(旌門)에 관련된 목조건축들은 대부분 근현대에 들어와 옛터 내지 새로운 자리에 복원되어진 것들이지만, 전통 건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문화재적 가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밖에 근현대(近現代)에 들어와 충절인사나 효행·열녀 및 가문을 빛낸 인물들을 현창(顯彰)하기 위해 세운 석비 및 묘와 묘비 등이 다수 있으나, 아직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및 연구는 미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증평군의 유교유적에 대해서는 외적인 면에서의 문화재적 가치 파악뿐만 아니라, 보다 객관적인 검증작업과 사회사적인 실체파악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의미를 파악해야 할 것이다.

### 1) 구계서원터(龜溪書院址)

- 소재지 : 증평읍 남차1리
- 조성시기 : 1613년

구계서원(龜溪書院)은 증평읍 남차리에 세워졌던 서원으로 광해군 5년(1613)에 현감 조인행(趙仁行)과 신경행(辛景行) 등이 인근의 사람들에게 통문을 보내, 청안현감과 호조좌랑(戶曹佐郎)을 지낸 서사원(徐思遠), 보령현감을 역임한 이득윤의 스승 박지화(朴枝華), 괴산현감을 지낸 이득윤(李得胤)을 배향하였다.

그 후 현종 7년(1666)에는 송시열의 문인 황처검(黃處儉) 등이 사람들에게 통문을 보내, 다시 이준경(李浚慶)과 헌릉참봉을 지낸 이당(李塘)을 추가로 배향했다. 이때 송시열에게 문의해 위치를 정하였는데, 이준경을 주향(主享)으로 하고, 서사원·박지화·이득윤·이당을 차례로 배향했다.

숙종 5년(1679)에는 현감 남한명(南漢明)이 상량문과 서원기 및 고적사실을 써서 걸었으나, 영조 4년(1728) 이인좌(李麟佐)의 난(亂)때 없어지고 말았다고 한다.<sup>32)</sup>

이인좌의 난은 당시 소론(小論)과 남인(南人)이 중심이 되어 영조(英祖)와 노론(老論)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모반사건이다. 이인좌는 경기도와 경상도 등 여러 지역의 선비들과 난을 모의했으며, 이들은 상여를 가장해 그 안에 무기를 숨기고 수름재를 거쳐 청주로 들어가 청주성을 점령하기도 했다. 그러나 청주지역에서 일어난 의병군과 관군에 의해 진압되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도안을 비롯한 청안 일대가 이들에 의해 피해를 입기도 했다. 이때 곡산 연씨 가문의 연세홍(延世鴻)·연수창(延壽昌)은 의병을 모아 이인좌의 무리

32) 忠淸道龜巖書院, 『列邑院宇事蹟』 /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22~124쪽.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37~138쪽.

33) 충북학연구소·도안면  
지발간위원회, 2001, 『道  
安面誌』, 110~111쪽.

들로부터 고을을 방어하고 민(民)을 안정시켰으며, 연수창은 상당산성의 적을 물리쳐 1등 공신에 책록되었다.<sup>33)</sup> 당시 이 지역의 사족(士族)들은 소론계도 있었지만, 노론계의 성향이 강했던 것으로 보인다.

1868년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따라 훼손되어 지금은 초석만 일부 남아있다.

## 2) 영당(影堂)

### (1) 단군전(檀君殿)

- 소 재 지 : 증평읍 대동1003-61
- 규 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조성시기 : 1948년
- 증평군 향토유적 제1호(2004. 4. 30 지정)



단군전 제향 광경

단군전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과 경천숭조사상(敬天崇祖思想)을 길러 민족정기를 빛내기 위해 건립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인 1929년 세워진 일본 신사(神社)가 있었으나, 1945년 8월 16일 광복이튿날 청년들에 의해 불타 없어졌다. 1948년 5월 27일 김기석(金箕錫 : 1897~1978) 씨 등 증평지역의 유지들이 그 자리에 단군전을 건립한 것이다.

단군전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 본전과 담장을 세워 건립됐다. 편액은 서봉(西峰) 김사달(金思達 : 1924~

1984)이 썼다.

단군의 영정은 가로 0.42m·세로 0.82m의 크기로 평정건(平頂巾)에 흰 옷을 입고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제향과 관리를 위해 1953년에 단군전 봉찬회(奉讚會)를 설립해 해마다 10월 3일 개천절과 음력 3월 15일 어천절(御天節 : 단군이 승천한 날)에 제향을 올리고 있다.

단군기원은 단군조선을 개국한 왕검(王儉)의 즉위년을 기원으로 한 연호(年號)이며, 현재 쓰고 있는 단기의 기원은 조선 성종15년(1484) 서거정 등에 의해 편찬된 『동국통감(東國通鑑)』의 기록에 근거해 중국의 요(堯)가 즉위한 25년 무진년(戊辰年 : B.C 2333년)에 10월 3일에 단군이 태백산(백두산)에 조선을 건국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34)</sup>

34)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22쪽. /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77쪽.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37~138쪽.

## (2) 기성전(箕聖殿)과 하마비(下馬碑)

## 가. 기성전(箕聖殿)

- 위 치 : 도안면 노암1리 159 (행갈)
- 규 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시 기 : 1854년
- 증평군 향토유적 제2호(2004. 4. 30 지정)

기성전(箕聖殿)은 은태사(殷太師) 기자(箕子)의 영정(影幀)을 모신 사당으로 기성사(箕聖祠) 또는 기자영당(箕子影堂)이라고도 하며, 도안면 노암1리 행갈 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다.

조선시대에는 평양과 함흥 등에서 기성전을 건립하고 기자를 제향했다. 그런데 1913년 이곳에 거주하던 한학자 한응각(韓應奭 : 1866~1929)은 청주한씨(淸州韓氏)가 기자의 후손임을 믿고 매년 봄·가을로 평양과 함흥에 있는 기자묘(箕子廟)에 가서 참배했으나, 거리가 너무 멀어 참배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기자영정을 모사(模寫)해 이를 모시기 위해 1914년 건립한 것이다.

당시 함흥 유림들이 향화(香火)를 끊지 말라며 기념나무로 향나무 다섯 그루를 희사해 기성전 뒤 동산에 심고 기성전을 건립했으며, 지금도 그때 심은 것으로 보이는 향나무가 있다.

건물은 정면 3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고, 솟을 대문에 담장을 둘렀다. 그 앞에는 홍살문(紅簾門)을 세웠으며, 1922년과 1969년에 중수(增修)했다.

영정은 가로 0.415m·세로 0.935m의 설채지본(設彩紙本)으로 평정건(平頂巾)을 쓰고 있다. 영정 오른쪽 아래에 ‘김이삼 봉증(金貳參 封贈)’이라는 묵서(墨書)가 있는 것으로 미뤄 김이삼이 모사(模寫)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성전 관리는 한종규씨가 하고 있다.

해마다 음력 3월 15일과 9월 15일에 근처의 유생들과 함께 제향했으며, 이때 시회(詩會)를 열어 학문을 논하면서 학문이 뛰어난 학자를 불러와서 기자의 교민(敎民) 8조(條)를 강의했다고 한다. 지금도 근처의 유림들이 봄과 가을에 제향을 올리고 있으며, 입구에는 1991년 3월에 세운 안내 간판이 있다.<sup>35)</sup>



기성전 전경

35)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21~922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76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25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집년사』, 138~139쪽.



도안면 노암1리 하마비

### 나. 하마비(下馬碑)

행갈마을에는 기성전(箕聖殿)과 관련한 하마비(下馬碑)가 위치해 있다. 본래 진등마을로 나가는 동구 밖에 있었으나, 1971년 도안역으로 가는 행갈고개 도로가 새마을 사업으로 확장되면서 현재의 위치로 옮겨졌다.

하마비(下馬碑)는 마을을 찾아올 때 여기서부터는 말에서 내려 걸어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표석이다.

하마비의 높이는 76cm, 너비 40cm로 전면에 한자로 ‘下馬碑(하마비)’라고 쓰여 있다.

### (3) 정후사(靖厚祠)

- 소재지 : 도안면 도당1리 467-3(금당)
- 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반
- 조성시기 : 1789년
- 증평군 향토유적 제3호(2004. 4. 30 지정)



정후사 전경

정후사(靖厚祠)는 정후공(靖厚公) 연사종(延嗣宗 : 1366~1434)의 영정을 모신 사당으로서 도안면 도당1리 금당마을에 위치해 있다.

정후공은 여말선초의 무신으로 자(字)는 불비(不非)이고, 본관은 곡산(谷山)이며, 함흥출신이다.

정후공은 조선 초기 태조대(太祖代)에서 세종대(世宗代)까지 4대조의 공신을 역임한 큰 인물이었다. 고려 우왕 14년(1388) 요동정벌 때 이성계(李成桂)를

따라 요동정벌에 참여한 공로로 조선이 개국되자 개국원종공신(開國原從功臣)에 책봉되었으며, 태조 2년(1399)에 회군공신(回軍功臣) 3등에 책록되었다. 태종 1년(1401) 제2차 왕자의 난 때에 정안군파에 가담하였고, 정안군이 세자로 책봉되고 등극하는 과정에서 공로가 많아 좌명공신(佐命功臣) 4등에 책록되었다. 태종 10년(1410) 동북면 병마절도사(東北面 兵馬節度使)가 되어 여진족의 침입을 방어했으며, 이해에 길주도 도안무찰리사(吉州道 道按撫察理使)가 되어 경원부와 경성에 입성·수복하는 전과를 올리기도 하였으나, 간룡성 싸움에서 패해 탄핵을 받고 함주(咸州)에 유배를 당하기도 했다. 1411년 12월 아버지의 상을 당해 퇴임하였고, 이듬해에 동북면도순문사(道巡撫使)가 되어



함주군 일대에 있는 4조왕과 비의릉(陵)을 조성하고 정비하는 일을 수행했다. 1413년 영흥부윤을 겸직했으며, 위의 공로로 인해 곡산군(谷山君)에 봉해졌다. 이듬해에 노모의 병환을 간호하기 위해 사직하려 하였으나 허가받지 못하다가 왕으로부터 시연(侍宴)을 받고 휴가를 받았다. 그는 상을 당하자 3년 동안 흠배개를 베고 초막에서 시묘살이를 해 정려를 받았다. 태종 16년(1416)에 다시 등용되어 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가 되었고, 태종 18년(1418)에 사은사(謝恩使)로 명나라에 갔다 오면서 의서와 약재를 가져 오기도 했다. 세종 1년(1419)에 훈신에 대한 예우로서 판중군도총제부사(判中軍都摠制府使)에 오르 고, 세종 4년(1422)에 곡산부원군(谷山府院君)에 책봉되었다. 세종 8년(1426)에 의정부 참찬(議政府 參贊)·중군도총제(中軍都摠制)를 역임했다.

정후사(靖厚祠)는 본래 정조 13년(1789)에 이곳의 선비들이 산수헌 권진응(山水軒 權震應)과 관생와 민이현(觀生窩 閔彝顯)에게 찾아가 정후공(靖厚公) 연사종(延嗣宗)과 후손인 안음현감(安陰縣監) 연충수(延忠秀), 의민공(毅愍公) 연최적(延最績), 동중추(同中樞) 연세홍(延世鴻) 등 4선생을 배향할 사우(祠宇) 건립의 필요성을 아뢰고 협조를 얻어, 당시 청안현 북쪽 10리쯤에 창건한 것이다. 처음에는 “금당사현사(金塘四賢祠)”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

순조 13년(1813)에는 다른 서원의 예처럼 예조(禮曹)에 법식을 갖추어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때 이 사우는 3칸의 규모였고, 선비들이 공부하면서 생활하던 오늘날의 기숙사와 같은 동·서재와 강의실에 해당하는 강당을 모두 갖추어 비로소 서원의 면모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당액(堂額)은 권진응의 의견에 따라 “양양재(羊羊齋)”라고 했다.

그후 순조 30년(1830)에 연주운(延周運 : 1769~1830)이 이를 중수하였고, 서울 노원에 있던 연사종의 묘막(墓幕)을 수리했으며, 원주에 있던 연사종의 사우가 허물어져 있던 것을 이곳 금당서원 옆으로 옮겨 왔다고 한다. 이때 정후공의 사우를 별도로 웅담리(熊潭里)에 건립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웅담리의 위치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정후공 사우는 고종 6년(1869)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모두 철폐되었는데, 1915년 후손들이 다시 사묘와 강당 및 동·서재를 세웠고, 이때 동·서재의 이름은 송달수(宋澣洙)가 맹자와 주자의 말을 인용해 행인(行仁)과 상의(尙義)라고 했다고 한다. 현재에는 ‘정후사’라고 해 연사종의 위패와 영정만을 모신 사당만이 남아 있고, 마당에는 그전에 사용했던 주춧돌들이 그대로 있으며, 매년 음력 2월28일에 향사(享祀)하고 있다.

연사종의 영정은 부원군(府院君)의 조복(朝服)을 입은 모습을 하고 있으며, 크기는 가로 60cm·세로 113cm로서, 무오년 가을 와우산인(臥牛山人) 서봉(楮奉)이 그렸다고 한다.

이 사당의 건물은 정면 3칸, 측면 1칸 반에 맞배지붕 목조 기와집이며, 솟을

36) 『谷山延氏世譜』 金塘書院記·靖厚公影堂記./ 『淸安郡邑誌』 院齋./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20~921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75~76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21~122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40~141쪽./ 조성시기에 대해서는 『槐山郡誌』에는 순조 13년(1813)으로 오기되어 있으며, 이 시기는 예조(禮曹)에 보고한 시기이다.

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러쌌다. 사당 안에 봉안된 영정은 부원군(府院君)으로 추정되는 조복(朝服)의 입상(立像)으로서 가로 0.6m·세로 1.13m의 설채견본(設彩絹本)이며, 화가와 제작연대는 알 수 없고 덧칠을 해 원형이 훼손됐다. 그리고 사당 안에는 현종 4년(1838) 민태용(閔泰鏞)이 지은 정후공영당기(靖厚公影堂記)와 1915년 송달수가 지은 금당서원기(金塘書院記)가 걸려 있다.<sup>36)</sup>

### 3) 사묘(祠廟)

#### (1) 양무공사(襄武公祠)

- 소재지 : 증평읍 죽2리 101(원평)
- 규모 : 정면 3칸, 측면 1칸반
- 조성시기 : 1595년
- 증평군 향토유적 제4호(2004. 4. 30 지정)



양무공사 전경

양무공사는 조선 개국에 공을 세워 개국공신 2등에 책록되고, 평해군(平海君)에 봉해진 양무공(襄武公) 황희석(黃希碩 : ? ~ 1394)을 모신 불천지위(不遷之位)사당으로서 증평읍 죽2리 원평마을에 위치해 있다.

선조 28년(1595)에 처음으로 세워진 이 사당은 영조 5년(1729)·1952년·1972년에 중수했고, 건물의 구조는 정면 3칸·측면 1칸반의 맞배지붕 겹처마 목조기와

집이다. 사당 앞에는 정면 3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 구조의 동재(東齋)와 정면 2칸·측면 1칸 맞배지붕 구조의 서재(西齋)가 있다. 그리고 사당 앞에는 1978년에 세운 ‘평해군묘정비(平海君廟庭碑)’가 있다. 건물 둘레에는 솟을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러싸며, 밖에서 보면 좌측에 하마비(下馬碑)가 있다.

황희석은 고려말~조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평해이다. 고려 우왕 7년(1381)에 왜구가 침입해 전라도 지역이 소란해지자 체찰사(體察使)로 파견돼 진압했다. 1388년 요동 원정군이 발진하자 청주상만호(淸州上萬戶)로서 예하군사를 이끌고 우군도통사 이성계의 휘하에 들어갔다. 이성계가 회군(回軍)을 단행해 반정에 성공하자 동지밀직사사(同知密直司事)에 올랐으며, 공양왕 1년(1389) 회군공신에 책록되고 정몽주가 격살당하자 사태 수습책으로 정몽주일파를 탄핵해 정몽주 일파에게 죄줄 것을 청하므로 공양왕의 폐위와 조선 건국의 명분을 세운 개국공신(開國功臣)이다. 조선 태조 1년(1392) 8월에 조선

개국공신 44인과 원종공신(原從功臣) 28인이 책봉될 때 포함되었다가 한달 뒤에 태조의 특지로 개국공신 2등에 추가 책록되어 1394년에 지중추원사(知中樞院事)를 지내다가 1394년 죽고, 사후 우의정에 추증됐다.<sup>37)</sup>

37)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13~914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68~69쪽.

## (2) 청연사(淸然祠)

- 소재지 : 증평읍 남차1리(숯고개)
- 규모 : 정면 3칸, 측면 2칸
- 조성시기 : 1992년

청연사(淸然祠)는 1992년 영산(靈山) 신씨(辛氏) 후손들이 조은(釣隱) 신경행(辛景行 : 1547~1623)을 봉향하고 있는 사당으로서 증평읍 남차1리 숯고개마을에 위치해 있다.

사묘(祠廟)의 건물구조는 정면 3칸, 측면 2칸의 맞배지붕 목조기와집이며, 둘레에는 솟을대문을 세우고 담장을 둘렀다.

이곳에서는 해마다 음력 정월 7일에 향사를 올리고 있다. 위쪽으로 신경행의 묘(墓)와 신도비(神道碑)가 있다.<sup>38)</sup>



청연사 전경

38)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41쪽.

## (3) 안동김씨사(安東金氏祠)

- 위치 : 증평읍 남하1리 807 (양지말)
- 규모 : 정면 4칸, 측면 2칸
- 시기 : 1805년

안동김씨사는 조선 순조 5년(1805)에 김성무(金聲武)·김굉(金宏)·김희석(金羲錫)·김여귀(金汝龜)·김의로(金義路) 등 다섯 명의 위패를 모시기 위해 건립된 재실(齋室)로 증평읍 남하1리 양지말 마을에 위치해 있다.

이후 위로부터 4위(位)는 제사를 지내지 않고 호조참판(戶曹參判)을 지낸 김의로 위패만 모시고 있다.<sup>39)</sup>



안동김씨사 전경

39) 『앞책』, p.151.

## 4) 효자각 · 열녀각 · 효열각 · 효비각

## (1) 연종록 부부 정효각(延種祿 夫婦 旌孝閣)

- 소 재 지 : 도안면 화성1리 91
- 규 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859년



연종록부부 정효각 전경

연종록부부 정효각은 연종록과 그의 부인 순흥 안씨 부부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1934년도에 연종록의 6대손인 연병택(延秉澤)이 주선했다. 마을사람들이 세운 것으로서 도안면 화성리 1구 성도리 도안초등학교 정문 옆에 있다.

지금의 정효각 건물은 1985년에 보수한 건물로 정면 1칸 · 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목조 기와집이다. 안에는 “孝子贈朝奉大夫童蒙教官谷山延公種祿配孝婦贈令人順興安氏之閭 上之十年 己未 九月 日 命旌”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

연종록은 본관이 곡산(谷山)이며, 자는 성복(聖福), 호는 모증재(慕曾齋)이며 연사종(延嗣宗)의 후손이다. 그는 평소 효성이 지극해 늙은 어머니를 극진히 봉양하였고, 그는 노모에게 병이 생기자 변을 직접 맛보면서 탕약을 올렸고, 목욕을 하고 자신이 노모 대신에 아플 것을 항상 하늘에 기원했다고 한다. 그는 노모의 병이 위독하게 되자 그의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목숨을 연명시킨 효자였다. 그의 부인 순흥안씨는 연종록과 함께 부모를 극진히 공양했고, 상을 당해서는 애절하게 통곡을 했으며, 매일 묘소 앞에서 무릎을 꿇고 곡을 해 무릎이 물렸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철종 10년(1859) 이러한 그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동몽교관(童蒙教官)에 증직하고 정려(旌閭)를 하사했다.<sup>40)</sup>

## (2) 곡산연문 쌍효각(谷山延門 雙孝閣)

- 소 재 지 : 도안면 화성3리 174 (상작)
- 규 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887년

곡산연문 쌍효각은 효자 연주운(延周運)과 그의 손자인 효자 연면회(延冕會)의 정려를 합설한 것으로서 도안면 화성3리 상작마을 입구에 위치해 있다. 연주운(延周運)은 본관이 곡산, 호는 퇴수정(退修亭), 자는 성구(性久)이다.

40)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2~93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88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210~211쪽./ 중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중평문화연구회십년사』, 147쪽.

그는 부친의 병이 위독하자 부친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다리를 베어 피를 먹여 목숨을 연명시킨 인물이다. 그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를 정성을 다해 섬기면서 여름이나 추운 겨울에도 10리나 떨어진 부친의 묘소를 매일 돌아봤다고 한다. 아버지의 제삿날에는 마음과 몸을 깨끗이 하고 부정스러운 것을 멀리했으며, 고기 없이 반찬을 먹고, 슬퍼하는 것이 상을 당했을 때와 같았다고 한다.

조정에서는 고종 24년(1887) 연주운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정려를 내렸다. 그리고 고종 29년(1892) 그의 손자인 효자 연면회(延冕會)에게도 정려가 다시 내려져 이때 두 사람의 정려를 함께 설치해 쌍효각이 되었다.

이 쌍효각 건물은 정면 1칸, 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 기와집이다. 현판에는 효자문이라고 되었다. 효자각 안에는 위에 “孝子生員 延周運之間 上之十三年 丁亥 四月 日 命旌”, 그 아래에 “孝子 贈朝奉大夫 童蒙教官 延冕會之間 上之十八年 壬辰 五月 日 命旌”이라는 편액이 나란히 걸려 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시장원 좌빈객 민영상(閔泳商)이 쓴 곡산연씨 효자정려기(孝子旌閭記)가 걸려 있다.<sup>41)</sup>

### (3) 김창익 효자각(金昌翼 孝子閣)

- 소재지 :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310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990

김창익(金昌翼) 효자각은 이곳에 낙향해 살던 김창익의 효성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서 도안면 광덕2리 경로당 앞의 큰 느티나무 옆에 위치해 있다.

효자 김창익은 “어머니의 머리에 종기가 생겨 위급하게 되자 밤낮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입으로 어머니가 호흡할 수 있도록 돕고, 간호해 병환을 낫게 했다. 그러나 또 다시 병이 위태롭게 되자, 그는 산토끼의 회를 먹어야만 나올 수 있다는 의원의 말을 듣고, 다른 형제들과 여러 곳으로 이것을 구하러 다녔으나 구하지 못하고 안타까워했다. 이때 하늘이 그



곡산연씨 쌍효각 전경

41) 『谷山延氏世譜』敎官公行狀./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89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212~213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47쪽./ 『谷山延氏世譜』敎官公行狀.



김창익 효자각 전경

42) 『三綱錄』 /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4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0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29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48쪽.

의 효성에 감동했는지 장독대 근처에 산토끼 한 마리가 나타나서 도망을 가지 않고 있기에, 이를 잡아 어머니에게 드리니 병이 나았다”고 한다.

김창익의 집안과 이 일대의 선비들은 이러한 그의 효성을 후세에 기리기 위해 철종 8년(1857) 김국주 등이 충청감사에게 김창익의 효행에 대한 글을 올렸고, 철종 13년(1862)에는 청안 현감에게 그의 효행사실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편액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고종 19년(1882)에 정려가 내려졌고, 그 후 대한제국 4년(1900)에 효자비와 효자각을 세웠다.

효자각의 건물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 목조 기와집이며, 효자각 안에는 “孝子慶州金公昌翼之閭”라는 편액이 걸려 있으며, 정각 앞에는 “孝子金公昌翼之閭 壬午七月日”이라는 비를 세워놓았다.<sup>42)</sup>

#### (4) 곡산연문 효열각(谷山延門 孝烈閣)

- 소 재 지 : 증평군 도안면 화성5리 명암마을 (우르배)
- 규 모 : 정면 2칸, 측면 2칸
- 조성시기 : 1796



곡산연문 효열각 전경

도안면 화성5리 명암마을에 위치해 있는 곡산연문 효열각은 당초 효자 정후공(靖厚公) 연사종(延嗣宗 : 1366~1434)의 6대손인 부호군(副護軍) 연진행(延震行)의 부인 순흥안씨와 그의 13대손인 연대관(延戴寬)의 처 청송 심씨(沈氏)의 정려였으나, 1910년 봄에 서울시 노원구에 있던 연사종의 효자문을 이곳으로 이전해 정려문과 효자문을 함께 세운 후 ‘효열정려각’이라고 했다. 그런데 1984년에 순흥안씨의 정려를 음성군 원남면 문암리로 옮겨 세워, 현재에는 연사종과 청송심씨의 정려만이 남게 되었다.

순흥안씨는 부호군(副護軍) 연진행(延震行)의 부인으로 병자호란 때 가족과 함께 피난을 갔다가 다음 해 조상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돌아왔는데, 이때 청군이 침입하자 남편을 위해 적의 칼을 막다가 함께 죽어 조정으로부터 정려를 받았다. 정조 20년(1796)에 세워졌다.

청송심씨는 정조 16년(1792)에 남편이 죽자 같이 따라 죽을 것을 결심하고 남편의 시신 염습을 마친 후 6일 후에 독약을 마시고 죽었다. 정조 20년(1796)에 정려가 내려져 그 다음해(1797)에 그녀의 정려문을 건립되었다.

이 효열각은 정면 2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으로서 편액에는

“효열문”이라고 되어 있다. 효열문 안의 앞쪽에는 ‘孝子推忠翊戴佐命功臣大匡輔國崇祿大夫議政府贊成谷山府院君贈領議政諡靖厚公延嗣宗之間’, 뒤쪽에는 ‘烈女學生延戴寬妻青松沈氏之間 上之二十年 丙辰 十二月 日 命閭’이라는 편액이 있다. 그 옆에는 1910년 후손 연명회(延命會)가 지은 ‘정후공정려이건기(靖厚公旌閭移建記)’가 걸려 있다.<sup>43)</sup>

#### (5) 강릉유문 쌍열각(江陵劉門 雙烈閣)

- 소재지 : 증평군 도안면 도당1리 216 (좌실)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884년

강릉유문 쌍열각(江陵劉門 雙烈閣)은 고종 31년(1894)에 이 지역에 거주하던 유세귀(劉世貴)의 부인 밀양박씨와 유세현(劉世賢)의 부인 경주김씨의 정렬과 행적을 기리기 위해 세운 것으로 도안면 도당리(좌실)에 위치해 있다.

이 지역에 살던 유세귀(劉世貴)의 형제가 일시에 죽게 되자 그들의 처인 밀양(密陽) 박씨(朴氏)와 경주(慶州) 김씨(金氏)가 서로 의지하며 매일 묘를 보살피며 나라에 천거되어 정려가 내려지고, 고종 21년(1884)에 박씨와 김씨를 기리는 열녀각이 세워졌다.

건물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맞배지붕의 목조 기와집이다. 쌍열각의 안에는 좌측에 ‘烈女 贈通訓大夫軍資監正 劉世貴妻 淑人 密陽朴氏之間 上之三十二年 甲午 三月 日 命旌’, 우측에 ‘烈女 學生公 劉世賢 妻 孺人慶州金氏之間 上之三十二年 甲午 三月 日 命旌’이라는 편액이 나란하게 걸려 있다.<sup>44)</sup>

이 열녀각 왼쪽에는 강릉유씨 가문의 묘소가 몇 기 있으나, 현재 후손들은 다른 지방으로 이주해 이곳에는 살고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력은 알 수가 없다.

#### (6) 곡산연씨 열녀각(谷山延氏 烈女閣)

- 소재지 : 증평군 증평읍 용강3리 331 (용문리)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892년

43) 『輿地圖書』 忠清道 清安縣 人物./ 『谷山延氏世譜』 孝烈旌閭記./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7~938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2~93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28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집년사』, 149쪽.



강릉유문 쌍열각 전경

44)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42~943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6~97쪽./ 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30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집년사』, 150쪽.



곡산연문 열녀각 전경

45)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6쪽./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7쪽./중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중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50쪽.

곡산연씨 열녀각(谷山延氏 烈女閣)은 이 지역에 거주하던 장환일(張煥一: 옥구 장씨)의 처 곡산(谷山) 연씨(延氏)의 정려로 증평읍 용강 3리에 위치해 있다.

부인 연씨는 남편이 위독하자 손가락을 잘라 피를 먹여 5일간이나 연명시켰으나 끝내 세상을 뜨자 약을 먹고 남편을 따라 숨을 거뒀다. 고종 29년(1892)에 영부인에 증직되고, 정려가 명해 졌다.

건물은 정면 1칸·측면 1칸의 팔작지붕의 목조기와집이다. 열녀각의 안에는 ‘贈朝奉大夫 童蒙

教官 張煥一妻 令人谷山延氏 烈女之門’이라는 편액이 걸려 있다.<sup>45)</sup>

#### (7) 김환극 부부 효비각(金煥極 夫婦 孝碑閣)

- 소재지 : 증평군 증평읍 남하1리 (솔모루)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조성시기 : 1972년



김환극 부부 효비각 전경

김환극부부 효비각(金煥極夫婦 孝碑閣)는 효심이 지극한 김환극(안동 김씨)과 그의 처 광산 김씨(金氏)의 효심을 기리기 위해 세운 효비각으로 1972년에 세워졌으며, 증평읍 남하1리 솔모루마을에 위치해 있다.

효비각의 구조는 정면 1칸·측면 1칸 맞배지붕 구조의 목조기와집이며, 효비각 안에 있는 효비의 비문은 1958년에 성균관장 최찬익(崔燦翊)이 짓고 글씨는 괴산군수 이길원(李吉遠)이 썼다.<sup>46)</sup>

#### (8) 장용기 부부 정효각(張龍基 夫婦 旌孝閣)

- 위치 : 증평군 증평읍 용강3리 547-1 (용문리)
- 규모 : 정면 1칸, 측면 1칸
- 시기 : 1926년

효자 장용기와 그의 처 능성(陵城) 구씨(具氏)의 효행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것으로 증평읍 용강3리에 위치해 있다.

이 부부는 어머니가 병이 들자 극진히 간호했고, 아버지가 세상을 뜨자 3년

46)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36쪽./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7쪽./중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중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49쪽.



간 시묘살이를 했다. 이와 같은 효행을 기리고자 1926년에 유림과 문중에서 정효각을 세웠다.

사당의 건물구조는 정면 1칸·측면 2칸의 팔작지붕 목조기와집이다. 사당 안에는 ‘孝子孝婦 學生張公龍基氏 妻 孺人綾城具氏 旌孝門’이라는 편액이 걸려있다.<sup>47)</sup>



장용기 부부 정효각 전경

### 5) 명묘(名墓)와 묘비(墓碑)

조선시대의 여러 읍지(邑誌)에는 지금의 증평군에 소재하는 명묘(名墓) 가운데 참의(參議) 김치(金緻)의 묘·영성군(靈城君) 신경행(辛景行)의 묘·장령(掌令) 김득신(金得臣)묘 만이 기록(記錄)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이 보다 많은 명묘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국의 영향을 받아 고려시대부터 왕릉이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명묘(名墓) 앞에는 죽은 사람의 사적(事蹟)을 새겨 묘소(墓所) 앞에 세우는 묘비(墓碑)가 있으며, 묘비는 신도비(神道碑)와 묘갈(墓碣)로 구분되어 진다.

신도비는 2품 이상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소에만 세울 수 있게 하고, 다만 공신(功臣)이나 석유(碩儒)이면 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사람이라도 왕명이 있으면 묘소에 신도비를 세울 수 있었는데, 조선시대 후기로 오면서는 왕명이 없어도 문중에서 가문을 빛내기 위해 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소에 신도비를 세우는 일이 많아졌다.

신도비는 비석에 가로로 비제를 전서(篆書)로 쓰고 비표(碑表)에서부터 세로로 비문을 쓰는 것이 기본형이며, 묘소(墓所)의 동남쪽에 남향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묘갈(墓碣)은 신도비(神道碑)보다 작은 규모로서 머리를 둥글게 만든 비석을 말하며, 3품 이하의 벼슬을 지낸 사람의 묘소(墓所)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2품 이상의 벼슬을 한 사람의 묘소에도 신도비가 없으면 묘갈을 세웠다. 그런데 묘갈(墓碣)은 비표(碑表)에는 비제(碑題)만 쓰고 비음(碑陰)에 비문을 쓰는 것이 기본형이며 묘소(墓所)의 왼쪽에 세우는 것이 원칙이다.

증평지역의 명묘 및 묘비 가운데, 증직(贈職)을 제외한 행직(行職)으로 계셨던 분들의 묘소 및 공신(功臣)이나 군호(君號)가 있는 분들 것을 중심으로 해 오랜 시기부터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7) 괴산군, 1990, 『槐山郡誌』, 35쪽./ 청주대학교 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91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48쪽.

## (1) 배극렴 묘(裴克廉 墓) 및 신도비(神道碑)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산28
- 규 모 : 3.47m×4.37m×1.70m
- 시 기 : 조선시대
- 충청북도 기념물 제98호 (1994. 12. 30 지정)



배극렴묘소 전경

조선(朝鮮)의 개국공신인 배극렴(裴克廉 : 1325 ~ 1392) 본관은 경산(京山), 자는 양가(量可), 호는 필암(筆菴), 문과에 급제하고, 고려에서 경상도 도순무사(都巡撫使)를 거쳐 조전원수(助戰元帥)가 됐으나, 이성계를 도와 조선의 개국공신으로 성산백(星山伯)이 되고 문하좌시중을 지냈다. 시호는 정절(貞節)이다. 그의 묘소(墓所)는 증평소방서 옆 송산교를 건너 송산리 방향으로 증평종합사회복지관을 지나 송산리 마을 두타산 대야봉 아래에 위치해 있다.

배극렴의 묘소는 장방형(長方形)으로 가로 3.47m · 세로 4.37m · 높이 1.70m이고, 상석은 가로 1.20m · 세로 0.84m · 높이 0.195m이다. 묘소에는 호석(護石)이 둘러 있고, 앞에는 장명등(長明燈)과 문관석(文官石), 양석(羊石), 향로석(香爐石)등이 남아 있다.

그리고 묘소 20여m 아래에는 고종 25년(1888)에 대사헌 박성양(朴性陽)이 비문을 지은 신도비(神道碑)가 세워져 있으며, 묘소 앞 100m쯤에는 배극렴의 사당인 경절재(景節齋)가 있다.

성산백(星山伯) 배극렴은 위위(衛尉 : 의장(儀裝)을 맡은 관아) 소윤(小尹 : 종4품) 배현보(裴賢輔)와 성주 이씨 사이에서 태어났다. 고려 공민왕 때 문과에 급제해 진주·윤주(晉州·尹州 牧使 : 정3품), 계림·화령부윤(鷄林·和寧 府尹 : 종2품), 합포진 첨사(合浦鎭 僉使 : 종3품) 등을 역임했고, 우왕2년(1376)과 우왕 4년(1378) 왜구 격파에 공을 세웠다. 이성계의 휘하에서 여러 차례 왜구를 토벌하고 우왕 14년(1388) 조전원수(助戰元帥)로 위화도 회군(回軍)을 결행했다. 고려 말년 백성들 가운데 “비의군자(非衣君子)의 지혜로 삼한(三韓)을 바로 잡는다”라는 말이 떠돌았는데 이는 [비(非)]와 [의(衣)]를 합치면 [배(裴)]자인바 이는 배극렴을 가리켰다고 하니 고려 말 고려 국운이 기울어 가는 민심과 당시 그의 덕망과 인품을 미루어 짐작할 만하다. 이후 1392년 이성계를 추대해 개국 일등공신(一等功臣)이 되어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에 봉해지고, 문하좌시중(門下左侍中: 후에 좌의정)에 이르렀다. 태조 이성계가 세자책봉을 의논할 때에 “시국이 평온할 때는 적자를 세우고 세상이 어지러울

때는 공이 있는 자를 세워야 한다.”라고 주장했다가 괴산군 불정면 삼방리로 귀양을 갔다. 이후에 이방원이 임금이 된 후 귀양지를 세 번이나 방문했다고 해서 이곳을 삼방리(三訪里), 주변 산을 어래산(御來山)으로 부르게 됐다. 서기 1392년 9월 8일 67세에 세상을 떴는데, 그가 고려 공민왕 12년(1363)에 진주목사로 부임해 잣나무를 관아 북쪽에 심어 놓고 왕에게 청렴과 검소로 백성을 돌볼 것을 약속했다고 한다. 그 후 중앙관서의 시중(侍中)이 되자 진주사람들이 그 나무를 시중백(侍申栢)이라 명명했다.

제사는 현재 해마다 송산리에서 4월 5일 한식제사를 지내고, 출생지인 경북 성주군 성주읍 대항동 사당에서는 음력 9월 7일 제사를 지낸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의 조사·연구활동을 통해 문화재의 귀중성을 인식시키고, 보존관리가 필요함을 각계에 홍보해 1994년 12월 30일 충청북도 기념물 제98호로 지정되었다.<sup>48)</sup>

## (2) 연사종(延嗣宗) 묘(墓)및 신도비(神道碑)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시 기 : 조선시대

정후공(靖厚公) 연사종(延嗣宗 : 1366~1434)은 고려말~조선초의 무신으로 본관은 곡산(谷山) 자는 불비(不非)이며, 상장군 단서(丹瑞)의 후손으로 곡산 연씨(谷山 延氏)의 실질적인 시조(始祖)이다.

정후공 연사종의 묘는 본래 서울시 노원구 하계동 평원일대의 곡산연씨 묘역에 있었으나, 1990년 9월 17일에 도안면 화성리 명암마을 뒤편에 있는 주실산의 상봉 아래 곡산연씨 묘역으로 이장(移葬)했으며, 매년 음력 10월 1일에 시제를 지내고 있다.

신도비(神道碑)는 묘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세워져 있는데, 1440년 황희(黃喜)가 찬(撰)한 비문을 1959년에 후손인 종혁(鍾赫)·명일(明一)·규영(圭瑛)의 노력으로 다시 세웠으며, 묘를 이장하면서 신도비도 함께 옮겨 온 것이다.<sup>49)</sup>



연사종 신도비

## (3) 연음(延陰) 묘(墓)및 신도비(神道碑)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명암마을
- 시 기 : 조선시대

회양부사(淮陽府使) 연음(延陰 : 1418~1452)의 신도비는 당초 경기도 양주의 노원에 있던 그의 묘소를 현재의 위치(명암마을 주실산 선영)로 이장(移

48)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69~970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113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 十年史』, 289~290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24~126쪽.

49) 『谷山延氏世譜』靖厚公行狀. 靖厚公表陰記墓./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33쪽, 158쪽, 214쪽.

50)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75~976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214쪽.



葬)하고, 1973년에 새로 신도비를 세웠다. 비문은 후손인 연규복(延圭復)이 짓고 썼다.<sup>50)</sup>

연음(延陰) 묘(墓)및 신도비(神道碑)

#### (4) 양윤원(楊潤遠)의 묘(墓)와 묘갈(墓碣)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증천동
- 시 기 : 조선시대



회령도호부사(會寧都護府使) 양윤원(楊潤遠 : 1445~1506)의 묘갈(墓碣)은 中宗 3년(1508)에 증평읍 증천동에 있는 그의 묘소 앞에 세웠으며, 비문은 충제(忠齊) 최숙생(崔淑生)이 짓고 글씨는 박세영(朴世榮)이 썼다.<sup>51)</sup>

51)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83쪽

양윤원 묘 및 묘갈

#### (5) 신경행(辛景行) 묘(墓)및 신도비(神道碑)

- 위 치 : 증평군 남차1리 숲고개
- 시 기 : 조선시대
- 충북도기념물 제132호(2004. 9. 17 지정)



신경행 묘 및 묘갈

신경행(辛景行 : 1547~1623)의 묘(墓)와 신도비(神道碑)는 증평읍 남차1리 숲고개마을 영산신씨 묘역에 위치해 있다. 묘역 아래쪽에는 신도비가 있으며, 비의 전면에는 “贈禮曹判書靈城群公神道碑”라고 써있다.

신경행의 본관은 영산(靈山), 자는 백도(伯道), 호는 조은(釣隱), 시호(諡號)는 충익(忠翼)이다.

조선 선조 6년(1573)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했고, 선조 10년(1577) 별시(別試)문과에 급제했

다. 임진왜란 때는 의병을 일으켜 활약했고, 이 공으로 선조 26년(1593) 한산

군수(韓山郡守)가 됐다. 선조 29년(1596) 이몽학(李夢學)의 난을 평정하는데 공을 세워 청난공신(淸難功臣) 3등에 책록되어 영성군(靈城君)에 봉해졌다. 공주목사(公州牧使)·서흥부사(瑞興府使)·장흥부사(長興府使)·병조참의(兵曹參議)·동부승지(同副承旨 : 승정원의 정3품)·남원부사(南原府使)를 지냈으며, 선조 41년(1608) 충청도 병마절도사(兵馬節度使 : 종2품 무관)에 이르렀다. 이후 청안에 낙향해 조은정(釣隱亭)과 운수정(雲水亭)을 짓고, 유유자적하다가 77세로 숨졌다. 예조판서(禮曹判書 : 정2품)에 추증(追贈)됐다.<sup>52)</sup>

묘지 입구 좌측에는 1992년 영산(靈山) 신씨(辛氏) 후손들이 청연사(淸然祠)를 지어 봉향하고 있다.<sup>53)</sup>

#### (6) 연충수(延忠秀) 묘(墓)및 신도비(神道碑)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송정2리
- 시 기 : 조선시대

안음공(安陰公) 연충수(延忠秀 : 1557~1621)의 묘(墓)와 묘갈(墓碣)은 도안면 송정2리 통미 마을에서 오른쪽으로 난 농로를 따라 0.7km 올라가면 왼쪽으로 법곡(法谷)이라 불리는 골짜기에 위치해 있다.

연충수의 묘(墓)에는 바로 앞에 묘갈(墓碣)이 있고, 아래쪽의 비각 안에 신도비가 잘 보존되어 있다. 신도비는 영조 31년(1755)에 대사헌(大司憲) 겸 세자 찬선(贊善)을 지낸 민우수(閔遇洙 : 1694~1756)가 짓고, 정산현감(定山縣監) 채복휴(蔡復休)가 쓴 것을 영조 50년(1774)에 세운 것이다.

연충수의 자는 성백(誠伯)이고 곡산인(谷山人)이다. 연정원(延定遠)의 장자로 태어나 자라서는 중부(仲父) 연정우(延定宇)의 계후(繼后)로 나아가니 성효(誠孝)가 두텁고 지극했다. 한강(寒崗) 정구(鄭逋) 선생의 문하에 드나들며 경전을 강습하고 과거보는 일을 일삼지 아니하니 한 때 사우(士友)가 모두 공경했다. 그의 나이 36세인 1592년 [壬辰]에 왜적이 청안을 침범하니 대의(大義)를 떨치어 고향인 청안에서 의병을 모아 왜적을 무찔렀다. 그 이듬해인 1593년 예빈시(禮賓寺) 참봉(參奉)이 되었다가 내첨사(內瞻寺) 주부(主簿)를 거쳐 중림도(重林道)찰방(察訪)에 제수 되었다. 1603년(47세) 안음현감이 되어 선정을 펴고, 얼마 안되어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벼슬하지 않고 두문(杜

52)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70~971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文化遺蹟』, 114쪽.

53)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41~142쪽.



연충수 묘 및 묘갈

54) 『谷山延氏世譜』 安陰公 墓碣銘,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134쪽, 160쪽.

門) 강학(講學)하다가 광해군 13년(1621)에 65세로 생을 마감하니 사림과 향인(鄉人)들이 모두 탄식했다고 한다.<sup>54)</sup>

#### (7) 김치(金緻)의 묘(墓)와 묘갈(墓碣)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울리
- 시 기 : 조선시대



김치 묘 · 묘갈

안흥군(安興君) 남봉(南峰) 김치(金緻 : 1577~1625)의 묘갈은 현종 15년(1674) 증평읍 울리(曾坪邑 栗里)에 있는 그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비문(碑文)은 아들인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이 짓고 글씨는 손자사위인 최선(崔渲)이 썼다.

김치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사정(士精), 호는 남봉(南峯)·심곡(深谷), 문과에 급제하고, 광해군 때 대사간, 병조참의를 지내다가 파직됐다. 인조반정 후에 대북(大北)으로 몰려 귀양을 갔다가 동래부사를 거쳐 경상도관찰사를 지냈다. 그의 묘소는 증평읍 울리에 있다.<sup>55)</sup>

55)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85~986쪽

#### (8) 김득신(金得臣)의 묘소(墓所)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울리
- 시 기 : 조선시대
- 증평군 향토유적 제6호(2004. 4. 30 지정)

56) 괴산군, 1990, 『槐山郡誌』, 987~988쪽.



김득신 묘 및 묘갈

안풍군(安豐君) 백곡(柏谷) 김득신(金得臣 : 1604~1684)의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공(子公), 호는 백곡(柏谷), 김치의 아들이다. 음보(蔭補)로 참봉을 지내고 문과에 급제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올라 안풍군(安豐君)에 습봉(襲封)되었고, 시인으로 이름을 얻었다. 그의 묘갈(墓碣)은 숙종(肅宗) 14년(1688) 증평읍 울리에 있는 그의 묘소 앞에 세웠는데, 비문은 유재(游齋) 이현석(李玄錫)이 짓고 글씨는 9촌 조카인 김봉지(金鳳至)가 썼다.<sup>56)</sup>

## 5. 노암리 고분(古墳)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시 기 : 미상

도안면 노암리 행갈마을에서 화성리로 넘어가는 장고개 초입에 위치한 서낭당에서 서쪽 이성산성으로 가는 능선에 도굴된 석곽고분(石槨古墳)이 알려져 있다.

이 고분이 조성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이 고분 서북쪽에 있는 이성산성과 관련이 있는 듯하다.<sup>57)</sup>

57) 충북학연구소·도안면  
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254쪽.

## 6. 도요지(陶窯址)

증평군의 도요지 유적은 아직 고려시대의 청자와 관련한 요지는 보이지 않으며, 조선 초기의 분청사기 가마터나 조선 후기의 철화백자를 생산하던 것들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증평군의 가마터는 1994년에는 충북대학교 박물관에서 실시한 충북지방 도요지 지표조사에서 도안면 송정리 백자요지 및 증평읍 율리 백자요지 등이 있다.

그리고 증평군 내의 도요지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기록에는 보이지 않으나, 주변지역의 점골·사기점·사기장골 지명 등에서 보듯이 도요지와 관련한 지명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명 등에 대한 정밀한 지표조사 등을 통해 실체를 확인한다면 새로운 것이 더 찾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1) 송정리 분청사기(粉靑沙器) 도요지(陶窯址)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송정2리 칠송마을(통미)
- 시 기 : 조선 초기

송정리 분청사기 도요지는 증평읍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36번 국도에서 도안면 소재지를 지나 왼편의 철교 밑의 굴다리를 통과해 약 1km 정도 들어가 도안면 송정2리 칠송마을(통미)에 다다르면, 여기에서 동쪽의 농로를 따라 약 800m 정도 가서 정려문을 지나 계곡의 안쪽 끝부분에서 서쪽 민묘를 중심으로 좁은 범위에서 유물이 수습되고 있다.



송정리 분청사기도요지

58)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183~184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 文化遺蹟』, 108쪽./ 충북학연구소·도안면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308~309쪽.

이 도요지는 발견되는 자기편 등을 통해 옛 도요지였음을 알 수 있으나, 기록에서는 보이지 않는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분청사기편(粉靑沙器片)들은 엷은 회청색의 대접과 접시 등 일반 서민용의 생활 용기의 파편들이 대부분이며, 대마디굽 형태와 국화문양 및 연꽃문양 등이 새겨진 것이 많다.

현재 심하게 파괴되어 가마의 원형을 알아 볼 수가 없으나, 구룡을 따라 가마가 축조되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up>58)</sup>

## 2) 율리 철화백자(鐵畵白磁) 도요지(陶窯址)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율리 점촌마을
- 시 기 : 조선 후기



율리 철화백자 도요지

율리 도요지(栗里 陶窯址)는 증평읍에서 503번 지방도를 따라 6km 정도 들어가 율리저수지를 지나 밤티마을에서 보다 위쪽으로 올라가면 점촌마을이 있고, 외봉 마을로 이어지는 소로길을 따라 약 600m 정도 올라가면 작은 다리가 있고, 여기에서 소하천 서쪽의 경작지를 따라 약 100m 정도 올라가면 큰 밭에 위치해 있다.

현재 밭으로 경작되어 도요지의 윤곽은 파악하기 힘든데 불에 탄 흙과 도편들이 산재되어 있다. 여기에서 발견되는 도편(陶片)들은 철화백자편들로 백색의 유조를 보이는 대접과 직경 4.5cm의 원을 긋고, 그 안에 ‘복(福)’ 명을 새긴 도편 등도 출토되었으며, 바닥의 접지부에는 모래받침 흔적이 많이 남아 있고, 역삼각형굽이 많다.<sup>59)</sup>

율리의 ‘점촌’ 마을은 이 도요지가 있었던 데에서 유래한 것으로 사기점과의 관련성을 찾을 수 있다.

## 7. 독립지사 연병호 생가(獨立志士 延秉昊 生家)

- 위 치 : 증평군 도안면 석곡1리 555(산정)
- 시 기 : 1910년
- 충청북도 기념물 제122호 (2002. 1. 11 지정)

독립지사 연병호 생가(獨立志士 延秉昊 生家)는 도안면 석곡1리 555번지에

59) 충북대학교박물관, 1993, 『忠北地方 陶窯址 地表調査 報告書』, 189~190쪽./ 청주대학교박물관, 1994, 『槐山郡 文化遺蹟』, 109쪽.



위치해 있다. 1910년 2월 13일(음력)에 초가집으로 건립됐으나, 지붕 등이 변형됐다가 1986년 옛모습 그대로 복원됐다. 그리고 1997년에는 그를 제향하는 명덕정사(明德精祠)가 건립되어 위패와 영정을 봉안하고 있다.

연병호(延秉昊 : 1894~1963)는 고종 31년(1894) 11월 22일 도안면 석곡1리 산우물(山井)에서 연채우씨와 전주이씨의 4형제 중 둘째 아들로 태어났고, 1921년 개명하기 전까지 병준(秉俊)이란 이름을 썼으며, 자는 순서(舜瑞), 호는 원명(圓明)이다.

1910년 경술국치(庚戌國恥)때에는 만형인 병환(秉煥)이 울분을 참지 못하고 중국으로 망명하자 그 뒤를 따라 망명해 만주, 난징, 상해 등지에서 독립운동에 참여했다. 1919년 상해임시 정부 수립 후 조국에 돌아와 임시정부 후원과 국제외교를 위해 이병철·나창현·안재홍·조용주 등과 함께 비밀항일운동 단체인 청년외교단을 조직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29일 간부 18명과 함께 일경에 적발되어 대구 감옥에서 3년의 옥고를 치른 후 1921년 다시 중국으로 망명해 이름을 병호로 개명하고 북경에서 독립혁명당(獨立革命黨)을 조직했으며, 1922년 안창호·여운형 등과 함께 시사책진회(時事策進會)를 조직해 활동하였고, 상해임시정부 의정원 의원에 피선되어 활동했다. 1937년 1월 만주 일본관동군에게 체포돼 조선총독부로 인계된 후 8년형을 선고받고 대전과 공주감옥 등에서 옥고를 치렀다. 광복 후에는 한국독립당 창당을 발기해 중앙위원 겸 훈련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48년 제헌국회의원과 1950년 제2대 국회의원을 지냈고, 제헌의원 시절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할 것을 강력히 주장해 관철시켰다.

민족과 나라를 위해 평생을 바쳐 온 그는 1963년 1월 26일 청주 정하(井下)의 하숙집에서 70세의 일기로 타계하였고, 정부는 그해 3월 1일 건국훈장 국민장을 추서했다.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이범석 등 독립지사와 주민들의 애도 속에 고향인 도안면 석곡리 선영에 묻혔다가 1976년 10월 국립묘지 이범석의 묘 옆으로 이장됐다.

증평향토문화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지역 유지들의 문화재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 2002년 1월 11일 충청북도기념물 제122호 지정되었다.<sup>60)</sup>



연병호선생 생가

60) 충북학연구소·도안면 지발간위원회, 2001, 『道安面誌』, 306쪽, 407~408쪽./ 증평문화원, 2003, 『曾坪文化院 十年史』, 297~298쪽./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십년사』, 131~133쪽.

## 8. 무형문화재(無形文化財)

### 1) 대장장이 최용진



대장장이 최용진

61) 증평향토문화연구회,  
2003, 『증평문화연구회  
십년사』, 151~152쪽.

증평향토문화 가운데 전승기술의 보유자로 대표적인 인물로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고유의 농기구와 생활도구 등을 언젠가 한 자리에 모아 후손들이 선조의 발자취와 농경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대장장이 최용진씨를 들 수 있다.

증평읍 중동 85-17 선경아파트 뒤편에서 10평 남짓의 증평대장간을 운영하고 있는 최씨는 1995년 11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가해 전국 최초의 야장(冶匠)부문 고유기능전승자로 선정되었다.

증평출장소 및 증평군 향토문화연구소 등 관련 단체에서는 대장장이 최용진씨를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을 추진하여 2005년 증평군 향토유적 무형 제1호로 관리하고 있다.<sup>61)</sup>

### 2) 장뜰 두레놀이

증평 장뜰두레놀이는 증평지역 농민들이 논농사를 지으면서 부르던 고유의 농요(農謠)와 농악가락을 합주하여 재현된 전통두레놀이이다. 이 놀이소리는 옛 우리 조상들이 논농사를 제현향 물을 대는 고리질소리, 모찌기소리, 모심기소리, 초듬매기소리, 이듬매기소리, 방아찧기소리, 세듬매기소리 등이 농요로 구성되어 있고, 가창방식은 선창(先唱)과 후창(後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증평지역의 농요(정달훈)와 농악(조진구, 양철주)을 연구·조사·재연하여 2002년 11월 2일 제9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영동)에서 단체부문 우수상 및 개인부문 장려상(정달훈)을 수상하여 학계로부터 우리 고유의 민속원형

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증평문화원은 이를 체계화하고 학술적인 연구를 지원 보존하기 위해 2003년 2월 16일 장뜰두레놀이보존회를 설립했으



2005년 증평 장뜰두레놀이보존회가 축제



2004년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며, 2003년 10월 16일 제10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제천)에 참가하여 대상, 2004년 10월 5일~7일 제45회 한국민속예술축제(부여)에서 은상을 수상함으로써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이에 증평군에서는 2004년부터 장뜰두레놀이를 우리 민속전통놀이로 활성화하고 영구히 보존하고자 지역의 문화축제(文化祝祭)로서 승화하기 위하여 매년 ‘장뜰노래나들이축제’ 행사를 실시하고, 2005년 8월 ‘장뜰두레농요조사 보고서’(청주대학교 이창신 교수)를 발표했다. 잊혀져가는 우리 지역의 전통 문화의 뿌리를 찾아 재현하고, 이를 통한 주민화합과 자긍심을 모으는 증평군의 문화유산으로 보존되고 전승되어야 하겠다.

2005년 다시 장뜰두레놀이보존회(회장 양철주)를 설립하고 충청북도무형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 9. 동물(動物) 및 식물(植物)

### 1) 덕상 백로 서식지(白鷺棲息地)

증평읍 덕상리의 백로 서식지는 보강천의 지류인 삼기천변에 위치해 있으며, 이 지역은 백로의 서식환경이 우수해 번식기에는 수백마리가 모여 있다.

백로는 황새과에 속하며 학명으로는 Egretta라고 하는데 암수 모두가 순백색이나 눈앞은 녹색이고 번식기때는 어깨깃에 30~50개의 가늘고 긴 식우(飾羽)가 생기고, 다리는 검은 색으로 변하며, 번식기에는 나무 위에서 집단으로 서식한다. 알은 4~5월에 접시모양의 둥지에 2~4개를 낳으며, 25~26일이면 부화하는데 새끼는 온몸에 흰 솜털이 나 있다. 어류를 주식으로 하며, 4월에 왔다가 번식한 뒤에 10월이면 남쪽으로 날아간다.

백로는 예로부터 길조(吉鳥)로서 집단으로 번식하면 풍년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 오늘날까지 잘 보호되고 있다.

덕상리의 백로서식지는 아직 증평지역의 자연환경이 크게 오염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백로가 살 수 있는 깨끗한 자연환경을 소중히 가꾸어나가야 할 것이다.

### 2) 보호수(保護樹)

우리 문화유산 가운데 수령이 오래된 큰 나무들은 대개 고유 수종으로서 옛날부터 전해오는 전설이 깃



덕상리 백로서식지

든 향토적인 것이 많으며, 세월의 여과 속에서도 곳곳이 자라오고 있는 모습은 지역의 오랜 전통과 기상을 느낄 수 있는 것들로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것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노거수목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역사적(歷史的)·경관적(景觀的)·학술적(學術的) 가치를 중시해 지정·관리되고 있는 천연기념물(天然記念物)로 분류되기도 하며, 산림법에 따라 생물의 유전자와 종 또는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관리 차원에서 지정된 보호수(保護樹)로 구분되기도 한다. 중평군내의 노거수목 가운데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것은 아직 없으며, 일부 오래된 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다.

보호수의 유형은 옛날 성현(聖賢)·위인(偉人)·왕족(王族) 등이 심은 것으로 역사적인 고사(古事)나 전설(傳說)이 있는 명목(名木), 역사적인 고사나 전설이 있는 보배로운 나무로서 전해 내려오는, 보목(寶木), 산기슭·산정·마을입구·촌락 부근 등에 있는 나무로서 성황목 혹은 당사목이라 부르면서 근처에 제를 지내는 산신당·산주당·성황당에 있는 당산목(堂山木), 학교·서원·사정·별장·정자 등에 피서목(避暑木)이나 풍치목(風致木)으로 심은 정자목(亭子木)이 있다. 해안 또는 강과 하천을 보호할 목적으로 심은 호안목(湖岸木), 나무의 모양이 정상이 아닌 기괴한 형태의 관상가치가 있는 기형목(奇形木), 풍치(風致)·방풍(防風)·방호(防護)의 효과를 주는 풍치목(風致木)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중평군의 노거수목들은 1982년 11월 16일 일부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느티나무·은행나무·버드나무 등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대부분은 당산목이나 정자목·풍치목 등의 성격을 갖는 것들이다. 대표적인 보호수의 현황을 수종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 (1) 느티나무

느티나무는 느티나무과에 속하는 활엽수이다. 학명은 *Zellkova serrata*인데, 대개 높이 20m까지 크며, 수피는 거칠고 옅은 회갈색이며, 잎은 긴 타원형 또는 난상 타원형인데 밑이 움푹 들어갔거나 일자모양이고 끝이 날카롭고 고른 톱날이 있다. 꽃은 암수가 섞여 피며 액출 또는 단립성으로 나고 4~5월에 꽃이 피고 과실은 가지런하지 않은 편구형이며, 모가 있고 10월에 익는다.

느티나무는 대개가 수령이 길고 잎이 무성하며 특히 난귀(難鬼)를 쫓는다고 해 옛날에 관아와 마을 입구 또는 고개에 신목(神木)으로 심어 오늘날까지 전해져 오는 것이 많다.

중평지역의 노거수목 가운데는 느티나무가 가장 많으며, 이 가운데 수령 250년 이상의 거목은 보호수로 지정되었다.



증평읍 죽리1리 333 느티나무(군나무:7-9-2-93)



증평읍 남하3리 느티나무(읍나무:7-9-2-95)

소재지	품격 : 고유번호	관리자(소유)	수령	높이	둘레	비고
증평읍 미암리	군나무 : 7-9-61	미암1리 주민	300년	17m	4.8m	·
증평읍 용강리	군나무 : 7-9-63	장병렬	400년	9m	3.8m	·
증평읍 남차리	군나무 : 7-9-64	남차리 주민	350년	14m	3.1m	·
증평읍 남차리	군나무 : 7-9-64	남차리 주민	360년	14m	3.07m	·
증평읍 장동리	군나무:7-9-2-88	장동리 주민	200년	9m	1.8m	·
증평읍 덕상리	군나무 : 7-9-2-90	덕상리 주민	250년	10m	3.1m	2본
증평읍 덕상리	읍나무 : 7-9-2-91	덕상리 주민	290년	7.5m	3.5m	·
증평읍 죽1리	군나무 : 7-9-2-93	죽1리 주민	250년	12m	3.3m	·
증평읍 남하리	마을나무 : 7-9-2-95	남하리 주민	250년	10m	4.8m	·
증평읍 남하리	읍나무 : 7-9-2-96	김재문	250년	11m	3.2m	
도안면 노암 1리	읍나무 : 7-9-10-110	연재완	250년	13m	3.2m	

## (2) 은행나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과에 속하는 침엽수로 학명은 *Ginkgoaceae*인데 대개 높이 30m까지 크며 수피는 거칠고 흐린 황갈색이며, 가지는 비늘조각과 잎의 흔적이 있는 2~3m의 짧은 가지와 굵고 긴 가지가 있다. 동아(冬芽)는 원추형에 갈색 비늘조각에 쌓여 있고 잎은 부채모양인데 가을이면 노란색으로 변한다. 은행나무의 꽃은 수꽃과 암꽃이 있으며, 짧은 가지의 어린잎 사이에서 피며 수꽃은 황록색의 이삭모양이고 암꽃은 담황색의 잔모양이다.

도안면 화성7리 은행나무  
(도나무:7-12)



증평읍 용강리 은행나무 2  
(군나무:7-9-62)

은행나무는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에서만 자라며 은행목(銀杏木)·압각자(鴨脚子)·공손수(公孫樹)·평중목(平仲木) 등 여러 가지로 썼는데, 수령이 길고 은행잎이 아름다워 옛날부터 사찰·능묘·사원·관아·정자 옆에는 풍치목(風致木)으로 심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기도 하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화성리·용강리·도당리 등에 보호수로 지정된 은행나무가 있으며, 풍치목의 성격을 갖는다.

소재지	품격 : 고유번호	관리자(소유)	수령	높이	둘레	비고
도안면 화성7리	도나무 : 7-12	이장	500년	22m	5.9m	
증평읍 용강리	군나무 : 7-9-62	용강리 주민	400년	11m	5.3m	2본
도안면 도당3리	군나무 : 7-9-99	도당리 주민	450년	10m	6m	

### (3) 버드나무



도안면 석곡리 버드나무  
(군나무:7-9-98)

버드나무는 버드나무과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학명은 Salix인데, 대개 높이 20m이상 크며 수피는 거칠고 회갈색이며 잎은 어긋나고 타원형으로 길이 4~12cm이며 적갈색을 띠고 뒷면은 흰색이다. 주로 물가에 생육하며, 한국·중국·일본 등에 자생한다.

도안면 석곡리의 버드나무는 마을입구의 문암천변에 심어져 있는데, 이 마을 들녘의 중심이기도 해 농번기에는 마을사람들의 휴식처로 잠시나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소재지	품격 : 고유번호	관리자(소유)	수령	높이	둘레	비고
도안면 석곡1리	군나무 : 7-9-98	석곡1리 주민	300년	15m	5.1m	



## 제2장 증평군의 민속문화

안상경 집필

### 제1절 구비문학

#### 제1절

구비문학(口碑文學)은 민간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성되어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는 문학일반을 말한다. 구비문학은 기록이 아닌 말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일회적이며, 말로 전달되기 때문에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대면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전승이 가능하다. 따라서 대량 생산은 원칙으로 불가능하다. 말로 전승된다는 것은 ‘말로 전해들은 내용을 기억하여 다시 말로 재연한다’는 뜻을 함축하고 있다. 따라서 구비문학의 영역에서는 그대로의 보존은 있을 수 없다. 다만 전승이 가능할 뿐이며, 이 전승 또한 변화를 내포하는 보존이다. 구비문학은 형식이나 내용이 단순하다. 설화와 소설, 가면극과 현대극, 민요와 현대시 등을 비교할 때, 구비문학은 문체·구성·인물·주제 등에서 매우 단순한 특성을 드러내고 있다. 즉, 단순하지 않고서는 기억과 재연이 어려운 까닭이다. 구비문학의 대표적 장르로서 설화, 민요, 무가, 판소리 등을 꼽을 수 있는데, 특히 설화와 민요가 비전문적 일반에 의해 전승되기 때문에 폭넓은 전승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

#### 1. 설화

설화(說話)는 옛날의 이야기며, 따라서 역사적 기능과 역사의 문학적 기능을 함께 발휘하고 있다. 특히 전설(傳說)은 신화(神話)·민담(民譚)과 달리 사실로 입증할 만한 객관적 근거를 가진 이야기이므로 역사의 이면을 보완한다. 즉 역사적으로 생존했던 인물의 내력과 일생을 이야기하고, 역사 유물과 문화

유적들의 유래를 이야기하며, 자연물에 얹힌 사실들을 구체적인 증거물과 관련해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전설이다.

전설의 내용을 입증하는 근거를 흔히 ‘증거물’ 이라고 하는데, 증거물은 비현실적인 전설의 내용을 현실의 차원으로 끌어들이는 매개로 작용한다. 비현실적 요소 때문에 실제 사건으로 보기 어려운 전설의 내용이 진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처럼 이해되는 것이 바로 증거물이기 때문이다. 증거물은 산이나 바위 같은 자연물, 역사와 더불어 인위적으로 조성된 유적이나 유물, 성현이나 장수 또는 고승 같은 비범한 인물, 골짜기마다 마을마다 유래하는 고유한 지명 등 인간 사회의 제반 요소를 망라한다. 전설을 분류함에 있어서도 증거물은 중요한 증거가 된다. 예컨대 자연물 내지 지명의 유래를 증거물로 삼은 전설을 지명전설로, 인물의 내력과 일생을 증거물로 삼은 전설을 인물전설로, 역사·문화적 유물의 유래를 증거물로 삼은 전설을 유물전설로 분류할 수 있다.

## 1) 유물전설(遺物傳說)

### (1) 명마가 잠들어 있는 말무덤\*



증평읍 미암5리  
명마가 잠들어 있는 말무덤

미암 5리 단지바우 뒤편에서 이성산으로 오르는 ‘뒋너머(등만이)’ 기슭에 말무덤이 전하고 있다. 밑 둘레 29m, 높이 3. 3m 가량 되는 둥근 형태의 큰 무덤이지만, 오늘날은 돌보는 이가 없어 무덤인지 알아보기가 어렵다.

삼국이 치열하게 대립하던 때, 미암리 인근 지역은 위낙 접경지역이었던 터라 하루가 다르게 그 주인이 바뀌었다. 어느 해 고구려와 신라가 이성산을 쟁탈하기 위해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승기가 고구려 쪽으로 기울자 신

라군은 도주하기 시작했다. 고구려 군사를 이끌던 한 장수는 때를 놓치지 않고 도주하는 신라 장수를 추격했다. 그러다 그만 날아드는 화살을 맞고 전사하고 말았다.

장수가 쓰러지자 그가 아꼈던 명마는 꿈쩍도 하지 않고 주인 곁을 지켰다. 아무 것도 먹지 않은 채 그저 주인 곁을 맴돌았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 명마도 장수를 따라 숨을 거두었다.

미물이더라도 죽음으로 충성을 다한 명마의 넋을 기리기 위해 부하 장졸들은 장수와 함께 명마를 묻고 후하게 장례를 치러주었다.

\*양근모(남, 조사 당시 미암 5리 이장).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2) 신선이 쌓은 탑\*

연탄 2리를 흔히 ‘탑선(塔仙)’이라고 한다. ‘신선이 탑을 쌓았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비록 엉성한 형태이지만, 연대를 추정할 수 없는 두 기의 탑이 오늘날까지 전하고 있다.

옛날 옛적, 연탄 2리는 진천으로 향하는 길목이었다. 증평에서 진천으로, 진천에서 증평으로 오가는 사람들이 줄을 이었다. 그러나 길이 꼬불꼬불한 소로였으며, 또 나무들이 무성했다. 그래서 도적들이 들끓었다.

도적들은 나무숲에 몰래 숨어 있다가 행인이 지나가면 종을 울려 다른 도적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종이 울리면 도적떼가 득달같이 달려들어 행인을 약탈했다. 그런데 그 종소리가 흡사 사찰의 풍경소리와 같았다. 그래서 행인들은 도적떼와 사찰의 승려가 결탁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했다.

이에 사찰의 승려들은 누명을 벗고자 백일기도를 드렸다. 승려들의 백일기도가 끝날 즈음에 신선이 내려와 종이 울리던 그 자리에 탑을 세워놓았다. 이후로 어떠한 이유인지 더 이상 종이 울리지 않았고, 또 도적떼도 사라졌다.

평범한 몇 기의 돌을 아무런 형식 없이 올려놓은 듯한 형태이지만, ‘어떤 비·바람에도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며 마을 사람들은 아직도 이 탑을 신성하게 여기고 있다.

\*이병조(남, 조사 당시 71세, 증평읍 연탄 2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신선이 쌓았다는 탑선리의 탑

### (3) 아들을 점지하는 탑바위\*

남하 3구 염실마을에는 삼불(三佛)을 새겨 넣은 바위가 있다. 바위 옆에는 탑이 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바위를 일러 ‘탑바위’라고 한다.

바위는 흡사 병풍의 형상을 하고 있으며, 앞에는 작은 샘이 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부녀자가 탑바위에서 치성을 드리면 반드시 아들을 얻는다는 영험담(靈驗譚)이 전하고 있다. 오늘날에도 기자치성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주재두(남, 조사 당시 86세, 증평읍 남하리). 『괴산군 설화집』(1999)



탑바위의 삼불 : 기자치성의 대상 신체(神體)

탑바위의 용왕 : 기자치성의 대상 신체(神體)

### (4) 국난의 징조를 알리는 말세우물\*

사곡리 사청이 마을에는 ‘말세우물’이 있다.

증평읍 사곡리  
말세를 알리는 말세우물



원래 이곳에는 우물이 없었다. 그래서 옆 질벌에서 물을 길어다 먹을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가뭄이 들라치면 물로 인한 고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었다.

어느 날, 가뭄이 심한 때에 한 노승이 이 곳으로 시주를 왔다. 가뭄으로 인해 인심이 흉흉한 상황에서도 마을 사람들은 노승에게 정성껏 시주를 했다. 노승은 ‘가뭄이 심한데도, 또 부춘 같지 않은데도 어찌 이리도 인심이 후할까?’ 하며 의아했다.

그러던 중 노승이 목이 말라 한 집에 들러 물 한 모금 마실 것을 부탁했다. 그 집의 안주인은 노승의 부탁에 미안해하며, “마침 집에 길어놓은 물이 없으니 여기 마루에 앉아 계시면 물을 길어다 드리겠습니다.”라고 답한 후 동이를 머리에 이고 성급히 나갔다. 그러나 꽤 오랜 시간이 흘러도 안주인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웃 마을에서 물을 길어와야 하는 실정을 몰랐던 노승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한참 후에야, 안주인은 “죄송합니다. 우물이 워낙 멀어와서 오래 기다리게 했습니다.”며 쟁반에 물을 공손히 바치며 양해를 구했다. 노승은 이제 마을의 사정을 짐작할 수 있었다. 노승은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마을의 물길을 찾아 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안주인과 더불어 마을 곳곳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한참을 헤매다가 “이 곳의 바위를 치우고 우물을 파면 좋은 물이 나올 것입니다”며 수원(水原)을 점지했다.

그러면서 노승은 “이곳의 우물을 파면 가뭄에도 마르지 않을 것이고, 장마에도 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에 난리가 나면 물이 넘쳐버릴 것입니다. 더구나 물이 세 번 넘쳐 흐르게 되면 말세가 도래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며 예언과 금기를 동시에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다.

이튿날, 안주인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노승이 점지한 장소를 파보았다. 그랬더니 신기하게도 맛좋은 물이 펴펴 솟았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물로 인해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된다’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 “우물의 물이 넘쳐 흐른다”며 수군댔

다. 안주인은 노승의 예언과 금기가 불현듯 생각났다. 분명 난리가 날 것이지만 금기가 있던 터라, 선불리 마을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안주인은 한참을 고민 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실제로 난리가 났고, 난리 전에 마을 사람 모두가 피난을 갔다. 그래서 한 사람의 희생도 없이 무사히 난리를 극복할 수 있었다.

1910년에 일제가 합병을 했을 때도,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우물물이 넘쳐 흘렀다고 한다.

\*『한국의 전설』(1972).

#### (5) 정갈한 사람을 구별하는 샘\*

솔모루 마을의 미륵불 밑에는 시루 만한 크기의 샘이 있다.

이 샘은 부정한 사람과 정갈한 사람을 구별하는 영험이 있었다. 부정한 사람이 물을 구하면 샘은 저절로 말라버렸고, 정갈한 사람이 물을 구하면 샘은 저절로 깨끗한 물을 쏟아냈다. 또한 부정한 사람이 물을 구하는 것을 꺼려 샘 주위에 구렁이가 상주하고 있었다. 그러나 정갈한 사람이 오면 구렁이는 순식간에 사라졌다.

일종의 영험담(靈驗譚)으로 볼 수 있다.

\* 노성순(여, 조사 당시 74세,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괴산군 설화집』(1999).



정갈한 사람을 구별하는  
솔모루샘

#### (6) 앓은뱅이도 고쳤다는 샘물\*

화성리 작달이 마을을 지나면 ‘사당골’이라는 곳이 있다. 이곳에는 언제나 샘솟는 샘물이 있다.

옛날 옛적,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다. 그런데 부자의 몸에 부스럼이 생겼고, 백약이 무효했다. 그러던 중 사당골의 샘물에서 우연히 목욕을 한 후에 부스럼이 씻은 듯이 사라졌다. 이후로 “사당골의 샘물은 약물이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인근에서 사람들이 몰렸다. 또한 “사당골에서 목욕을 하면 앓은뱅이도 일어선다.”는 언어전승이 생겨 오늘날까지 구전되고 있다. 일설에서는 선녀들이 자주 내려와 목욕을 하고 갔다고 한다.

\* 연록일(남, 조사 당시 82세, 도안면 화성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3).



선녀들이 목욕하던  
사당골 샘물

## (7) 염병을 치유하는 석불\*



증평읍 미암1리  
석조관음보살입상

미암1리를 일러 ‘미륵댕이’ 라고 한다. 개울 건너에 ‘미륵이 있다’ 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오늘날에는 사찰을 건립해 미륵을 관리하고 있지만, 예전에는 미륵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옛날 옛적, 마을에 염병(돌림병)이 돌아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이렇다할 약도 없었던 터라, 마을 사람들은 당시 마을에 있던 서낭나무를 대상으로 치성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다.

어느 날,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마을 사람들이 서낭나무에서 치성을 드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이 곳에 돌부처를 세우면 마을 사람들의 병이 나을 것이다!”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십사일반으로 정성을 모아 돌부처를 세웠다. 이후로 더 이상 염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는 사람이 없었다.

\* 연찬희(남, 조사 당시 58세, 증평읍 장동리). 『괴산군 설화집』(1999).

## (8) 부자의 욕심으로 허리가 잘린 미륵\*

남하2리에는 허리가 잘린 미륵이 있다.

그 옛날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다. 그런데 그가 축적한 부는 악독한 방법을 동원해서 얻은 것이었다. 게다가 부를 축적하면 할수록 더욱 인색해졌고, 욕심 또한 날이 갈수록 심했다. 그런데 그 집의 하인 역시 주인을 닮아 인색할 뿐더러 심술궂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부자에게 시주를 요청했다. 어느 때와 다를 바 없이 부자는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계속 울리는 목탁 소리가 시끄러워 하인을 시켜 노승을 쫓아 버리도록 했다. 이에 하인은 빗자루를 들고서, “우리 주인 나리께서 시끄럽다고 하신다. 댄 데로 가라!”며 스님을 내몰았다. 그러자 노승도 “소승은 시주를 받을 때까지 가지 못하겠습니다.”며 완고하게 맞섰다. 이에 주인은 “거름이나 한 삽 떠주어라.”라고 하자, 하인은 시키는 대로 거름을 바랑에 퍼주었다.

노승은 아무 말 없이 거름을 받고는, “시주를 했더라면 더 큰 부자가 될 방법을 가르쳐주려고 했건만~”이라며 아쉬운 낯빛을 띠었다. 하인이 노승의 말에 솔깃해 더 큰 부자가 되는 방법을 물어보았다. 노승은 “저기 미륵이 부자 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부밖에 축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미륵의 허리를 자르면 큰 부를 축적할 수 있을 것입니다.”며 넌지시 비법을 전해주었다.

하인은 이 사실을 주인에게 알렸다. 주인은 득달같이 미륵의 허리를 잘라버렸다. 그런데 미륵의 허리를 자르자 하늘에서 느닷없이 벼락이 내리쳤다. 또한 미륵의 허리에서 끊임없이 피가 흘러나왔다. 미륵의 피가 흘러내려 내[川]가 생길 정도였다.

부자는 이후에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이 그만 망하고 말았다.

\*이종의(남, 조사 당시 72세, 증평읍 남하리). 『괴산군 설화집』(1999).

#### (9) 영험한 능력을 발휘하는 율리의 미륵\*

율리의 저수지에 미륵이 있다. 가뭄이 들어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그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보통 저수지의 물이 차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볼 수가 없다.

옛날 이곳, 마을의 한 노인이 미륵을 정성껏 모시다가 그만 귀찮아서 더 이상 모시지 않았다. 그랬더니 노인의 머리에 가득 부스럼이 났다. 노인은 백약으로 처방을 해보았으나 효험이 없었다. 이에 미륵에게 다시 빌었더니 씻은 듯이 나았다.

또 미륵 옆에서 논일을 하던 농부가 새참을 먹고 있는데, 아무런 이유 없이 논두렁이 무너져 내렸다. 이에 미륵에게 약간의 공양을 하였더니 더 이상 논두렁이 무너지지 않았다. 이 때부터 농부는 무엇을 먹더라도 미륵에게 공양을 했다.

또 아들이 없어 고민하던 부녀자가 미륵에게 치성을 드리고 한 번에 삼 형제를 출산했다. 미륵의 영험으로 간주해 “아들 하나만 데려가라.”며 기도를 올렸더니, 이번에는 삼 형제를 한꺼번에 데리고 갔다.

또 오늘날 수리조합을 만들면서 미륵이 물에 잠겼는데, 미륵이 노했는지 누구든 조합장이 되면 원인 모를 병으로 죽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미륵의 원(怨)이 작용한 결과로 간주하고 미륵을 현재의 위치에 옮겨 세우고 고사를 올렸다. 그러자 더 이상 불상사가 생기지 않았다.

일종의 영험담(靈驗譚)으로 볼 수 있다.

\*한학수(남, 조사 당시 82세, 증평읍 남차리). 『괴산군 설화집』(1999).

#### (10) 암수살을 찾아 온 숫수살\*

남차리 앞에는 장내천(長來川)이라는 작은 냇가 흐르고 있다.



율리의 미륵



장내마을 내수살 제단

예전에 장마가 지면 장내천이 범람해 많은 피해를 입었다. 그래서 제방을 쌓았지만, 피해는 줄지 않았다. 이에 솥수살과 암수살을 방위에 맞게 세우고 수살맥이 고사를 올렸다. 그랬더니 이후부터 수해가 없었다.

그러나 병자년(丙子年)에 또 한 번 큰 장마가 졌다. 이 때 장마는 '배나무고개' 까지 삼켜버렸다. 장마는 솥수살도 삼켜버렸다. 그런데 물에 둥실둥실 떠내려오던 솥수살이 암수살 옆에 이르더니 급한 물살

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멈추었다. 이에 마을 사람들은 '남성이 여성을 찾아온 것이니, 이는 천리(天理)로 볼 수 있다.'며 솥수살과 암수살을 양쪽으로 세워놓고 더욱 정성껏 위했다.

아직도 마을 사람들은 정월 열 나흘날 수살맥이 고사를 올리고 있다.

\* 류근철(남, 조사 당시 70세, 중평읍 남차리). 『괴산군 설화집』(1999),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2) 지명전설(地名傳說)

### (1) 세 가지 보물이 있는 삼보산\*



삼보산 전경

죽리초등학교에서 서·남쪽으로 약 1km 쯤 떨어진 곳에 삼보산(三寶山; 해발 273m)이 우뚝 솟아 있다. 대동여지도(1861년, 김정호 제작)에는 삼보봉(三寶峰)으로 표기되어 있다. 삼보산이나 삼보봉이나 '이곳에서 세 가지의 보물이 난다.'고 해서 유래한 명칭이다.

첫째 보물은 삼보산에 수원(水原)을 두고 있는 조정리의 천연약수와 남하리의 탄산약수이다. 특히 위장병과 피부병에 효력이 있다고 전해 이를 복용하거나 여름철에 목욕

을 즐기는 사람이 많다. 오늘날 남하리의 탄산약수는 수맥이 끊어진 상태다.

둘째 보물은 삼보산에 매장되어 있는 금광석(金鑛石)이다. 그러나 안동 김씨의 종산(宗山)으로서 안동 김씨 조상들의 묘소가 자리잡고 있어 채광을 못한다고 했다. 전하는 말에 의하면 옥도 매장되어 있다.

셋째 보물은 삼보산에 매장되어 있는 '산골(광물질)'이다. 북이면 호명리에

서 산출되고 있다. 산골은 뼈가 골절됐을 때나 풍치의 통증이 있을 때 담배에 섞어서 피우면 마취의 효과가 있다고 한다.

\*김성희(남, 조사 당시 56세, 증평읍 남하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3).

## (2) 노래를 하고 춤을 추었던 가무지\*

가무지(歌舞地)는 노래 가(歌), 춤출 무(舞), 땅 지(地)를 합성한 지명이다. 그러나 가무지는 원래는 ‘전당(錢塘)’으로 불렸다. 전당은 ‘돈’과 ‘못’을 합성한 지명이기 때문에, 한자 그대로 풀이하면 ‘돈못’이라는 뜻이다. 그래서인지 예전부터 이곳에서의 삶이 넉넉했다고 한다.

전당이라는 지명은 개화기 무렵에 가무지로 바뀌었다. 일본이 한국을 합병하면서 이곳에 도안역, 학교, 주재소, 면사무소 등 신식 기관이 속속 들어서게 되었다. 이 유야 어떻게든 신식 기관이 들어서게 된 것에 인근 주민들은 좋아했고, 또 ‘잔치를 벌여 노래하고 춤을 추었다’고 한다. 이러한 것이 연유가 되어 전당이라는 지명이 가무지로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박갑출(남, 조사 당시 84세, 도안면 송정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가무지(송정5리) 전경

## (3) 세 사람의 진사를 배출한 작달이\*

작달이는 벼슬 작(爵), 다다를 달(達)을 합성한 지명이다. 위쪽에 위치해 있는 작달이를 상작(上爵), 아래쪽에 있는 위치해 있는 작달이를 하작(下爵)이라고 한다. 작달이는 ‘세 사람의 진사를 배출했다’는데서 유래됐다.

조선시대 진사시(進士試)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성균관(成均館)에 입학할 자격이 주어졌고, 성균관에 들어가 공부하다가 문과에 응시해 급제하고 벼슬길로 나아가는 것이正道(正道)였다. 혹여 성균관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참봉·훈도·오위장 등 중 9품의 관직을 제수 받았다. 또한 문과를 단념한 진사는 지방의 지도자로 군림했다.



작달리(화성3리) 전경

진사는 일반 백성들에게 숭배와 존중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한 마을에서 진사를 무려 세 사람씩이나 배출했다는 사실이 마을 사람들에게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이 곳을 ‘작달이’라고 불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연륙일(남, 조사 당시 82세, 도안면 화성리). 『괴산군 설화집』(1999),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 (4) 쇠말뚝이 박혀 있었던 철마봉\*

노암리 뒷산의 원래 이름은 ‘곡사봉’이지만, 마을 사람들은 흔히 ‘철마봉(鐵馬峯)’이라고 부르고 있다. 산꼭대기에 쇠말(鐵馬)이 박혀 있는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또한 “철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벼락을 맞는다.”는 속신(俗信)이 전해진다. 그래서 쇠말 주위에는 가능한 접근하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인가 고물장수가 쇠말을 골동품으로 여겨 뽑아갔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 쇠말의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 연경흠(남, 조사 당시 78세, 도안면 노암리). 『괴산군 설화집』(1999).

#### (5) 충주의 자린고비가 파리를 쫓아 왔던 장내\*

옛날 이곳 충주(忠州)에는 매우 인색한 사람이 살았다. 그는 조기를 천장에 달아놓고 쳐다보는 것을 반찬으로 삼을 정도로 심한 자린고비였다. 굴비는 지금도 값비싼 생선이지만, 당시에는 더욱 귀했다. 자린고비는 제사를 지낸 후에 그것을 천장에 달아놓고 쳐다보며 밥을 먹었다. 보는 것도 아까워 딱 한 번씩만 쳐다보았다. 옆에서 밥을 먹던 아들이 혹여 두 번을 쳐다보면, “이 놈아! 한 번만 쳐다봐라. 두 번 쳐다보면 짜다.”라고 말했을 정도였다.

어느 날 여름에 자린고비는 ‘장에 곰팡이가 피지 말라’고 장독을 열어 햇빛을 쬔었다. 그런데 장 냄새를 맡고 쇠파리가 날아들어 장을 빨았다. 쇠파리는

엄지손가락 굵기 만했는데, 쇠파리의 다리에 장이 덕지덕지 묻었다. 이를 목격한 자린고비는 빗자루를 들고 파리를 쫓았다. 그런데 쇠파리를 잡아야 한다는 일념에 그만 충주에서부터 수살거리까지 한달음에 달려오고 말았다. 그러나 장 냄새는 여기 저기서 풍겨 났지만, 쇠파리를 잡을 수는 없었다.

이에 쇠파리는 없고 장 냄새만 풍겨났다고 해서, 이 곳을 ‘장내’라고 일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장내마을(남차리) 전경



\*류근철(남, 조사 당시 70세, 증평군 증평읍 남자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6) 쇠철판으로 마루를 깔았던 쇠마루\*

옛날 이곳에 큰 부자가 살았다. 부자는 자신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 마루를 온통 쇠철판으로 깔았다.

어느 날 문복장이<sup>1)</sup>가 이 집에 들렀다가 쇠철판을 깔아 놓은 마루를 보고, “아~ 이 마을에는 쇠마루도 있구나!”며 감탄을 했다. 쇠가죽으로 마루를 까는 일은 아주 드문 일이기에 마을 사람들도 자신의 고장을 ‘쇠마루’라고 일러 오늘에 이르고 있다.

\*김영기(여, 조사 당시 71세,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연탄3리(쇠마루) 회관

### (7) 청안현감이 쉬어가던 원평\*

원평(院坪)은 ‘원(院)이 있었다’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조선시대에, 청안에서 청주로 가는 길목에 원(院)이 있었다. 청안의 현감(縣監)이 청주감영(淸州監營)으로 오가다가 이곳에서 잠시 쉬었다고 한다. 무엇보다 세종임금이 초정(椒井)에서 삼 개월 동안 머물면서 안질을 치료할 때, 세종에게 매일 문안을 드리기 위해 청안의 현감이 초정을 오갔으며, 이곳의 원에서 관복을 정제했다고 한다. 이곳에는 원 뿐만 아니라 청안의 남창(南倉)<sup>2)</sup>도 있었기 때문에 매우 번화했다고 한다.

\*김명희(남, 조사 당시 70세, 증평군 증평읍 죽리). 『괴산군 설화집』(1999).



죽리 원평마을 전경

### (8) 선비를 많이 배출한 안자산과 증자천\*

이승산(이성산 ; 尼聖山)으로 불리는 산이 있다. 여기서 ‘이(尼)’는 공자의 이름을 의미한다. 공자는 유학의 종장으로서 성인의 반열에 들어서 있기 때문에 이승산은 즉 ‘성인산’ 내지 ‘공자산’이라는 뜻이 된다.

공자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제자들의 숭앙을 받았기 때문에 지역에서도 이승산 주변의 산이나 천을 이승산을 받드는 제자로 상징하고, 주변의 산과 천에 공자와 직접적으로 연계된 제자의 이름을 결부시켰다. 그래서 안자산(顔子

1) 문복장이(問卜--). 일종의 점쟁이로서 집을 짓는 경우에 집터 닦는 날과 주춧돌 놓는 날, 상량 올리는 날, 입주할 날 등을 정해준다. 안채나 사랑채 따위의 주요 건물은 물론 대문, 꽃간, 헛간, 뒷간, 그리고 우물자리까지 정해 준다.

2) 조선 후기, 금위영(禁衛營)에 부속되어 군량미를 저장했던 창고.

3) 자는 연(淵). 공자가 가장 신임했던 제자이며, 공자보다 30세 연소이나 공자보다 먼저 죽었다. 학문과 덕이 특히 높아서 공자도 그를 가리켜 '학문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칭송하였고, 또 가난한 생활을 이겨내고 도를 즐긴 것을 칭찬했다. 안희의 은둔적(隱遁的)인 성향으로 인해 "자기를 누르고 예(禮)로 돌아가는 것이 곧 인(仁)이다."라든가, "예가 아니면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고, 행동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공자의 가르침을 지킨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장자(莊子)와 같은 도가(道家)에게서도 안희를 높이 평가했다. 젊어서 죽었기 때문에 저술이나 업적은 남기지 못했으나, 『논어(論語)』의 '안연편(顔淵篇)'에서 그의 행적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4) 자는 자여(子輿). 산둥성(山東省)에서 출생했다. 증점(曾點)의 아들이다. 공자의 고제(高弟)로 효심이 두텁고 내성궁행(內省躬行)에 힘썼으며, 노나라에서 제자들의 교육에 주력했다. 공자가 제자들을 모아 놓고 "나의 도는 하나로서 일관한다"고 말했을 때 다른 제자들은 그 말의 참뜻을 몰라 생각에 잠겼으나, 증자는 선뜻 "부자(夫子)의 도는 충서(忠恕)만 있을 뿐이다"라고 해설해 다른 제자들을 놀라게 했다는 이야기는 유명하다. 『효경』의 작자라고 전하고 있지만 확실한 근거는 없다. 증자의 사상은 『증자』 18편 가운데 10편인 『대대례기(大戴禮記)』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山)과 증자천(曾子川)이라는 명칭이 유래했다.

안자산에서 '안자'는 공자가 가장 아꼈다고 전하는 제가 '안회(顔回)'를 의미한다.<sup>3)</sup> 또 이승산에서 품고 있는 내를 증자천이라고 하는데, 증자천에서 '증자' 역시 공자가 아꼈던 제자 증자(曾子)를 의미한다.<sup>4)</sup>

그런데 이성산, 안자산, 증자천 때문인지, 근동에서는 이곳 송산리에서 선비를 가장 많이 배출했다.

\*윤병훈(남, 조사 당시 82세, 증평읍 송산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 (9) 도안현이 청당현으로 편입된 사연\*

청안은 본래 청당현(淸塘縣)이었다. 그런데 도안현(道安縣)과 통합할 때 청당현의 청(淸)자와 도안현의 안(安)자를 합해 청안현(淸安縣)으로 변경됐다. 도안현의 관아 건물을 허물고, 청안현으로 통합된 데에는 사연이 있다.

옛날 이곳 도안현에 새로운 현감이 부임했다. 부인을 대동했는데 천하일색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아이를 낳지 못했다. 부인은 "미륵탱이의 돌부처가 영험하다"는 말을 듣고 매일 돌부처에 나아가 정성을 다했다.

그런데 돌부처를 관리하는 사찰의 스님이 부인의 미색에 반했는지, 부인 스님의 매력에 끌렸는지, 그만 두 사람은 부정을 저지르고 말았다. 날이 갈수록 두 사람의 정은 두터워졌고, 결국 두 사람의 행각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현감은 두 사람의 목을 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사찰을 무너뜨리고 또 미륵을 부수었다. 그리고 부인이 외도했다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 동헌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화염 속에 뛰어들었다.

이러한 사실을 보고 받은 조정에서는 "풍속을 어지럽힌 도안현을 폐지하고 청당현으로 편입하라"고 명했다고 한다.

\*한대규(남, 조사 당시 48세, 증평읍 미암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 3) 암석전설(巖石傳說)

### (1) 오라비의 한이 서린 남매바위\*

사곡리 앞의 야산을 '통퇴산'이라고 한다. 통퇴산 아랫자락에는 두 기의 바위도 아니며, 남매의 형상이 아닌 데도, 일러 '남매바위'라고 부르는 바위가 있다.

옛날 이 바위 근처에 한 채의 집이 있었다. 그 집에는 남매가 있었는데, 매일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았다. 어느 날 아버지가 장에 가서 오라비에게 갓신을 사다주었다. 아들은 생전 처음으로 갓신을 갖게 된 것에 매우 기뻐했다. 그러나 갓신을 갖지 못한 누이는 아무 말 없이 오라비를 부러워하기만 했다. 아버

지는 딸아이의 서운함을 눈치채고 “다음 장날에는 네 갓신도 꼭 사다주마.”고 약속을 했다.

이튿날에도 남매는 바위 위에 올라가서 놀았다. 그런데 오라비는 갓신이 닳을까 염려스러워 가지런히 바위 아래 벗어놓고 바위 위에서 흐뭇해하며 갓신을 바라보았다. 그럴수록 누이는 오라비의 갓신이 탐났다. 다음 ‘장날에 갓신을 사다주겠다’는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지만 조바심이 나 한시도 기다릴 수가 없었다.

결국 ‘오라비만 없으면 저 갓신은 내 것이 될 거야!’라며 헛된 생각에 오라비를 죽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오라비가 바위 위에서 갓신을 바라보고 있을 때, 오라비를 바위 아래로 밀어 떨어뜨렸다. 오라비는 바위 밑에 있는 큰 연못에 빠져 그만 숨을 거두었다. 누이는 오라비를 죽이고 돌아와 아버지에게 “오라비가 밭을 헃디더 바위에서 떨어져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는 누이의 말을 그대로 믿었다.

오라비가 죽은 뒤, 한참 후에 바위 밑에서 느닷없이 대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동네 아이들은 대나무를 베어 통소를 만들어 불었다. 그런데 통소에서 “갓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인 누이~ 갓신을 뺏으려고 나를 죽인 누이~”라며 죽은 오라비의 절규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 일로 인해 ‘누이가 오라비를 죽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누이는 자신이 저지른 죄가 부끄럽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크게 뉘우쳐 스스로 연못에 몸을 던졌다.

이를 계기로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남매바위’라고 불렀다. 오늘날에 바위 밑에 있었던 큰 연못은 작은 도랑으로 변했지만, 바위에 얹힌 이야기는 아직도 생생하게 전승되고 있다.

\*연두흙(남, 미상, 증평군 증평읍 사곡리). 『한국구전설화』(1990).



증평읍 사곡리  
통외산의 남매바위

## (2) 국난 때마다 우는 명암\*

화성리 북촌을 흔히 ‘명암(鳴岩)’ 또는 ‘우루배’라고 한다. 이곳에 울어바위(鳴岩)가 있어 유래한 지명이다.

어느 날, 한 노승이 이곳 마을앞을 지나다가 큰 바위를 보며, “참으로 영험하구나! 나라에 큰일이 생길 때마다 황소 울음소리가 날 것이다.”라고 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은 노승의 말을 빌어 바위를 명암(鳴岩; 울어바위)이라고 불렀다. 실제로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나, 한일합방이 되었을 때, 바위에서

“웅~ 웅~”하는 소리가 울렸다고 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흙에 파묻혀 그 형상을 확인할 길이 없다.

\* 연윤희(남, 조사 당시 72세, 도안면 화성리). 『괴산군 설화집』(1999),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 (3) 마을에서 보이면 우환이 닥치는 백암\*



백암마을(노암2리) 전경

노암리 뒷산에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에서 ‘흰 물이 흘러내렸다’ 는데서 ‘백암(白岩)’ 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마을에는 우환이 그치지 않았다. 그저 전전하던 차에 명풍수(名風水)로부터 “마을에서 백암이 뚜렷하게 보이기 때문에 우환이 그치지 않는다”는 원인을 알게 되었다. 이에 마을에서 백암이 보이지 않도록 큰 나무를 심어 백암을 가렸다. 이후로 마을에는 우환이 그쳤다.

\* 연경흠(남, 조사 당시 78세, 도안면 노암리).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 (4) 술이 나오던 술바위\*

남차리 인근 산에 ‘술바위’ 로 불리는 큰 바위가 있다. ‘바위에서 술이 나왔다’ 고 해서 유래된 이름이다.

예전부터 초정의 약수를 마시러, 혹은 약수에 몸을 담그러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특히 7월 백중 때에는 사람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었다. 초정으로 오갈 때, 사람들은 이 곳에서 잠시 쉬면서 술바위에서 나오는 한 잔의 술을 마셨다. 그런데 술바위에서는 한 사람 앞에 한 잔 만큼의 술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미 한 잔을 마신 사람이 아무리 잔을 갖다 대어도 술은 절대 나오지 않았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이 곳을 지나다가 술을 한 잔 마시게 되었다. 어찌나 술맛이 좋던지, 스님은 한 잔의 술을 더 마시고 싶은 마음에 단장으로 술바위를 쭈셨다. 그래도 술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다. 더구나 이 일이 있는 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술바위에서는 더 이상 술이 나오지 않는다.

\* 류근철(남, 조사 당시 70세, 중평읍 남차리). 『괴산군 설화집』(1999),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남차리 술바위

## (5) 장수가 세워 놓은 선바위\*

화성 3리 뒤편을 흔히 ‘서당골’ 이라고 한다. 예전에 ‘서당이 있었던 곳’ 이라는 데서 유래한 지명이다. 이곳에 ‘선바위’ 라고 불리는 우뚝한 바위가 있다.

옛날 이곳 마을에는 힘이 센 장수가 살고 있었다. 어찌나 힘이 센지 웬만한 바위를 공기돌처럼 들었다 놔다 했다. 사람들은 장수가 훗날 나라에 크게 쓰일 재목이 될것이라고 여겼다.

실제로 나라에 난리가 일어나자 왕은 장수를 급히 불러 들였다. 출전에 앞서 장수는 동리 사람들을 서당골 산등성에 있는 큰 굴에 피난시키고, 그 입구를 5m 가량의 선돌로 막았다. 혹여 있을지 모를 외적의 횡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심산이었다. 장수는 동리 사람들에게 ‘꼭 돌아오겠다’ 는 약속을 남기고 왕명을 받들었다.

그러나 장수는 전장에서 날아드는 화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장수가 와서 선돌을 치워주기만 학수고대하던 동리 사람들은 얼마간의 식량으로 전전하다가 모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지금은 굴이 막혀 옛 흔적을 찾아볼 수 없지만, 장수가 세워놓았다고 하는 선바위는 아직도 곳곳하게 서서 예전의 안타까움을 말해주는 듯하다.

\*노영우(남, 조사 당시 69세, 도안면 화성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5집』(2004).



장수가 세워놓은 서당골 선바위

## (6) 장수들이 뛰어 놀던 방구뱅이\*

송정 3리에서 동북 방향으로 갈골들을 지나 샘골로 가는 작은 능선에 큰 바위 6~7개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바위군을 일러 흔히 ‘방구뱅이’ 라고 했다.

예전에는 방구뱅이 맞은 편의 탑동리(현재 기와조각이 발견되고 있음)와 갈골에 마을을 이루어 사람들이 모여 살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방구뱅이에 낮에는 장수들이 나타나 뛰어 놀고, 밤에는 도깨비들이 나타나 활개를 치며 마을에 불을 질렀다. 비록 불을 내며 장난을 쳤지만, 초가지붕 위 부분만 살짝 그을리는 정도에 그쳤다. 사람들은 장수들이 뛰어 노는 소리가 너무 크고 무서워서, 또 도깨비들의 장난에 혹여 피해를 입을까 염려스러워 마을을 떠나 지금의 통뫼[通山] 기슭 아래로 이주했다.



장수의 발자국이 선명한 방구뱅이

지금도 방구뱅이에 장수들이 뛰어 놀며 새겼다는 발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연제순(남, 2001년 작고, 도안면 송정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4) 인물전설(人物傳說)

##### (1) 청백리 김치\*

율리[밤티]에 충무공 김시민(金時敏)의 아들 병조참의 김치(金緻)의 묘가 있다. 김치는 조선 숙종 때의 청백리(清白吏)로 경상도부사(慶尙道府使)를 지내다가 죽었다.

김치가 임지에서 운명을 달리했기 때문에 빠른 길을 택해서 한양까지 운구를 해야 했다. 그래서 분티재를 택했다. 분티재는 영남의 대로(大路)로서 경상도에서 보은(報恩), 미원(米院)을 거쳐 한양으로 가는 최고의 지름길이었다. 그래도 한양까지 운구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다. 특히 분티재를 넘을 때에 상여꾼들의 노고는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쉬어가기를 반복해야 했다.

상여꾼들이 잠시 분티재에서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다. 김치의 상여와 함께 만사(輓詞)를 수십 여 개 대동했는데, 갑자기 바람이 휘몰아치더니 만사 하나가 하늘로 날아 올랐다. 상여꾼들이 놀라서 날아가는 만사를 쫓아 3~4km 가량을 허겁지겁 달렸다. 만사는 밤티에 이르러 내려 앉았다.

이러한 사실을 의아하게 여긴 상주가 지관에게 “이곳 자리가 어떠냐?” 라고 물었다. 그랬더니 지관이 “이 곳은 최고의 명당입니다” 며 아뢰었다. 이에 만사가 내려앉은 바로 그 곳을 김득신의 묘로 삼았다. 그리고 후손들이 이 곳에 정착했다.

\*류근철(남, 조사 당시 70세, 증평읍 남차리). 『괴산군 설화집』(1999).

##### (2) 의병장 한봉수\*



의병장 한봉수가 대승을 거둔 해맞이고개

증평에서 청안(淸安)으로 향하는 첫 고개를 ‘해맞이고개’ 라고 한다. 고개 꼭대기에 올라서면 ‘해가 뜨는 것이 보인다’ 고 해서 유래한 명칭이다.

1910년을 전후해서 의병이 발기를 했다. 초정지역을 본거지로 삼았던 의병장 한봉수(韓鳳洙)는 청안을 점령하고 청주로 진격하는 일본군에 맞서 대승을 거두었다. 그러나 일본군은 신식무기로 무장을 하였기 때문에 의병들의 하찮은 무기로 연이어 맞선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에 한봉수는 해맞이고개에서 매복했다가 급습하는 게릴라전을 택해 전열을 가다듬었다. 그러나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수의 증원 병력이 한봉수가 이끄는 의병을 초토화하기 위해 진격을 가한다는 전갈을 받았다. 어떻게든 전면전은 피해야 했다. 그래서 묘안을 떠올린 것이 벌떼를 이용한 공격이었다.

한봉수는 해맞이고개 곳곳에 벌통을 숨겨놓았다. 일본군은 그것이 벌통인 지도 모르고 진격에 방해가 된다고 해서 함부로 치우려 했다. 그러자 벌떼가 일본군을 향해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느닷없는 벌떼의 급습에 당황한 일본군의 전열이 순식간에 흐트러졌다. 이틈에 한봉수와 의병들이 일본군을 향해 진격을 했고, 전례 없는 대승을 거두었다.

\*류근철(남, 조사 당시 70세, 증평읍 남차리).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5) 거목전설(巨木傳説)

### (1) 국난 때마다 우는 느티나무\*

솔모루 마을에는 350여년 된 느티나무가 있다. 마을 사람들은 몇 백년 이상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마을 사람들은 이 느티나무를 매우 소중하게 보호하고 있다. 국난 때마다 울음을 터뜨리는 나무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1910년에 일제가 합병을 했을 때도, 1950년에 한국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1979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도 느티나무가 울었다고 한다.

일종의 영험담(靈驗譚)으로 볼 수 있다.

\*노성순(여, 조사 당시 74세, 증평읍 남하리). 『괴산군 설화집』(1999).



증평읍 남하리  
국난 때마다 우는  
솔모루 느티나무

## 6) 풍수전설(風水傳説)

### (1) 명당을 품고 있는 대봉산\*

대봉산(大峯山)의 산정(山頂) 인근에는 파묘(破墓)의 흔적이 있다.

옛날부터 “대봉산에 묘를 쓰면 가뭄이 든다”는 이야기가 나돌았다. 그런데 일제시대에 누군가 산정 부근에 묘를 썼고, 이후부터 가뭄이 들었다. 기우제를 지내도 아무런 효험을 거두지 못하자, 마을 사람들은 혹여 대봉산에 누군가 묘를 쓴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게 되었다. 그래서 확인을 해보



증평읍 연탄리 기우제를 지내던 대봉산 전경

니 실제로 묘자리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묘를 파내고 관을 산 밑으로 굴러 버렸다. 그리고 기우제를 정성스레 올렸다. 과연 비가 왔다. 그러나 그 곳에 묘를 쓴 사람을 찾지는 못했다.

대봉산에 묘를 썼던 자리는 바위가 좌청룡·우백호의 형상으로 늘어서 있는 명당이라고 한다. 특히 ‘겨울에 아무리 눈이 내려도 그 곳에는 눈이 쌓이지 않는다’고 한다. 이렇게 최고의 명당임에도 불구하고 가뭄이 두려워, 오늘날에도 선뜻 이곳에 묘를 쓰지 못한다.

\*지영옥(남, 조사 당시 82세, 중평군 중평읍 송산리). 『중평의 뿌리를 찾아서』(2004).

## 2. 민요

민요는 민중들 사이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나 전승되는 노래를 일컫는다. 여기서 ‘민중’이란 평민 내지 백성과 같은 개념이다. 곧 민요는 소수 지배 계층의 노래가 아니라, 대다수 서민들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그들이 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혹은 삶의 흥취에 젖어서 불렀던 노래가 민중의 공감과 더불어 민요로 정착된 것이다. 민요는 민중들의 노동 현장이나 놀이판에서 불려짐으로서 그들의 흥취나 신명을 돕기도 했으며, 화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동



논 물대는 소리 시연(2005년 중평 장뜰노래나들이)



력을 증강시키기도 했다. 혹은 종교적 의식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의식상의 한 절차로 불려지기도 하고, 희로애락 등 인간정서를 자연스럽게 발산하는 순수하고 소박한 노래로 불려지기도 했다. 민요는 흔히 노동요·유희요·의식요로 분류된다.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불려어진다는 실질적인 역할에 주목한 기준안이다.

### 1) 노동요(勞動謠)

노동요는 일의 지루함을 잊고, 또 일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래로 흔히 ‘작업요’ 또는 ‘일노래’라고도 한다. 노동을 하면서 무슨 노래든지 부를 수 있겠으나, 민요의 형태로 오랫동안 집단적으로 전승돼 온 노래만을 노동요로 인정한다. 노래는 기본적으로 놀이의 일종이다. 그리고 놀이는 일상적인 삶의 영역 밖에 존재한다. 전통사회의 일꾼들은 그 속에서 일의 고됨과 지루함을 덜 수 있었다. 몸은 비록 노동의 현장에 있지만, 기분 만큼은 놀이판에 두는 것이다. 또한 노동요는 공동작업에서 일꾼들의 행동을 통일시켜 준다. 그리고 사설을 통해 작업을 독려하거나 작업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한다.

#### (1) 나물 뜯는 노래\*

뚝뚝뚝어 꽃다지 쪽쪽뽀아 나생이  
질로가면 질갱이 대로가면 대사리  
글로가면 고사리 오용조용 물래쟁이

\*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민담·민요집』(1983).

#### (2) 논 물대는 소리\*

이논자리로 말하자면 / 고~리~야두~레야~  
김서방네 논자리로 / 고~리~야두~레야~  
서마지기 논자린데 / 고~리~야두~레야~  
이논베미가 세마지긴가 / 고~리~야두~레야~  
양팔에 힘을주어 / 고~리~야두~레야~  
허리를 굽혀서 줄을 놓아요 / 고~리~야두~레야~  
앞줄을 놓아서 양줄을 당겨라 / 고~리~야두~레야~  
양줄을 당겨서 뒷줄을 놓아라 / 고~리~야두~레야~  
이뚱병으로 말하자면 / 고~리~야두~레야~  
물량이 천고래요 / 고~리~야두~레야~  
써레질이 잘되도록 / 고~리~야두~레야~  
물량을 충분히 넣게 / 고~리~야두~레야~

#### 현지조사 및 사진 촬영

- 1차 현지조사 및 사진 촬영: 2005년 2월 12일
- 2차 현지조사 및 사진 촬영: 2005년 5월 7일
- 3차 현지조사 및 사진 촬영: 2005년 6월 5~6일

#### 참고문헌

- 충청대관 편찬회, 『忠清大觀』, 의회평론사, 1959.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박영준, 『韓國의 傳說』, 한국문화도서출판사, 1972.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清北道誌』, 충청북도, 1975.
- 충청북도 문화공보실, 『傳說誌』, 충청북도, 1982.
- 충청북도 문화공보실, 『民譚·民謠誌』, 충청북도, 1983.
- 임석재, 『韓國口傳說話』, 임석재전집 6권, 평민사, 1990.
- 김영진 외, 『괴산군 설화집』, 괴산문화원, 1999.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도서출판 푸른나라, 2004.

네귀통이에 물이돌게 / 고~리~야두~레야~  
 힘을주어 품어주게 / 고~리~야두~레야~  
 김서방은 어디갔나 / 고~리~야두~레야~  
 소를몰고 빨리와서 / 고~리~야두~레야~  
 씨레질이나 해주오 / 고~리~야두~레야~  
 고~리~야두~레야~- / 고~리~야두~레야~-  
 고~리~야두~레야~- / 고~리~야두~레야~- \*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증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3) 모내기 소리 1\*

에라헤라 방아호 / 여기도 한쪽 저기도 한쪽 / 삼백출로만 심귀주소

\*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4) 모내기 소리 2\*

에헤야 에헤 에헤야 상사로다

이농사를 지어서 나라에 상납하고 부모님께 효도하세

여기심고 저기심고 삼백출짜리를 심어주게

\* 이화중(남, 조사 당시 80세, 증평읍 미암리). 『충북민요집』(1994).



모내기 소리 시연(2005년 증평 장뜰노래나들이)

## (5) 모내기 소리 3\*

여기도 꽃고 저기도나 꽃고 삼백출자리로 꽃아주게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여기고 꽃고서 저기도나 꽃고 갈지자 지그지그로 심어나주게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봄철인지 갈철인지 나는 몰랐더니 뒷동산에 매화춘절이 나를 알려주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앞이나고 꽃이피는 춘삼월이면 산채나물만 뜯어먹어도 봄은 살아나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서산에 지는해는 지고싶어 지나 나를두고 가는님은 가고싶어 가나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저건너 묵밭은 작년에도 묵더니만 올해로 날가같이 또묵었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동지섣달 쌓인눈은 춘삼월이되면 녹지만 요내가슴 쌓인수심은 사절이 지나  
도 안풀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시집살이 잘한다고 칭찬을 했더니 요강단지 부서다가 장간에 넣었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시아버지 드릴려고 동태를 삶았더니 잠결에 잘못삶아서 물방망이를 삶았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시어머님 잔소리는 설비상같고 우리님 잔소리는 꿀맛같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이밤몇밤 가신님은 돈이나 벌면 오련만 공동묘지 콩팔러 가신님은 어느때  
나 오려나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오늘살다가 내일이맘때 죽더라도 뱃속만 든든하면 근심걱정 없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아이랑 말년에 날리가나고 갑인년 이후에는 통평이 난다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이제나 언제나 유정님 만나 요세상 백년을 잘살아볼까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아~리~랑~고~개~로~~나  
 를-넘겨~주-소-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6) 모심는 소리\*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고개로 나를 넘겨주소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아리랑 고개고개로 날 땀겨주세  
 여기에 저기다 꼽더라해도 방이나 고르게 꽃아를주세  
 여기야 저기다 꼽더래도 장잎이휘휘 영화가되네  
 여기나 저기나 꼽더라해도 삼백출짜리로만 꽃아를주게  
 신농씨에 본을 받아 농사짓기를 일삼으세  
 천지야 음기로다 땅이녹는 법이오 우수풍조 시화연풍이 연년이오게  
 아리랑고개는 열두나고개 넘어갈적에 넘어올적엔 한고개로다  
 세월아 봄철아 오고가지 말게 청춘남녀가 다늙는줄을 왜모르나  
 천지음기로 비가오려면 땅이녹는 법이요 임자당신이 오시려는지 내만이 감  
 동된다  
 이논자리에 모를심어 삼배출짜리로만 심어를주세  
 세월이 가라거든 너혼자가지 청춘남녀를 몰고서 어디로가나  
 바람아 광풍아 부지를마라 꽃다운 고운꽃이 다떨어진다  
 세월아 네월아 오고가지 말게 녹빈에 흥안등이 다늙어가네  
 여보소 농부님네 내말을 듣게 이논자리에다 모를심세  
 다려갈 맘은 많지만서두 엄부영시하라 어쩔수없네

\* 주일종(남, 1921년 출생, 중평읍 남하리). 『한국민요대전』(1989~1995).

#### (7) 모찌는 소리 1\*

무여주세 무여주세 이모자리를 무여주세  
 여여주세 여여주세 이모자리를 여여주세  
 신농씨에 본을받아 농사법을 마련하야



모찌는 시연  
(2005년 증평 장들노래나들이)

오곡백곡 농사지어 부모님전에 봉양하세  
 무여주세 단쳐주세 이모자리를 무여주세  
 여여주세 여여주세 이모자리를 여여주세  
 무여주세 단쳐주세 이모자리를 무여주세  
 여기저기 심더라도 장일이훨훨 영화되네  
 먼데사람 듣기 좋게 가까운데사람 보기 좋게  
 여보시오 농부님네 농사밖에 또있는가  
 풍년이오고 풍년이와서 함포구식을 해보세  
 여보시오 농부님네 세강속말을 잊지말고  
 가방시대를 빙자말고 오륜삼강을 지켜보세  
 부모님전에 효성하고 나라에는 충성하세

\* 주일중(남, 1921년 출생, 증평읍 남하리). 『한국민요대전』(1989~1995).

#### (8) 모찌는 소리 2\*

오늘찌는 못자리는 / 뭉-~치-세~뭉-치세--  
 한섬지기 못자린데 / 뭉-~치-세~뭉-치세--  
 양팔이 감아들러 / 뭉-~치-세~뭉-치세--  
 세주먹자리로 감아주오 / 뭉-~치-세~뭉-치세--  
 새이참이 되기전에 / 뭉-~치-세~뭉-치세--  
 빨리빨리나 묶어주오 / 뭉-~치-세~뭉-치세--

오늘해도 중천에가고 / 뭉-~치-세~뭉-치세--  
 못자리판이 다되어가는데 / 뭉-~치-세~뭉-치세--  
 새이그릇은 보이지않고 / 뭉-~치-세~뭉-치세--  
 솔단지가 깨졌나 / 뭉-~치-세~뭉-치세--  
 새이그릇은 보이지 않네 / 뭉-~치-세~뭉-치세--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증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9) 목화 따는 노래\*

하늘에다가 모를심어 못지게가 난감하다  
 하늘에다가 목화를심어 목화따기가 난감하다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증평군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물레질(도안면 광덕리)

#### (10) 물레질 소리\*

쭉쭉뿔아 나생이 잡아뜯어 꽃다지 / 질로가면 질갱  
 이 대루가면 대사리

골로가면 고사리 / 올용졸용 잣는물레 어디서 병이  
 났나

개머리서 병이났네 / 뭐가약인가 들깨잎이 약일세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한국민요대전』(1989~1995).

#### (11) 밭가는 소리\*



논 씨레질(2005년 증평  
장뜰노래나들이 시연)

이러 올라서 올라서라 처지지말고서 올라서 어두루  
 이러 호호 이러 마라 안야 올라서

올라서 오르내리지 말아라 참고 이러오세

이러 오 넘나들지를 말구서 저비탈밭에 이러

이러 너무나간다 이러올라서

저비탈길에 이러 넘나들지를 말아라 이러 이러 호

이러 호호 마라소는 한발 덜나라가 이러 호호

\*설옥녀(여, 1935년 출생, 증평읍 창동리). 2002년 필자 조사.

#### (12) 베짜기 노래\*

베틀을노세 베틀을노세 옥난간에 베틀을노세  
 베짜는아가씨 사랑노래 베틀에 수심만지니라  
 양산맹산 중세부요 길주명산에 세급부로다



보리방아 찧는 시연  
(2005년 증평 장뜰노래나들이)

반봉중에 걸리는 저달은 바디장단에 다넘어간다  
초산벽도 칠성포요시 천간계에 역산피로다  
이베를 짜서 누구를주나 내낭군의 옷감이로다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가신임 입김이 눈물이로다

\* 김봉열(여, 조사 당시 69세,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13) 보리방아 찧는 소리\*

덜크덕쿵 쿵덕쿵 찧는방아 가운데동서가 제일잘찧네  
덜-크덕쿵~쿵덕쿵~찧는방-아~~ 언-제나~다-찧고~밤마실가-나--  
영감아 땡감아 개떡죽먹게 방아품 팔아서 개떡죽쥘었네  
덜-크덕쿵~쿵덕쿵~찧는방-아~~ 언-제나~다-찧고~밤마실가-나--  
꽃보리 꺾어서 떡보리하고 곁꺼로운 떡보리떡 꿀맛갈네  
덜-크덕쿵~쿵덕쿵~찧는방-아~~ 언-제나~다-찧고~밤마실가-나--  
울타리밑에 풀비는총각 눈치나 있거든 떡받아먹게  
덜-크덕쿵~쿵덕쿵~찧는방-아~~ 언-제나~다-찧고~밤마실가-나--  
떡은반아서 물팽개치고 손목만 잡고서 벌벌떠네  
덜-크덕쿵~쿵덕쿵~찧는방-아~~ 언-제나~다-찧고~밤마실가-나--  
홀라당발라당 흥갑사 땡기 고운때도 안묻어 사주가왔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사주는 받아서 옆에다 놓고 한숨은 쉬어서 동남풍되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열라는 콩팥은 아니나열고 아주까리동백은 왜열리나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아주까리 동백아 열지를마라 우리집삼동서 줄남봉난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아주까리 정자로나 만나보세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놀다가세 놀다가세 놀다가세 스무사흘 달뜨로록 놀다가세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놀다가 가는님은 쫓장부요 잠자다 가는님은 내님일세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호박은 늙을수록 빛발이나고 사람은 늙을수록 빛깔이없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날가라네 날가라네 시집살이 못한다고 날가라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시집살이 못하는건 배우면되지 아들딸 못낳는건 가라면가지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아실아실 추운것도 큰병인데 요내품에 들면은 낳을병이라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고대광실 높은집에 대청마루 김대감 은상투 흔들흔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김대감 상투가 흔들하니 울너머 큰애기 손짓하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대추나무 빨날때 어려운시절 딸자식집에도 가지를마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아이구 배야 지구배야 배가아파 미역국을 먹으려나 배가아파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놀다가 죽어도 원통한데 밤낮을 모르고서 일만하네  
 덜-크덕궁~쿵덕궁~짙는방-아~~ 언-제나~다-짙고~밤마실가-나--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중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14) 세듬매기 소리\*

잡풀도 많고 곱풀도 많네 / 흥-게방게가노-온다--  
 참방게도 너무나 많은데 / 흥-게방게가노-온다--



요리조리 손을 맞추어 / 흥-게방게가노-온다--  
 말끔이나 흠취주소 / 흥-게방게가노-온다--  
 만고영웅 조명덕도 / 흥-게방게가노-온다--  
 나죽는 날을 몰랐었나 / 흥-게방게가노-온다--  
 천지지간 만물중에 / 흥-게방게가노-온다--  
 음양으로 태어나서 / 흥-게방게가노-온다--  
 오행의 조화로 살아가네 / 흥-게방게가노-온다--  
 어서빨리나 흠취주소 / 흥-게방게가노-온다--  
 한나절이 다되어가도 / 흥-게방게가노-온다--  
 주인양반은 보이지 않게 / 흥-게방게가노-온다--

상벽구 꼬리벽구는 / 흥-게방게가노-온다--  
 빨리빨리나 나와줘서 / 흥-게방게가노-온다--  
 상배추쌈으로 이쁘게싸요 / 흥-게방게가노-온다--  
 반달같이 우겨싸서 / 흥-게방게가노-온다--  
 반달이 무슨달이나 / 흥-게방게가노-온다--  
 초생달이 반달이지 / 흥-게방게가노-온다--  
 빨리빨리 뽑아나주게 / 흥-게방게가노-온다--  
 흥게방게가 논-다 / 흥-게방게가노-온다--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증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15) 이듬매기 소리\*

이방아가 뉘방안가 / 에~~예-라~방-아호--  
 우리농부 디딜방아 / 에~~예-라~방-아호--  
 명사십리 해당화야 / 에~~예-라~방-아호--  
 꽃이진다 설워마라 / 에~~예-라~방-아호--  
 명년춘삼월 돌아오면 / 에~~예-라~방-아호--  
 너는다시 피련만은 / 에~~예-라~방-아호--  
 인간아차 죽어지면 / 에~~예-라~방-아호--  
 짝이돌아 읊이나나 / 에~~예-라~방-아호--  
 초로같은 우리인생 / 에~~예-라~방-아호--  
 한번가면 못온다네 / 에~~예-라~방-아호--  
 공수거 공수래라 / 에~~예-라~방-아호--  
 인간의 본능이라 / 에~~예-라~방-아호--  
 어서멤세 빨리멤세 / 에~~예-라~방-아호--

오칸댕이로 매어나주소 / 에~~예-라~방-아호--  
 칠년대한 구년지수 / 에~~예-라~방-아호--  
 온갖재난 다겪으며 / 에~~예-라~방-아호--  
 농사의 전통을 이어왔네 / 에~~예-라~방-아호--  
 바른팔을 힘차게 벌러 / 에~~예-라~방-아호--  
 오칸댕이로 매어나주게 / 에~~예-라~방-아호--  
 잡풀도 너무나 많소 / 에~~예-라~방-아호--  
 말끔이나 매어나주오 / 에~~예-라~방-아호--  
 그럭저럭 매어다보니 / 에~~예-라~방-아호--  
 한나절이 다되어가니 / 에~~예-라~방-아호--  
 빨리빨리 나와주오 / 에~~예-라~방-아호--  
 점심참이나 먹고하게 / 에~~예-라~방-아호--  
 에~~예-라~방-아호-- / 에~~예-라~방-아호--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중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 (16) 자장가 1\*

자장자장 우리애기  
 먹구자구 먹구놀구 우리애기 잘두잔다  
 업어취두 껏껏 안어취두 껏껏  
 밥을취두 껏껏 어역하라구 껏껏  
 먹구자구 먹구놀구 우리애기 잘두잔다  
 업은애기 밥두달랴 안은애기 젓두달랴 \*

\*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민담 · 민요집』(1983).

#### (17) 자장가 2\*

자장자장 우리아기 자장자장 우리아기  
 꼬꼬닭아 울지마라 우리아기 잠을깹라  
 멍멍개야 짖지마라 우리아기 잠을깹라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금자동아 은자동아 우리아기 잘도잔다  
 금을주면 너를사며 은을주면 너를사라  
 나라에는 충신동이 부모에겐 효자동이  
 자장자장 우리아기 잘도잔다 우리아기

\* 박종월(여, 1933년 출생, 중평읍 중동 1리). 2005년 필자 조사.

## (18) 지초 캐는 처녀 노래\*

황해도봉산 구월산밑에 지초를캐는 저처녀야  
 너의집이 어디메기에 날이저물어도 아니가는냐  
 삼신산 실안개속에 초가삼칸이 나의집이요  
 마음에 있으면 찾아오시고 마음에 없으면 그만두소

\* 이보노(남, 조사 당시 75세, 증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19) 초듬매기 소리\*

오늘 논자리로 말하자면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한섬지가 논자린데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어깨를 고루맞추고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요리조리 손을맞추어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고루고루 더듬어주게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천하지대본은 농군님에 근본이요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농사농자는 누가지었나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골곡자 밑에 별진자라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별이뜨도록 일하라는 뜻인데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삼강오륜도 다사라지고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부부유별만 남아있네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새이때가 다되어가도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새이그릇은 보이지않고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술단지가 깨여졌나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새이그릇은 보이지않네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상벽국 꼬리벽구는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배추쌈으로 이쁘게싸요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반달같이 우겨싸서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반달이 무슨달이나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초생달이 반달이지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빨리빨리 더듬어주어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새이참이나 먹고하세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어-하슬~슬더듬어~주~세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어-하슬~슬더듬어~주~세 / 어-하슬~슬더듬어~주~세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덕상리). 2005년 필자 채록.



신농유업(神農遺業) 농기

## 2) 의식요(儀式謠)

의식요는 의례를 거행하면서 부르는 민요이다. 따라서 의례의 진행에 필요한 노래일지라도 민속적인 의례와 관련하지 않는 노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특수 전문인에 의해 가창되는 무가(巫歌)나 불가(佛歌) 등도 의식요의 범주에서 제외된다. 그렇지만 민중들이 부르는 의식요 속에 자연스럽게 수용된 무가나 불가의 편린은 또 다른 형태의 의식요로 인정한다. 이상과 같은 전제 조건에 합당하는 의식요로서 그 하위에 세시의식요, 장례의식요, 신앙의식요 등이 있다.

### (1) 달구소리\*

여보시오 군정님네  
 옛날옛것 버리지말고  
 새로새것 내지맙시다  
 헤헤리 달구야 에허리 달구  
 천황씨 나무내고 수인씨 불을내어  
 우리백성 살아갈제 에허리 달구 에허리 달구  
 함경도 백두산은 두만강 흘러있고  
 평안도 모란봉은 대동강 흘러있고  
 황해도 구월산 예성강 흘러있고  
 강원도 금강산 해금강 흘러있고  
 충청도 계룡산 백마강이 흘러있고  
 전라도 지리산은 영산강이 흘러있고  
 경기도 삼각산은 한강이 흘러있네  
 헤헤리 달구야 에허리 달구

\*나기식(남, 1941년 출생, 중평읍 남차리). 2005년 필자 채록.

### (2) 산신 비는노래\*

할배여 원력주고 신력 주세요  
 할배 믿고사는 제자입니다  
 앓아도 제자 서도 제자 아닙니까  
 항상 가정성불 많이 받는 제자입니다  
 저자궁들 소리나는 운전대를 다하나씩 가지고 동서남북을 다니지 않습니까  
 굴릴때마다 재수주시고  
 집에서는 터쫓대감이 도와주시고  
 나가면은 길감독이 도와주시고

천리라도 도와주시고 만리라도 받들어주소서

\*이선묵(여, 1924년 출생, 증평읍 신동리). 2005년 필자 채록.

### (3) 상여소리 1\*

북망산이 멀다해도 저건너산이 북망이다

어-허-~ 딸랑- 어-허-~ 딸랑-

저승길이 멀다해도 대문밖이 저승이다

어-허-~ 딸랑- 어-허-~ 딸랑-

부모형제 많다해도 내대신 갈사람 아무도없다

어-허-~ 딸랑- 어-허-~ 딸랑-

친구벗이 많지마는 내대신 갈사람 아무도없다

어-허-~ 딸랑- 어-허-~ 딸랑-

인제가면 언제오나

어-허-~ 딸랑- 어-허-~ 딸랑-

맹년이라 춘삼월에 꽃피고 잎피면 온다더냐

어-허-~ 딸랑- 어-허-~ 딸랑-

\*나기식(남, 1941년 출생, 증평읍 남차리). 2005년 필자 채록.



상여소리(2004년도 충북민속놀이경연대회)

## (4) 상여소리\*

어-허~어-어-하~에-하~  
 간다 간다 나는 간다  
 아무쪼록 잘살아라  
 간다 간다 간다너이 어제이승 오늘저승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앞이 저승일세  
 명사십리 해당화야 꽃진다고 서러워마라  
 우리인생 한번가면 다시오지 못하느니  
 일가친척 많다한들 어느친척 대신가며  
 친한친구 많다한들 어느친구 동행하며  
 간다 간다 나는 간다 / 어-허~허-와~~  
 아무쪼록 잘살아라 동기간에 의리 좋게 / 어-허~허-와~~  
 동네분들 칭찬받고 / 아무쪼록 잘지내라  
 하기약식 모은재산 먹고가자 쓰고가자 / 어-허~허-와~~  
 저승길이 멀다더니 대문앞이 저승일세 / 어-허~허-와~~  
 칠성님전 명을받고 제석님전 복을받아 / 어-허~허-와~~  
 쓴것은 엄마가먹고 단것은 나를주며 / 어-허~허-와~~  
 애지중지 키워놓으니 한두살에 철을몰라 / 어-허~허-와~~  
 알뜰살뜰 모은재산 먹고가자 놀다가자 / 어-허~허-와~~  
 여덟군집 맞이해 발맞추어 내가간다 / 어-허~허-와~~

\*권상주(남, 1958년 출생, 중평읍 율리). 2005년 필자 조사.

## (5) 지신 밟는 소리 1\*

어루화산하 지신아 어루화산하 지신아  
 지신지신 밟으세 오방지신을 밟아보세  
 성주본이 어디메뇨 성주본이 어디메뇨  
 경상도 안동땅 제비원이 본일레라  
 제비원에 술씨받아 음양지로 흘렸더니  
 낮으로는 햇빛보고 밤으로는 이슬맞아  
 한해두해 키워놓으니 소부등이 되었구나  
 소부등이 자라나서 청장목이 되었네  
 청장목이 자라나서 황장목이 되었네  
 앞집에는 김대목아 뒷집에는 이대목아  
 날랜도끼 흘쳐메고 나무베러 가자스라

\*박연봉(남, 1922년 출생, 도안면 송정리). 2005 필자 채록.

### 3) 유희요(遊戱謠)

유희요는 특히 놀이와 더불어 그 진행을 돕거나 흥을 더하기 위해 부르는 노래이다. 이 경우의 노래는 놀이와 썩 밀착되어 있기 때문에, 놀이의 내용을 대변하기도 하고 놀이를 더욱 다채롭게 이끌기도 한다. 따라서 사설의 틀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놀이판의 상황에 따라 언제 어디서든 즉흥적으로 변할 수 있다. 놀이에 의해서 구성되고, 놀이와 함께 전해지는 이러한 속성으로 인해 어느 장르의 민요에 비해 기능의 표출방식이 향유층에게 더한 공감대를 얻고 있다.

#### (1) 과부노래\*

새넛강변에 비둘기한쌍 / 암놈이 물어서 수놈을 주고  
수놈이 물어서 암놈을 주고 / 늙은이과부는 그냥을보고 한숨을 쉬고  
젊은과부는 담뱃짐 쏘다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2) 꽃노래\*

담배잘숙 담배꽃은 건달들의 꽃일러라  
건달들아 건달들아 네꽃진다고 설워마라  
명년춘삼월 당해오면 다시한번 피느니라  
앞문열고 바라를치면 개명에 삼십리 또밝아오신단다  
양궁텅이 복사꽃은 이복둥이 꽃일러라 이복둥아 이복둥아  
석달열흘 백일홍꽃은 외갈보에 꽃일러라 외갈보야 외갈보야  
사랑앞에 국화꽃은 국소반에 꽃일러라 국소반아 국소반아  
장독간밑에 봉숭아꽃은 눈깔망나니 꽃일러라 눈깔망난아 눈깔망난아  
울타리밑에 함박꽃은 총각낭군에 꽃일러라 총각낭군아 총각낭군아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3) 나비야 청산을 가자\*

나비야 청산을 가자 / 호랑나비야 너도가자  
가다가 들저물면 / 나무옆에 가서 잠을자기  
나무 옆에서 잠못자거건 / 꽃속에 가서 잠을자지

\*최미순(여, 1943년 출생, 증평읍 송산리). 2005년 필자 조사.



복사꽃



백일홍



국화꽃



봉숭아꽃



나비

## (4) 노랫가락 1\*

에헤야 꿈아 무정한 꿈아 오셨던 님을 왜보내니  
오신님은 보내지 말고 잠든님은 뭇깨우니  
일후에 그대가 오거든 잠든님을 깨워다오

\* 최미순(여, 1943년 출생, 중평읍 송산리). 2005년 필자 조사.

## (5) 노랫가락 2\*

닐리리 닐리리 닐리리 / 내가 잘나서 에루화 한쌍이더냐  
내눈이 어두워서 환경 속이더냐 / 닐리리닐리 에헤루화 가지를 말아라  
한가한 우리청춘 다시 못오리로세 / 닐리리닐리 닐리리 에루화 좋고좋다

\* 최상기(남, 조사 당시 82세, 중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6) 노랫가락 3\*

신구명산 만장봉에 바람이 분다고 쓰러질까 은비가 온다고 일어날까  
송정같이 굳은 내절개 매맞는다구 허락할까  
몸은비록 기생일망정 절개조차 없을소냐  
얼씨구나 지화자 좋네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 이보노(남, 조사 당시 75세, 중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7) 노랫가락 4\*



베를노래(도안면 석곡리)

베를을노세 베를을노세 옥난간에 베를을노세  
베짜는 아가씨는 사랑노래 베를에 수심만지니라  
양산맹산 중세부요 길주명산에 세급부르다  
반봉중에 걸리는 저달은 바비장단에 다넘어간다  
초산벽도 칠성포요 시천간계에 역산피로다  
이베를짜서 누구를주나 내당군의 옷감이로다  
들창밖에 나리는비는 거신의 입김이 눈물이로다

\* 김봉열(여, 조사 당시 69세, 중평군 중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8) 돈노래\*

돈나온다 돈나온다 모근단주머니 돈나온다  
돈이래면 죽는줄알고 시누이 뱀편도 돈달라네  
얼씨구좋다 절시구 아니야 노지는 못하느니

\*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9) 들구경 노래\*

꽃을꺾어 머리에꺾고 산에올라 들구경하니  
 길로가는 행인들은 나를보고 길뚫가네  
 저기저산 꽃은곱지만 남의꽃에 손뎌쏘냐  
 꺾든지 못꺾든지 이름이나 짓고가세  
 천하일색 양귀비도 죽어지면 허사라네

\*임을순(여, 조사 당시 90세, 증평읍 미암리). 『충북민요집』(1994).

## (10) 담바구타령\*

구야구야 담바구야 / 동네나 울던 담바구야  
 금을 주려고 나왔느냐 / 은을 주려고 나왔느냐  
 은도 싫고 금도 싫고 / 옛날에 담바귀를 구하러왔네  
 저기저기 저산 밑에 / 담바귀씨를 뿌렸더니  
 밤이 되면 밤이슬 맞고 / 낮에는 태양을 받아  
 곱게곱게 길러내여 / 옛날에 담바귀 되어오거라

\*미상(여, 증평읍 남하리). 2004년 필자 조사.

## (11) 시집살이 노래 1\*

시어머니 골날때 이잡아주고 시아버지 골날때 술받아주고  
 시어머니 죽으니께 좋다더니 보리방아 물뵈놓고 생각나네  
 시아버지 죽으니께 좋다더니 왕굴자리 떨어지니 생각나네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민담·민요집』(1983).

## (12) 시집살이 노래 2\*

수집장이 받은제 유혹때문에 / 못깨우리다가 돌아오는구나  
 길두목에 거눌은밥이 / 싹돋아나면은 오실려나  
 가마솥에 삶은닭이 / 날개를 치면은 오실려나  
 앓았으니 님이오나 / 누웠으니 님이오나  
 동지섣달 갱기인밤에 / 문동지마저도 우는구나

\*최미순(여, 1943년 출생, 증평읍 송산리). 2005년 필자 조사.



가마솥(증평읍 송산리)

## (13) 시집살이 노래 3\*

아이고 내가 시집와서 / 이리 고생을 하니 힘들어 죽겠네  
 왜이런 서방하고 왜살았던가 / 끝판에 가서는 고생고생 시켜놓고  
 세상뜨고 나혼자 어떡향 / 자식잘집 가재도 안되고 혼자살아 죽어야지

\* 방레순(여, 1919년 출생, 중평읍 율리). 2005년 필자 조사.

#### (14) 시집살이 한탄 노래\*



시집살이고개(중평읍 미암리)

노랑머리 언제나 길러서 내낭군 삼나 / 남의댁 서방님은 과거  
도 잘보더만

우리댁 신랑은 마루골 고기만 일삼네 / 아이구 지겨워라 저런  
서방을 두고

우리시어머니는 나를 데려왔나 / 나를 데려다 달달볶는데  
콩이나 같으면 볶아서먹지 / 사람을 볶아서 어디다쓰나

\* 김은례(여, 조사 당시 75세, 중평읍 미암리). 『충북민요집』(1994).

#### (15) 신세타령\*

구사월에 새단풍에 낙엽만 날려도 님에생각  
동지나 설달 설한풍에 눈비만 날려도 님에생각  
삼사월에 긴긴해에 진지만 끓어도 님에생각  
오뉴월에 뜨는해에 바람만 불어도 님에생각  
올려다보니 소라반자 내려다보니 갑장장판  
갑장장판 자든방에 마루방이나 웬일인가  
매꼬자머리 쓰던머리 시루에 방석이 웬일인가  
우두나매끼 차든손에 쇠사슬이 웬일인가  
새루나 양복입던 몸에통바지 조끼가 웬일인가  
에이구 옆에다 풍장을달구 얼그럭 달그럭 살아나보세

\*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충북의 노동요』(1997).

#### (16) 신세 한탄 노래\*

꽃은피어서 만발하고 잎은피어서 청산되고  
꽃진다고 설위마라  
명년춘삼월 당해오면 다시한번 피느니라  
산천에 초목은 젊어나지고 내사랑 내신세는 늙어진다

\*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17) 아리랑 1\*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아리랑 고개다 집을 짓고  
오는사람 가는사람 정들여놓고 이별이 찾아서 나뉘살겠네

\*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18) 아리랑 2\*

청산읍내 물레방아는 열두시루나 비리뱅뱅 도는데  
우리택에 저잡놈은 나하나도 못안고도나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19) 아리랑 3\*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궁그리요  
삼천에 초목은 오고가지를 맡아요 아까운 우리 청춘 다 늙어가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궁그리요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궁그리요  
시아버지 죽으면 아랫목 차지 왕골자리 떨어지면 또 생각나네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궁그리요  
산천초목은 푸르러만 가는데 우리야 인생은 왜 이리 늙나  
아리아리 쓰리쓰리 아라리요 아리랑 얼씨구 궁그리요

\*이보노(남, 조사 당시 75세, 증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물레방아(도안면 송정리)

## (20) 임노래\*

길로길로 가다가 찢레꽃을 제쳐서  
찬벌받고 웬벌받아 임의버선을 지어놓고  
임을보고 버선을보니 임줄맘이 전혀없네  
임아임아 노여워마소 임줄려고 지은 버선  
누구를 줄려고 아니주나

\*임을순(여, 조사 당시 90세, 증평읍 미암리). 『충북민요집』(1994).



찢레꽃(증평읍 미암리)

## (21) 임 그리는 노래 1\*

초산에 나무를베어 객실을 지은뜻은  
영흥을 보려듯이 영흥은 아니오고  
궐객만 모여든다 석산에 오동을 베어  
거문고를 만든뜻은 원앙을 보려했더니  
원앙은 아니오고 잠새만 날아드네

\*임을순(여, 조사 당시 90세, 증평읍 미암리). 『충북민요집』(1994).

## (22) 임 그리는 노래 2\*

공동묘지 가신낭군은 무덤에 신체는 있으련만

일본에 배타고 가신냥군 돈이나 별면은 오신다더니  
언제나 올라고 아니오나

\*이언년(여, 조사 당시 77세, 도안면). 『충북민요집』(1994).

### (23) 임 그리는 노래 3\*

남의택의 서방님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집의 서방님은 잘났거나 못났거나  
장채다리 눈썹새에 노가지나무 지게에다  
쇠뿔나무 지게에다 동전서푼 걸머지고  
소금장수 나갈적에 춘천장으로 소금장수를 가실적에  
대관령고개랑은 부디 다녀오세요

\*기봉열(여, 조사 당시 69세,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24) 님 그리는 노래\*

언제까지나 언제까지나 헤어지지 말자고  
맹세를하고 다짐을하던 너와내가 아니라  
세월이가 너도떠나도 나만혼자 이루어  
그때그시절 그리운시절 못잊어 내가운다

\*박종월(여, 1930년 출생, 증평읍 중동리). 2005년 필자 조사.



아주까리(증평읍 미암리)

### (25) 정자노래\*

열라는 콩팔은 아니나열고 아주까리 동백은 왜그리여나  
아주까리 동백은 신정자요 살구나무 정자는 구정자라  
만나보세 만나보세 만나보세 살구나무 정자로만 만나보세

\*김은례(여, 조사 당시 75세, 증평읍 미암 5구). 『충북민요집』(1994).

### (26) 진주냥군노래\*

울도담도 없는 집에서 시집살이 삼년만에  
시어머니 하시는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냥군 오실터이니 진주남강 빨래가라  
진주남강 빨래가니 산도좋고 물도좋아  
우당탕탕 빨래하는데 난데없는 말굽소리  
고개들어 흘끗보니 하늘같은 갓을쓰고  
구름같은 말을타고서 못본듯이 지나더라  
흰빨래는 희게빨고 검은빨래 검게빨라



빨래(증평읍 미암5리)

집이라고 돌아와보니 사랑방이 소요하다  
 시어머니 하시는 말씀 애야아가 며늘아가  
 진주낭군 오시었으니 사랑방에 가보거라  
 사랑방에 내려가니 열두기생 누워있고  
 권커니 작커니 권주가를 부르더라  
 이것을 본며늘아가 아랫방에 달려가서  
 온갖가지 약을먹고서 목매달아 죽었더라  
 이소리들은 진주낭군 버선발로 뛰어와서  
 기생정은 하루요 본택정은 평생인데  
 너이럴줄 왜몰랐던가 사랑사랑 내사랑아

\* 김은례(여, 조사 당시 75세, 증평읍 미암 5구). 『충북민요집』(1994).

### (27) 징검이타령\*

징검징검 징검아 머리털은 빼여서 / 짚을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마빡은 뺏겨서 / 망근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눈썹은 뺏겨서 / 붓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눈은 빼여서 / 앵경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젓구녁은 빼여서 / 술안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콧구녁은 빼여서 / 양병마개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헛바닥은 빼여서 / 신창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징검아 뺏통은 뺏겨서 / 북통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몸둥이는 빼여서 / 개상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창사는 빼여서 / 빨래줄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이빨이는 빼여서 / 구두징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팔쪽지는 빼여서 / 도루깨 전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똥구녁은 빼여서 / 솟채더미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꼬치는 빼여서 / 소말둑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무릅곽은 빼여서 / 개밥통으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다리는 빼여서 / 도리깨장치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징검징검 징검아 발바닥은 뺏겨서 / 파리채로 팔아서 내돈석냥 갚는다.

\* 이정혜(여, 조사 당시 60세, 도안면 화성리). 『충북의 노동요』(1997).

### (28) 초한가\*

훤훤이 훤낙하니 시운이 적막하다  
 초패왕은 초를점쳐 잇단말가 역발산도 쓸데없고

## 현지조사 및 제보자

## 1. 현지조사

- 1차 현지조사 : 2005년 2월 11~12일.
- 2차 현지조사 : 2005년 5월 14~15일.
- 3차 현지조사 : 2005년 5월 21~22일.
- 4차 현지조사 : 2005년 6월 5~6일 (장뜰두레놀이 참관).

## 2. 제보자 인적사항

- 박연봉:남, 1922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송정리
- 정달훈:남, 1932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덕상리
- 나기식:남, 194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남차리
- 권상주:남, 1958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방례순:여, 1919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이선목:여, 1924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신동리
- 박종월:여, 1933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중동리
- 설옥녀:여, 1935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창동리
- 최미순:여, 1943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송산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 문화공보실, 『民譚·民謠誌』, 충청북도, 1983.
- 이소라, 『韓國의 農謠』 권 4, 민속원, 1992~1993.
- 충청북도편, 『충북민요집』, 충청북도, 1994.
- 임동철 외, 『충북의 노동요』, 전국문화원연합회 충청북도지회, 1997.

칼을집고 일어나니 사면이 초가로드  
원앙금침 앵무치마 전전반측 생각하네  
남산하에 창창밭은 어느장군 갈아주나  
개호중에 좋은술을 어느장군 맛을볼까  
시운이 적막하다  
초패왕은 초를점쳐 잇단말가 역발산도 쓸데없고  
칼을집고 일어나니 사면이 초가로드

\* 지성호(남, 조사 당시 75세, 중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29) 한글풀이 노래\*

가나다라마바사아 아차잠깐 시절에 기억니은디글리를  
기억자로 집을짓고 지긋지긋 살으니 인연이 치중치못하도다  
가가거져 가이없는 이내품 거지같이 되었네  
고교구구 고생하던 우리낭군 구관아기가 짝이었네  
나나너너 나기등에 손질해 조선팔도나 유람하세  
노노누뉴 노세노세 젊어서노세 늙어지면 못노나니  
나나너너 날러가는 원앙새야 너와나와 짝을짓자  
노노누뉴 노류장화는 한데없지 처천마다 다있건만  
마마머머 맞아맞아 맞았더니 임의생각이 또나네  
모묘무뮤 모질도다 모질도다 한양낭군이 모질도다  
바바버버 밥을먹다도 임의생각 목이메여 못먹졌네  
사사서서 사시장철 바쁜길에 중간참이 늦어가네  
소소수슈 소슬단풍 찬바람에 울고가는 저기력아 임의소식을 전코가서  
자자저저 자주종종 만나던 님임의 소식이 멀어지네  
차차처처 차라리 죽었다면 이것저것 아니볼걸  
초초추추 초당안에 갇히든잠 학의소리 놀라깨니  
그학은 간곳없고 들리느니 물소리라

\* 신태석(남, 조상 당시 74세, 중평읍 송산리). 『충북민요집』(1994).

## 3. 무경(巫經 ; 巫歌)

무의식(巫儀式)을 ‘굿’ 이라고 하는데, 통념상 일반 선굿을 한정한다. 선굿은 말 그대로 서서 행하는 무의식이다. 악사의 반주와 어우러져 뛰고 춤추고 노래하는 그야말로 신명나는 판이다. 그런데 독경(讀經)은 갓과 두루마기를

결친 양반 차림의 경객(經客)<sup>5)</sup>이 북과 징만을 두드리며 점잖게 앉아서 한문어투의 무경(巫經)을 구송하는 것으로 일관된다. 비록 신의 공수에도 침통해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조상신이 내려도 우는 사람이 없고 울리는 무당도 없다. 굿 전체가 그저 담담하고



증평읍의 임병호 경객

미지근할 뿐이다. 따라서 독경을 ‘앉은굿’ 또는 ‘좌경(坐經)’이라고도 한다. 선굿이 영신(迎神) - 오신(娛神) - 송신(送神)의 단계로 진행되는 데 반해, 독경은 오신의 과정을 축사(逐邪)로 대치한다. 즉 잡귀·잡신을 잘 먹이고 달래어 인간의 소원을 성취하기보다 위협해 몰아내는 위엄이 돋보인다. 양반적 성향과 상통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소개하는 자료는 임병호(남, 1952년 출생, 증평읍 687번지 대신맨션 가동 401호) 경객의 필사본이다. 임병호의 법명은 운봉(雲峰)이며, 주신은 조상신(祖上神)이다. 대학 졸업 후 건축업에 종사하다가, 38세에 신병을 앓고 입무(入巫)했다. 당시 강신굿을 주재한 신어미는 서옥순(여, 1941년 출생, 청주시 서문동)이었으며, 강신굿 과정에서 “네가 곧 나다!”라는 조상신의 메시지를 전해 받았다고 한다.

충북 중부지역에서 필사 전송되는 자료의 대부분은 신명호<sup>6)</sup> 경객의 전송본이다. 임병호가 소장하고 있는 자료 역시 신명호의 것이 대부분이지만, 〈조상해원경(祖上解冤經)〉을 비롯한 세 편의 자료는 서옥순으로부터 전수 받은 자료이다. 서옥순의 자료는 아직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

### 1) 조상해원경(祖上解冤經)

풍천임씨두 임씨가중 경주최씨두 최씨가중 오랜 옛날 어른들은 남혼여가를 하시어서 해로백년 살아갈제 위로는 부모님을 봉양하고 가정을 보필하고 슬하자손 길러갈제 사주에 태인자손 두실때에 가진노력이 없었소만 그자손 두실적에 어떤공력을 드리셨나.

동지섯달 설한풍에 목욕재개 정이하고 헌옷을 벗어놓고 새옷 갈아입고 이

5) 독경을 주재하는 무(巫)를 ‘관수’라고도 한다. 관수에 대한 어원의 언급은 H. B. Hulbert의 『The Korea Mudang and P'ansu』 (『The Korea Review』 Vol. 3,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3)에서 이루어졌다. Hulbert는 “관수라는 말은 ‘판단하다’의 ‘判’과 운수의 ‘數’가 합성된 것이다. 이것은 占卜者(fortune-teller)와 비슷한 뜻이다”며 관수를 한자어로 보았다. 그러나 秋葉隆은 『朝鮮の巫稱に就いて』(『宗教研究』新X 1・1, 1931)에서 Hulbert의 견해를 “후세의 합리적인 漢字化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관수라는 조선어는 Ural-Altai 민족들이 男覡의 호칭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女眞語의 Bahsi, 滿洲語의 faksi, Goldi語의 Paksi, Orochen語의 Paktjine, Tungus語의 Baksi 혹은 Turkic語의 Baksi 등과 同系라고 생각한다”며 관수의 어원을 남격(男覡)을 지칭하는 우랄-알타이어로 보았다. 한편 김영진은 『관수고』(『민속어문논총』, 계명대학 출판부, 1983)에서 관수를 “점을 치는 것을 업으로 삼는 소경”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발생시기를 고려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후대로 오면서 순수한 점복소경이 아닌 일반인까지도 학습에 의해 독경을 주재하게 되었다. 이에 서대석은 『경무고』에서 독경을 업으로 삼고 있는 장님과 일반인들을 통칭해 ‘경무(經巫)’를 제시했다.

6) 신명호(1947년 충북 청원군 남일면 황청리 출생, 현재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주아파트 마동 105호 거주)는 무력(巫歷) 35년의 학습무(學習巫)다. 법명은 보령(甫靈)이며, 주신은 조상신

(祖上神)이다. 1988년부터 2000년까지 대한경신연합회 충북도지부장을 역임했다. 1995년에 대한경신연합중앙회 주최 '팔도굿대회'에서 천존굿을 집도해 대상을, 2001년에 동 주최에서 진오귀를 집도해 대상을 수상한 바 있다.

7) 필사 전승자의 요청에 따라 이후의 전개 자료는 생략함.

구명산 높이올라 높은데다 칠성각을 모셔놓고, 낮은데는 산신각을 모셔놓고, 옥구삼불 정한수를 일월같이 모셔놓고, 기름인등 불밝히고 향로향합 불피우고 두손을 합장하고 고개숙여 재배하고 두 무릎을 정히 꿇고 허리굽혀 굴복하고 석달열흘 백일정성을 하루같이 드리시니 그대정성이 하늘위에 높이단듯 천지신명이 굽으시고 옥황상제가 살피시어 그 골산신이 감응감신 하시어서 그달부터 태기있어 태기길몽 받은후에 한달 두달 석달이 당도하니 아침나절 종던입맛 점심나절 변화되고 점심나절 종던 입맛 저녁나절 간곳없고 밥에선 쌀내나고 송충에선 물내나고 국에선 장내나고 없던구역 절로나니 식음을 전폐하고 머릿방에 누웠으니 있는음식 마다시구 없는음식 찾으실때 구시월 세단풍에 시금털털 개살구라도 먹었으면 없던입맛 돌아날듯 머루다래나 잡꼈으면 없던입맛 돌아날까 동지선달 설한풍에 상추쌈이라도 잡꼈으면 고평배라도 부르련만 있는음식 마다시구 없는것만 찾으시니 분결같이 곱던얼굴 기미가 끼어들때 석달 녀달 넘어드니 혈기가 모여들고 다섯 여섯 달이 되니 이목구비 다생기고 일곱 여덟 달이 되니 배충은 부모혈에 마주인듯 어머니가 잡수시면 그양분 받아들여 배안아기 무럭무럭 자라나니 부모모색 살펴보니 주먹밖에 나던손목 주먹안에 혈씩들고 품안에 들던허리 품밖으로 벌어나니 앞산이 높은듯 배는점점 불러오고 뒷산이 자처진듯 뒤에허리는 굽어들고 태산같이 무건물을 이끄시구 낮이오면 진동걸음 밤이오면 모로잠을 주무시고 가진고생 다하실때 아홉열달 당도하니 달로는 열달이요 날로는 이백팔십오일만에 우리 인생 태어날때 탄생시가 되었는지 부모몸으로 진통오고 가는허리는 끊어질듯 아랫배가 갈라질듯 진통이 찾아지니 어머니가 해산자리 마련할제 초석자리는 걷어놓고 쪼자리를 내려깔고 속에속옷 벗어놓고 견치마만 둘러입고 두무릎 높이들고 문고리를 휘어잡고 가진역경 다넘기며 우리인생 태어날때 어느누구의 은덕인가?

…… (후략)<sup>7)</sup>

## 2) 육십갑자해원경(六十甲子解冤經)

갑자을축 해중금 금생에 남여로 저조상님 금일종천에 해원인데 세세원정 다푸시구 왕생극락 정토세계 연하세계로 오르시어 인도나 환생을 하옵소사 나무아미타불.

병인정묘 노중화 / 무진기사 대림목 / 경오신미 노방토 / 임신계유 금봉금  
갑술을해 산두화 / 병자정축 간하수 / 무인기묘 성두토 / 경진신사 백랍금  
임오계미 양류목 / 갑신을유 천중수 / 병술정해 옥상토 / 무자기축 벽력화  
경인신묘 송백목 / 임진계사 장류수 / 갑오을미 사중금 / 병신정유 산하화  
무술기해 평지목 / 경자신축 벽상토 / 임인계묘 금박금 / 갑진을사 복등화



병오정미 천하수 / 무신기유 대역토 / 경술신해 차전금 / 임자계축 상자목

### 3) 불설연화해원경(佛說蓮花解冤經)

홍색으로 살려내는 환생화요 /자색으로 피는연화 수명장대 뿌린화요/적색으로 피는연화 요조숙녀 정열화요/백색으로 피는연화 효자충신 절개화요/삼색으로 피는연화 효자충신 천궁화요/이십팔수 황세계 만구복덕 천덕화요/칠색으로 피는연화 칠보궁전 수신화요/사익팔만 대장검에 만담설법 불도화요 일지오봉 생겼으니 청룡황룡 형국이요/좌봉산에 봉황이요/우봉산에 학이되어 청계홍계 생겼다네/일만화조 만발하고 각색으로 피는연화 기도하고 찬란하다 만리황천 멀고먼길 소식전던 대계화요 옛날부터 죽은고혼 살려내는 환생화요 효자충렬 착한사람 사시정열 단장화요 한전세월 환과고독 만전세월 부귀영화 천덕화요 단명오금 주린고혼 수명장수 백년화요 절대가인 착한사람 방초화설 난초화요 오음육률 피리소리 매화장천 사철화요 일월같은 선남선녀 백년해로 천장화요 육수회수 죽은고혼 백년세상 일월화요 비명천사 죽은고혼 원이독생 극락화요 육자염불 도를닦아 자타일시 불도화요 천병만병 병든사람 살려내는 회명화요 선동선녀 풍악소리 우연화요 입산수도 중이되어 흥가사에 백팔염주 보수목탁 손에들고 아미타모란화요 소상팔경 입당수에 심낭자 죽은고혼 인사불생 생명화요 나신적사 악의악식 사후중죄 지옥화요 이황여영 일심형제 눈물뿌려 소상반죽 수신화요 만리전쟁 죽은 명장 환고향을 못하시구 죽은후에 새가되어 나뭇가지 가지마다 죽은나무 기초화요 백년만화 피는꽃은 의지할곳 생길쏘나 극락세계 장도하다 염불성취 장하고나 염불성불 불공이라 금일영가 일체고혼 만전불사 차린산수 만년불휴 명명주요 여차한잔 전하오니 인간물욕 전혀없고 만세만세 만만세 극락으로 인도되어 마음착히 선심하소.

#### 현지조사 및 제보자 인적 사항

1. 현지조사 : 2005년 6월 11~12일
2. 제보자 인적사항
  - 신명호 : 남, 1947년 출생, 청주시 상당구 영운동 청주아파트 마동 105호)
  - 임병호 : 남, 195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대신맨션 가동 401호)

#### 참고문헌

- 김영진, 『忠淸道 巫歌』, 형설출판사, 1976.
-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외, 『忠北의 巫歌·巫經』, 충북학연구소, 2002.
- 안상경, 「충청도굿」, 『한국의 굿』, 민속원, 2002.
- 안상경, 「충청도 설경 연구」, 『한국무속학』 5집, 한국무속학회, 2002..

## 제2절 증평지역의 세시풍속 실상

## 제2절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해마다 같은 시기가 되면 관습적으로 되풀이하는 전승 행위가 있다. 이처럼 매년 일정한 시기에 같은 양식으로 반복되는 특수한 생활 행위를 세시풍속(歲時風俗)이라고 한다. 세시풍속을 요즘에는 흔히 ‘연중행사’라고 부르고 있지만, 이전에는 세시(歲時), 세사(歲事), 월령(月令), 시

령(時令) 등으로 일컬음으로서 고유의 계절성을 강조했다. 특히 사계가 분명한 우리의 경우에는,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이 순환되는 1년을 단위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노동의 과정과 그 중간에 해당하는 휴식 과정에서 다양한 세시풍속이 조성됐다. 따라서 정초 설에서부터 설달 그믐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각종 행사와 내용을 세시풍속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말하자면 월별(月別), 절후(節候), 명절(名節)에 따른 전통적 민간신앙, 민속놀이, 구비전승, 의식행사, 풍속습관 등이 세시풍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 고유의 자연관이나 종교관 그리고 생활양식 등이 응집되어 있어 지역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되고 있다.

## 1. 봄철(3·4·5월)의 세시풍속

봄철(3·4·5월)은 농경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기간이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관심이 농경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시풍속이 여느 철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 그리고 전승되고 있는 대개의 풍속도 풍요에 대한 기원 및 농경에 따른 체력 저하와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것들이다. 마을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3월에는 조상에게 제를 올리며, 4월에는 사찰에 가서 연등을 달며, 5월에는 약쭈과 익모초 등을 먹고 그네를 타며 씨름을 한다. 3월의 행사가 세시를 예비하는 준비단계적 성격을 띠고 있다면, 4월과 5월의 행사는 생업활동의 단계와 직접적으로 부합하고 있다고 하겠다.

### 1) 3월의 세시풍속 실상

#### (1) 삼짖날

##### ① 날짐승 점치기

3월 삼짖날에 처음 나오는 날짐승 중에 ‘흰나비를 보면 그 해 상(喪)을 당하고, 호랑나비를 보면 한 해 운수가 대통한다’ 고 했다. 또한 ‘빨리 날아다니는 벌과 같은 것을 보면 그 해는 몸이 가볍다’ 고 했다.(도안면 광덕리)

이날 뱀을 보면 한해동안 게으르고, 벌을 보면 한해동안 부지런하고, 흰나비를 보면 그 해 상(喪)을 당하고, 호랑나비를 보면 한해 운수가 좋다고 여겼다.(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② 오리나뭇잎 점치기

오리나무의 잎이 한꺼번에 피면 그 해 여름 물걱정이 없고, 잎이 골고루 피지 않으면 그 해 물 때문에 고생을 한다고 했다.(도안면 석곡리)



오리나무

## ③ 갈대잎 점치기

봄철에 갈대잎으로 점을 친다. ‘마디가 가운데 있으면 여름철 중순에 장마가 오고, 갈대 잎 끝에 마디가 있으면 하순에 장마가 온다’고 했다.(도안면 도당리)

## ④ 간장 담기

3월 삼짇날 간장을 많이 담근다.(증평읍 남하리)



갈대잎

## (2) 한식·청명

## ① 한식차례

한식날 한식 차례를 지낸다. 특히 조실부모한 사람들이 한식 차례를 많이 지냈다. 제물은 시제와 비슷하나, 나물을 많이 사용했다.(증평읍 율리)

## ② 사초

일가 친척이 모여 한식 차례를 지내고 묘에 가서 사초(떼입히기)를 했다. 이 때 허물어진 묘를 손질했다. 청명에도 한식과 마찬가지로 조상의 묘에 가서 사초를 했다. 주로 남자들이 가서 사초를 하고 여자들은 집안에서 먹을 음식이나 차례음식을 준비했다.(증평읍 남하리)



한식차례 (증평읍 율리)

## (3) 월내

## ① 천렵

철쭉이 필 때쯤에 마을 앞 냇가에서 고기를 잡고 진달래 전을 먹으며 하루를 논다. 동네잔치로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천렵을 했다. 천렵을 가거나 산에 나물을 뜯으러 가서 밥을 먹을 때 첫술을 떠서 먼저 ‘고수레’를 하고 먹었다.(증평읍 남차리)

## ② 화전

삼짇날 무렵이면 날씨도 온화하고 산과 들에는 꽃들이 피기 시작한다. 송정리 동네 사람들은 산에 만발한 진달래꽃을 뜯어다가 쌀가루에 반죽해 참기름을 발라 부쳐 먹는다. 이 화전은 봄의 미각을 한층 돋워주며, 시식(時食)으로서 그야말로 별미이다. 또 녹두가루를 반죽해 익힌 다음 가늘게 썰어 꿀을 타고 잣을 넣어 먹는 것도 별미이다. 또 진달래꽃을 따서 녹두가루와 함께 반죽한 것으로 전을 부치기도 하고, 혹은 붉게 물들여 꿀을 섞어 만드는 수면(水麵)도 빼놓을 수 없는 별미로 쳤다.(도안면 송정리)

## ③ 호드기 불기

봄철 버드나무에 물이 오르면 아이들이 버드나무로 호드기를 만들어 불었다. 여자 아이들은 물거지풀을 뽑아서 불에 살짝 볶은 후 인형처럼 만들어 가지고 놀았다. 여기에 빨강뎡기를 만들어 묶기도 하고 쪽을 찌고 옷을 입혀 놓기도 했다.(중평읍 연탄리)

## 2) 4월의 세시풍속

## (1) 초파일

## ① 불공 드리기

초파일이 되면 마을의 안녕과 집안의 무병장수를 위해 절에 가서 연등을 달며 불공을 드린다. 이 때 산에 치성을 드리기 위해 가는 사람도 있다.(도안면 도당리)



연등(도안면 수도사)

## ② 연등 달기

초파일 밤에 절 마당에 줄을 매고 그 줄에 여러 가지 모양의 등불을 달았다. 가족의 수만큼 등을 만들거나 이미 제작한 연등을 사서 가족의 이름을 써서 현등(懸燈)하고 ‘만등불사하니 소원성취 해 주옵소서’ 하며 비손한다.(도안면 도당리)

## (2) 월내

## ① 갈잎 꺾어 못자리에 넣기

봄철에 못자리를 해놓고 갈잎을 꺾어서 못자리에 거름용으로 넣었다. 비료가 널리 보급되기 전에는 참나무잎(갈잎)을 못자리판에 넣어 거름으로 사용했다. 화학비료 못지 않게 효과가 좋았다.(중평읍 남하리)

## 3) 5월의 세시풍속

## (1) 단오

## ① 단오차례

예전에 단오에 ‘단오차례’를 지내는 집안도 있었으나, 지금은 거의 볼 수 없다. 제물은 송편과 쪽떡을 올렸다.(도안면 도당리)

## ② 약쭉 베기

단오 아침에 이슬 맞은 약쭉을 베어 그늘진 곳에 말렸다. 훗날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사용했다. 산모를 씻길 때, 땀을 뜰 때, 들에서 일할 때 담뱃불용으로 부싷돌을 켤 때, 모기를 쫓을 때 사용했다. 약쭉으로 모깃불을 놓을 때는

화로에 약쭉을 넣어 불이 한꺼번에 타는 것을 방지하고, 서서히 연기를 내면서 타도록 하기 위해 불뿔을 올려 모깃불을 피웠다. 약쭉을 뜯어 모깃불을 놓는 것은 단오 전에는 하지 않고, 단오날이 시작하면서 여름 내내 했다.(도안면 광덕리)

### ③ 익모초 즙 마시기

익모초를 약쭉과 같이 단오 아침에 뜯는다. 이것을 그늘에 말렸다가 여름철에 배가 아플 때, 생즙을 내어 그것을 장독대 위에 밤새 두어 이슬을 맞히고 다음날 아침에 먹기도 했다.(도안면 광덕리)

### ④ 쭉떡 먹기

이른 봄이면 돌아나는 어린 쭉을 뜯어 쭉떡을 해 먹기도 했다. 찹쌀에 섞어서 떡을 하고, 떡이 되면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다.(증평읍 송정리)

### ⑤ 약쭉 걸어두기

광덕리에서는 단오 전날에 쭉을 베어 그날 저녁에 장독대 위에 두고 밤이슬을 맞게 해 단오날 대문 앞에 달아 둔다. 이렇게 해서 잘말려진 쭉은 가족 중에 누가 아프다고 하면 대문 앞에 걸어 두었던 이쭉을 뜯어다가 소금을 뿌리고 불을 피워 놓으면 집안에 있던 귀신과 잡귀들이 도망간다고 했다. 광덕리에서는 ‘쭉 냄새를 맡으면 귀신이 접근하지 못한다’는 민속신앙에 기인했다.(도안면 광덕리)



약쭉(도안면 광덕리)

### ⑥ 창포물에 머리감기

단옷날이면 여인들은 창포 삶은 물로 머리를 감았다. ‘창포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가 잘 자라고 머리결이 좋아져 윤기가 난다’고 했다. 여인들이 땀기머리 끝에 창포를 꽂고 다니기도 했다.(도안면 광덕리)

### ⑦ 창포비녀 꽂기

단오가 되면 석곡리 마을에서는 아낙네들이 창포 뿌리로 만든 궁깁이(창포비녀)를 머리에 꽂기도 하며, 빨간색 땀기에 창포를 달기도 했다.(도안면 석곡리)

### ⑧ 씨름

단옷날 남하리 마을에서는 씨름판이 벌어진다. 마을 젊은이들이 농번기를 앞두고 힘겨루기를 하는 것이다. 상품을 걸어 놓기보다는 마을 대항으로 힘을 겨루며, 같이 장만한 음식을 먹고 논다.(증평읍 남하리)

### ⑨ 그네타기

단오하면 그네를 빼놓을 수 없다. 송정리에서도 4일 저녁에 동네 젊은이들이 그네를 매는 동아줄을 다려 느티나무에 매단다. 단오에는 그네를 뛰며 “모기 날린다~ 모기 날린다~”며 원다. 이렇게 하면 여름철에 모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증평읍 남하리)



그네뛰기(증평읍 남하리)

## (2) 월내

### ① 수리취떡 빚기

수리취떡을 ‘취떡’이라고도 한다. 요즘도 5월 4일에 수리취떡을 빚어서 단오에 먹는다. 수리취떡을 할 때는 먼저 수리취를 삶아서 찹쌀 찌른 것과 섞어 떡메로 쳐서 빚는다. 요즘은 방앗간에 가서 한다.(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 ② 동네잔치

요즘에는 양력 5월 8일 어버이날에 젊은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해 노인정에 와서 노인들을 대접한다. 이 날 노인정에서 젊은이들과 노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동네잔치를 벌인다. 효 사상이 점점 퇴색되는 현시대의 새로이 형성된 풍속이다.(증평읍 남차리)

## 2. 여름철(6·7·8월)의 세시풍속

여름철(6·7·8월)은 농경의 마무리 및 수확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제껏 가꾸온 작물들을 병충해 및 가뭄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일꾼들을 위로해야 하며, 추수를 맞아 조상에게 제를 올려야 한다. 세시풍속 전부가 여기에 맞추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6월에 행하는 유두제와 기우제 및 7월에 행하는 칠성제가 풍년을 기원하기 위한 일종의 주술행위며, 백중 및 지신밟기는 일꾼들을 위로하는 연회이다. 8월에 행하는 추석차례는 천신제(薦新祭)로서 수확의 의례성과 관련이 깊다. 이때는 추석의 만월(滿月)을 즐기는 우리 고유의 민속놀이가 행해지고 있다.

### 1) 6월의 세시풍속

#### (1) 유두

##### ① 유두차례

도당리에서는 참외를 사다가 유두 차례를 지냈다. 전에는 참외밭에 가서 직접 제사를 지냈으나, 지금은 참외밭이 없기 때문에 참외를 사다 유두차례를 지낸다.(도안면 도당리)

##### ② 논에 가서 전 부쳐먹기

벼에 벌레가 생기면 ‘젓 짜리인다’라고 하면서 논에 가서 솔뚜껑을 걸어 두고 부침개를 지져 기름냄새를 풍겼다. 부침개를 사방에 던지면 벌레가 없어져 풍년이 든다고 하는 풍습이 있다. 참외밭에 가서도 기름냄새를 풍기고, 참외

발 가운데 짚을 엮어 상투처럼 표식을 했다.(도안면 광덕리)

유두 행사의 하나로 벼에 벌레가 생기지 말라고 논두렁에 가서 솔뚜껑을 걸어 놓고 부침개를 부쳐 기름냄새를 풍기고, 부침개를 사방에다 던졌다. 부침개를 던지면서 “명년 농사가 잘돼 풍년들게 해달라.”고 기원한다. 그러면 물에 기름이 뜨고, 벼에 기름이 붙어 벌레가 없어진다는 풍습이 생겨났다고 했다.(증평읍 남하리)

## (2) 월내

### ① 봉숭아 물들이기

봉숭아가 꽃을 피우게 되면 여자아이들은 붉은 봉숭아 꽃잎을 따다 손톱이나 발톱에 물을 들인다. 지금은 손톱에 바르는 매뉴큐어가 나와 손톱색깔을 다양하게 바꾸지만 옛날에는 봉숭아 물들이는 것으로 손톱을 아름답게 가꾸었다고 했다. 할머니들도 어린시절 추억을 되새기며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인다.

또 발가락에 봉숭아물을 들이면 뱀이 깨물지 않고, 새끼발가락 바로 옆에 있는 발가락에 들이면 ‘사후에 극락 간다’는 풍습이 있다.(증평읍 연탄리·도안면 광덕리)

### ② 원두제

참외밭에 나아가 직접 부친 밀전병, 갓 수확한 햇참외, 제주 등을 발 가운데 진설하고 “외가 주렁주렁 내리소”하며 비손한다. 원두제에서 여성의 참여는 배제된다. 참외가 남자 성기처럼 기다랗게 크라는 일종의 모방주술(模倣呪術)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증평읍 용강리)

## 2) 7월의 세시풍속

### (1) 칠석

#### ① 이불이나 고서 말리기

칠월칠석때면 장마가 끝난다. 장마로 인해 장롱 속에 보관했던 옷가지나 이불 또는 고서의 습기를 말리기 위해 마당에 꺼내어놓고 일광을 한다.(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② 논밭에 밀떡 가지고 가기

집에서 부침개를 부쳐서 논·밭에 진설하고 비손한다. 지금도 간혹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도안면 송정리)

#### ③ 은하수 보기

칠석이면 마당에 누워 은하수를 따라 견우와 직녀가 만난다는 오작교를 찾으며 북두칠성을 바라본다. 이 때 입을 크게 벌려 북두칠성이 입 안 가득 들어

오기를 기원한다. 그러면 겨울 한 철 배불리 먹을 수 있다고 여긴다. (도안면 화성리)



칠성제(도안면 광덕리)

#### ④ 칠성제(칠석제)

시골 장독대 앞쪽에는 작고 정갈한 잔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은 치성을 올리는 칠성단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집안에 우환이나 나쁜일이 있을 때, 농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할 때 칠성단에 밀떡과 정한수를 떠놓고 간단히 치성을 드리는데 금줄을 치거나 황토는 뿌리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고 믿고 있다. (도안면 광덕리)

### (2) 백중

#### ① 머슴 대접하기

60년대 까지만 해도 남의 집에 사는 사람이나 머슴들이 명석을 만들어 주인에게 주면 집주인은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옷을 한 벌 해 주거나 용돈도 주었다. 또한 백중 때가 되면 마을 젊은이들은 씨름을 하고 풍물을 치고 놀았다. (도안면 송정리)

#### ② 백중장 가기

백중이 되면 백중장이 열린다. 백중장이 서면 각지의 상인들이 몰려오고, 농한기를 이용해 장 구경 나온 사람들은 씨름판이 벌어진다. (중평읍 연탄리)



제12회 문화제 씨름대회

#### ③ 씨름대회

백중날이면 각 동리의 힘깨나 쓴다는 젊은이들이 모여 씨름판을 벌인다. 연례행사로 열리는 씨름대회에서 알리지 않아도 각 마을 구경꾼들이 씨름구경을 하기위해 벌떼처럼 몰려온다. (중평읍 남하리)

### (3) 월내

#### ① 복달임(복드림)

초복, 중복, 말복의 복날에 ‘복드림’ 이라고 해서 광덕리 마을 사람들이 모여 개고기나 닭고기를 탕으로 먹고, 떡과 술을 만들어 먹는다. 이렇게 하면 ‘더위를 물리친다’고 한다. (도안면 광덕리)

#### ② 벌초(금초)

금초는 음력 7월 20일부터 말일까지 한다. 금초를 할 때는 돼지를 잡거나 소



머리를 삶아서 국을 해 먹는다. 이 날 준비물은 종손이 준비하며 예산은 종중(宗中) 기금으로 한다. 벌초를 한 후에는 주, 과, 포를 차려놓고 절을 하고 온다. 시제 때는 묘소에 가지 않고 집에서 한다.(도안면 광덕리)

### ③ 호박전 먹기

7월 경에 호박이 익으면 호박을 따서 채를 썰어 전을 부쳐 칠성단에 한 접시 올리고 먹는다. 지금도 호박전을 많이 먹는다.(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장날 씨름(김홍도 풍속도)

## 3) 8월의 세시풍속

### (1) 추석

#### ① 차례와 성묘

추석이 되면 고향을 떠나 직장생활을 하던 자식들이 부모형제를 만나기 위해 고향집을 찾는다. 모처럼 온 집안 식구가 다 모여 조상님의 은덕을 기리고, 차례를 지내기 위해 정성스레 차린 차례상앞에 선다. 차례상에는 송편, 밥, 탕, 고기, 삼색실과, 나물, 포 등을 올린다. 송편은 참깨, 팔, 콩, 멥쌀을 재료로 해서 만든다. 성묘를 하러 갈 때는 주과포 정도를 준비한다.(증평읍 남하리)

#### ② 풍물놀이

풍물놀이는 마을의 큰 행사나 경사가 있을 때, 또는 명절때면 마을사람들이 모여 마을의 안녕과 그해 풍년을 기원하는 뜻으로 풍물놀이 행사를 갖는다. 마을의 이런 풍물놀이 행사도 점점 쇠퇴해 많았던 풍물도구가 지금은 장구, 북, 팽과리만 남아 있다.(도안면 송정리)

### (2) 월내

#### ① 장치기

단단한 나무로 주먹만한 공을 만들어 쓰거나, 임시로 새끼나 칩닝쿨을 둥글게 뭉쳐서 공을 만들어 굵은 장대로 공을 치며 노는 놀이이다. 장치기는 계절에 관계없이 가을 걷이가 끝난 밭이나 논, 그리고 평평하고 넓은 곳이면 어디서나 장치기 놀이를 즐겼다. 겨울에는 어름판이나 눈밭에서도 했다.(도안면 화성리)



풍물놀이(2004년 문화제행사)

### 3. 가을철(9·10·11월)의 세시풍속

가을은 수확하는 계절이라 눈코 뜰새 없이 바쁜 계절이기도 하지만, 가을 걷이가 끝나면 농한기로 접어드는 농촌은 한가롭기 그지없다. 가을철(9·10·11월)의 수확이 이미 끝났기 때문에 이제 월동(越冬)을 준비하는 일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세시풍속 역시 수확과 월동을 준비하는 의례에 맞추어져 있다. 9월 중양절에는 국화전과 국화주를 마시며, 한 해의 피로를 서로 달래며, 10월에는 5대조 이상의 조상에게 은덕을 기리는 감사의 시향제(時享祭)를 올리며, 이때 각 가정에서는 안택 및 터주 고사를 지낸다. 조상 및 여러 가택신(家宅神)에게 햇곡식을 바치면서 한해 수확에 대한 감사와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이후 삼동(三冬)을 위해 김장을 담그고 뭍감을 준비한다.

#### 1) 9월의 세시풍속

##### (1) 중양절

###### ① 구일차례

중양절(重陽節)은 추석이 지난뒤의 명절이라 크게 의식하지 않는다. 추석이 너무 늦게 오거나 집안 사정에 따라 추석날 차례를 지내지 못한 집에서는 9월 9일에 중양절 차례를 지냈다.(도안면 광덕리)

###### ② 구절초 뜯기

중양절이 지나면 한방에서 치풍, 부인병, 위장병 등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구절초(九節草)를 뜯어 말린다. 이것을 밤에 서리를 맞추고 여러 가지 약초와 함께 넣어 고아 먹으면 ‘손발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고 한다.(증평읍 연탄리)

#### 2) 10월의 세시풍속

##### (1) 월내

###### ① 터주갈이

추수를 한후 ‘터주갈이’를 했다. 터주항아리에 햅쌀을 넣고, 장독 뒤에 가져다 놓는다.(증평읍 남하리)

###### ② 시제(시사)

가을걷이가 다 끝나고 음력 10월이 되면 각 종중(宗中)에서는 조상님께 시향 올릴 준비를 한다. 시향에 올릴 제물은 종갓집에서 준비하기도 하지만, 지금은 종갓집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중기금으로 제물을 준비한다. 제물은 시



터주단지,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서정숙 전승

루떡, 밤, 대추, 곶감, 잣, 부침개, 약밥, 산적, 닭 등을 정성껏 준비했다. 시사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를 먼저 지내는데 이 때의 제물은 술, 포 등으로 따로 준비한다. 전에는 시사를 지낼 때, 소나 돼지를 잡아 제물로 쓰기도 했다. 또한 마을 아이들에게 음식을 골고루 나누어주는 ‘봉송(封送)’이라는 것을 한다. 봉송을 받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온다.(증평읍 용강리)

### ③ 지붕엮기

옛날 새마을 사업이 되지않아 초가집이 많았을 때는 월동준비의 하나로 이엉을 엮어 지붕을 엮었다. 지붕을 엮을 때는 팔죽을 쭈어 먹고 지붕 위에 땃마루를 하고 오줌을 누다. 팔죽은 가정의 화목의 의미를 지니고, 오줌을 누는 것은 일종의 화재를 예방하는 ‘뱅이’ 한다는 풍습이다.(증평읍 율리)

## 3) 11월의 세시풍속

### (1) 동지

#### ① 동지차례

팔죽을 쭈어 동지 차례를 지낸다. 팔죽을 쭈어 조상들 수대로 떠서 상 위에 올리고 적, 삼색실과, 술을 마련해 차례를 지낸다. 이를 ‘동지차례’ 라고 한다. 또한 성주, 조왕, 장독대에도 팔죽을 떠놓는다.(증평읍 율리)

#### ② 팔죽 쭈기

동지에는 팔죽을 쭈다. 그러나 애동지에는 팔죽을 쭈지 않고 노동지에만 팔죽을 쭈어 먹는다. ‘애동지에 팔죽을 쭈면 집안의 어린아이가 죽는다’ 고 한다. 팔죽을 쭈다가 주걱으로 떠서 벽에 뿌리고, 사람이 먼저 먹기 전에 성주, 터주, 외양간, 광 등에도 뿌린다. 팔죽 안에는 찹쌀로 만든 ‘새알수제비’를 넣는다. 동지에 팔죽을 놓고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가까운 절에 가져가 공양하는 집도 있다.(증평읍 용강리)

#### ③ 솔잎 뿌리기

팔죽을 쭈기 전에 솔잎을 외양간이나 화장실 등 집안 구석구석에 뿌린다. 이 때 “잡귀야 나가라! 잡귀야 나가라!”를 연신 외친다. 잡귀를 몰아내기 위한 일종의 ‘뱅이’이다.(도안면 화성리)

#### ④ 수수화살 만들기

동짓날 수수를 뿔아 둥그랗게 만든다. 그리고 그것을 화살에 꽂아 활로 쏘아 멀리(밖으로) 내버린다. 그러면 액운이 없어진다고 했다.(도안면 송정리)



안태수씨택 간장독 금줄

## ⑤ 머슴들 일 마치기

머슴들은 동지를 기점으로 주인집과의 1년 동안 계약 기간이 끝난다. 머슴은 집을 떠나기 전에 나무를 한 가래 해놓고 떠난다. 주인 집에서는 머슴에게 팔죽을 해 먹이고 내보낼 때는 옷 한벌과 1년 동안 일해준 대가의 새경을 준다.(증평읍 남하리)

## 4. 겨울철(12·1·2)의 세시풍속

겨울철(12·1·2월)은 한해를 마무리하고 한해를 시작하는 기간이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의 세시풍속은 새해를 준비하는 예비와 맞닿아 있다. 1월과 2월의 세시풍속은 새 해의 첫 출발과 관련해 행해진다. 각 가정마다 조상을 숭배하며, 점복(占卜)으로 길·흉을 점치며, 모의행위를 통해 풍년을 기원하며, 마을 단위 동제가 이루어진다. 한해의 길·흉을 예견하는 예측성, 그리고 마을 집단의 대동성과 축제성이 두루 드러난다.

## 1) 12월의 세시풍속

## (1) 설달 그믐

## ① 가래떡 먹기



가래떡  
(증평읍 중동 풍년 방앗간)

가래떡을 한다. ‘일년을 넘긴다’는 뜻으로 온 가족이 모여 떡국으로 제사를 올리고, 나누어 먹는다.(증평읍 연탄리)

## ② 묵은 세배

웃어른에게 ‘한해 잘 지내셨다’는 의미로 묵은세배를 올린다. 한편 웃어른은 덕담을 하는데, 소원이 이루어진 것처럼 한다. 가령 “올해 장가를 들어 아들을 보았구나!”라는 식의 과거형이어야 한다. 그래야만 ‘한해의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여긴다.(도안면 송정리)

## ③ 복조리 걸기

예전에는 장사꾼들이 정월 초사흘 경에 복조리를 팔러 왔으나, 지금은 대학생들이 설달 그믐에 팔러온다. 복조리를 사면 방문이나 마루의 출입문 위에 건다. 또는 문턱 위에 X자(字)로 걸어 놓는다. 복조리 안에는 성냥과 동전을 넣는다. 성냥은 ‘집이 번성하라’는 뜻이 있다.(증평읍 연탄리)

## ④ 불 밝히기

온 집안 곳곳에 불을 밝혀 놓는다.(도안면 화성리)

## (2) 월내

### ① 집안 청소하기

그믐 2~3일 전에 ‘묵은 때를 벗는다’고 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쓰레기는 소각한다.(도안면 광덕리)

그믐 며칠 전에 ‘묵은 먼지를 떨어낸다’고 하여 집안을 깨끗이 청소하고 쓰레기를 치운다. 식은 밥을 남기지 않고 밥도 전부 없앤다.(증평읍 덕상리)

### ② 참새 잡기

겨울에 참새를 잡아먹는다. 마당에 나무로 받쳐 소쿠리를 세워놓고 소쿠리 밑에는 모이를 놓고 위에는 돌을 얹는다. 나무에 줄을 매어서 방 안까지 연결해 놓고 참새가 소쿠리 밑으로 들어오면 줄을 당겨서 참새를 잡는다. 초가집이 있을 때는 초가집에 참새가 겨울철에 둥지를 틀고 사는 경우가 많아 사다리를 놓고 지붕에 올라가 그물을 치거나 손을 참새둥지에 넣어 참새를 잡았다.(증평읍 덕상리)

## 2) 1월의 세시풍속

### (1) 설날

#### ① 차례

설날 차례상에는 만두를 넣은 떡국과 인절미, 생선, 과일, 육류, 전 등을 올린다. 차례상에 올릴 떡을 하면 안방(성주 앞)에 상을 펴고 그 위에 떡시루 찜청수와 함께 올리기도 한다. 그런 후 접시에 떡을 한 접시씩 담아 광, 부엌, 개장, 닭장, 화장실 등에 갖다 놓는다.(증평읍 죽리)

#### ② 성묘

차례를 지낸 후 모든 가정에서는 간단한 음식을 준비해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한다.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새로 맞이한다’는 뜻으로 조상님께 고하는 것이다.(도안면 광덕리)

#### ③ 세배

차례를 지내고 각 가정에서 웃어른께 세배를 드린다. 이웃에 사는 어른들께도 세배를 다닌다. 세배를 간 사람들은 “건강하세요.”, “오래 오래 사세요.” 등의 덕담을, 웃어른은 세배 온 사람에게 “착실하게 살아라” 등의 덕담을 한다. 이 때 각 가정에서는 세배를 온 사람들에게 떡과 술을 차려 주기도 하고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을 준다. 그러나 상을 당한 집은 세배를 가지 않는다.(도안면 광덕리)



세배(증평읍 송산리, 이씨댁)

## ④ 설빔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기 전에 ‘설빔’ 이라고 해서 준비해 두었던 새 옷을 입거나 새 신을 신는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설빔을 입지만 예전에는 가정 형편이 어려웠으므로 입던 옷을 깨끗이 빨아서 입었다.(도안면 도당리)

## (2) 정초

## ① 토정비결 보기

정초가 되면 어른들은 그해의 운수를 알기 위해 토정비결을 본다. 요즘은 주로 노인들이 많이 본다. 정초에 신수점을 보기 위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이 많았다. (도안면 광덕리)

## ② 청참

정초 아침에 ‘까치소리를 들으면 손님이 온다! 까마귀 우는 소리를 들으면 나쁜 소식을 듣는다!’ 는 등의 길흉과 관련된 속신이 전해진다.(증평읍 율리)



토정비결(도안면 광덕리)

## ③ 12지 상일 금기

쥐날은 쥐불을 놓는다. 용날에는 칼질을 하지 않는다. 이 날 “칼질을 하면 비가 온다”는 말이 있다. 말날에는 장을 담근다. ‘3월을 넘겨 늦게 담그면 장 맛이 없다.’ 고 해 3월을 넘기지 않는다. 집안에 상을 입거나 부정이 있으면 그 달은 장을 담그지 않는다. 장을 담그는 것은 홀수 달에 담근다. 장은 간장·된장·고추장이 있는데, 된장을 담고 난 후 된장 항아리 속에 고추, 숯, 참깨 등을 넣는다.(도안면 송정리)

## ④ 안택고사

시루 세 개(백설기, 깨, 마구설기)와 청수 한 그릇을 놓고 안택고사를 지낸다. ‘깨’는 팔을 ‘켜’로 얹힌 시루떡이다. 고사를 지내고 나서는 마을 사람들과 떡을 나누어 먹는다. 이 때 빈손행위는 없으며 절만 한다. 무당을 불러서 하기도 했다.(도안면 송정리)

## ⑤ 삼재막이

일부 가정에서는 가족 중에 삼재(三災)가 든 사람이 있으면 ‘정각’을 불러 삼재풀이를 했다.(증평읍 죽리)

## ⑥ 엄나무 걸기

정초에는 집에 잡귀가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엄나무를 걸어 놓았다. 제사를 지낼 때는 이것을 치우기도 했다.(증평읍 남하리)



엄나무(증평읍 남하리)

### (3) 입춘

#### ① 입춘첩 붙이기

입춘첩을 붙인다. 입춘첩은 아침에 붙이며 대문이나 방안의 천장, 문 위 등에 붙인다. 보통 “입춘대길(立春大吉) 건양다경(建陽多慶)”이라고 쓴다. 한편 외양간에도 입춘첩을 붙이기도 한다. 이 때는 “우경백해(牛耕百骸)”라고 써서 붙이는데, 이렇게 하면 ‘소가 병 없이 잘 자란다’고 했다.(도안면 석곡리)

### (4) 대보름

#### ① 머리 빗질하지 않기(14일)

14일에 ‘머리를 빗으면 밭에 새삼 옮긴다’고 해 이 날은 머리를 빗지 않는다. 새삼은 작물 위를 타고 올라가서 작물의 성장에 큰 해를 입히는 녀를 잡초인데 특히 콩밭에 많이 생겼다.(도안면 도당리)

#### ② 오곡밥과 묵은나물 먹기(14일)

보름을 앞둔 열나흔 날 오후에 오곡밥을 지어먹고 대보름 아침에는 쌀밥을 먹는다. 오곡밥에는 차조·수수·보리·팥·콩·참쌀 등이 들어간다. 오곡밥을 할 때는 ‘싸리나무를 태워서 밥을 하면 쌀이 잘 익는다’는 풍습이 있어 부엌에서 불을 지피 밥을 할 때는 싸리나무로 오곡밥을 짓는다. 또한 ‘일반나무로 밥을 지으면 연기가 많이 나서 보름달을 그을리게 한다’고 해 연기가 잘 나지 않는 싸리나무를 땔감으로 사용한다. 오곡밥을 지을 때 사용하려고 일부러 산에 가서 미리 싸리나무를 해 놓는다. 부엌 개량 이후에는 아궁이가 없어졌으므로 나무를 땔감으로 쓰지 않는다. 오곡밥을 먹을 때 취나물로 밥을 싸 먹는다. 요즘에는 취나물 대신에 김을 싸먹기도 한다. 오곡밥을 먹을 때는 김치를 먹지 않는다. 이 때 ‘김치를 먹으면 살빼기 쏘인다’는 말이 있다. 오곡밥을 먹을 때 ‘숟가락으로 먹으면 여름에 김을 땔 때 다른 사람보다 큰 이랑을 맡게 된다’고 해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다.(도안면 광덕리)

#### ③ 보름밥 나누어 먹기(14일)

오곡밥을 먹을 때 이웃 사람을 불러서 함께 먹는다. 이렇게 하면 ‘농사철에 일꾼을 얻기가 쉽다’는 말이 있다. 지금도 오곡밥을 하면 이웃과 나누어 먹는다.(도안면 광덕리)

#### ④ 아홉 번 행동하기(14일)

음력 열나흔 날은 ‘모든 일을 아홉 번 해야한다’든지, ‘밥 아홉 그릇 먹고 나무 아홉 짐 한다’든지 하는 말이 있다. 말만 있을 뿐 직접 하지는 못한다. 이 때 산에 눈이 많이 있어 나무를 하기 힘들다.(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⑤ 불 밝히기(14일)

보름 전야제라고나 할까 14일 저녁에 들기름이 담긴 접시에 실로 심지를 만 들어 놓고 불을 밝혀 마루·부엌 등에 놓는다. 부엌에 놓을 때는 솥 뒤에 올려 놓는다. 지금도 노인들이 사는 집에서는 더러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도안면 광덕리)

## ⑥ 밤새기(14일)

14일 저녁에 ‘잠을 자면 눈썹이 센다’는 말이 있어 예전에는 밤새 윷놀이를 하거나 술을 마시면서 잠을 자지 않는다.(중평읍 연탄리)

## ⑦ 용알뜨기(15일)



용왕굿 시연  
(2005년 장탈두레놀이)

대보름날 아침 동네 우물물을 먼저 길어 오면 한해동안 집안에 좋은 일이 생긴다하여, 새벽 일찍 우물물을 길어 온다. 가장 먼저 우물에 온 사람은 먼저 왔다는 표시로 ‘또아리’를 우물에 던져놓고 간다. 우물은 ‘세 곳의 우물을 떠오면 좋다’고 했다.(도안면 송정리)

## ⑧ 부럼 깨물기(15일)

정월 대보름 새벽에 “부시럼 깨물자!”라고 하면서 호두, 밤, 대추, 땅콩, 배추 뿌리 등 딱딱한 것을 깨물어 먹는다. 그러면 ‘그 해에 부시럼(부스럼)이 나지 않는다’고 했다.(중평읍 연탄리)

## ⑨ 귀밝이술 마시기(15일)

아침에 청주를 한 잔씩 마시는데, 그러면 ‘귀가 밝아진다’고 한다. 귀밝이술은 자식들이 먼저 어른들께 드리고 후에 아랫사람들이 마신다.(중평읍 연탄리)

## ⑩ 대추나무 시집보내기(15일)

‘대추나무 시집보내기’ 또는 ‘대추나무 장개(장가)들인다’라고 하는데, 나뭇가지 사이에다 돌을 끼워 넣는 것이다. 그러면 그 해에 대추가 많이 열린다.(중평군 도안면 광덕리)

## ⑪ 더위팔기(15일)

일찍 일어나서 아는 사람을 만날 경우에 이름을 부르고 대답하면 “내 더위 사가라.”고 하면서 더위를 판다. 받는 사람이 기분이 나빠 “임마 더위 팔지 말구 내 더위다 사가거라.”고 하면서 욕을 하기도 한다. ‘이 날 더위를 팔면 일년 내내 더위를 먹지 않는다’는 말이 있다.(중평읍 연탄리)

## ⑫ 소밥 점치기(15일)

보름날 소 앞에 쌀밥, 조밥, 보리밥, 잡곡밥, 나물 등을 가져다 놓는다. 그러



면 소가 그것을 먹는데 ‘소가 먹는 곡식 종류에 따라 그 해에 풍년이 든다’ 고 한다. 그러나 나물을 먹을 경우 흉년이 든다.(도안면 광덕리)

### ⑬ 지신밟기(15일)

보름날 오후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지신을 밟는다. 풍물패가 집 앞에서 “문 여시오, 문 여시오, 만구복 들어갑니다.”라고 소리를 치고 들어간다. 주인은 음식이나 쌀을 준비해 대접한다. 또 샘이 있으면 축원을 한다. 풍물패는 “뚫어라 뚫어라 물구녕을 뚫어라.”라는 장단을 친다. 그래야 ‘그 해에 물이 많이 온다’ 고 믿는다.(증평읍 남하리)

### ⑭ 제웅치기(15일)

허재비(허수아비) 안에다 철전 세 푼을 넣고 거름더미나 가시덩굴 속에 던진다. 이로서 액을 막을 수 있다고 믿는다. 나중에 동네 아이들은 허재비 안에 든 돈을 빼서 엿을 사먹기도 한다.(도안면 노암리)

### ⑮ 떡 훑쳐먹기(15일)

보름이면 밤에 이웃집에 몰래 들어가 떡이나 밥을 훑쳐먹었다. 이렇게 해 나누어 먹으면 ‘농사가 잘 된다’ 는 말이 있다.(증평읍 연탄리)

### ⑯복토 훑치기(15일)

‘남의 집에 가서 훑을 훑치면 복이 들어온다’ 고 해 저녁에 가난한 사람이 부잣집에 몰래 들어가 마당이나 뜰의 훑을 훑쳐다가 자기네 부뚜막에 바른다. 이것을 ‘복토 훑치기’ 라고 한다. 한편 부잣집에서는 복토를 도둑맞지 않으려고 불을 환히 밝혀 둔다.(증평읍 남하리)

### ⑰ 우물물 훑쳐오기(15일)

‘물이 잘 나는 곳의 우물물을 자기집 우물에 갖다 부으면 우물이 잘 난다’ 고 해서 남의 집 우물물을 몰래 길어오는 풍속이 있다.(증평읍 사곡리)

### ⑱ 삼재막이(15일)

삼재가 든 사람은 대보름날 저녁에 횃불을 들고 산에 올라가 자신의 생일을 말하면서 일 년의 무사태평을 빌며 절을 세 번 한다.(도안면 도당리)

### ⑲ 달맞이(15일)

산에 올라가서 ‘망월이 한다’ 며 불을 지펴놓고 달이 떠오르면 “망우리요, 정월 대보름 망우리요.”라고 외치면서 소원 성취를 바라는 비손을 한다. 그리고 나서 팽맥이(징)를 치면서 논다.(도안면 연촌리)

### ⑳ 보름달 점치기(15일)

달을 보면서 일년의 풍 · 흉을 점친다. ‘달빛이 희면 논농사가 잘되고, 달빛이 붉으면 밭곡식이 잘 된다’ 고 여긴다.(증평읍 울리)



쥐불놀이(2003년 정월  
대보름 대축제)



줄다리기(2002년 증평문  
화제행사)

#### ㉑ 쥐불놀이(15일)

예전에는 깡통에 짚이나 솔기나무를 넣고 불을 붙여 돌리면서 놀았다. 논밭에 불을 놓기도 했는데, 그러면 들쥐가 없어진다고 했다.(도안면 광덕리)

#### ㉒ 줄다리기(15일)

정월 대보름 저녁에 짚을 모아 줄을 만들고, 줄 사이에다 칩을 넣는다. 줄이 다 만들어지면 윗마을 아랫마을 사람들이 줄을 어깨에 메고 나오면서 다음과 같은 줄다리기 노래를 부른다. 앞소리꾼이 사설을 메기면 뒷소리꾼(놀이꾼)들이 ‘얼렁렁 상사디야’를 받는다. 사설은 “얼렁렁 상사디야 / 얼렁렁 상사디야 / 어기야 디어차 상사디야 / 얼렁렁 상사디야 / 저 건네 양달 음달 다 모여서 일년의 신수 대통해서 / 얼렁렁 상사디야 / 어기여 디어차 상사디야 / 얼렁렁 상사디야”와 같다. 과거 사람이 많을 때면 100여 명 정도가 되었으며, 일년 운수를 걸고 놀이를 했다. ‘이기는 쪽이 일 년 내내 운수가 좋다’고 여겼다. 줄다리가 끝나면 줄을 찢어서 소를 먹었다. 그러면 ‘소도 병이 없어진다’는 말이 있다.(증평읍 남차리)

### (5) 월내

#### ① 머리카락 태우기(16일)

‘귀신달기우는 날’이라고 해서 저녁에 대문 밖에다 황토를 여섯 군데 뿌리고 깨진 화로나 항아리에 불을 담아 머리카락, 왕겨, 고추, 목화씨를 태운다. 이 날 신발은 방안에 들여놓으며, 신지 않는 신발을 뒤집어 놓는다. 만약 신발을 뒤집어 놓지 않으면 귀신이 신고 가는데, 그러면 ‘그 신발의 주인은 죽거나 불상사가 난다’는 속설이 있다.(도안면 광덕리)

#### ② 걸립

지신밟기를 ‘걸립’이라고 한다. 걸립은 대보름부터 시작해서 정월 그믐까지 한다. 걸립을 할 때는 복색, 고깔, 상모, 소고, 잡색 등을 겹비하고 다닌다. 걸립패와 함께 입담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 따라다니며, 고사반 앞에서 비손을 한다. 상쇠는 팽과리만 친다. 걸립을 할 때는 서낭당이나 산제당, 우물 등이 길모퉁이에 가까이 있으면 잠시 들러서 풍물을 치고 논다. 각 가정을 돌 때는 먼저 마당을 한 바퀴 돌면서 풍물을 치고, 대문간에 차린 고사반 앞에서 “운은 오고 액을 떠나라”며 고사

담을 얹고 비손한다. 고사반은 상에 쌀을 담은 말통을 올리고, 그 위에 다시 쌀을 담은 주발과 실타래를 걸어 놓은 수저를 꽂는다. 정화수도 한 그릇 떠놓으며 주인은 정성으로 돈을 올려놓기도 한다. 걸립에서 거둔 돈이나 쌀은 동네 공동기금으로 사용한다.(증평읍 남차리)

### ③ 보리뿌리 점치기

보리뿌리점은 주로 선달그믐과 입춘에 많이 한다. ‘보리뿌리를 뽑아 뿌리가 세 개나 네 개면 풍년이 들고, 두 개나 한 개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증평읍 남하리)

### ④ 콩불이 점치기

콩을 수수깥이(수숫대) 안에 콩을 넣고 하룻밤을 놓아두었다가 ‘콩이 불으면 풍년이 들고 콩이 불지 않으면 흉년이 든다’고 여긴다.(증평읍 남하리)

### ⑤ 액연날리기

연은 주로 뱀연(가오리연)과 방패연을 만들며, 연줄에다 유리가루를 풀로 발라 연싸움을 한다. 연싸움에서 진 사람은 이긴 사람에게 술을 받아 준다. 또한 액막이를 위해 연을 끊어 날리곤 한다. 특히 16일은 ‘달기귀신 날’이라고 해서 연을 많이 날려보낸다. 할아버지는 손자와 함께 연날리기하면서 연날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도 한다.(도안면 화성리)



연날리기(1995년 민속놀이  
경연대회)

### ⑥ 옷놀이

종지옷을 사용하지 않고 장작옷을 사용하며 네 사람씩 편을 짜서 술내기를 하거나, 호미, 바가지 등 상품을 내걸기도 한다. 옷놀이를 할 때 옆에서 풍년가나 육자배기를 부르며 응원하기도 한다. “풍년이 왔네 / 지화자 좋다 / 얼씨구 절씨구 좋네 / 명년 춘삼월에 화전놀이를 가자 / 지화자 좋다” 등의 가락에 맞추어 춤을 추기도 했다.(증평읍 남차리)



옷놀이(2001년 정월대보름  
축제)

### ⑦ 풍감놀이

마을의 아녀자들이 방에 둘러앉아 “풍감 문자, 풍감 문자!” 하면서 엽전을 치마 폭에 숨기고 그것을 찾는 풍감놀이를 한다.(증평읍 죽리)

### ⑧ 널뛰기

가운데에 짚을 놓고 그 위에 널판지를 올려 널을 뿔다. ‘처녀가 널을 잘 뛰면 시집가서 애기를 잘 낳는다’는 말이 있다.(도안면 송정리)



널뛰기(제5회 정월대보름행사)

## 현지조사

- 1차 : 2005. 4. 23~24
- 2차 : 2005. 5. 14~15
- 3차 : 2005. 5. 21~22
- 4차 : 2005. 5. 28~29

## 제보자 인적사항

- 신영순 : 남, 1919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남차리
- 김규복 : 남, 1918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채수인 : 남, 1924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광덕리
- 우호원 : 남, 1925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석곡리
- 한성태 : 남, 1926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노암리
- 김계준 : 남, 1927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광덕리
- 류근철 : 남, 193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남차리
- 연규원 : 남, 1931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 안창남 : 남, 1934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용강리
- 한종규 : 남, 1938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노암리
- 신현갑 : 남, 1940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남차리
- 신철호 : 남, 194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남차리
- 유영규 : 남, 194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연탄리
- 조성완 : 남, 1955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죽리
- 방례순 : 여, 1919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연명옥 : 여, 1927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석곡리
- 우일순 : 여, 1925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죽리
- 오정순 : 여, 1929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연탄리
- 유영규 : 남, 194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연탄리
- 전해수 : 여, 1930년 출생,

## ⑨ 장치기

예전에는 나무를 하러 가서 지게를 벗어 놓고 장을 쳤다. 이기는 사람이 내기 건 나무를 차지하거나, 아예 거두어들인 모든 땀감을 걸고 내기를 하기도 했다.(중평군 도안면 송정리)

## ⑩ 풀치기

마을의 친구들끼리 ‘풀치러가자!’ 고 하면 집에서 낫을 들고 나와 그 낫을 돌려 던져 낫이 꽃히는 사람이 이기는 놀이이다.(중평군 도안면 송정리)

## 3) 2월의 세시풍속

## (1) 삭일

## ① 머슴 위하기

2월 초하룻날은 ‘일꾼(머슴)의 명일’ 이라고 한다. 이 날 메떡, 만두국 등을 해서 마을 사람들과 나누어 먹으면서 동네잔치를 한다. 또한 머슴을 부리는 집에서는 머슴들에게 옷을 해주고 음식을 대접했다. 머슴들은 3월 초하룻날에 와서 11월 동지까지 1년동안 일해주고 새경을 받는다.(중평읍 남차리)

## ② 부녀자 금기

2월 초하룻날 ‘남자가 먼저 집에 들어와야 닭이 병아리를 잘 친다’ 고 여겼다. 따라서 이 날 아침에 여자들은 남의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했다. 지금도 아침에 여자들이 오면 노인들은 싫어한다.(도안면 화성리)

## (2) 월내

## ① 쯔생이별 보기

2월 초엿새날 밤에 ‘쯔생이별이 달과 가까우면 그 해는 흉년이 들고, 달과 멀리 있으면 그 해는 풍년이 든다’ 고 여겼다. 지금도 노인들은 쯔생이별을 보며 한 해 농사의 풍 · 흉을 점친다.(도안면 광덕리)

## ② 나이떡 먹기

이월 보름에 나떡(나이떡)을 먹는다. 식구의 나이대로 손가락으로 쌀을 떼서(들어서) 그것을 담가 두었다가 시루에 찌서 먹는다. 나이떡을 나누어 먹고 풍물을 치면서 마을 잔치를 한다.(중평읍 울리)

## ③ 장 담그기

음력 2월에 날을 봐서 ‘무방수날’ 이면 장을 담근다. 특히 무방수날 장을 담그면 장맛이 좋다고 한다.(중평읍 사곡리)

## ④ 도롱뇽(도롱이)알 먹기

도롱뇽 알이 ‘허리 아픈 데 좋다’고 해서 먹는 사람들이 있다. 논이 붓도랑이나 찬물이 나는 곳 등에 도롱뇽 알이 있다.(도안면 도당리)

## 5. 윤달의 세시풍속

윤달은 태음력의 농사의례성 때문에 같은 달이 반복되어 음력 열두달 외에 추가된 달이다. 그래서 ‘공달’이라고도 한다. ‘윤달에는 무슨 일을 해도 탈이 나지 않는다’고 믿는다. 이 때에 특히 노인이 있는 가정에서는 수의를 만들어 둔다. 수의를 ‘먼웃’이라고 하는데 마을에서 수의 잘 짓는 사람들을 불러 잔치를 벌이며 수의를 만든다. 사후에 짓는 수의는 매듭을 맺지 않으나 생전에 짓는 수의는 보통 옷과 마찬가지로 매듭을 짓는다. 수의를 미리 지어 그 속에 담배, 소독약 등을 넣고 다락에 매달아 둔다. 좀벌레가 들어가거나 상할까 염려해 한 달에 한 번 정도 통풍을 해준다. 예전에는 윤달에 널(관)을 짜고 까맣게 옷칠을 해 광에 모셔두는 가정도 있었다. 윤달에는 평소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일을 마음놓고 한다. 윤달에 죽거나 이장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복을 타고났다’고 한다.

## 1) 월내

윤달은 손이 없는 날 또는 ‘무방수’라고 해서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 그래서 수의를 만들거나 이장을 한다.(도안면 광덕리)

윤달은 ‘손이 없는 달’이라고 해 무슨 일을 해도 탈이 없다. 그래서 수의를 만들거나 이장을 많이 한다. 또한 윤달에는 사다리를 만들기도 하며, 이사를 가기도 한다. 주로 꺼리는 일은 윤달에 많이 한다.(증평읍 덕상리)

-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 고억례 :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장옥순 :여, 193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자리
  - 연세희 :여, 193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 김정숙 :여, 194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자리
  - 문재옥 :여, 194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도안면지 발간위원회, 『道安面誌』,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외, 『충청북도 세시풍속』,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 제3절 일생의례

## 제3절

일생의례(一生儀禮)는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과정에서 통과해야 하는 의례를 말한다. 산육속(産育俗), 성년식, 결혼식, 장례, 제사 등이 포함된다. 사례(四禮) 곧 관례, 혼례, 상례, 제례를 관혼상제(冠婚喪祭)라하고 특별히 중요한 통과의로 여겼다. 사례는 조선시대의 유교적 예(禮)를 기본으로 한 『사례편람(四禮便覽)』으로 규범화 되었는데, 본질적인 면에서는 동일하나 민간에서는 지역이나 계층에 따라 다소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것은 지역적

특수성이나 사고 방식의 차이, 종교적 영향 등에 의해 변모될 수 있는 민속의 환경적인 요인 때문이다.

## 1. 산육속(産育俗)

일생의례 가운데 가장 먼저 행하는 풍속이 산육속이다. 산육속은 산속(産俗)과 육속(育俗)을 결합한 개념으로서 그 시행 연한은 보통 출산 전 태아에서 부터 일정 정도 성장할 때까지 기준으로 삼는다. 즉 아이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기간까지 행하는 풍속이라고 할 수 있다. 산육속은 기자속(祈子俗), 산전속(産前俗), 산후속(産後俗), 육속(育俗)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산육속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지극한 사랑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승의 양상이 지리·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약간의 차이는 드러내고 있을지언정, 지역적인 편차는 크지 않다.

### 1) 기자속(祈子俗)

“옛날에는 아 놓을라든 물을 떠다 놓고 일주일씩 빌어요. 아 잘 놓아달라고. 그러고나서 애 다 놓으마 미역국하고 이것저것 해 가지고 산모한테 먼저 주지 않고 갖다 놓고 빌었어요. 그랬지! 옛날에는 짚자리 깔아놓고 애 낳았어요. 옛날에는 왕골자리 깔잖아요. 방에다 그러면 거기다 아들 나아서 쏟아놓지요. 옛날에는 병원이 다 어디 있어요?.”(도안면 송정리)

“말도 마. 아들 낳아야만 그나마 시집살이 덜 힘들었제. 아들 낳으려고 장독 대나 솥 위에 깨끗한 새벽에 물을 산에서부터 매일매일 떠다 놓고 그냥 빌었지. 그래서 아들 낳잖아. 그 놈이 지금도 제일 효자여.”(중평읍 장동리)

### 2) 산전속(産前俗)

#### (1) 태아 예지법

“인제 애가 들어서서 몇 달이 지나면 그 때 동네 할머니들이 둘러앉아서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를 했지. 뭐라나, 애기 엄마 궁둥이가 빠죽하게 튀어나오면 아들이고, 넓적하면 딸이라고 그렇게 애기들 하면서 한 걱정을 했지. 또 딸 낳을까봐. 또 뒤에서 갑자기 불려서 외로 돌아보면 딸이라고 했고, 바로 돌아보면 아들이라고 했어.”(도안면 도당리)

“사내끈으로 묶여 있는 미역을 사면 아들을 낳고, 사내끈 말고 지푸라기 있잖아. 그걸로 묶어놓은 미역을 사면 딸을 낳는다고 그랬어.”(중평읍 중동리)

## (2) 산전 금기

“닭을 먹으면 등허리에 닭살같이 우툴두툴 나서 그거 먹지 말고. 상아도 있잖아 상아 같은 거 제사 때 올리는 넘직한 상아 그런 거 먹고 그러면 애기 몸이 안 좋아. 애기 가져서는 음식을 가리고 깨끗하게 먹고, 되나마나 한 거 먹지 말고, 사과를 먹어도 예쁜 거, 복숭아를 먹어도 예쁜 거, 참외도 자두도 예쁜 거 먹어야 자식도 달덩이처럼 예쁜 애기 낳지.”(도안면 노암리)

“지금도 며느리한테 짠 거 매운 거 먹지 말라고 하지. 옛날엔 손가락이 붙는 애들이 많이 나왔어. 그게 오리를 먹으면 그런 애를 낳는다고 해서 오리는 절대 못 먹게 했지. 손 붙은 애 나오면 ‘임신 중에 오리 먹었구나!’ 하고 수군댔어. 오징어 같은 것도 못 먹게 했어. 뼈가 약하다고 애가. 또 비둘기 먹으면 꼭 남매를 낳는다는 거야. 돌밖에 못 나. 그래서 비둘기도 못 먹게 했어. 비둘기가 원래 알을 한 쌍만 낳거든. 뱀 같은 것도 안 죽였지. 애한테 해롭다고.”(증평읍 장동리)

## 3) 산후속(産後俗)

### (1) 산파 및 출산처

“집에서 낳으면 보통 시어머니하고 친정어머니하고, 아니지 인자 그 저기지 그렇게 받는 사람이 있어. 나는 우리 딸을 셋을 낳는데, 셋째 딸을 저기 영동에 있는 시어머니한테 가서 낳는데, 썩 나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드라고. ‘아이고~ 시원치도 않은 게 애미 고생만 시켰구나!’ 그렇게 하는 거 봐서 딸인지 알았지.”(증평읍 송산리)

### (2) 출산 금기

“미역을 사올 때도 꺾지 않고 그냥 구부려서 사오고, 예전에는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방 구들장을 고치면 큰 일 났어. 언청이 애기를 낳는다고 해서 조심했다고.”(증평읍 증천리)

“식구가 임신 중이거나 낳을 때 즙음이면 상갓집에는 절대 안 가는 게 좋아. 뭘 이렇게 있고 음식을 가려 먹는 게 많이 있지. 뭘 먹으면 기형아를 낳는다는지 이런 거.”(증평읍 송산리)

### (3) 태 처리

“마당에다가 산불을 놓아서 태를 태워가지고 개울에다 띄워 내버려. 왕겨불로 태웠지. 왕겨불을 한 가마니 갔다 부어. 옛날에는 폐병 걸린 사람이 태반을 훔쳐 먹으면 낫는다고 해서 그것을 훔쳐 먹기도 했어.”(증평읍 창동리)

## 현지조사

- 1차 : 2005. 4. 23~24
- 2차 : 2005. 5. 14~15
- 3차 : 2005. 5. 21~22
- 4차 : 2005. 5. 28~29

## 제보자 인적사항

- 권주자 : 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천리)
- 이갑순 : 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김정심 : 여, 1918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방례순 : 여, 191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장서임 : 여, 191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장수분 : 여, 1919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 김금옥 : 여, 192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박언년 : 여, 192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초동리)
- 강수례 : 여, 192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서정숙 : 여, 192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 연명옥 : 여, 192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 오점순 : 여, 192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김일순 : 여, 1930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연영희 : 여, 1930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고억례 : 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연주용 : 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한응애 : 여, 193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천리)
- 신교례 : 여, 193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김수례 : 여,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초동리)
- 박선녀 : 여,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 김수재 : 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초동리)
- 박복순 : 여, 1937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평리)
- 유영남 : 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 이은원 : 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 연세희 : 여, 193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 우영순 : 여, 194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신정인 : 여, 1948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덕상리)
- 문재옥 : 여, 194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4) 금줄

“그 잡귀 같은 거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거고. 왼손 새끼로 파가꼬 하니끄라 매 그러카고 또 인자 남자, 여자 구분해서 고추 달고 숯 달고 하는 거지. 여를 가리는 거고. 한 일주일간 쳐놓지. 부정 같은 거 타지 말라고. 만일에 어디 초상집이나 초상 난 상제분 이런 분들이 오면 부정을 타거든. 그런 것이 아마 그런 의미일 거야. 일주일 간 탄 사람들은 인자 들어오지도 못하지. 해간 이웃집 사람도 안 와.”(증평읍 송산리)

## 4) 육속(育俗)

## (1) 수유

“산모가 어떤 일인지 젖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옛날엔 그런 일이 허다했어 요. 그러면 시어머니가 이것 저것 곡식을 맷돌에다 갈아서 그거 인제 즙을 삶아 먹었다고요. 애가 울다 배가 고프니까 쭈쭈 잘 빨아먹지요.”(도안면 화성리)

“젖이 안 나오니까 우리 시아버지가 한 날은 까치고기를 잡아오더라고. 그걸 구워서 조리에 바쳐오더니 나 보고 혼자 먹으랴. 그래야 젖이 나온다고. 아 그래 그런 줄만 알고 먹었지. 그래도 뭐 젖이 나오나. 예전엔 못 먹어서 젖도 잘 안 나왔어.”(증평읍 덕상리)

## (2) 배내옷

“배냇저고리라고 애 처음 입히는 옷은 아주 소중하게들 생각했지. 지 아버지 입던 옷을 뜯어서 밤새 지어서 해 입혔어. 또 애들은 금방 금방 크잖아. 그래 이제 용을 꿰어다가 해 입히기도 하고, 배냇저고리는 잘 간직했다가 동생들까지 줄줄 이어서 입혔다고. 그래도 새 것이나 마찬가지여. 얼마 입기를 하나. 우리 아들놈은 그거 대학시험보러 갈 때 가방에 넣어 보냈어. 그래야 합격한다고 그래서. 뭐 그까짓 것 미신이지만, 그래도 그렇게 했어.”(증평읍 덕상리)

## (3) 태아 치료

## ① 예방 요법

“애 머리 가마가 두 개잖아. 그러면 애를 집에 데려가서 할아버지 수저를 훔쳐와 몰래. 먹는 밥순가락을 훔쳐오면 괜찮아. 그래서 방지했지. 할아버지 옛날에는 은수저 같은 거 있었잖아. 그걸 훔쳐오면 수저 없어졌다고 난리가 벌컥 나잖아. 그래도 그렇게 해야 좋다고 했어.”(증평읍 증평 2리)

## ② 치병 요법

“애가 경기를 하잖아. 애들은 꺼떡하면 그런다고요. 그럴 때 영사를 먹이기도 하고 침으로 따기도 하고 그랬지. 지금은 낮이든 밤이든 병원이 있잖아. 예



전에 이렇게 애들을 키웠다고.”(도안면 화성리)

“아덜이 크면서 탈나면 물 떠놓고 삼신님한테 빌었어요. ‘삼신할머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탈이 났으니 그저 낫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빌었던 거지유 며. 마마가 걸렸을 때는 마마손님 내는 방법이 그러니까, 물 떠놓고 ‘마마 손님 그저 곱게 가시면서 얼굴에 상처 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하면서 빌면 곰보가 절대 안 돼. 그래 잘 달래서 보내야지 강압적으로 하면 안 돼. 다른 애들이 마마 앓는데, ‘얼굴이 어떻게 뭐가 어떻게’ 고 흉을 봐도 금방 확 달아올라서 드세게 번졌어요. 그래서 항상 입조심을 하라구 어른들이 그러잖아요.”(증평읍 남하리)

“애기가 아프면 정안수를 떠다 놓고 빌고. 삼신할머니께 봐달라고 비는 거야. 애를 낳고 부정이 들면 삼일 안에 고기나 비린 것을 해먹잖아. 그러면 삼신할머니가 노해서 애한테 해를 끼쳐. 애가 막 불어나. 또 콩을 볶아 먹으면 애가 불어난다고도 했어. 그러면 물 한 그릇을 떠놓고, 밥 해놓고, 미역국 해놓고, 삼신할머니한테 잘못했다고 비는 거야.”(증평읍 창동리)

#### (4) 백일 및 돌

“돌 때는 시루떡 해놓고 국수 아니면 실타래 이렇게 놓고 오래 살라고. 쌀도 놓고, 연필도 놓고, 공책도 놓고, 돈도 놓고 그러지. ‘돌잡이’ 라고 그러지 왜. 요즘도 그렇게들 하잖아. 애기가 연필을 잡으면 공부를 잘 한다고 그러고, 돈을 잡으면 돈을 잘 번다고 그러고, 그렇게 차려놓고 잔치 하는 거지. 친척들 다 모아서 돌반지 끼주고.”(증평읍 중동 2리)



돌잔치(증평읍 창동리  
거주주민 제공)

## 2. 관례(冠禮)

관례를 흔히 성년례(成年禮)라고 한다. 이 때 남자는 상투를 틀고, 여자는 쪽을 진다. 보통 결혼 전에 치르는 예식으로 15~20세 때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금기로서 부모가 기년(耋年) 이상의 상복(喪服)이 없어야 행할 수 있다. 예전에는 관례를 혼례보다 더 중요하게 여겼으며, 미혼이더라도 관례를 마치면 완전한 성인으로 대우를 받았다.

관례는 보통 음력 정월 중의 길일을 잡아 행하는데, 관자(冠者)가 관례 예정일 3일 전에 술과 과일을 준비하여 집안의 관례일 전날에 함께 유숙한다. 관례 당일이면 빈과 찬(贊; 빈의 보조 역할)과 그밖에 손님들은 세 가지 관건(冠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도안면지 발간위원회, 『道安面誌』,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연구소, 2001.

## 2. 관례(冠禮)

## 현지조사

- 1차 : 2005. 5. 21~22
- 2차 : 2005. 5. 28~29

## 제보자 인적사항

- 신영순:남, 191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채수인:남, 1924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 김제준:남, 192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광덕리
- 류근철:남,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연규원:남,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화성리
- 신현갑:남, 1940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신철호:남, 194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연주용: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권1, 고대민족문화출판사, 1980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巾)을 관자에게 차례로 씌워준다. 이를 초가(初加), 재가(再加), 삼가(三加)라고 하며, 이 절차가 끝나고 초례(醺禮)를 행한 뒤 빈이 관자에게 자(字)를 지어준다. 모든 예식이 끝나면 주인(主人;관례의 주재자)이 관자를 데리고 사당에 다시 고한 다음 부모와 존장(尊長)에게 인사를 하고 빈에게 예를 행한다. 한편 여성은 15세가 되면 비녀를 꽂는데, 이를 계례라고 한다. 이와 같이 남자는 관례, 여자는 계례를 행한 뒤에야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었으며, 갓을 쓰지 못한 자는 아무리 나이가 많더라도 언사에 있어서 하대를 받았다.

관례와 관련한 지역민의 제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스무 살이 가까워 오면 동네 처녀 총각들을 한 자리에 불러다 놓고 성년식을 치렀지. 여자는 긴 땡기머리를 그 날 쪽머리로 올렸고, 남자는 상투를 틀어 올렸어.”(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옛날엔 성년의 날이 뭐람. 그건 있었지. 남자 아들이 열 다섯 살이 되면 호패 달고 다니고, 스무 살이 되면 이제 늙은 총각이 되는 것이었지. 호패가 뭐냐하면 뭐 결혼할 나이가 됐다는 결혼할 수 있는 자격증 같은 거야. 그래 갓 쓰고 두루매기 입고 도포 메고 절하고 아이쿠 많다.”(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성년을 함께 기뻐해 줄 사람들을 청해 이웃이나 친지, 친척들을 모시고 또 마을에서 덕망이 있고 모범이 될 어른을 큰손님으로 모시고 했었지. 나이는 대중이 없었는데, 열 다섯에서 스물 살 가량 사이에 정월달에 일을 봤지.”(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예전에는 성년이 되면 쪽을 올려주고 상투도 올려줬지. 일제 때 단발령이 생기면서 없어진지 오래 되었지 벌써.”(증평군 증평읍 남차리)
- “그땐 결혼 못한 사람은 여든이 돼도 어린애고, 결혼하면 스무 살이 안 돼도 어른이었어. 보통 열 다섯이면 결혼을 했지. 결혼하면 성인이라고 했어. 결혼하기 전에 관례를 치렀는데, 아 그때는 갓 쓰고, 두루매기 두르고, 도포 메고, 절하고 그랬지.”(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전통혼례(제7회 증평문화제)

## 3. 혼례(婚禮)

조선 초기에 『국조오례의(國朝五禮儀)』가 완성되면서 가정의례(주로 관·혼·상·제)에 관한 절차가 체계화 되었는데, 특히 양반사대부를 중심으로 이를 엄격하게 준수했다. 또한 유교가 발전·확대되고 『예서(禮書)』가 한글로 번역·보급되면서 18세기 이후에는 일반 서민들에 이르기

까지 유교에 준한 혼례를 준수했다. 『예서』에 “육례(六禮)를 갖추다”라는 말은 혼례의 여섯 단계인 납채(納采) - 문명(問名) - 납길(納吉) - 납폐(納幣) - 청기(請期) - 친영(親迎) 등의 모든 절차를 따른다는 뜻이다.

## 1) 전통혼례

### (1) 의혼(議婚)

#### 가. 중매(中媒)

양가의 사정을 잘 아는 중매인이 양가를 왕래하면서 혼사의 성립을 위해 양가를 소개하고 혼사를 주선하는 행위를 ‘중매’라고 한다. 양가는 중매인을 통해 서로 의사를 조절하고, 대례(大禮)를 거행하기까지 모든 절차를 의논하게 되며, 혼사에 따른 여러 가지 일들을 결정한다.

“뒀 그때는 소학교, 중학교, 대학교 이랬는데, 대학교 다니는 사람이나 신학교 다니던 사람들이나 조금씩 연애하고 결혼하고 그랬지, 어디 우리 같은 사람들은 신랑 얼굴도 못보고 부모님 시키는 대로 결혼을 했어.”(도안면 화성리)

“옛날에 얼굴을 어떻게 봐, 신랑 얼굴이 찌그러졌는지 어쨌는지 알 수가 있나? 허허허 부모가 맞춰주는 사람하고 살아야지. 지금은 지네들끼리 만나서 시작해서 연애허구 허지만.”(증평읍 미암리)

#### 나. 청혼(請婚)

청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惟新正 體候以時 尊年及加冠萬重仰素區區之至弟家兒親事 尙無指合 能其勸誘處近聞 洞氏家閨養淑哲云 使結秦晉之誼如何餘不備禮謹拜上狀 ○○○○年 ○月 ○日 後人 ○○○拜上”

#### 다. 허혼(許婚)

허혼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伏惟春元 體動止候萬 仰慰區尊弟女兒親事 重不鄙寒陋區之至如勤權 敢餘是不備伏惟不聽從 尊照謹拜上狀 ○○○○年 ○月 ○日 後人 ○拜上.”

#### 라. 약혼(約婚)

혼인하기 며칠 전에 양가 부모 및 혼례 당사자가 신붓집에 함께 모여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으로 약혼을 대신하기도 했다.

#### 마. 택일(擇日)

신붓집에서 혼례 당사자의 사주를 갖고 생기복덕을 보아 택일을 한다. 신부의 사주를 파란 보자기나 빨간 보자기에 넣어 중매자를 통해 신랑집으로 보낸



사주단지  
(초중 2리 김순례 보관)

다. 택일할 때 신랑에게 좋은 날이 신부에게는 나쁜 날일 수도 있고, 신부에게 좋은 날이 신랑에게는 나쁜 날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절충한다.

“택일하는 거. 그걸 연결이라고 했어. 그게 ‘날택이’를 하는 거야. 여자 쪽에서 날을 적어서 신랑 쪽으로 보내. 날택이를. 왜냐하면 여자는 달달이 거르는 것이 있잖아. 그걸 피해서 여자가 받아서 남자 쪽으로 보내는 거야.” (증평읍 초중리)

#### 바. 납폐(納幣)

사주단자의 교환이 끝난 후 정혼 성립의 증거로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폐물을 보내는 의식을 말한다. 흔히 ‘납채(納采)’라고도 하며, 보통 결혼 전날에 행한다. 이 때 채단(采緞)을 넣은 함을 함진아비가 신붓집으로 가지고 간다. 오늘날에는 함진아비를 신랑 친구가 맡지만 옛날에는 상민이 맡았다.

“납채나는 것이 피박이 오는 거지. 옷 해가는 거지. 옛날에는 신랑이 색시집으로 함을 보냈어. 치마저고리 몇 벌, 두루마기 한 벌, 코트도 한 벌, 어떤 이는 양장도 한 벌 이렇게 해가지고 함을 해서 색시집으로 가지.” (증평읍 창동리)

### (2) 대례(大禮)

#### 가. 초행(初行)

혼인날 신랑 일행이 신붓집으로 가는 것을 초행이라고 한다. 신랑 외에 근친 3~4명이 동행한다. 신부 측은 신랑 일행을 미리 정해놓은 근처의 정방(사초방)으로 안내해 간단히 대접한다. 여기서 신랑은 사모관대(紗帽冠帶) 및 목화(木靴)를 착용한다.

#### 나. 전안례(奠雁禮)

신부 측에서 초례 시간을 알려오면 신랑과 함진아비는 팔머리의 인도에 따라 신붓집으로 향한다. 신랑은 함진아비로부터 기러기를 받아 대청에 오른다. 주인은 서쪽을 향해 서고, 신랑은 북쪽을 향해 무릎을 꿇고 앉아 기러기를 전안상에 놓는다. 이 때 신랑은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다가 일어나서 두 번 절하며 주인은 마주 절하지 않는다. 이것을 ‘소례(小禮)’ 또는 ‘전안례(奠雁禮)’라고 한다.

#### 다. 대례(大禮 ; 交拜禮 및 합혼禮)

전안례가 끝나면 마당에 설치한 초례청(醮禮廳)에서 대례를 거행한다. 초례는 교배례(交拜禮)와 합근례(合昏禮)로 이루어진다. 교배례는 신랑과 신부가

마주 절하는 것이요, 합근례은 술잔을 나누어 마시는 것이다. 합근례는 청실·홍실로 묶은 표주박이나 술잔을 사용해 세 번에 걸쳐 행하는데, 술을 교환함으로서 하나가 된다는 상징적 의미를 갖고 있다. 대례가 끝나면 하객들이 대례상(大禮床) 위의 밤이나 대추를 신랑 주머니에 넣어준다. 밤은 자식을 많이 낳으라는 뜻이며, 대추는 늙지 말라는 뜻을 담고 있다. 대례는 집사의 홀기에 의해 진행된다.

“아 결혼식이야 뭐 신랑이 밖에서 가마 타고 와. 그러면 여기서 단장해서 족두리 쓰고 원삼 입고 앉아 있으면 앞에다가 오리 놓고 밤 대추 놓고 찬물에 미나리 띄워서 그러구서 신부가 절하고 신랑이 절하고 그게 끝이지 뭐. 오리는 왜 올려놓냐면 그게 청룡 황룡이라고 해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라고 그러는 거야. 그거는 어디라도 다 있어. 암탉 수탉 잡아다 놓고 결혼식 끝나면 날려보내고 오리도 서로 주고받고 그랬다 참.”(증평읍 중동리)

#### 라. 신방 엿보기

신랑과 신부는 신방에서 첫날밤을 보낸다. 족두리는 반드시 신랑이 풀어주어야 하며, 촛불은 ‘복이 달아난다’고 해 절대 입으로 끄지 않고 옷깃이나 이부자락을 이용해 끈다. ‘신방 엿보기’라고 해 가까운 친척들이 신방의 창호지를 뚫고 사랑의 행위를 엿보기도 하는데, 불이 꺼지면 스스로 물러난다.

신랑이 웃옷을 벗기지. 그거 쳐다보는 거지 뭐. 옛날에는 신랑이 풀 수 있나 확인하려고 일부러 세게 묶기도 했어. 아침드라마에서는 신부가 고개 아프다고 겹옷 벗겨달라고 그러던데, 아이구 예전엔 그런게 어땠어. 신랑이 풀어줄 때만 기다리고 있었지.(증평읍 미암리)

#### 마. 동상례(東床禮)

초례를 치른 이튿날 오후에, 신랑은 신부 측의 동네 청년들로부터 동상례(신랑 다루기)를 당한다. 동네 청년들은 신랑을 대들보에 거꾸로 매어놓고, 신부에게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을 한다. 이 때 신부가 그 질문에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면 몽둥이로 신랑의 발바닥을 내리친다. 신부 측에서는 음식을 대접하며 사정을 부탁한다.

“옛날에는 째게미라고 있어. 그걸로 발을 묶어서 천장에다가 붙들어 매고 신랑을 달았어. 그래서 사위를 때리면 장모가 와서 한상 차려왔어. 동네 사람들이 그래 다와요. 한번씩 북어로 다 치는 거지. 시방은 안 그래요? 시방은 신랑집으로 가잖아. 아이고 어린 신랑은 맞으면 울어요. 많이 울었어 엉엉 울었어.”(증평읍 미암리)

### (3) 후례(後禮)

#### 가. 우귀(于歸)

신붓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랑집에 정식으로 입주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신행(新行)’이라고 한다. 기간은 혼례 당일부터 3년까지 다양한데, 보통은 3일 후에 이루어진다. 우귀를 할 때는 신붓집에서 신랑집으로 말이나 소에 장롱, 경대, 이불, 옷, 버선, 양말 등의 살림살이와 음식을 가져간다. 이에 대한 답례로 시어머니는 자신이 끼던 반지를 며느리에게 건네기도 한다.

“신부가 처음으로 시댁에 들어가잖아. 가마 타고 들어가는데, 불을 피워놓으면 가마 드는 사람이 불을 밟으면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야 잘 산다고들 했어. 그게 액땀이야.”(증평읍 창동리)

#### 나. 현구고례(見舅姑禮)

현구고례(見舅姑禮)라 하는 것은 시집 온 신부가 처음으로 시부모에게 인사를 드리는 것을 말한다. 시집에 들어온 신부는 사흘이나 열흘 동안 아침 일찍 몸단장을 하고 시부모께 반절을 올린다. 이 동안에 시어머니는 일가친척에게 신부를 소개한다.

“시어머니가 처음 며칠을 밥을 안 시키지. 사흘간은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지. 시어머니가 하지 말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했어. 아침마다 화장 곱게 하고 치마 저고리 입고서 절을 드렸어. 두 내외가 나란히 절을 드렸지.”(증평읍 창동리)

#### 다. 근친(覲親)

신부가 시집살이를 한 후에 처음으로 친정 나들이를 하는 것을 말한다. 흔히 ‘재향(在鄉)’이라고 한다. 이 때 선물을 준비하는데, 여유가 있는 경우에는 돼지 또는 소의 다리에 떡과 기타 음식을 장만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햇곡식으로 떡과 술을 간단히 장만한다.

“신혼여행이 어디 생각이나 할 일이었나. 그냥 결혼하고 일년만에 처갓집에 가게 되는 거여. 그게 일종의 신혼여행이라고 생각했어. 그게 근친이지 근친이야.”(도안면 화성리)



현대혼례(증평읍 장동리 조영남)

## 2) 현대혼례

1890년대에 서구 문명의 유입으로 전통 혼례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식을 배제한 예매당 결혼이 처음으로 시행되었다. 1900년대에는 불교계의 불식화혼법(佛式花婚法)이 등장하였고, 1930년대에는 계명구락부(啓明俱樂部)를 중심으로 오늘날의 예식장에서 행하는 것과 같은 사회결혼(社會結婚)이 보급되었다. 이후 1960~1970년대에 가정의례

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의 제정 및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혼례의 절차와 형식이 변모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오늘날에는 서구식 전통 예식을 간소한 절차로 병립하는 예식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카톨릭·기독교·불교 등 종교식 혼례도 널리 행해지고 있다. 현대 예식의 가장 큰 특징은 예식 전문 대행업체의 발전 및 장소와 복장의 변화이다. 예식장은 물론 관공서 강당·회관·성당·교회·사찰 등 다양한 장소에서 혼례가 치러지고 있으며, 복장도 신랑은 정장 양복, 신부는 먼사포와 웨딩드레스를 갖추어 입는 것이 보통이다.

혼례는 보통 약혼 - 결혼 - 후례 등의 절차로 진행된다. 연애혼과 중매혼, 그리고 연애와 중매를 절충한 절충혼의 형태가 있지만, 당사자의 의사가 제일 중요하다. 약혼은 원래 신붓집에서 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개는 음식점을 위시한 특정 장소에서 행한다. 약혼식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한데, 이 때는 혼인 결정 후에 신랑측에서 신부측으로 사주를 보내고, 신부측에서는 택일을 한 뒤에 서로 함을 보내는 예물교환으로서 대신한다. 결혼은 주례의 주관하에 사회자의 진행으로 신랑·신부 입장, 혼인서약서 낭독, 주례사와 내빈축사 또는 축가 등의 순으로 이루어지며, 식이 끝난 뒤에는 기념촬영을 한다. 내빈은 피로연 장소에 모여 식사와 담화를 나눈다. 후례는 폐백을 드리는 것을 말하는데, 대부분 예식장에 마련되어 있는 장소에서 행한다. 1990년대에 들어서는 예식 이전에 날을 잡아 야외촬영을 하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종교식 혼례에서 기독교계는 교회에서 목사의 주례로 신의 축복 속에서 진행한다. 카톨릭계는 혼인미사라 해 보다 엄격한 성교예규(聖敎禮規)에 따라 진행한다. 불교계는 신랑을 우바새(優婆塞), 신부를 우바이(優婆夷)라 하고 혼인을 전생의 인연으로 부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으로 여긴다. 이밖에 신흥종교의 합동결혼식도 있는데, 통일교의 합동결혼식이 대표적이다.

## 4. 상례(喪禮)

상례(喪禮)는 운명(殞命)으로부터 탈상(脫喪)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의식을 말한다. 사례(四禮; 冠·婚·喪·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예법으로 간주되어 왔다. 신라시대에서 고려시대까지 불교와 유교의 양식이 혼합된 상례를 행했다. 오늘날에는 매우 간략한 형태로 축소됐으며, 불교나 천주교 또는 기독교의 종교의식에 준한 상례도 보편화 되었다.

### 1) 전통상례

#### (1) 초종(初終)

## 혼례(婚禮)

### 1. 현지조사

- 1차 : 2005. 2. 12
- 2차 : 2005. 5. 21~22
- 3차 : 2005. 5. 28~29

### 2. 제보자 인적사항

- 김봉화: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 방례순:여, 191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윤태순:여, 1927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최분열:여, 192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연영화:여, 1930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이경옥:여, 1930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안정자: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연규원:남,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화성리
- 연주용: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김지연:여,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장희동:남,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박재준:남,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설옥녀: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이화분: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지교합:남, 193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 조성완:남, 195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죽리

### 3.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권1, 고대민족문화출판사, 1980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 가. 임종(臨終)

죽음이 드리우면 머리를 동쪽으로 두고 북쪽 창문 밑에 눕힌다. 자식들은 운명을 지켜보며 유언을 듣는다. 이것을 ‘임종’이라고 한다. 남성은 여성의 손에서, 여성은 남성의 손에서 운명하지 않도록 한다. 숨이 끊어진 것을 확인하기 위해 햇숨을 코와 입에 대어보는데, 이것을 ‘속광(屬纊)’이라고 한다.

“임종이라는 것은 숨 떨어질 때 참석하는 것을 임종이라 그래. 지금은 병원에서 하지만, 옛날에는 병원에 있다가도 집으로 데리고 왔어. 병원에서 죽어도 객사라고 그랬어. 객사가 되면 방안에 절대 안 모셨어. 그래서 서둘러 데리고 왔지.”(도안면 화성리)

### 나. 수세걷기

망자의 머리를 북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얀 이불로 덮어 놓은 후에 시신이 굳기 전에 손과 발을 나란히 마주해 묶는다. 이를 ‘수세걷기’라고 한다.

“이웃집 아저씨들이 와서 수세를 걷지. 굳기 전에 손과 발을 묶고 칠성판에다 고이 눕혀 놔. 그 다음 친척들이 와서 보고 엮을 하지.”(중평읍 창동리)

### 다. 초혼(招魂)

혼을 다시 불러들이는 상징적 행위로 ‘고복(梟復)’이라고도 한다. 집안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보통 상주가 처마 밑에서 망자의 이름을 “본관 + 성씨 복이요”라며 세 번 부른 뒤에 망자의 홀적삼을 세 번 휘두르고 지붕으로 던진다. 또는 망자의 윗저고리를 지붕 위에 던지며 “지명 + 아저씨 + 적삼 가져가세요”를 세 번 외치기도 한다.

“지붕에 올라가서 ‘복! 복! 복!’ 하는 거. 지붕에다가 적삼을 띄우지. 누가 하느냐면 마을 노인분들이 하는데, 그게 또 지붕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나쁘다는 거거든. 아 그래서 한 번에 휙 올려야 좋다고 그랬어.”(중평읍 초중리)

### 라. 사자밥

사자밥을 대문 밖에 진설한다. 된장, 밥 세 그릇과 돈 세 푼, 짚신 등이다. 남자의 경우 대문의 오른쪽, 여자의 경우 왼쪽에 차려놓는다. 상주는 망자의 신발을 밖으로 향해 돌려놓고 방안에는 병풍을 친 후 향과 촛불을 밝힌다.

‘수시’라고 해서 손발을 묶고 사자밥을 만들었지. 사자밥은 짚신 세 켤레, 밥 세 접시, 된장 한 접시, 10원 짜리 세 개 그렇게 놓아.”(도안면 화성리)

### 마. 천시(遷屍)

입관하기 전까지 시신을 안치하는 것으로 수세걷기가 끝난 뒤에 짚을 깔고 그 위에 칠성판(시신 크기의 송판에 북두칠성을 그린 것)을 놓고 이불로 덮는



다. 그리고 병풍으로 가린다.

“시체 바로 밑에 송판 놓고 수색(수세건기)을 해. 몸 들어지지 말라고, 신체 흔들리지 말고 고정시키기 위해 다리 손 어깨에 짚을 넣지.”(증평읍 용강리)

#### 바. 입상주(立喪主)

상주는 장자(長子)로 삼는다. 아들이 없을 때는 딸이 대신하기도 하지만, 보통 만사위가 상주가 된다. 또 딸이 미혼일 때는 조카가 대신하기도 하며, 자식이 없을 때는 양자를 받거나 가까운 친척이 대신한다.

#### 사. 호상(護喪)

장의 절차를 지휘하는 사람으로서 자식의 친구나 망자와 절친한 사람, 친인척이 없을 때는 동네 이장, 관직 경험이 있거나 상례에 밝은 사람, 동네의 계원 중에서 선택한다.

#### 아. 부고(訃告)

망자의 죽음을 알리는 것으로 “상주의 본관 + 성씨 + 부친(모친) + 죽은 사유 + 날짜 + 자이부고(玆以訃告)”라고 쓰고 이어서 장지, 주소, 발인 시간, 자손이나 사위 등의 이름을 적는다.

“부고는 집에서 한문이나 한다는 어른이 써서 아랫사람들이 걷거나 뛰거나 해서 전했지.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부고를 알렸어. 어디 전화가 있을 땐가?”(도안면 광덕리)

#### 자. 상복(喪服)

유복자(有服者)는 화려한 복식을 거두어야 한다. 남성은 백도포(白道袍) 또는 흰 홀두루마기를 입되 소매를 걷어서 왼쪽 어깨를 들어낸다. 여성은 소복에 치마를 입으며, 새끼줄로 허리를 묶는다. 망자가 남성일 경우에는 우측 소매를 찢고, 여성일 경우에는 좌측 소매를 찢서 팔을 그 곳에 낀다. 머리에는 건을 쓰거나 띠를 두른다. 남성은 건을 쓰는데, 혼전일 때는 끝을 막지 않고 삼베로 묶는다. 여성은 머리를 푼 뒤 새끼줄로 머리띠를 한다. 여성이 건을 쓸 때는 건에 테두리를 한다. 혼전의 여성은 테두리에 머리를 땀아 흰 땀기를 매단다. 허리에는 ‘요질’ 이라고 해 새끼줄을 두르는 데 남녀의 차이는 없다. 그리고 남자는 행건을 다리에 두른다. 오늘날은 가정의례준칙에 의해 굴건제복을 간소하게 착용한다. 양복을 입을 때는 서양식으로 검은색을 입는다.

“머리 풀고 허리 메고 흰 옷 입고 그런 거 있잖아. 지금은 그렇게 안 해더라고. 그냥



증평읍 장동리 이정규 제공

흰복만 입히더라고. 옛날에는 엄청 했어. 그 옷 입는 것도 일이었어 일. 그래도 뼈대 있다는 소리를 들을라든 그렇게 다 했어.”(중평읍 울리)

### 차. 전(奠)

제사를 지내는 것으로 수의를 입히기 전까지 보통의 제사상과 같이 차린다. ‘이승을 떠나 천도하라’는 의미에서 축을 읽는다. 축 대신 술잔을 올리기도 한다. 하루에 한 번씩 한다.

### (2) 염습(殮襲)

#### 가. 목욕(沐浴)

약삼, 솜, 행주, 걸레 등으로 망자의 하체부터 씻겨준다. 그리고 망자의 손톱과 발톱을 몇 가닥의 머리카락과 함께 수의 주머니에 넣는다. 망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곱게 화장을 해준다. 망자를 목욕시킨 일체의 재료들은 땅에 묻는다.

“돌아가시면 새 옷을 입히고, 입을 명주로 쌓아 매고 화장도 시키지. 열두 고깔 접어서 돈을 천 원 짜리 넣는 사람도 있고, 만 원 짜리 넣는 사람도 있지. 예수교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그 다음 발은 꽃버선을 신키지.”(중평읍 미암리)

#### 나. 염습(殮襲)

망자를 목욕시킨 후에 수의로 갈아 입힌다. 원래 사망 당일에 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현실 여건상 보통 이튿날에 행한다. 망자에게 수의를 입힐 때에 옷 고름은 생전과 반대로 맨다. 망자가 여성일 경우에는 머리를 풀어 가슴에 모은다. 그러나 엄격하게는 단계별로 습(襲), 소렴(小殮), 대렴(大斂)으로 나눌 수 있다. 습은 수의를 갈아 입힌 후에 5~7매듭을 짓는 것으로 사망 당일에, 소렴은 시신을 임시로 묶는 것으로 이튿날에, 대렴은 시신을 단단히 묶고 입 관하는 것으로 그 이튿날에 순차적으로 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은 ‘염습(殮襲)’이라 해 순서 없이 한 번에 행한다.

“죽은 사람을 살아있을 때와 매 한가지로 이쁘게 단장을 시키잖아. 그런 다음에 생전에 준비한 옷을 갈아 입혀. 그 때는 자식도 못 들어오게 했어. 아무리 죽은 몸이어도 알몸땡이를 안 보여줄려 하더라고. 그래 옷을 갈아 입히고 시신을 일곱 묶음 묶는 거여. 매듭은 꼭 왼쪽으로 해야지.”(중평읍 중동리)

#### 다. 반함(飯含)

상주가 물에 불린 쌀을 버드나무 손가락으로 망자의 입에 세 번 떠넣는다. 이 때 “천 석이요! 이천 석이요! 삼천 석이요!”라며 외친다. 또한 동전을 입에 넣기도 하는데, 이 때에는 “일천 냥이요! 이천 냥이요! 삼천 냥이요!”라며 외친다.

“시신을 깨끗하게 목욕시킨 다음에 손톱 깎고 해서 삼베로 만든 수의로 갈아 입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이의 입을 열게 해서 물에 불린 쌀 있잖아. 그 쌀을 입에다 넣기도 했던 거. 왜냐면 이제 저승가야 되니까 배고프지 말라고.”(증평읍 중동리)

### 라. 입관(入棺)

관은 보통 옷나무, 소나무, 오동나무로 제작한다. 옷나무 재질의 관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값이 매우 비싸다. 또한 석관을 쓸 때는 미리 장지에 옮겨놓고, 집에서는 목관에다 시신을 넣어 운반한 뒤 못을 뽑고 시신만 꺼내어 석관에 옮겨 묻는다. 시신을 관에 넣을 때는 칠성관에 묶어서 넣는다. 관의 빈 공간에는 짚이나 종이 또는 망자가 평소에 입었던 옷 등으로 채우는데, 이를 ‘보공(補空)’이라고 한다. 입관이 끝나면 흙이불(흔히 天衾으로 부름)로 씌우고 나무못으로 박는다. 그리고 짚과 종이를 섞어 외로 끈 밧줄로 결관(結棺)을 한다.

“관에 시신을 넣는데, 관에 빈 곳에는 예전에 살아 계실 적에 유품 몇 가지랑 입던 옷 몇 가지 넣고 ‘천금’이라고 부르는 흙이불이 있어. 그거 씌우고 못으로 관을 박어. 그 다음에 영정 놓고 상제들은 상복 입고 앞에서 절하고 곡하고 손님 받고 그러지 뭐.”(증평읍 중동리)

## (3) 치장(治葬)

### 가. 상여놀이

출상 전날에 빈 상여를 메고 벌이는 놀이로서 흔히 ‘대돌음’이라고 한다. 호상(好喪)일 경우나 여유 있는 부호의 상일 경우에 한해 놀이가 벌어진다. 출상 전날 저녁 무렵에 상두꾼들이 상가에 모여 빈 상여를 메고 소리도 맞추고 발도 맞추어 본다는 구실로 상여놀이를 벌인다. 이 때 망자의 사위나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이를 상여에 태우고 상여소리를 하면서 마을을 도는데, 죽은 이의 친구나 친척을 찾아가 작별인사를 하고 금품을 받아내기도 한다.



광덕리 요골 상여집

“옛날 부잣집에서는 이레 동안 놔뒀어. 그게 저 왜 그러냐면 자식들이 멀리 멀리 가 있지. 부잣집들이니까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지. 부산나케 왔다갔다 하는데 그 때 술 받아먹을라고 만사우 태워서 돌고 다녔지. 그냥 안 놔뒀어.”(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나. 출관(出棺)

관을 내는 것을 ‘출관’이라고 한다. 이 때 귀신이 붙지 말라고 해 관으로 바

가지를 깨고 나오거나, 혹은 툇이나 도끼로 문지방을 찍고 나오기도 한다.

“방에서 나갈 때 세 번 툇질을 했어. ‘툇질이야! 툇질이야!’ 하면서 관을 움직였지. 그리고 나와서는 바가지를 깨뜨리고 나왔어. 그래야 아무 탈이 없다고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들 했었지.”(도안면 광덕리)

#### 다. 발인(發引)

장지로 이동하는 것을 ‘발인’이라고 한다. 우선 관을 상여 앞에 모셔놓고 발인제를 지낸다. 상주로부터 차례로 헌작하되, 단잔을 올리며 절도 한 번으로 그친다. 제가 끝나면 상두꾼들이 〈상두가〉를 부르면서 하직의 의미로 상여를 세 번 올렸다 내렸다 한 후에 나선다. 상여가 마을을 벗어날 때에 노제(路祭; 告別祭)를 지낸다. 예전에는 상여가 나갈 때는 제일 앞에 나쁜 귀신을 쫓기 위해 방상(方相) 2인이 앞을 인도하고, 곡을 하는 여자 중, 행자 2인이 영좌(靈座)와 향상(香床)을 들고 가고, 그 뒤 명정, 상려가 따르며 상려 뒤에도 순서에 따라 삼들이 따라갔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러한 절차가 모두 생략되었다.

#### 라. 하관(下棺)



하관(중평읍 장동리  
이정규 제공)

장지에 이르면 산신제를 지내고 광(壙; 무덤)을 판다. 광이 마련되면 상여에서 관을 광으로 옮긴다. 그리고 광에 관을 내린다. 이를 하관 또는 하구(下柩)라고 한다. 하관은 관을 통째로 묻는 방법과 관을 파기하고 시신만 묻는 방법이 있지만, 보통은 관 채로 하관한다. 하관을 한 다음에는 상두꾼들이 회로 다진다. 회로 다질 때는 〈회다지〉를 부르며 달구질을 한다. 이 때에는 ‘달구질을 잘 해달라’는 뜻에서 상주가 달구막대기의 새끼줄에 돈을 끼워

준다. 회를 다지고 채워서 평판해지면 평토제(平土祭)를 지낸다. 그리고 무덤의 봉분을 만들기 전에도 봉분제를 지낸다.

“응 ‘어허~ 달기요’ 라고 하면서 관 넣고 나서 흙 덮을 때 그래 노래 불렀어. 그저 허술하게 묻으면 물이 들어가니깐 이제 물이 들어가지 말라고 꽃꽂하게 묻으면서 부르는 거지.”(도안면 화성리)

#### (4) 우제(虞祭)

망자의 혼을 달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우제를 지내는데, 이를 삼우제(三虞祭)라고 한다. 초우(初虞)는 장례를 치른 당일 저녁에 영좌에 혼백을 모시고 지내며, 재우(再虞)는 초우 이튿날 새벽에 지내며, 삼우(三虞)는 재우 이튿날

식전에 지낸다. 우제가 끝나면 절에 가서 주마다 7회씩 49구제를 지내는 집안도 있다.<sup>8)</sup>

“49제를 지내지. 옛날에는 3년을 했어. 삼년상을 했고, 요샌 1년만 지내다가 49제만 지내지. 옛날에는 3년을 꼭 밥 떠다놓고 초하루 보름으로 곡하고 그랬어.”(증평읍 미암리)

#### (5) 졸곡제(卒哭祭)

장례를 마친 뒤 백일이 지나면 강일(剛日)을 택해 제를 지낸다. 이것을 ‘졸곡제’라고 하는데, ‘무시로 하던 곡을 그친다’는 의미가 있다. 졸곡제를 지낸 이튿날에는 부제(祔祭)을 지낸다. 부제는 망자와 조상을 같이 병설하는 제사이다. 망자는 이로서 조상의 대열에 오르게 된다.

“장례 치르고 백 일째 되는 날도 제사를 치르는데, 이걸 집에서 치르기도 하고 간단히 챙겨서 성묘 가기도 하고 그래.”(증평읍 창동리)

#### (6) 소상(小祥) 및 대상(大祥)

초상 후 1주년이 되는 날에 올리는 제사를 ‘소상’이라고 한다. 윤달은 계산에 넣지 않고 제사한다. 근친과 조객이 대동해 참여한다. 그리고 초상 후 2년이 되는 날에 올리는 제사를 ‘대상’이라고 한다. 대상을 마치면 영좌를 철시해 신주를 가묘에 안치함으로서 이른바 탈상을 하게 된다. 요즈음은 100일 탈상이 일반적이거나 예전에는 부친은 3년상, 모친은 3년상 혹은 1년상을 치렀다. 모친상의 경우에 부친보다 먼저 돌아가시면 1년상, 나중에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렀다. 그리고 묘지 옆에 여막을 짓고 대상까지 3년 동안 묘지를 지키는 시묘살이를 하기도 했다.

“예전에 상을 치를 때 우리 마을에서는 ‘고현’이라고 해서 혼백을 만들어 아침이 되면 우리가 먹을 밥을 차리기 전에 고현에서 먼저 밥상을 올리고 했지. 사람이 죽으면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3년 동안 생존해 있다고 보고 그 사람을 대신 해서 하얀 천과 붉은 천으로 만들어 놓은 상이 있었어. 그걸 ‘고현’이라고 그렸고, ‘지창’이라고도 했지.”(증평읍 신동리)

### 2) 현대상례

오늘날은 형식적이면서 까다로운 상례 절차가 많이 생략되었다. 슬픈 감정을 표현하면서도 고인의 유덕을 기릴 수 있는 실질적인 절차로 이행되고 있다. 가정에서 치러지던 장례가 아파트 중심의 주거문화 변화, 장례의 편리함, 문상객의 편의 등을 이유로 병원장례식장과 전문 장례식장 이용이 점차 늘고 있다.

8) 사망일로부터 49일째 되는 날에 올리는 제로 원래는 불교의식이다. 보통 고인이 생전에 다니던 절에서 올리며 영혼을 극락으로 인도한다는 뜻에서 지낸다. 고인이 소원하였거나 불자인 경우에 많이 행한다.

병원장례식의 경우, 사망 당일에는 먼저 장례를 치를 병원장례식장에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으로 가기 전에 먼저 담당의사로부터 사망진단서를 발급 받는다. 병원장례식장 직원이 운구용 차로 장례식장까지 운구한다. 병원 외부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을 예약한 후 운구용 차량을 이용해 장례식장으로 운구한다. 상주가 동행해 호실을 확인한 후 안치실에 사체를 안치한다. 장례식장 측과 상담해 빈소를 지정 받고 장례식장 사용신청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다. 이튿날에 가족과 친지가 장례식장 측과 상의해 입관 시간을 정하고 장의용품을 준비한다.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는 입관 전에 반드시 사무실로 제출한다. 발인을 할 때에는 발인 시간을 지정해 알려주고 차량 예약 후 이용료를 수납한 후 사체 인수 및 확인서명 후 장례예식을 거쳐 발인을 한다.

한편, 종교식 상례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불교에서는 장례를 다비식(荼毘式)이라 한다. 불교의 의례 규범인 석문의범(釋門儀範)에 상례에 대한 부분이 있으나 상세하지 않으며, 다만 추도 의식의 순서만 있어 그에 따라 장례의식을 거행한다. 임종에서 입관에 이르는 절차는 일반에서 하는 장례식과 거의 비슷하며 다만 영결식에 있어서 다비에 의한 순서로 거행한다. 다비식의 순서는 ① 개식, ② 삼귀의례(三歸依禮), ③ 약력 보고, ④ 착어(着語), ⑤ 창혼(唱魂), ⑥ 헌화(獻花), ⑦ 독경(讀經), ⑧ 추도사(追悼辭), ⑨ 소향(燒香), ⑩ 사홍서원(四弘誓願), ⑪ 폐식 등으로 전개된다. 이러한 순서로 영결식을 거행한 후 장지로 향하는데, 시신은 화장(火葬)을 한다. 화장할 때에는 염불을 그치지 않으며, 화장이 끝나면 흰 창호지에 유골을 받아서 상제에게 주어 쇠골(碎骨)한 다음 법주가 있는 절에 봉안하고 제사를 지낸다. 봉안한 절에서 49제와 백일제를 지내고 3년 제사를 모신다. 3년 제사가 끝나면 봉안도의 사진을 떼어 가는데 이것은 일반에서 케연을 철거하는 것과 같다.

천주교식 상례는 성교예규(聖敎禮規)에 의해 치러진다. 운명이 임박하면 신부를 청해 종부성사(終傳聖事)를 받도록 한다. 이 때 가족들이 환자를 정히 씻긴다. 탁자에 백지나 백포를 깔고 그 위에 고상(苦像)과 촛대 두개, 성수 그릇과 성수채를 준비한다. 신부가 도착하면 촛대에 불을 켜고 다른 사람은 모두 물러난다. 고해성사가 끝나면 노자성체, 종부성사, 임종 전 대사의 순서로 성사를 진행한다. 종부성사는 신부가 임종에 참여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으며, 주위 사람들은 환자를 위해 위로와 격려의 말을 들려주고, 성서 가운데 거룩한 구절을 읽어 준다. 운명 시에는 성초에 불을 켜고, 임종경(臨終經)이나 성모덕서도문이나 매괴경을 읽는다. 염경(念經)은 운명한 뒤에도 얼마 동안 계속한다. 환자가 운명하면 눈과 입을 다물게 하고 두 손을 합장시켜 십자고상(十字苦像)을 잡고 있게 한다. 시신의 옆에 고상(苦像)을 모시고, 고상 양쪽에 촛불을 켜고 성수와 성수채를 입관 때까지 놓아두며, 가족들은 그 옆에 꿇어

#### 1. 현지조사

- 1차 : 2005. 2. 13
- 2차 : 2005. 5. 21~22
- 3차 : 2005. 5. 28~29

#### 제보자 인적사항

- 김규복:남, 1928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연규원:남, 1931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 장희동:남, 1934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미암리)
- 우호원:남, 1935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석곡리)
- 최승선:남, 1936년, 중평군 중평읍 용강리)
- 지교합:남, 1936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송산리)
- 권상주:남, 1958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조성완:남, 1955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죽리)
- 김금옥:여, 1921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교동리)
- 최순덕:여, 1929년 출생, 중평군 중평읍 울리)
- 연영희:여, 1930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앉아 연도(煙禱)한다. 이후 운명을 본당 신부에게 보고하고, 미사 예분을 올려 연미사를 청한다. 장례일과 장지, 장례미사에 대한 시간 등을 신부와 의논해 결정한다. 장례일이 되면 봉당에서는 영구를 성당으로 옮겨 연미사와 사도에 벌을 거행한다. 입관과 출관, 행상, 하관은 성교 예규에 따라 한다. 장지에 도착하면 묘지 추성 기도를 하고, 영구와 천광에 성수를 뿌리고 하관 기도를 하고 하관한다.

기독교식 상례는 운명한 시신의 수시(收屍)로부터 하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가 목사의 집례(執禮)에 따라 치러진다. 운명과 더불어 찬송과 기도로 고인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뜻의 예배를 본다. 초종 중에는 매일 목사의 집례 아래 기도회를 갖고, 유가족은 아침저녁으로 빈소에서 기도회를 가지며, 찬송이 끊이지 않게 해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가게 한다. 일반 상례와 틀린 점은 곡을 하지 않으며, 음식을 차리지 않고, 절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조석으로 전을 올리거나 상식을 올리지 않으며, 염습 시에 매장포로 묶지도 않는다. 장례식 전날에 염습을 마치고 입관 예배를 본다. 특히 이 때에는 반드시 목사가 참석해 예배를 인도해 나간다. 염습의 일체는 반드시 신자가 한다. 장례식은 영구를 교회에 안치해 교회에서 하는 경우와 상가에서 간략하게 하는 경우가 있다. 이 장례식(영결식)은 고인이 하나님에게 돌아갔음을 찬미하는 뜻에서 목사의 집례 아래 예배를 본다. 예배의 순서는 ① 전주(송영), ② 기도, ③ 성경 봉독, ④ 찬송(일동), ⑤ 기도, ⑥ 고인의 약력 소개, ⑦ 목사의 설교, ⑧ 기도, ⑨ 찬송(일동), ⑩ 헌화 등이다. 기독교에서는 분향은 하지 않고 헌화(獻花)를 한다. 상주, 유족, 친지, 조객의 순서로 준비된 꽃을 한 송이씩 헌화한다.

## 5. 제례(祭禮)

원시시대에 자연 현상으로부터 비롯되는 천재지변을 극복하기 위해 하늘을 대상 신격으로 삼아 기원하였는데, 이것을 제사의 기원으로 볼 수 있다. 이후 인문의 발달에 따라 제사에 일정한 격식을 갖추게 되면서 제사가 곧 제례로 발전했다.

오늘날 증평에서는 기제(忌祭), 차례(茶禮), 추석 명절 제사 등의 제례만 전승되고 있다. 기제의 경우에도 조부모와 부모의 2대 봉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제사 시간도 기일 일몰 후에 지내고 있다.

### 1) 전통 제례

#### (1) 기제(忌祭)

- 이종옥:여, 1930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고억래: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연주용: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최분열: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 이경옥:여, 193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박종월:여, 193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중동리)
- 김지연:여,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박복순:여, 1937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 박복순:여, 193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증평리)
- 연명옥:여, 1939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 김종예:여, 출생년 미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이금옥:여, 출생년 미상, 증평읍 증평읍 창동리)
- 이연래:여, 출생년 미상, 증평읍 증평읍 창동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 권1, 고대민족문화출판사, 1980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사전연구사, 1998.



차례상(증평읍 화성리  
연성환제공)

고인이 사망한 날에 해마다 한 번씩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기제의 대상은 과거에는 『주자가례(朱子家禮)』에 따라 4대조까지 봉사하였으나, 오늘날의 증평지역에서는 가정의례준칙에 의거해 2대조 및 후손이 없는 3촌 이내 존·비속에 한해서만 봉사한다. 제사 시간은 고인이 사망한 날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 지냈으나, 지금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제사 당일 저녁 무렵 이후 적당한 시간에 지낸다. 제사는 제

주의 집에서 지내는데, 고인의 장자나 장손이 제주로서 제사를 주재한다. 장자나 장손이 없을 때는 차자나 차손이 주관한다. 제사에 참석하는 사람은 고인의 직계 자손으로 하며 가까운 친척도 참석하기도 한다.

“죽은 날짜에 자시에 제사를 시작했어. 첫날 돌아오는 때에 지냈지. 시계가 없으니까 젓밥도 먹고 이야기도 하면서 닭이 울 때까지 기다렸지. 닭이 울면 어머니 아버지 혼이 이제 가셨다 해서 그때까지는 깨어 있었어.”(도안면 화성리)

## (2) 차례(茶禮)

음력 매월 초하룻날과 보름날, 그리고 명절이나 조상의 생일에 간단하게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보통 아침이나 낮에 지낸다. 오늘날에는 정월 초하루의 연시제(年始祭)와 추석명절의 절사(節祀)가 대표적인 차례이다. 제수와 절차는 기제에 따르면 무축단작(無祝單酌)이라고 해 고축(告祝) 없이 단잔을 올린다.

## (3) 연시제(年始祭)

정월 초하룻날 아침에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원래 4대조까지 봉사하였으나, 오늘날은 2대조까지 봉사한다. 봉사 대상이 되는 조상을 한꺼번에 모셔놓고 차례를 올린다. 메는 떡국으로 대신한다.

## (4) 추석명절 제사

음력 8월 보름에 지내는 제사를 말한다. 차례를 지내는 봉사 대상은 모든 직계 조상으로 하며, 제수는 새로 익은 햇곡식과 햇과일로 한다.

## (5) 사시제(四時祭)

철에 따라 1년에 네 번 드리는 제사로서 매중월(2·5·8·11월) 상순의 정일(丁日)이나 해일(亥日)을 가리어 지낸다. 보통 날짜는 전달 하순에 정한다. 제사전 삼 일 동안 재계(齋戒)한다. 제사 하루 전날에는 정침(正寢)을 깨끗이 청소하고 신주 모실 자리를 마련한다. 방 한가운데 향탁을 놓고 그 위에 향로, 향합, 촛대를 놓는다. 주부는 제기를 손질하고 제찬을 정결하게 마련한다. 밤

### 현지조사

- 2005년 4월 5일

### 제보자 인적사항

- 연규원:남, 1931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화성리
- 안창남:남,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이갑순: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김금옥:여, 192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설옥녀: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문재옥:여, 194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김중예:여, 출생년 미상, 증평군 증평읍 용강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韓國民俗大觀』권1, 고대민족문화출판사, 1980
- 한국민속사전 편찬위원회, 『한국민속대사전』, 한국사건연구소, 1998.



새도록 촛불을 밝혀두고 이튿날에 날이 밝으면 아침 일찍 일어나 제주 이하 모든 참사자는 제복을 입고, 사당으로 나아가 분향한 뒤 신주를 정침으로 내어 모신다. 참신 - 강신 - 진찬이 끝나면 초헌 - 아헌 - 종헌에 이어 유식 - 합문 - 계문을 한 뒤 수조를 한다. 사신하고 나서 납주(納主)하면 상을 물리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사례편람(四禮便覽)』에는 “시제야말로 제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강조하고 있지만, 오늘날에는 거의 단절된 상태다.

### (6) 묘제(墓祭)

산소에서 직접 올리는 제사를 말한다. 제찬은 기제와 마찬가지로 토지신(土地神)에게도 따로 제수를 마련해 제사를 올린다. 『격몽요결(擊蒙要訣)』에는 정월 초하루, 한식, 단호, 추석 등으로 제일(祭日)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례편람』에는 3월 상순으로 제일을 명시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증평지역에서는 적당한 날을 선택해 문중이 모두 함께 산소에 올라 제사를 올린다. 제주를 비롯한 참사자들은 검은 갓과 흰 옷을 갖추고 일찍 산소에 찾아가 재배한 후 산소를 둘러보면서 풀이 있으면 벌초를 하는 등 산소 주변을 정리한다.

### (7) 한식성묘(寒食省墓)

한식은 청명 다음날로 동짓날로부터 계산해서 105일째 되는 날이다. 이 날은 예로부터 조상께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가는 것이 관습이었다. 한식성묘(한식차례)와 관련해 증평읍 용강 2리 곡강골 유래비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새겨 있다.

‘자자손손 어버이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충효의 고장이며, 안보정신이 투철해 1913년에 차근평이라는 사람이 거사가 있어 마을을 위해 문전옥답 2,400평을 희사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 현재까지도 (한식에) 그의 제사를 올리고 있다.’  
(증평읍 용강리)



용강리 곡강마을 유래비(한식차례 관련)

## 2) 현대 제례

오늘날 증평지역에 전승되고 있는 전통제례로는 기제, 차례, 추석명절 제사 등을 꼽을 수 있다. 제의 방식도 옛 전통을 보편적으로 고수하고 있는 편이다.<sup>9)</sup> 그러나 연시제, 사시제, 묘제 등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한편 불교

9) ① 신위봉안(神位奉安) : 제상 위에 흰 종이를 깔고 제수를 진설한 뒤, 지방을 써서 붙인다. 제주가 분향하고 모사에 술을 부은 뒤 제주와 참사자가 일제히 신위 앞에 두 번 절한다. ② 초헌(初獻) : 고인에게 첫 술잔을 올리는 절차이다. 술잔을 채워 두 손으로 받들고 향불 위를 거쳐 밥그릇과 국그릇 사이 앞쪽에 놓는다. 집사가 없이 제주 혼자서 해도 무관하다. 잔을 올린 뒤 두 번 절한다. ③ 독축(讀祝) : 초헌이 끝나면 제주는 축문을 읽고 두 번 절한다. 축문을 읽는 동안 다른 참사자들은 모두 꿇어앉아 머리를 약간 숙이고 경건한 마음으로 듣는다. ④ 아헌(亞獻) : 축문 읽기가 끝나면 주부가 두 번째 술잔을 올리고 네 번 절한다. ⑤ 종헌(終獻) : 제주의 근친자가 세 번째 술잔을 올리고 두 번 절한다. ⑥ 삼시(掃匙) : 제주가 ‘많이 드시라’는 상징적 행위로 숟가락을 밥에 꽂고 모든 참사자가 고개를 숙여 묵념한다. ⑦ 진다(進茶) : 송농(혹은 냉수)을 국과 바꾸어 놓고, 수저로 밥을 조금씩 세 번 떠서 물에 만 다음 수저를 물그릇에 가지런히 놓고 잠시 국궁(鞠躬; 존경하는 뜻으로 몸을 굽힘)하고서 있다가 일어난다. ⑧ 사신(辭神) : 참사자 일동이 일제히 신위 앞에 큰절을 올린다. ‘안녕히 가시라’는 작별의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⑨ 철상(撤床) : 지방을 거두어 축문과 함께 불사르고 상을 물린다. ⑩ 음복(飮福) : 참사자들이 제사 음식을 나누어 먹는다. 음복을 하면 조상의 복을 받는다는 믿음이 있다.

식 제례, 천주교식 제례, 기독교식 제례 등이 등장했다.

불교식 제례는 소기(小祥; 小祥)와 대기(大祥; 大祥)를 맞이하거나 고인의 생일이 돌아오면 절을 찾아가서 추도식을 갖는다. 그밖에 49재와 77재를 지내기도 한다. 추도는 개식선언 - 삼귀의례 - 독경 - 묵도 - 추도문낭독 - 추도사 - 감상 - 분향 - 답사 - 폐식선언 순으로 진행했다.

천주교식 제례는 기일이 돌아오면 사망일에 맞추어 온 가족이 성당에서 위령미사를 올리는 것이 원칙이다. 가족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가친척 및 교인들에게도 연락해 미사에 참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사제를 집으로 초빙해 집에서 전통제사 형식으로 추도미사를 거행할 수도 있다. 행사가 끝나면 사제와 참석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며, 미사에 따른 봉헌 예물을 바쳐야 한다. 이는 일종의 제물이다.

기독교에서는 원래 전통적인 형태의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 다만 기일이 돌아오면 가족과 친지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추도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은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는 교리에 의거한다. 추도는 찬송 - 기도 - 성경낭독 - 기념추도 - 묵도 - 찬송 - 주기도문 순으로 진행된다.

## 제4절

### 민속신앙

민속신앙은 민간에 대대로 전승되고 있는 자연적 신앙으로 곧 자연인으로서의 민중이 신앙하는 종교현상을 말한다. 자연과 더불어 삶을 영위하는 동시에, 자연을 극복하기 위해 터득한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형성·전승되고 있는 종교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속신앙에는 산신이나 서낭을 대상으로 하는 마을신앙, 터주나 성주를 대상으로 하는 가정신앙, 무속의 신을 대상으로 하는 무속신앙과 풍수, 점복, 금기, 주술 등의 속신(俗信)이 있다. 중평군의 경우에 비록 약식이지만 몇몇 마을에서 마을신앙이 유지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가정신앙의 흔적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무속신앙은 중평군 지역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 1. 마을신앙

삶의 터로서 마을을 처음 가꾸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새롭고 낯선 보금자리에 대해 한껏 희망에 부풀면서도 정녕 이곳에서 행복한 삶을 이룰 수 있을

지 걱정했을 것이다. 길흉화복을 가늠할 수 있는 여러 요인 중에는 인간의 의지와 노력으로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미리 짐작하거나 피할 수 없는 영역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불행은 과학의 힘을 빌든, 종교적 힘을 빌든 제거해야 했는데, 마을신앙이 바로 종교적 힘을 원용한 제액초복(除厄招福)의 기원 양식이다. 증평지역의 경우, 20여 년 전까지 거의 모든 마을에서 산신제 또는 서낭제 형태의 마을신앙이 존속되었다. 그러나 시대의 추이에 따른 도시화, 고령화, 과학화 등에 따라 오늘날은 일부 지역에 한해 마을신앙이 전승되고 있다. 그나마 전승되고 있는 마을신앙은 마을의 원로를 중심으로 몇몇 관심있는 어른들에 의해 제한적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제의 준비 및 절차 양상이 간략한 형태로 바뀐 상태다.

## 1) 산신제 계열

### (1) 화성 5·6·7리 산신제

#### 가. 제장(祭場)

도안면 화성 5·6·7리의 안산(案山)이라고 할 수 있는 뒤편의 상봉(上峰) 정상 부근에 자연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자연제단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여느 지역에서 볼 수 있는 고목이나 바위 등 이렇다할 부속물은 전혀 없다. 다만 1평 남짓한 평지를 제단으로 삼고 있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음력 동짓달에 길일을 택해 선정한다. 제일을 선정하면 산제통문을 마을 전체에 돌려 일자를 통보한다.<sup>10)</sup>

#### 다. 제관(祭官)

제관은 마을의 원로격인 연규현, 연기원씨 등이 생기복덕을 가려 제관, 축관, 조역, 제원 등 5~6명 가량을 선출한다. 특히 ‘일 년 동안 부정할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을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다.

#### 라. 재계(齋戒)

제관은 이틀 정도 금기를 준수한다. 집 주위에 황토를 깔거나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지는 않지만, 목욕재계하며,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삼가며, 화를 내지 않으며, 집안에 부정한 물건을 들이지 않는 등 오로지 제의만을 위해 일상의 시간을 정화한다.



화성 5·6·7리 산신제의 산제통문

10) 講信通文

右通諭事 講信日字 今月初六日擇定 洞中僉員 沐浴齋戒 各須獻誠之地 千萬幸甚  
癸丑十一月二日  
獻官 幼學 ○○○  
大祝 幼學 ○○○  
入齋 五日

## 11) ‘年初山神祝’

維歲次 ○月朔 ○日 幼  
學 敢昭告于  
鳴岩一同 主山之神 伏  
以 天照名山 神其保佑  
無量大運 於千萬年 活  
我一同 如山如海 甘雨  
下降 六畜繁盛 洞前大  
路 旱害不侵 五穀豐登  
交通煩雜 不時事故 兵  
亂不侵 如天大恩 所願  
無事 惡疾自退 無日不  
忘 一同代表 百拜告祀  
至誠伏祝 感應 尚饗

## 마. 제물(祭物)

제물은 중평 읍내에 있는 식당에서 맞추어 준비한다. 식당을 선정함에 있어서 무엇보다 정갈함을 우선으로 꼽는다. 희생물로 돼지를 통째로 잡지만, 머리 부분만 진설한다. 제물을 의뢰해 준비하는 비용은 대략 40만~50 만원 정도이며, 마을 공동기금으로 충당한다.

## 바. 행례(行禮)

행례는 자정에 본격화된다. 제관 이하 조역이 밤 11시 무렵에 회관에 모였다가 상봉으로 제물을 짊어지고 오른다. 제물을 진설한 후 백 번의 헌작(獻爵)과 백 번의 고축(告祝)<sup>11)</sup>으로 마을의 안녕을 기원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내려올 때 햇불을 밝히는데, 마을 아낙들은 이 불빛이 내려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마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주위에 황토를 세 무더기 깐 후 떡시루에 불땀이를 하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 (2) 남차 3리 언덕장내 산신제

## 가. 제장(祭場)



남차 3리  
언덕장내 산신제단

남차 3리 언덕장내의 안산(案山)이라고 할 수 있는 뒤편의 산자락 7부 능선 즈음에 제장이 마련되어 있다. 원래 자연제단의 형태였는데, 10여 년 전에 마을 공동 경비와 김홍준(1961년 출생, 산제총무)의 사비를 합해 제장까지 길을 닦고 가로 2m×세로 1m 가량의 콘크리트 제단을 설치했다. 이를 ‘상돌’이라고 한다.

## 나. 제일(祭日)

마을신앙의 제일은 특히 정월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남차 3구 언덕장내의 산신제는 10월 중에 길일을 택해 선정한다. 제일의 선정 기준은 제관의 생기복덕 합당 여부 일이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9월 그믐 즈음에 김홍준(1961년 출생, 산제총무)이 생기복덕을 가려 선출한다. 고양주, 헌관, 축관 등 세 명을 선출하는데, 이를 흔히 ‘삼제관(삼지관)’이라고 한다.

## 라. 재계(齋戒)

10여 년 전까지 일주일에 걸쳐 엄격한 금기를 지켰다고 한다. 제의 3일 전에 마을에 들어온 사람은 제의가 끝나야 나갈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나 오늘날은

## 1. 현지조사

• 2005년 6월 12일.

## 2. 제보자 인적사항

• 연백희:남, 1924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360번지

• 연기원:남, 1932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화성리  
343번지

제의 전일에 부부관계를 금하며 목욕재계하는 것으로 금기를 대신하고 있다.

#### 마. 제물(祭物)

제물은 고양주가 마련한다. 통돼지, 삼색실과, 북어포, 시루, 나물, 탕 등이다. 돼지는 온 채로 생으로 올리며, 대추나 밤 등도 까지 않은 채 생으로 올린다. 시루는 한 되 세 홉을 찌며, 나물을 무칠 때에는 붉은 색을 염료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제주는 고양주가 직접 빚어 올린다.

#### 바. 행례(行禮)

행례는 보통 해질 무렵부터 본격화된다. 고양주자 제단에 제물을 진설한 후 헌관이 분향재배를 올리며, 이후 축관이 일곱 번 축을 읽고 일곱 번 절을 한다.<sup>12)</sup> 예전에는 서른 한 번 예를 올렸다. 예를 마치면 이어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고양주소지를 위시해 언덕장내 23호 소지를 모두 올린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을 향해 “마중시루 떼어놓으시오”를 연신 원다. 그러면 마을 아낙들은 마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주위에 황토를 세 무더기 깬 후 떡시루에 불뵈이를 하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했다.

### (3) 남차 1리 산신제

#### 가. 제장(祭場)

중평읍 남차 1리 숲고개 뒤편 산자락에 2평 가량의 산신당을 마련했다. 두 칸의 방으로 나누어서 오른쪽 방에는 제기를 보관하고 있으며, 왼쪽 방에는 산신 신위를 봉안하고 있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길일을 택해 선정한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헌관, 축관 집사 등 세 명을 선출한다. 선출한 제관 중에서 제물을 마련하는 도가를 다시 선출한다. 생기복덕은 원로들이 설차례를 지내고 마을회관에 모여 가린다.

#### 라. 재계(齋戒)

보통 3일 동안 금기를 지킨다. 산신당 인근 우물에서 매일 목욕재계하며,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지 않으며, 술과 담배를 삼가며, 화를 내지 않으며, 집안에 부정한 물건을 들이지 않는 등 오로지 제의만

#### 12) 산제축문

유세차 ○월 ○삭 ○일  
○○○유학 감소고우  
대동산토지지신 유아군  
생 숙야제경 소심동혼 감  
진미성 대소민생 지유소  
도 당차금년 태평안과 동  
운대통 빈민안도 복유존  
영 미흠미격 자금이후 강  
차만복 보차천민 무병대  
길 군이 청작서수 지봉  
상향



남차1리 숲고개 산신제당



남차1리 산신제당에  
보관하고 있는 제기

## 현지조사

- 2005년 1월 17일

## 제보자 인적사항

- 김해준:남,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리 624번지
- 김태복:남, 195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리 600번지
- 김홍준:남, 1961년 출생, 청주시 율랑동 럭키아파트

을 위해 일상의 시간을 정화한다. 특히 도가의 집에는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출입을 삼간다.

## 마. 제물(祭物)

제물은 마을 공동기금으로 도가가 준비한다. 소머리, 삼색실과, 북어포, 미역국, 메, 시루 등인데, 미역국과 메는 제장에서 직접 불을 때고 마련해 진설한다. 특히 산신에게 올리는 메는 제의 전일에 제관들이 도가집에 모여 마을 60여 가구에서 각출한 쌀 중에서 고운 것만 고른 것으로 정성껏 짓는다.

## 바. 행례(行禮)

행례는 저녁 9시 즈음에 본격화된다. 제관들이 예복을 갖추고 모여 분향재를 한 후에 강신재배, 초헌, 아헌, 종헌, 축, 소지, 철상 등 유교식 예법을 그대로 따른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을 향해 “마중시루 떼어놓으시오”를 연신 원다. 그러면 마을 아낙들은 마당에 자리를 마련하고 주위에 황토를 세 무더기 깔 후 떡시루에 불땀이를 하고 가정의 안녕을 기원한다.

## (4) 사곡 1리 산신제

## 가. 제장(祭場)

사곡 1리 앞쪽에 위치한 통뫼산 정상 부근에 가로 1.5m 세로 0.5m 가량의 화장암 재질의 암석이 놓여있는데, 이를 제장으로 삼고 있다.



사곡 1리 통뫼산 전경(좌), 통뫼산 정상에 있는 산신제단(우), 산신제 관복 및 축문(하)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보름을 특정일로 고정하고 있다.

## 다. 제관(祭官)

예전에는 생기복덕을 가려 엄격하게 제관을 선출하였지만, 오늘날은 제관을 따로 선출하지는 않는다. 마을원로를 위시해 이장, 계장, 반장 등 5~6명이 제의를 주관한다.

## 라. 제물(祭物)

제물은 마을 공동기금 40여 만 원으로 이장과 부녀회장이 준비

한다. 돼지머리, 제주(막걸리), 삼색실과, 북어포 정도인데, 특히 ‘밤(栗)이 좋다’고 해 여느 지역에 비해 많은 밤을 진설한다.

#### 마. 행례(行禮)

행례는 오전 10~11시 사이에 본격 행사를 진행했다. 제관들이 제기를 갖추어 제물을 진설하고 촛불을 밝혀 분향재배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이후 복색을 갖추고 초헌, 아헌, 종헌, 고축,<sup>13)</sup> 소지(마을소지, 제관소지) 등의 순으로 제의를 주재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제기와 축문은 마을회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축문은 새로이 작성했다.

### 2) 서낭제 계열

#### (1) 송정 2리 언덕제

##### 가. 제장(祭場)

도안면 송정 2구 통미마을 중간에 구름진 언덕이 있다. 언덕으로 수령 수 백년의 팽나무와 버드나무가 있는데, 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제장으로 삼고 있다. 특히 버드나무를 신성시해 버드나무의 잎이 밑으로부터 돈을 때면 모내는 시기를 조금 앞당기고, 버드나무 잎이 위로부터 돈을 때면 시기를 조금 늦춘다.

##### 나. 제일(祭日)

제보에 따르면, 무술년(1700년경 추정)에 큰 홍수가 나 온 마을을 휩쓸었지만, 유독 언덕은 무사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언덕을 신성시해 언덕제를 올리기 시작했다. 송정 2구 언덕제는 3~4년마다 한 번씩 치르는 일종의 별신제(別神祭)이며, 제일은 정월에 길일을 택해 선정한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생기복덕을 가려 초헌관(初獻官), 아헌관(亞獻官), 종헌관(終獻官), 축관(祝官), 집례(集禮), 전작(奠酌), 봉작(奉酌) 등을 선출한다.

##### 라. 재계(齋戒)

제관의 금기는 전승되지 않는다. 다만 제일을 며칠 앞두고 제장을 정비하며, 주위에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접근을 금한다.

#### 1. 현지조사

• 2005. 6. 12

#### 2. 제보자 인적사항

• 연대호: 남, 194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사곡 1리  
670번지

13) 維歲次 ○ ○ ○ 月 ○ ○  
朔 ○ ○ 日

○ ○ ○ 敢昭告于

山神先靈制禮 有土惟惶  
謹以伏祝 送舊迎新 敢  
具簿尊 內堂元氣祭釋  
廚王外堂尋山 和爲同心  
一器同參 吸香感應 伏  
惟鑒茲 明堂和樂 人丁  
時惟 孟春無事 宜新年  
中 始業雨順 六畜蕃蕪  
災厄雪消 福祿雲集 所  
求自得 所願自成 瘟疾  
疰 氣水火盜賊 三災口  
舌 竝爲消却 援除不祥  
一新人丁 歆飲洋洋宜  
默休 勤酒果 神其保佑  
尚饗



송정 2리 언덕제 제장  
(팽나무와 버드나무)

14) 維  
西紀 ○○○○年 正月  
○○朔○○日  
部落代表 ○○○敢昭  
告于  
丘地之神 今爲丘祭于  
部落 安過太平과 後世  
發展을 위해 일일이 보  
살펴주시기 바라는 마  
음으로 部落民 一同이  
단합하고 정성을 다해  
丘祭를 올립니다.  
神其保佑 俾無後艱 謹  
以清酌脯果 祗薦于 立  
神 尙饗

#### 마. 제물(祭物)

제물은 이장을 중심으로 마련한다. 마을의 공동기금과 호당 각출한 쌀로 충당하며, 돼지머리, 백설기 한 시루, 시루떡 한 시루, 삼색실과, 북어포, 제주, 옥춘당 등의 과자류 등이다. 한편 각 가정에서 가져다 놓은 불뎃이쌀을 진설하기도 한다.

#### 바. 행례(行禮)

제관들이 복색을 갖추고 제물을 진설하면, 본격적으로 제의가 시작된다. 분향재배를 시작으로 해 초헌, 아헌, 종헌, 고축,<sup>14)</sup> 소지 등 유교식 제의 절차를 준수한다. 제의에 참여한 이들 중에서 달리 개인적인 기원이 있을 경우에는, 정성기금의 명목으로 만 원을 낸 후에 소지를 더 올린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도당 2리 서낭당이 서낭목

#### (2) 도당 2리 서낭제

##### 가. 제장(祭場)

도안면 도당 2리의 뒤편 언덕을 ‘서낭대이’라고 한다. 서낭대이에 위치해 있는 수령 300여 년으로 추정되는 느티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제장으로 삼고 있다. 마을의 길목 언덕에 위치해 있는 전형적인 형태의 서낭목으로 볼 수 있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매년 음력 칠월 칠석을 특정일로 고정하고 있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따로 선출하지 않는다. 마을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남성들이 참여해 제의를 주관한다.

##### 라. 제물(祭物)

제물은 호당 각출한 얼마간의 비용으로 지도자 등이 준비한다. 돼지머리, 떡시루, 북어포, 제주 등으로 매우 소략하다.

#### 마. 행례(行禮)

행례는 오후 2시 즈음에 본격화된다. 도당 2리의 모든 남성들이 주축이 되어 제물을 진설한 후 분향재배, 고축, 소지 등의 순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마을회관에 남녀노소가 모여 음복한다. 도당 2리 서낭제의

#### 1. 현지조사

• 2005. 6. 12

#### 2. 제보자 인적사항

- 김정수:남, 1935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송정 2구 355번지
- 전경예:남, 1934년 출생, 중평군 도안면 송정 2구 355번지)



음복은 일종의 뒷풀이 축제적 성격이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

### (3) 도당 3리 서낭제

#### 가. 제장(祭場)

도당 3구 은행정 마을 복판에 수령이 500여 년으로 추정되는 은행나무를 신목(神木)으로 여겨 제장으로 삼고 있다. 보호수로 지정되었으며, 비교적 보존 상태가 양호한 편이다.



도당 3리 서낭목(은행나무)



도당 3리 서낭목 금줄 및 신체(神體)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13일을 특정일로 고정하고 있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정월 초에 생기복덕을 가려 헌관 및 공양주를 선출한다. 그러나 1년 내에 부정한 일이 없을 경우에 한해 마을의 반장이나 이장이 제관으로 선출된다.

#### 라. 재계(齋戒)

보통 3일 동안 금기를 지킨다. 제관의 집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출입을 삼간다.

#### 마. 제물(祭物)

제물은 이장의 의뢰에 의해 공양주가 준비한다. 일반 기제사의 제물과 별반 차이가 없다.

#### 바. 행례(行禮)

제장의 정비는 제의 당일 오전이나 전일에 주변을 청소하고 간 가지를 치는 등으로 이루어진다. 행례는 해질 무렵 5시 쯤부터 본격 행사가 진행된다. 이장

#### 1. 현지조사

• 2005년 6월 12일.

#### 2. 제보자 인적사항

- 연복희 : 남, 조사 당시 도당 2구 이장 역임)
- 연세화 : 여, 193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도당 2구 번지)

#### 1. 현지조사

2005년 2월 22일.

#### 2. 제보자 인적사항

- 신영순 : 남, 191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88번지
- 류근철 : 남,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75번지
- 김성희 : 남,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78번지
- 나기식 : 남, 194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70번지
- 최수자 : 여, 194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76-2번지
- 김정숙 : 여, 194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차 3구 576-3번지

및 반장을 위시한 제관들이 제물을 진설한 후 기제사 방식으로 제의를 진행한다. 축은 없으나, 소지는 마을소지와 개인소지로 나누어 올린다. 제장에 참여한 이들은 정성기금의 명목으로 만 원을 낸 후에 소지를 올린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 (4) 남차 3리 장내 수살제



남차3리 수살제 현작(초헌)



남차 3리 수살제 소지(대동소지)



남차 3리 내수살제단의 제물

##### 가. 제장(祭場)

초정리에서 중평 방향 약 8km 즈음에 ‘장천마을’ 표지석이 있다. 표지석을 지나 돌아 왼쪽 도로에 ‘내수살’의 제단이, 오른쪽 도로에 ‘외수살’의 제단이 마련되어 있다. 1984년에 화강암 대리석 재질로 직사각형 모양의 제단을 설치한 것이다. 외수살 앞의 제단은 가로 107cm×세로 75cm 높이 28cm이며, 뒤의 제단은 세로가 68cm이다. 그리고 내수살은 가로 107cm×세로 75cm×높이 26cm이다. 제단

앞면에는 “외수살” 및 “내수살”이라는 글을 새겨놓았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14일을 특정일로 고정하고 있다. 행례 시간은 저녁 9~10시이다. 제단이 도로변에 있기 때문에 마을로 지나가는 버스가 끊길 때를 맞추어 정한 시간이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을 흔히 ‘유사’라고 하며, 제의 일주일 전에 생기복덕을 가려 세 명을 선출한다. 제관(초헌), 축관(아헌), 집사(종헌) 등이다.

##### 라. 재계(齋戒)

이날 행사를 주관하는 제관들은 제의 전일과 제의 당일에 금기를 지킨다. 남녀가 서로 잠자리를 해서는 안되며, 술과 담배를 금하고, 개고기와 같은 험한 음식을 먹지 않는다. 예전에는 외수살 옆에 있던 우물에서 일주일 가량 매일 목욕재계했다고 한다. 또한 제의 전일 제관의 집 주위에 황토를 깔고 금줄을 둘러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금줄은 원새끼를 1m 간격으로 사고지를 쏜다. 황토는 마을 앞쪽에 위치해 있는 두류산에서 마련한다. 황토는 대문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네 무더기, 왼쪽에 세 무더기를 편다. 일곱 무더기를 펼치는 것으로 칠성(七星)의 가호를 기원한다.

#### 마. 제물(祭物)

제물은 충무와 축관이 마련하며, 마을 전체 서른 세 가구에서 호당 만원씩을 각출한 경비로 충당한다. 제물은 2004년까지 희생물로 돼지를 통째로 외수살에 진설하였으나, 2005년도부터 외수살 및 내수살에 각각 돼지 머리 한 두씩 진설하는 것으로 마을회의에서 결정했다. 이외에 시루떡(백설기), 삼색실과, 통복어 두 마리, 제주(동동주 ; 맑은술) 등을 진설한다. 시루떡은 석 되 서 홑을 두 시루 찌며, 삼색실과는 가구 수에 맞추어 넉넉히 준비한다.

#### 바. 행례(行禮)

제의 당일 아침에 유사 및 마을 지도자들이 제장을 정비한다. 제장의 정비와 더불어 유사가 전일에 준비한 금줄을 제장 주위에 둘러친다. 행례는 저녁 9~10부터 본격행사에 들어간다. 마을회관에서 마지막으로 손질한 제물을 트럭으로 운반하고, 유사가 제단에 진설한다. 진설은 외수살부터 한다. 진설을 마무리하면, 유사들이 손을 정갈히 씻고 분향한다. 제차(祭次)는 분향재배, 강신재배, 초헌, 아헌, 종헌, 고축,<sup>15)</sup> 소지 등 유교식 예법을 엄격하게 준수한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집사가 신목(神木) 주변에 약간의 떡을 떼어 놓는다. 유사 및 제의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마을회관에 모여 음복한다. 음복은 다음날까지 이어진다.

### (5) 율리 2리 서낭제

#### 가. 제장(祭場)

증평읍 율리 2리 봉천마을 입구에 서 있는 고목을 신목(神木)으로 여겨 제장으로 삼고 있다. 고목의 수종과 수령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꽤 오래된 고목으로 알려졌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그믐에 길일을 택해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보통 정월 5일

#### 1. 현지조사

2005년 1월 17일.

#### 2. 제보자 인적사항

• 권창만: 남, 194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율리 2구  
130번지

#### 15) 維歲次

○○正月 ○○朔 ○○  
日 ○○

幼學 敢昭告于

水口之神 寸泰人安 五穀豐穰 疫疾不犯 家家太平 務農豐稔 營商興利 雖屆雨季 少無侵漬 或曰旱魃 俾免枯渴 鬼水不侵 火變方饗 工事出役 竟無傷毀 三災遠退 百福並至 六畜旺盛 兒曹充健 謹以酒果 祇薦于神 尚饗

## 1. 현지조사

2005년 2월 13일.

## 2. 제보자 인적사항

- 이종익 : 남, 1927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죽리 15번지
- 황병옥 : 남, 1938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죽리 123번지
- 임태정 : 남, 195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죽리 16번지

이내에서 선정하고 있다.

## 다. 제관(祭官)

일곱 가구가 마을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할 제관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일곱 가구 모든 사람들이 제의에 참여한다. 그러나 제의를 주재하는 제관은 반드시 생기복덕을 가려 선정한다.

## 라. 제물(祭物)

제물로 돼지머리, 삼색실과, 북어포, 시루, 나물, 탕 등을 진설한다. 제물을 마련하는데 어떤 금기나 규칙은 전하지 않는다.

## 마. 행례(行禮)

기제사는 매우 간략한 형식의 절차에 의해 진행된다.

## (6) 죽리 2리 천제사

## 가. 제장(祭場)

증평읍 죽리 2리 원평마을 마을회관 옆에 서 있는 느티나무를 제장으로 삼고 있다. 느티나무 앞에 가로 2m×세로 1m 가량의 2단 콘크리트 제단을 설치했다.

## 나. 제일(祭日)

제일은 정월 14일을 특정일로 고정하고 있다.

## 다. 제관(祭官)

제관은 헌관, 축관 등 세 명을 선출하는데, 생기복덕을 가리지 않는다. 보통 마을의 노인회장, 이장, 총무, 계장 등 지도자가 제관으로 선출된다.

## 라. 재계(齋戒)

생활상의 불편으로 재계나 금기를 준수하지 않는다.

## 마. 제물(祭物)

제물은 공동으로 마련하지만, 중요한 제



죽리 2구 천제사 제단

물은 흑여 1년 내에 부정한 일이 없었다면 마을의 총무가 준비한다. 통돼지, 삼색실과, 북어포, 시루 등인데, 모두 생으로 진설한다. 시루는 백설기로 한 되 세 홉을 찐다.

#### 바. 행례(行禮)

행례는 저녁 9시부터 본격 집행하게 된다. 제관들이 예복을 갖추고 모여 분향재배를 한 후에 사방을 향해 각각 4배를 올린다. 이후 헌관이 단잔으로 헌작을 하며, 축관이 축을 읽는다. 축을 마치면 제관이 공히 4배를 한 후 소지를 올린다. 소지는 동소지, 제관소지, 개인소지(35가구 연령순) 순으로 올린다. 모든 절차가 끝나면 '보름고사'라고 해서 집집마다 떡시루를 준비해 비손하며, 장독대, 부엌, 화장실, 축사 등에 일부를 떼어 놓는다.

### (7) 초중 2리 서낭제

#### 가. 제장(祭場)

증평읍 초중 2리 마을회관 뒤쪽 및 마을 입구에 자리잡고 있는 수령 300~500여년 된 느티나무 네 기와 마을회관 앞쪽에 흔적만 남아 있는 샘(용왕)을 공동의 제장으로 삼고 있다. 따라서 서낭제와 정제(井祭)가 결합된 이중의 제의 형태로 볼 수 있다.

#### 나. 제일(祭日)

20여 년 전에 초중 2구의 남성들이 한꺼번에 사고나 병으로 죽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자연히 과부들이 늘어났고, 이에 부녀자들이 마을의 번고를 불식시키고자 백마산에 위치해 있는 한 사찰 주지의 도움으로 단절되었던 동제를 다시 전승시켰다. 제일은 정월 보름을 전후한 시기에 부녀회에서 길일을 택해 서낭제를 올리고 있다.

#### 나. 제관(祭官)

제관은 따로 선출하지 않는다. 부녀회의 회원이면 누구나 제의에 참여할 수 있다.

#### 라. 재계(齋戒)

제의에 참여할 부녀회원이면 스스로 삼일 정도 금기를 준수한다. 집 주위에 황토를 깔거나 금줄을 쳐서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지는 않지만, 목욕재계하며, 남녀가 서로 잠자리를 하지 않는 등 오로지 제의만을 위해 일상의 시간을 정화한다.



초중 2리 서낭목(느티나무)



초중 2리 용왕의 흔적

#### 마. 제물(祭物)

제물은 마을 공동기금 20~30여 만원으로 젊은 부녀회원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다. 제의 전일에 중평장에서 제물을 구입하며, 제의 당일 오전 내 마을회관에서 제물을 준비한다. 돼지머리(3개), 돼지다리(12개), 시루떡, 백설기, 삼색실과, 통북어, 제주(막걸리 한 말) 등이며, 탕이나 메, 나물은 진설하지 않는다.

#### 바. 행례(行禮)

행례는 오후 3~4시부터 본격 제례에 들어간다. 부녀회장을 위시한 부녀회원들이 마을회관 뒤편에 있는 가장 오래된 고목제단에 제물을 진설한다. 이곳에는 마을의 행사나 제례가 있을 때마다 일체의 모든 제물을 진설할 수 있다. 진설을 마무리하면 촛불을 밝히고 제의에 참여한 모든 회원들이 세 번 절을 올린다. 이외 더욱 배례하고 싶은 희망자는 정성기금의 명복으로 만 원을 제단에 바친 후 배례할 수 있다. 이어 마을 입구에 있는 한 그루의 느티나무 및 마을회관 앞쪽에 남아 있는 샘의 흔적에 돼지머리와 돼지다리 및 일부의 떡을 진설하고 같은 방식으로 제를 올린다. 마지막으로 마을회관을 감싸고 있는 두 그루의 느티나무에 약간의 떡을 떼어 진설하고 같은 방식으로 제의를 올린다.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도안면지 발간위원회, 『道安面誌』,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연구소, 2001.

## 2. 가정신앙

민간의 전통신앙에 따르면, 각 가정에는 터주(土主), 성주(星主), 조왕(竈王), 용왕(龍王), 조상(祖上) 등이 인간과 더불어 존재한다. 그리고 이들이 각

가정의 구성원을 보호한다고 믿고 있다. 이로서 구성원들은 여러 수호신의 보호와 축복 아래 보다 편안한 정신적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 곧 가정신앙은 인간과 함께 거주한다고 여겨지는, 그래서 산신이나 서낭보다 더욱 친근한 여러 가택신(家宅神)을 대상으로 하는 개인 차원의 전통적인 믿음이다. 증평군의 가정신앙은 시대의 추이에 따라 이미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 한해서 특히 터주와 성주에 대한 믿음이 지속되고 있어 자료로서 가치가 매우 높다.

### 1) 성주신앙(星主信仰)

성주는 집안의 여러 가택신을 통솔하는 최고의 신격으로, 가장(家長)의 안위를 주재한다. 증평군에서는 성주에 대한 제의를 ‘성주올림’ 이라고 일컫는다. 가장이 삼재(三災)가 든 해, 정월 대보름을 전후한 길일에 안택(安宅)과 더불어 성주를 봉안한다. 마른 북어에 실을 동여맨 신체(神體)를 성주로 삼고, 이를 대청마루 기둥에 봉안한다. 그러나 보통은 수확에서 거두어들인 첫 햅쌀을 성주단지에 담는 것으로서 성주에 대해 예를 표시한다.

“성주단지라고 해서 거기에 벼 같은 거 담아서, 그 안에 막 타작을 하잖어. 그러면 제일 먼저 그 벼를 성주단지에 담았지. 그래서 그걸 모셔왔어. 그게 인제 농사지어서 제일 먼저 성주나락한테 신고를 하는 거. 제일 첫 농사 지으면 거기다 하는 거지.” (증평읍 송산리)

“성주쟁이라고 또 집으로 이렇게 들어온 다구 실방에다 얹어 났어. 그러믄 그게 마당질을 해서 벼를 마당에서 떠느라구 깨끗하게 …… 피가 거기다가 올려 놓는 거. 실방에다 그럼 또 거기다가 떡을 또 올려놔야지. 갈떡하믄.” (도안면 노암리)

“성주는 솔가지를 묶어서 마루에다가 걸어 놓대. 쌀도 단지에 조금 넣어서 두고 성주단지 안에 넣는 사람도 있고 걸어두는 사람도 있지.” (증평읍 초중리)

### 2) 터주신앙(土主信仰)

터주는 집터를 다스리는 수호신으로 집안 구성원의 안전을 주재한다. 오방지신(五方之神) 중에서 중앙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증평군에서는 흔히 ‘터줏



성주의 신체(神體),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서정숙 전승



터주의 신체(神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오옥분 전승



터주의 신체(神體),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서정숙 전승

대감'으로 일컫는다. 뒤뜰의 장독대에 터주가리(장독에 짚으로 고깔을 씌운 모양)를 만들어 터주의 신체(神體)로 삼는다. 터주에 대한 제의는 매년 정월 초에 고사 형태로 진행한다. 터주단지에 햇곡을 넣은 후 청수와 시루에 불뵈이를 한 터주상을 마련하고 사방을 향해 세 번씩 배례하며 축원을 드리는 형식이다.

“터를 지켜 준다고 거기 터주한테도 떡을 바쳤지. 떡도 꼭 한 시루씩 하지 않고 두 시루씩 했어. 그래서 먼저 성주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터주신한테 바치고 그 다음에 먹었지.”(증평읍 장동리)

### 3) 조왕신앙(魔王信仰)

조왕은 부엌에 불을 관장하는 화신(火神)으로, 주부의 안전과 살림살이의 번영을 주재한다. 조왕에 대한 제의는 정월 대보름, 사월 초파일, 칠월 칠석, 시월 동지 등 1년 네 차례에 걸쳐 행한다. 특히 정월 대보름 제의가 가장 성한데, 이 때 ‘농사시루’와 청수를 진설한다. 이외의 경우에는 청수만 조왕사발에 담아 진설한다. 진설 후 세 번씩 배례하며 축원을 올린다.

“다른 신은 모르고, 옛날에 아들 군인 가고 그러면 부뚜막에다 물 떠놓고 조왕각시한테 빌고 그랬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다놓고 빌고 그랬어. 남편 군대 가고 그러면 떠놓고 빌고 그랬지.”(증평읍 중동리)

“날을 받아서 지냈지. 솔뚜껑을 뒤집어 놓고 전을 지져서 부뚜막에 차려놓았어. 식구들 절하고, 잘게 썰은 문종이를 불에 태우면서 집안 식구들 무사하게 해달라고 빌었지.”(증평읍 남하리)

### 4) 칠성신앙(七星信仰)

칠성은 도교에서 말하는 북극성(北極星)이다. 북극성은 군왕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든 액운을 통제하고 있는 신격이다. 칠성에 대한 제의는



칠석 전일에 사찰에서 대행한다. 흔히 초와 실과 쌀을 진설하는 정도다.

“칠석에 절에 가서 칠성님한테 많이 빌었어. 지금도 가서 비는 걸. 요즘도 흔하지. 칠성님께 바칠 흰설기를 해서 칠성님께 치성을 드리고 그저 가족들의 건강과 운수대통을 빌지. 잘 되게 해달라고.”(도안면 석곡리)

### 5) 용왕신앙(龍王信仰)

용왕은 우물 내지 강 의 수원(水源)을 관장하는 신격이다. 증평군 가정신앙의 경우에는 용왕이 산신(産神)의 신격과 부합하고 있다. 즉 용왕을 자손의 점지 또는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대상신으로 섬기고 있다. 정초에 길일을 택해 실, 쌀, 미역, 메, 밤, 대추 등을 제장에 진설한 후 불밝이를 하며 비손한다.

“용단지 쌀에 해가지고 항아리에다가 쌀 새로 하면 먹지도 않고 거기다 해놔요.”(증평읍 미암리)

### 6) 측신신앙(廁神信仰)

측신은 화장실에 거주하는 여성 신격이다. 증평군에서는 흔히 ‘뒷간귀신’ 또는 ‘후부할매’로 일컫는다. 측신의 신체(神體)는 화장실 천장에 묶어놓은 형겅으로 삼는다. 측신에 대한 제의는 여러 가택신에 대한 제의에 곁들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이 아닌, 다만 시루 한 접시를 떼어놓고 축원하는 형태다.

“화장실에도 인저 대보름에 저기 떡을 하면. 추석에도. 10월 상달에 저 ‘뒷간귀신’이라고 해서 떡을 갖다 놓고 그랬지.”(증평읍 남차리)

### 7) 업신앙(業信仰)

업은 재운(財運)을 주재하는 신격이다. 흔히 뱀이나 족제비 또는 두꺼비를 업으로 여기고 있다. 증평군에서는 업의 신체(神體)를 곳간 안에 쌀을 가득 담은 항아리로 삼는다. 업에 대한 제의 또한 여러 가택신에 대한 제의에 곁들여지기 때문에 특별한 진행이 아닌, 다만 시루 한 접시를 떼어놓고 축원하는 형태다.

“마당에 구렁이랑 족제비 기르는 사람도 있었어. ‘업’ 이야. 밥도 하면 먼저 구렁이랑 족제비에게 주고 그 다음에 먹었지. 그걸 ‘업’이라고 그래. ‘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고 했지. 구렁이나 족제비 기르는 집은 다 부자였어.”(증평읍 장동리)



용왕의 신체(神體),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지갑순 전승

## 8) 기타 개인신앙

### (1) 암석신앙(巖石信仰)

『삼국유사』의 ‘동부여편’에 해부루는 커다란 돌 아래에서 금와를 얻었고, 금와는 훗날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전한다. 예로부터 암석은 인간 생활에서 일상의 도구로 이용되기도 했으며, 고인돌과 같은 무덤은 사후의 안식처가 되기도 했다. 특히 암석의 불변성으로 말미암아 민간신앙의 차원에서 신성체(神聖體)로 여기기도 했다. 도안면 송정2리 김정수(72세)는 집안에 있는 고인돌, 즉 범상치 않은 형태의 암석을 인간의 생명을 점지시켜주기도 하고, 생활을 풍요롭게 유지시켜주는 존재로 여겨 치성의 대상으로 삼았다. 암석신앙과 관련한 지역민의 제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시집 와서 시어머니가 그걸 하시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이사 오기 전에 살던 사람이 돌 옆에 오동나무가 있었는데, 그걸 베어버렸대요. 그래서 그런지 갑자기 정신 이상이 있어 그냥 죽어버렸어요. 그래 그때부터 전 주인이 바위를 위했다고 해요. 나도 한 40년 이상 시어머니 모시면서 위하고 있어요. 이거 보러 사람들이 많이 와요. …… 정월달에 12일이나 13일에 밤에 바위시루라고 해서 백설기 한 되서 흙 찌고 정한수 올려놓고 가족 건강하게 해달라고 절하죠 뭐. 한 일곱 번씩 해요. …… 저 혼자 해요. 바깥양반은 그저 그런가 보다



송정 2리 전경예가 신앙하는 암석(고인돌)

하면서 방에 있구요.”(도안면 송정리)

- 전경예(여, 1934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송정리 355번지) = 고인돌

## (2) 미륵신앙(彌勒信仰)

증평군 민속에서 미륵신앙은 바위를 신격화해 숭배하던 암석신앙의 한 유형인 선돌신앙이 불교가 전래된 뒤에 석불신앙으로 옮겨지고, 이것이 미륵신앙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민간의 미륵신앙은 민속과 불교가 합쳐진 신앙형태로 발전해 파손된 석불을 수리하거나 또는 미륵을 조성해 보다 적극적인 신앙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삼쿠 이 미륵님을 위했어요. 이 동네에서 미륵님 위하는 사람이 우리말고도 몇이 더 있어요. 음력 보름께 자정 되기 전에 흰시루 올려놓고 촛불 밝히고 그래 절하는 거예요. 동전도 몇 개 올려놓고, 돈 잘 벌게 해달라고 ……., 한복으로 갈아입지요. 머리로 단장하고 그렇게 정갈하게 하고서 미륵님한테 가서 빌어요. 한동안 비린 것도 안 먹고 그래요.”(증평읍 남하리)



남하 2리 이종이가 신앙하는 미륵

### 1. 현지조사

- 1차: 2005. 4. 23~24
- 2차: 2005. 5. 14~15
- 3차: 2005. 5. 21~22
- 4차: 2005. 5. 28~29

### 2. 제보자 인적사항

- 김재준: 남, 1927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 이종의: 남, 1928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 연규원: 남,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화성리
- 김재웅: 남,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한종규: 남, 1938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
- 김봉화: 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내성리
- 이갑순: 여, 191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김정심: 여, 1918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창동리
- 장순분: 여, 1919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 김금옥: 여, 192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서정숙: 여, 1926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남하리
- 연명옥: 여, 192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석곡리
- 오정순: 여, 1929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김일순: 여, 1930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연탄리
- 연주용: 여, 1931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장동리
- 백원경: 남, 1932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 신교래: 여, 193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교동리
- 박선녀: 여, 1934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송산리
- 이은원: 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 유영남: 여, 1935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광덕리
- 연세희: 여, 1937년 출생, 증평군 도안면 도당리
- 우영순: 여, 1943년 출생, 증평군 증평읍 미암리

### 참고문헌

- 괴산군지 편찬위원회, 『槐山郡誌』, 괴산군, 1969.
- 충청북도지 편찬위원회, 『忠淸北道誌』, 충청북도, 1975.
- 도안면지 발간위원회, 『道安面誌』, 충북학연구소, 2001.
- 이창식, 『충북의 민속문화』, 충북학연구소, 2001.



## 제3장 증평군의 언론과 출판

강신욱집필

### 제1절 언 론

#### 제1절

#### 1. 개 요

증평군내 지역신문의 시초는 지방자치시대의 서막과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증평읍, 도안면)설치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문화, 경제 등 각종 지역 소식을 지역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의미로 1991년 3월 4일 창간한 주간 증평신문(대표 이종주)이다. 증평신문은 증평괴산신문으로, 중부연합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하면서 주간신문으로 발행하다가 2002년 12월 폐간했다.

이 밖에 1993년 8월 괴산저널(대표 이성인, 현 괴산증평신문, 사업장:괴산읍 서부리)이 창간됐고, 1995년 4월 주간열린증평시민신문(대표 김정자, 한고을신문), 1998년 2월 증평신문(대표 유시은), 2003년 11월 증평주간신문(대표 한대석, 대한신문), 2004년 9월 증평괴산저널(대표 한상열)이 잇따라 창간됐다. 그러나 경영난과 창간대표자의 사정으로 대부분 폐간 또는 휴간 중에 있으며, 2005년 12월 말 현재 괴산증평신문(대표 이성인)과 증평괴산저널(대표 한상열) 두 종의 신문만 발행되고 있다.

증평군의 유선방송은 4·19혁명, 5·16군사혁명 이후 1960년대 초기에 라디오 보급이 어렵고, 난청지역 해소를 위한 국가의 문화공보 권장사업에 의해 시설이 시작됐다. 증평군 최초 유선방송은 증평중학교 과학교사로 재직했던 이영종씨에 의해 시작됐고, 집집마다 합판으로 제작한 스피커와 군용 전화선으로 연결해 일정한 시청료를 받아 운영했다. 유선방송을 통해 마을 소식과

행정관서의 공지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1990년대부터 TV보급이 크게 증가하고, TV채널이 다양화됐으나 난시청 지역이 완전 해소되지 못해 농촌지역 주민들의 문화적 향유 욕구에 부응하는 최신 유선방송 시설이 요구됐다. 증평군내에서는 1990년 5월 증평읍에 증평유선방송(대표 장지영)이 설립되고, 1992년 2월 도안면과 사리면, 청안면 지역에 도안유선방송(대표 이성종, 도안면 화성3리 마을회관 2층)이 설립됐다.

1997년 7월 증평유선방송사가 도안유선방송을 인수합병하고 1999년 7월 충청북도 북구권의 유선방송을 운영하던 (주)한국케이블 TV 충북방송(대표 차종철, 본사 충주시 용산동 35번지)이 증평유선방송을 인수합병함으로써 유선방송사가 광역화됐다. 2001년 1월 CCS충북방송(사장 최근배)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05년 12월 HCN 충북방송이 인수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2. 괴산증평신문



괴산증평신문 제호

1993년 8월 31일 괴산신문을 제호로 창간, 지령 2호부터 괴산저널로, 394호부터 괴산신문으로 제호를 변경했다. 2003년 8월 30일 증평군 설치에 따라 그 해 11월 5일자(지령 464호)부터 괴산증평신문으로 변경, 발행하고 있다. 사업장은 괴산군 괴산읍 동부리에 두고 있고, 정치관련 사항을 제외한 증평군과 괴산군 전역의 군정 및 지역의 각종 소식, 사회단체의 활동사항 등을 소개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매주 1회 8면 또는 12면으로 발행해 유가로 배포하고 있다.

## 3. 증평괴산저널



증평괴산저널 창간호

2004년 9월 21일 '자치시대의 길잡이'를 표방하고 창간했다. 증평군 증평읍 교동에 사업장을 두고 있다. 증평군과 괴산군의 군정 및 교육·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취재·보도해 주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매주 1회 12면으로 발행해 증평군·괴산군 지역에 유가로 배포하고 있다.

#### 4. HCN 충북방송 증평고객센터

증평군내의 유선 방송은 충청북도 전 지역의 케이블방송사인 HCN 충북방송이 2005년 12월 CCS충북방송을 인수해 시사, 교양, 오락 등 78개 TV채널을 통해 24시간 방영을 하며, 유선방송 가입자는 9,800여 가구로 증평읍 8,120가구, 도안면 1,050가구, 괴산군 사리면 320가구, 청안면 310가구이다. HCN 충북방송 증평고객센터장은 연제일이다.



HCN증평고객센터 기계실

#### 5. 휴간 및 폐간된 지역신문(2005년말 현재)



주간 증평신문



주간 열린 증평시민신문



증평신문



증평주간신문

## 제2절

\*여기에 소개한 간행물의  
출간시기는 2005년 12월  
말까지임



## 제2절 출 판

## 1. 개인 저술

## 1) 연구(研究) · 논문(論文)

## (1) 『爐邊鄉史-증평이야기』

- 펴낸이 : 송기민
- 펴낸날 : 1998년 6월
- 쪽 수 : 214쪽
- 내 용 : 증평문화원장은 지낸 지은이가 증평지역의 크고 작은 사건과 사연 등을 모아 엮은 야사집. 해방되던 날, 백중난장, 요단강다리의 애환, 초중리 증평편입, 증평여고 설립사, 해방후 증평의 사회단체 등 88편의 글이 수록 됐다.

## (2) 『상작부락약사』

- 펴낸이 : 연병균
- 펴낸날 : 2001년 1월
- 쪽 수 : 37쪽
- 내 용 : 행정자치부에 근무하는 지은이가 고향인 도안면 상작마을의 변천사와 인물, 생활문화, 지명, 풍속 등을 조사한 마을사가 기록됐다.

## (3) 『증평·괴산 근·현대사』

- 펴낸이 : 강신욱
- 펴낸날 : 2001년 7월
- 쪽 수 : 350쪽
- 내 용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연구위원인 지은이가 일제강점기와 광복 이후 증평·괴산지역의 향토사 관련자료를 수집·정리한 향토사시리즈 I. 5일장과 조선시대 장시, 조선시대 자연재해, 1920년대 청년운동, 일제식민지시대 신간회운동, 일제식민지시대 지방행정구역 개편, 일제식민지시대 인구변동, 역대지방선거 등이 수록됐다.



#### (4)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 펴낸이 : 한채화
- 펴낸날 : 2002년 9월
- 쪽 수 : 263쪽
- 내 용 : 필사본 계통의 「남원고사」를 고찰한 평론집으로 문학평론가인 지은이의 박사학위 논문 수정본. 원본텍스트로서의 「남원고사」, 생산수용된 텍스트의 이해, 수용 양상의 특징 등 수록.



#### (5) 『증평, 자치시대를 맞기까지』

- 펴낸이 : 강신욱
- 펴낸날 : 2004년 1월
- 쪽 수 : 200쪽
- 내 용 : 1963년 증평군 추진위원회 설립 이후 2003년 증평군 설치와 군의회 개원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향토사시리즈Ⅱ. 1960년대 군 추진, 충청북도 증평출장소 설치, 시 추진, 군 추진, 군 설치 의원입법 추진, 위기, 증평군 설치, 지방선거, 증평군수 취임, 증평군의회 개원, 추진 경과, (부록1)역대 지방선거 등 수록.



### 2) 시집

#### (1) 『눈이 내리지 않는 까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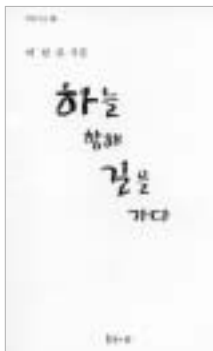
- 펴낸이 : 이남로
- 펴낸날 : 1994년 9월
- 쪽 수 : 97쪽
- 내 용 : 1994년 『월간 순수문학』과 1997년 『계간 숫대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 번째 작품집. 봄의 초상, 메아리, 허수아비, 눈이 내리지 않는 까닭 등 4부로 나뉘어 시 70편 수록.



#### (2) 『꽃따기』

- 펴낸이 : 김병기
- 펴낸날 : 1999년 6월
- 쪽 수 : 122쪽
- 내 용 : 시인이 세상을 아름다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쓴 작품집. 길을 찾아서, 시장통에서, 새벽에 눈 내리고, 은사시나무의 해산, 갈대가 말하되, 오징어가 길을 간다, 친구에게, 눈물에 대하여 등 시 76편 수록.





## (3) 『하늘 향해 길을 가다』

- 펴낸이 : 이남로
- 펴낸날 : 2000년 10월 26일
- 쪽 수 : 111쪽
- 내 용 : 시인의 두 번째 작품집. 활화산, 소망이 터지는 날, 침묵을 위하여, 하늘 향해 길을 가다, 낮은 곳을 향해 등 5부로 나뉘어 시 81편 수록.



## (4) 『회귀(回歸)』

- 펴낸이 : 유병택
- 펴낸날 : 2001년 12월 7일
- 쪽 수 : 91쪽
- 내 용 : 『월간 순수문학』을 통해 등단한 시인의 첫 작품집. 아름다운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마음으로 밤하늘의 별 같은 시를 엮었다는 게 지은이의 소감. 느지막하게 피어난 노래, 다시 오는 계절, 붉은 노을은 타오르다 등 3부로 나뉘어 시 33편 수록.



## (5) 『가슴에 새소리만』

- 펴낸이 : 김태봉
- 펴낸날 : 2001년 12월
- 쪽 수 : 116쪽
- 내 용 : 1995년 『시와 시인』으로 등단한 시인의 첫 작품집. 갈 수 없는 나라, 신호 대기중, 가난한 자의 죽음, 아픔을 가슴으로, 보강천으로 간 물고기, 그곳에서 서서, 농부와 촌부 등 시 52편 수록.



## (6) 『네가 있기에 오늘 나는 너에게로 간다』

- 펴낸이 : 이남로
- 펴낸날 : 2001년 12월 10일
- 쪽 수 : 90쪽
- 내 용 : 시인의 세 번째 작품집. 화려한 정,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기억하며, 눈빛 사랑, 사모, 밤을 위한 서시, 변명, 붉은 유혹, 밤의 추억, 유혹하는 세상 등 주로 사랑과 밤을 소재로 한 시 83편 수록.

## (7) 『기억을 위한 노래』

- 펴낸이 : 이남로
- 펴낸날 : 2003년 4월

■ 쪽 수 : 94쪽

■ 내 용 : 시인의 네 번째 작품집. 구원, 촛불 속에서, 꿈을 위한 연가, 진실을 향하여, 탄생, 불빛으로의 초대, 숨소리, 귀향, 그리움에 취해서, 방랑을 위하여, 세월이 가면 등 시 80편 수록.

#### (8) 『당신은 언제나 내게 아름다운 꽃입니다』

■ 펴낸이 : 김유진(김순이)

■ 펴낸날 : 2004년 11월

■ 쪽 수 : 175쪽

■ 내 용 : 1997년 『문예사조』로 등단한 시인의 첫 작품집. 구절초, 보강천에서, 고구마, 숨쉬고 싶은 욕망, 사랑한다는 건, 칼새 되고 싶어, 독도는 우리 땅, 산사가을, 생명과 죽음의 만남 등 시 105편 수록.

#### (9) 『오후의 자명종』

■ 펴낸이 : 서연(김용자)

■ 펴낸날 : 2005년 5월

■ 쪽 수 : 93쪽

■ 내 용 : 2000년 4월 『월간 순수문학』으로 등단한 시인은 현재 한국문인협회 증평지부장을 맡고 있다. 첫 작품집으로 묵념, 가을의 속삭임, 그리움, 마음에 꽃은 피고, 어제 그리고 내일 등 시 30편 수록.

### 3) 수필집

#### (1) 『열매 풍성한 나무』

■ 펴낸이 : 김길자

■ 펴낸날 : 2000년 11월

■ 쪽 수 : 251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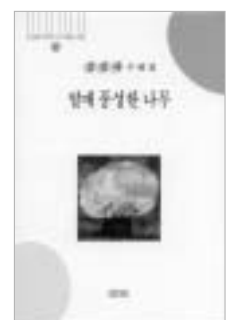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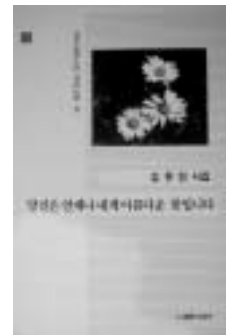
■ 내 용 : 현재 한국예총 증평지부장인 수필가가 문학을 공부하고 10년 후 등단한 지 9년 만에 엮은 첫 번째 작품집. 큰대문 집의 작은 아씨, 시골댁 도시체험기, 분홍 봉투, 덕담, 화려한 외출 등 5부로 나뉘 수필 52편 수록.

#### (2) 『선지식을 찾아서』

■ 펴낸이 : 권성업

■ 펴낸날 : 2003년 10월

■ 쪽 수 : 292쪽





- 내 용 : 중평문학회장을 지낸 수필가가 유·불·선을 비롯해 동서 사상 체계와 인술을 접하면서 느낀 진솔한 모습을 담은 작품집. 영원한 미소, 인술을 익히며, 지성이면 감천, 색안경, 인생의 길목에서, 백양사의 여운 등 6부로 나뉘 수필 55편 수록.

### (3) 『파란 향기』

- 펴낸이 : 김길자
- 펴낸날 : 2004년 4월
- 쪽 수 : 195쪽
- 내 용 : 수필가인 지은이의 두 번째 작품집. 물 위에 눕다, 달밤에 생긴 일, 그 계절의 바람, 시골길 버스를 타고 등 4부로 나뉘 산사의 물고기 세 마리, 정화수에 담긴 사랑, 호박농사, 외가에 깃든 낭만, 농촌의 삼복 나기 등 수필 28편 수록.



### (4) 『하늘 사다리』

- 펴낸이 : 박옥렬
- 펴낸날 : 2004년 11월
- 쪽 수 : 225쪽
- 내 용 : 수필가의 첫 작품집. 잉어, 바람개비, 장난과 장애, 인연, 달빛-사진 위로 흐르다 등 5부로 나뉘 노을꽃, 소풍, 빨간 우산, 어느 날 갑자기, 느낌 등 수필 54편 수록.



## 4) 기타

### (1) 『蔡錫根 寫真集』

- 펴낸이 : 채석근
- 펴낸날 : 2004년 10월
- 쪽 수 : 103쪽
- 내 용 : 한국사진작가협회 중평지부장인 사진작가 채석근씨가 2004년 7월 충북지역 예술인들과 함께 실크로드의 명사산, 바리쿤 대초원, 교하고성, 막고굴, 천산천지 등을 여행하면서 카메라 앵글에 담은 사진 가운데 52점을 간추려 엮은 사진집.

### (2) 『새벽을 열때까지』

- 펴낸이 : 추영우
- 펴낸날 : 2005년 10월



- 쪽 수 : 189쪽
- 내 용 : 증평시민회 수석대표인 지은이가 지난 10여년간 각종 언론과 출판물에 기고했던 글들을 모아 엮은 칼럼집. 증평군 지방자치의 기본방향, 새는 좌우 날개로 날아야 한다, 증평시민회 창립배경과 의의, 성명서 및 건의서 등 56편의 글을 실었다.

## 2. 기관·단체 간행물

### 1) 향토역사(鄉土歷史)

#### (1) 『증평의 뿌리를 찾아서』

- 펴낸이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 펴낸날 : 1992년 12월~현재
- 내 용 : 증평군내의 문화재와 유물, 구전설화, 유래, 옛 인물 등을 수록. 1992년 12월 창간호를 발간했고, 이후 2004년 6월까지 5집을 펴냈다.

#### (2) 『증평의 문화재』

- 펴낸이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 증평문화원
- 펴낸날 : 1999년 6월
- 쪽 수 : 87쪽
- 내 용 : 증평군내에 흩어져 있는 지정문화재와 비지정문화재 등 27점의 유형 문화유산을 사진과 약도를 곁들여 소개. 또 문화재 현황과 분포도, 부록으로 문화재의 종류와 용어 등의 설명도 수록.

#### (3) 『道安面誌』

- 펴낸이 : 도안면지발간위원회
- 펴낸날 : 2001년 12월
- 쪽 수 : 579쪽
- 내 용 : 도안의 역사와 문화유적, 성씨와 인물, 지리, 마을, 정치와 행정, 산업·경제, 민간단체 등 수록.

#### (4) 『사진으로 보는 증평史』

- 펴낸이 : 증평군
- 펴낸날 : 2004년 12월





■ 쪽 수 : 205쪽

■ 내용 : 증평이 1914년 행정구역으로 탄생한 지 90년을 맞아 편찬한 화보집. 주민생활, 행정·기관, 선거, 지역개발, 문화, 체육, 교육, 복지·환경, 재난·사고, 군부대, 산업, 일제강점기, 증평출장소 설치와 폐지, 자치시대 증평군, 증평군의회, 항공에서 본 증평 등 16장으로 나뉘 옛 사진과 지금의 사진 320점 수록.

#### (5) 『증평군 설치결과보고서』

■ 펴낸이 : 증평군

■ 펴낸날 : 2003년 12월

■ 쪽 수 : 385쪽

■ 내용 : 증평군실무준비단이 증평군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부터 2003년 8월 30일 자치단체로 출범하기까지의 과정을 다뤘다. 증평의 역사, 증평출장소 탄생 및 폐지, 증평군의 탄생, 증평군 설치 준비, 군설치실무준비단에서 추진한 사항 등 수록.

#### (6) 『증평군 통계연보』

■ 펴낸이 : 증평군

■ 내용 : 증평군과 소속기관, 유관기관에서 전년도 말 현재 기준으로 통계를 편집 작성. 통계표에는 최근 수년의 통계를 열거해 변천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도록 했다.

#### (7) 『曾坪 南下里寺址 地表調査 報告書』

■ 펴낸이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 펴낸날 : 1994년 3월

■ 쪽 수 : 122쪽

■ 내용 : 충청북도 지정 유형문화재 141호인 남하리 3층 석탑과 주변의 정비·복원을 위한 기본 자료로 삼기 위해 충청전문대박물관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의뢰를 받아 1993년 12월 13일부터 1994년 1월 15일까지 34일간에 걸쳐 실시한 지표조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

#### (8) 『曾坪 二城山城』

■ 펴낸이 : 충청전문대박물관 · 충청북도증평출장소

■ 펴낸날 : 1997년 12월

■ 쪽수 : 359쪽

- 내용 : 증평군 도안면 노암리와 증평읍 미암리의 경계지역에 위치한 이성산성의 정확한 현상 파악과 역사적 성격을 규명해 앞으로 이 지역에 대한 정비·복원의 기초자료로 삼기 위해 충청전문대박물관이 충청북도 증평출장소의 의뢰를 받아 1997년 3월 8일부터 6월 6일까지 90일간에 걸쳐 실시한 지표조사 결과 보고서.

#### (9) 『淸風明月을 노래한 金得臣의 詩』

- 펴낸이 : 김득신기념사업회
- 펴낸날 : 2002년 5월
- 쪽수 : 256쪽
- 내용 : 조선 중기 시인이자 시론가인 백곡 김득신이 남긴 한시 161편을 번역해 원문과 함께 수록.

#### (10) 『문화유적분포지도-증평군』

- 펴낸이 : 증평군·(재)증원문화재연구원
- 펴낸날 : 2005년 10월
- 쪽수 : 119쪽
- 내용 : 전국 234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추진된 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건설과 개발사업으로부터 지역문화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해 제작된 지도.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74곳, 도안면 48곳 등 모두 122곳의 유적이 분포돼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11) 『한국전쟁영웅 연제군 육군상사』

- 펴낸이 : 편찬위원회
- 펴낸날 : 2001년 8월
- 쪽수 : 81쪽
- 내용 : 1950년 9월 17일 포항 형산강 전투에서 공을 세우고 전사한 도안 출신 연제군 육군상사의 일대기와 신문보도 자료 등을 실었다.

#### (12) 『제1회 증평 전국사진 공모전 작품집』

- 펴낸이 : (사)한국사진작가협회증평지부
- 펴낸날 : 2005년 10월
- 쪽수 : 147쪽
- 내용 : 한국사협 증평지부가 주최한 제1회 증평 전국사진공모전에 출품



된 800여점 가운데 입상작 116점과 회원작 19점 등 작품 135점을 실었다.

## 2) 연혁집(沿革集)

### (1) 『87~97 국제로타리 3740지구 증평 장들로타리 十年史』

- 펴낸이 : 증평장들로타리클럽
- 펴낸날 : 1997년 5월
- 쪽수 : 83쪽
- 내 용 : 1987년 창립부터 1997년까지의 증평 장들로타리클럽 10년간의 연혁과 활동사항, 국제로타리 3740지구의 탄생과 발전현황 등을 화보와 함께 수록.

### (2) 『曾坪初等學校 70年史』

- 펴낸이 : 증평초 총동문회
- 펴낸날 : 2000년 4월
- 쪽 수 : 488쪽
- 내 용 : 2000년 4월 개교 70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발전사와 배출한 인사들을 조명. 학교 현황, 연혁, 사진으로 본 개교 이후 변천, 동문회 등으로 구성.

### (3) 『曾工 五十年史』

- 펴낸이 : 증평공고 총동문회
- 펴낸날 : 2001년 10월
- 쪽 수 : 1,385쪽
- 내 용 : 개교 50주년을 맞아 이를 기념하기 위해 편찬. 총설, 태동기, 중흥기, 선진도약기, 내실기, 현황, 연혁, 동문회 등 수록.

### (4) 『曾坪文化院 十年史』

- 펴낸이 : 증평문화원
- 펴낸날 : 2003년 8월
- 쪽 수 : 397쪽
- 내 용 : 1992년 5월 29일 창립한 증평문화원 10년간의 활동 정리. 증평문화원 역사, 문화활동사업, 지역문화연구·보존사업, 증평문화재, 증평문화의집, 등록회원단체 등 수록.





## (5)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십년사』

- 펴낸이 : (사)증평향토문화연구회
- 펴낸날 : 2003년 12월
- 쪽 수 : 187쪽
- 내 용 : 1992년 9월 16일 창립한 이래 10년간의 활동사항 등을 정리. 증평향토문화연구회 역사, 향토문화 조사 및 연구활동, 향토문화연구위원 연구논문, 문화재 등 수록.

## (6) 『증평소방서 10년사』

- 펴낸이 : 증평소방서
- 펴낸날 : 2004년 5월
- 쪽 수 : 251쪽
- 내 용 : 1994년 5월 21일 개서 이후부터 2004년 3월 31일까지의 증평소방서 변천 과정과 소방행정업무 등 수록.

## (7) 『증평JC 30년사』

- 펴낸이 : 증평청년회의소
- 펴낸날 : 2004년 9월
- 쪽 수 : 183쪽
- 내 용 : 1974년 8월 25일 창립한 증평청년회의소가 『20년사』에 이어 두 번째로 편찬한 연혁사. 증평청년회의소 발자취, 수상내역, (특우)회원과 가족소개, 정관 등 수록.

## (8) 『청주과학대학 90년사』

- 펴낸이 : 국립 청주과학대학
- 펴낸날 : 2004년 12월
- 쪽 수 : 829쪽
- 내 용 : 개교 90주년을 맞아 1914년 충청북도 청주 자혜의원 간호부 양성소로 출범, 청주부속고등간호학교, 청주간호고등기술학교, 청주간호학교, 청주간호전문학교, 청주간호전문대학, 청주전문대학, 청주과학대학으로 이어지는 변천 과정과 발자취 정리.





### 3) 문화지(文化誌) 및 동인지(同人誌)

#### (1) 『증평문학』

- 펴낸이 : 한국문인협회 증평지부
- 내 용 : 1996년 11월 창간호를 시작으로 2004년 12월 9집이 발간됐다. 시, 수필, 동화 등 회원 작품과 백일장 입상 학생 작품 등 수록.

#### (2) 『曾坪文化』

- 펴낸이 : 증평문화원 · 증평향토문화연구회
- 내 용 : 1997년 5월 창간호가 나왔고, 2004년 12월 7집 발간. 시 · 수필 등 문학작품과 향토사 관련 글, 문화생활 소고, 학생 작품, 증평문화원과 증평향토문화연구회의 활동사항 등 수록.

#### (3) 『두타목』

- 펴낸이 : 두타목
- 내 용 : 시, 수필, 평론, 기행문 등 회원들의 작품을 모은 동인지. 2000년 4월 첫 작품집을 펴냈고, 2004년 12월 현재 5집 발간.

## 제4장 증평군의 종교

정제규 집필

### 제1절 종교에 대한 이해

#### 제1절

#### 1. 종교의 개념

종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내려져 있다. 종교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 정의를 한다면 ‘제도 속에서 사회적으로 공유된 행동과 신앙의 유형’이라 하고 있다.<sup>1)</sup> 그러나 동시에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기도 한다. 곧 철학과 심리학적인 측면에서는 ‘인간 정신의 내면적 확신과 신념체계’로 이해하기도 하고, 인류학이나 민속학에서는 ‘의례와 관습 또는 문화규범의 하나’로 해석하기도 한다. 한편 사회학적으로는 ‘조직과 집단’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어떠한 정의를 내리던 간에 종교에는 여러 측면들이 있다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 첫째는 종교적 신앙이다. 모든 종교는 세계에 대한 개인의 인식을 체계화하고 있다. 이 말은 종교적 인식이 바탕이 되어 신앙을 형성하고 그것으로부터 가치, 규범, 태도 등이 나온다는 의미이다. 두 번째는 종교적 의례이다. 이는 종교적인 의미를 표현하는 상징적인 행위를 말한다. 신앙이 종교의 인지적인 면을 표현한다면 의례는 종교적인 의미를 공연하는 것이다. 셋째는 종교적 경험이다. 이는 개개인과 성스러운 어떤 것과의 주관적인 관계에 대해 설명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들 것은 종교공동체이다. 신앙에 근거한 개개인들은 어느 집단에 소속되었다는 의식을 갖고 있다. 이같은 공동체는 개인의 신앙과 규범을 뒷받침하는 필수적인 것이다.<sup>2)</sup>

한국에서의 종교는 무속과 고유 민간신앙으로부터 시작하여 불교와 유교 그리고 도교, 근대에 들어온 기독교와 민족신앙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하

1) M.B. McGuire, 김기대 · 최종렬 역, 『종교사회학』, 민족사, 1994, 21쪽.

2) 민족종교란 용어는 1945년에 증산교단의 이상호 선생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이후 1985년에 이르러 한국 자생종교 교단들이 모여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형성하면서 공식화 되었다.

다. 한국에서의 종교 현황 파악을 위해서 1999년도 통계청에 의해서 작성되었던 종교인구 통계자료는 상당히 유익하다. 이 표에 의하면 전국 종교인구의 분포를 알 수 있는데, 당시 한국의 종교 인구는 전체 인구의 53.6%에 이르렀던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물론 이 조사에서는 무속 등 민간신앙에 대해서는 일체 파악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있으나, 충북 지역의 종교 인구가 48.6%로 전국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 지를 파악할 수 있어 상당히 도움이 된다.

●● 표 1. 전국 종교인구 통계자료표

(단위 : %)

시점 :1999	15세 이상 인구	종교 인구	불교	기독교	천주교	유교	원불교	천도교	기타	종교 없음
전 국	100	53.6	26.3	18.6	7	0.7	0.2	0.1	0.8	46.4
서 울	100	54.6	20.1	23.9	9.3	0.5	0.1	0.1	0.6	45.4
부 산	100	60.1	41.9	12.1	4.5	0.2	0.1	0	1.3	39.9
대 구	100	55.3	35.5	12	5.9	0.4	0.1	0	1.3	44.7
인 천	100	50.2	15.8	22.2	10.2	1	0.1	0.1	0.8	49.8
광 주	100	49.1	16.7	21.6	8.6	1	0.3	0	0.8	50.9
대 전	100	53.5	26	20.6	5.4	0.3	0.2	0.1	1	46.5
울 산	100	57.8	42.9	10.2	3.5	0.1	0.2	0.1	0.7	42.2
경 기	100	52.6	19.2	23.1	8.6	0.6	0.1	0.1	0.9	47.4
강 원	100	49.5	27.5	14.3	5.9	0.9	0.2	0.1	0.5	50.5
충 북	100	48.6	28	13.9	5.6	0.5	0.1	0.1	0.5	51.4
충 남	100	50.6	25.3	19	4.7	0.9	0.1	0.1	0.6	49.4
전 북	100	48.8	15.8	23.7	5.9	0.8	2.1	0.1	0.4	51.2
전 남	100	45.8	18.6	18.5	5.2	1.9	0.9	-	0.6	54.2
경 북	100	56.5	38.4	11.8	4.6	1.1	0.1	0	0.6	43.5
경 남	100	58.5	45.2	8.1	3.4	0.4	-	0.1	1.3	41.5
제 주	100	55.7	35.9	8.9	8.3	1.6	-	0.2	0.7	44.3

□ 통계청 - 1999년 종교인구  
통계자료표

한편 중평지역에서도 종교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통계화되어 있어 현대종교를 이해하기 위한 기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 표 2. 증평지역의 종교 현황 통계표

연별 및 지소별	기독교		천주교		불교		유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교당	교직자
1999	35	35	2	2	18	18	-	-
2000	35	35	2	2	18	18	-	-
2001	35	35	2	2	18	18	-	-
2002	35	35	2	2	20	20	-	-
2003	35	35	2	2	20	20	-	-
증평읍	29	29	2	2	15	15	-	-
도안면	6	6	-	-	5	5	-	-

■ 증평군, 통계연보(2004),  
256쪽

이 표를 통하여 증평지역에서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의 종교가 확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적으로는 증평읍을 중심으로 분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 2. 한국사에서의 종교와 그 전개

한국에서 처음으로 보였던 신앙의 형태는 샤머니즘이었다. 샤머니즘과 관련한 자료는 이미 역사 이전의 선사시대에 많이 나타나고 있다. 종교적 상징으로 장식된 왕관이나 지금도 동북아시아의 무당들이 즐겨 사용하고 있는 방울·거울 각종 고고학적 유물자료들이 상당수 남아 있는 것이다. 또한 단군신화를 통하여 확인되듯이 당시의 사회는 청동기와 농경문화를 기반으로 하여 종교가 정치와 통합되어 있던 교정일치(敎政一致)의 사회였던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의 기록인 『삼국지(三國志)』 위지(魏志) 동이전(東夷傳)에도 고대 한민족이 세운 여러 초기국가에 영고(迎鼓)·동맹(東盟)·무천(舞天)과 같은 제천행사(祭天行事)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마한에도 이름은 전하지 않으나 음력 5월과 10월에 큰 축제가 있었으며, 소도(蘇塗)라는 신성한 구역이 있었다고 하였다.

삼국시대에 하늘과 산천 등에 제사를 지내고 영이로움을 경험했던 사실들은 이같은 신앙의 일부를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의 인물들은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 1) 부여왕(夫餘王) 해부루(解夫婁)는 늙도록 아들이 없어 산천에 제사를 지내 후사를 구하였는데, 타고 있던 말이 곤연(鯤淵)에 이르러서는 큰 돌

3) 불교는 B.C. 6세기말에서 4세기초경 고타마 싯다르타(Gautama Siddhrtha)에 의하여 창시(創始)되었는데, 그리스도교·이슬람교와 더불어 세계 3대 종교 중 하나로서 정신적·사상적·문화적·사회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불교는 당시 인도 사회에서 커다란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베다(Veda)와 브라만(Brahman)의 전통과 권위에 대한 새로운 종교 운동이었다. 사문(沙門)이라 불리웠던 출가자(出家者)들은 걸식생활과 숲속에서의 고행과 명상을 통해 인생문제에 대하여 다양한 해결방식을 추구하면서 종래 브라만교에서 주장했던 번잡한 제사의례(祭祀儀禮)와 그 대가로서 사후(死後)에 천상(天上)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는 관념을 비판하였다. 고타마 싯다르타는 독자적인 수행의 길을 걸으면서 보리수(菩提樹) 나무 밑에서 깊은 선정(禪定)에 들어 모든 번뇌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깨달음(菩提-bodhi)을 얻어 부처(佛陀-Buddha) 곧 '깨달은 자(覺者)'라 불리게 되었다. 또는 석가(釋迦) 즉 출신의 성자(聖者)라 하여 석가모니(釋迦牟尼-Skyamuni) 혹은 간단히 석존(釋尊)이라 부르기도 있다. 석존은 바라나시의 녹야원(鹿野苑)에서 고행(苦行)이나 쾌락주의(快樂主義)의 양 극단을 피해 중도(中道)를 따라 수행할 것과 '4가지 거룩한 진리(四聖諦)'와 '8가지 바른 길(八正道)'에 대한 설법을 시작으로 45년 동안 주로 마가다 국과 코살라 국을 중심으로 중인도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포교활동을 하였다.

을 보고 눈물을 흘렸다. 왕이 이상히 여겨 사람을 시켜 그 둘을 굴리게 하였더니,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금빛 개구리 모양이었다. 왕이 말하기를 “이는 하늘이 나에게 훌륭한 아들을 내림이로다”하고 거두어 길렀는데 이름을 금와(金蛙)라 하고 태자로 삼았다(『삼국유사』 권1, 기이1, 동부여조).

2) 탈해왕(脫解王) 9년 춘3월 왕이 밤에 금성(金城) 서쪽 시림(始林) 나무 사이에서 닭 우는 소리를 듣고 날이 샅 무렵 호공(瓠公)을 보내어 살펴 보게 했는데 금색의 작은 꿩이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고 흰 닭이 그 밑에서 울고 있었다. 호공이 돌아와 보고하니 왕이 사람을 시켜 꿩을 가져다가 열어보았다. 그 속에 어린 남자아이가 들어 있었는데, 자태와 모습이 기이하고 위엄이 있었다. 왕이 기뻐하여 좌우에게 말하기를 “이것은 하늘이 나에게 아들을 준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했다(『삼국사기』 1 신라본기).

3) 산상왕(山上王) 7년 3월 왕이 자식이 없어 산천에 기도하였더니 그 달 15일에 꿈에 천(天)이 나타나 말하기를 “내가 너의 소후(小后)로 하여금 아들을 낳게 할터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13년 9월에 주통촌녀(酒桶村女)가 아들을 낳으니 왕이 기뻐하여 이는 하늘이 나에게 사자(嗣子)를 주심이라고 했다(『삼국사기』 16, 고구려본기 4).

곧 하늘 그리고 산천 등의 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단순하게 주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닌 초자연적(超自然的)인 존재였다는 인식이 있었던 것이다. 부여의 해부루나, 신라의 탈해왕, 그리고 고구려의 산상왕은 자식이 없자 이를 하늘에 빌고 있다. 그리고 하늘은 이에 답한 것이다. 초자연적인 존재들에 대한 인식과 그에 대한 신앙의 기록들은 한국사 최초의 신앙 형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사에서 외래종교가 처음 수용되었던 것은 불교<sup>3)</sup>였다. 고구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들어온 해는 소수림왕 2년(372)이다. 전진왕(前秦王) 부견(符堅)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낼 때 함께 온 승려 순도(順道)가 불상과 경문(經文)을 가져온 것이다. 그로부터 2년 뒤에는 승려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왔다. 그리고 소수림왕 5년에는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弗蘭寺)를 창건하여 각각 순도와 아도로 하여금 머물게 하였다. 한편 백제에 불교가 처음 전해진 것은 침류왕 원년(384) 9월이다. 호승(胡僧) 마라난타(摩羅難陀)가 동진에서 오자 왕이 그를 맞이하여 궁내에 모시고 예의를 갖추어 경배하였다. 신라는 눌지왕(417~458년) 때 고구려로부터 사문(沙門) 묵호자(墨胡子)가 일선군(一善郡, 지금의 경상북도 선산군) 모례(毛禮)의 집에 와 있었다고 하였다. 그러나 동진(東晉)의 고승이었던 지둔도림(支遁道林, 314~366년)이 고려 도인(高麗道人)

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 순도 이전에 이미 고구려 출신 승려가 남조(南朝)에서 활약하였던 것을 알 수 있어 이미 오래전에 불교가 수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불교는 수용되었던 시기에 토착신앙과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차돈(異次頓)의 순교와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면 신라 법흥왕이 불법을 존숭하여 흥교(興敎)할 뜻이 있었으나 군신들의 반대가 두려워 입장을 분명하게 하지 않던 차에, 이차돈에게 왕명을 내리어 창사(創寺)할 것을 명령하였다. 이에 군신들은 이차돈이 토착신앙의 성소인 천경림(天鏡林)에 절을 지으려 하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이로 인하여 절의 창건이 늦어져 이차돈을 처형하였다. 이같은 내용은 불교가 공인되기까지 기존의 토착신앙과 상당한 마찰과 갈등을 겪으며, 융화되어갔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불교 수용 이후의 기록이지만 『삼국유사』에는 불교 승려와 천제와의 갈등 관계를 표현한 내용들이 있어 불교와 토착 신앙이 하나로 융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사실을 비유하고 있다.

서해용왕의 아들 이목(璃目)은 항상 절 곁에 있는 작은 못에서 살며 음으로 불법의 교화를 도왔는데, 한 해는 몹시 가물어 밭의 채소가 모두 말라 탐으로 보양(寶壤)이 이목을 시켜 비를 내리게 하니 온 지방이 흠족하였다. 천제(天帝)는 이목이 월권을 했다 하여 죽이려 하니, 이목이 보양에게 위급함을 고하였고, 법사는 마루 밑에 숨겨주었다. 조금 후 천사가 뜰에 내려와 이목을 내놓으라고 청하자 법사는 뜰 앞의 이목(利木)을 가리켰는데 천사는 그것에 벼락을 때린 후 하늘로 올라갔다. 이목이 꺾이고 시들자 용이 그것을 어루만지니 곧 살아났다(『삼국유사』 권4, 의해 5, 보양이목조).

보양 스님은 후삼국기에 중국에서 불법을 공부하고 돌아와 청도에 작갑사(鵲岬寺)를 세운신 분이다. 이 사찰은 고려 태조 20년(937)에 운문선사(雲門禪寺)라는 절이름을 하사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 보양스님을 도왔던 이목은 서해 용왕의 아들이었다. 이곳에서 이목은 하늘과 대립하고 있다. 하늘만이 비를 내리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보양스님의 부탁을 받아 비를 내리게 한 것이다. 또한 이 행동으로 인한 하늘의 벌을 보양스님의 힘을 빌어 벗어나고 있다. 이같은 내용은 토착신앙과의 관계에서 불교가 우위에 있었음을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불교는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 국가는 물론 일반인들에게까지 깊게 신앙되며 상당한 영향력을 끼쳤다.

유교는 언제 어떻게 수용되었는지는 상세한 자료가 없다. 그러나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의하면 고구려 소수림왕 2년(372)에 태학(太學)을 세워 귀족의 자제들에게 유가의 경전을 교육하였다는 기록이 남아 있어 이미 오래전 유교

가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유교는 유교 경전의 교육과 사서(史書)의 편찬 등을 통하여 생활의 문화적 요소로 중요하게 인식되었다. 불교가 성행하였던 고려시대에도 국가 이념과 체제를 정립하는 과정에서 유교의 이념은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하였다. 특히 고려의 광종과 성종대에는 유교적 정치가 구현되었던 시대였다. 광종은 과거제도를 실시하고 동시에 백관의 공복을 제정하였다. 한편 성종은 최승로(崔承老)와 같은 유학자를 중심으로 유교적 정치를 완성하였다. 송학(宋學) 즉 정주학(程朱學)이 수용된 것도 고려시대였다. 주자학을 최초로 전래해온 안향(安珦)은 국학의 침체를 개탄하고 유교를 중흥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중앙과 지방에 학교를 세우고 유교적 이념과 도덕에 기초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하였다. 유교적 이념이 생활속에 깊숙이 전해진 것은 조선시대였다.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으로부터 고종 대의 『대전회통(大典會通)』에 이르기까지의 법전 편찬은 사람들의 일상에서 유교의 이념과 경전사상이 기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같은 유교에 대해서 ‘신앙’ 이라기 보다는 ‘철학사상 또는 윤리규범’으로 간주하려는 입장이 있다. 이것은 유교가 기독교나 이슬람교의 경우처럼 신앙의 대상이 없고 또한 일반 종교에서 경험할 수 있는 종교체험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그러나 한국에서의 유교는 오랜 세월동안 사람들의 행동양식을 규정하고, 그를 통해 정체성을 확립시키는 세계관으로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였다. 더욱 유교가 한국인의 의식과 삶의 영역에 깊게 자리잡은 제사를 통해 조상숭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종교로 이해할 수도 있는 것이다.<sup>4)</sup>

한국에서의 도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특별히 교단을 형성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도교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다. 도교와 관련된 기록은 『삼국사기』에 보이고 있다. 곧 고구려 영류왕대였던 영류왕 7년(624)에 당(唐) 고조가 고구려에 도사(道士)를 파견하여 천존상(天尊像)을 보내고 『도덕경(道德經)』을 강론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보장왕 2년(643)에는 연개소문(淵蓋蘇文)이 도교를 들여와 천하의 도술을 다 갖추어야 한다는 건의를 하여 당으로부터 숙달(叔達) 등의 도사와 함께 『도덕경』을 들여와 유교나 불교보다 우위에 두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승려 보덕(普德)이 백제 땅이던 완산주(完山州)의 고대산(孤大山)으로 이주하였다는 내용은 당시 도교와 불교와의 갈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선 중엽에 한무외(韓無畏)가 저술한 『해동전도록(海東傳道錄)』에 의하면 신라 하대 당에 유학했던 지식인들 중 상당수가 도교의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도교의 영향력이 강했던 시기는 고려대로 평가된다. 곧 왕실의 복덕을 비는 국가의례 중심의과의(科儀) 도교가 성하였던 것이다. 현종 때부터 행해졌던 재초(齋醮)<sup>5)</sup>와 예종때 도교 사원이었던 복원궁(福源宮)을 건립한 사실은 당시의 도교적 성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조선시대의 도교는 성리학적 이념속에서 점차 쇠퇴되었다.

4)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사계절, 2001, 227~231쪽.

5) 도교의 의식 가운데 하나로 제단을 설치하여 제사지내고 재앙을 없애는 기도의식을 말한다.



특히 중종 13년(1518)에 조광조(趙光祖) 등의 신진 사림에 의해서 소격서(昭格署)<sup>6)</sup>가 혁파(革罷)되었던 사실은 조선시대의 도교의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나 민간에서는 여전히 도교가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성수신앙(星宿信仰) 가운데 칠성신앙(七星信仰)은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이다. 이렇듯 조선 후기의 도교는 민간의 생활윤리를 규정하는 하나의 기준으로 자리잡았다.

기독교는 『성서』에 기록된 예수의 삶과 가르침을 인류 구원에 대한 유일한 진리로 믿는 종교이다. 한국에서의 기독교는 일반적으로 16세기 종교개혁으로 인해 천주교로부터 분파된 개신교만을 가리키는 것이다. 한국 기독교의 역사에서 첫 전래시기는 1885년 4월 언더우드(H. G. Underwood)와 아펜젤러(H. G. Appenzeller) 목사가 인천 제물포에 내리는 시점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순조 32년(1832)에 독일 선교사 규틀라프(Karl A.F. Gutlaff)가 장산곶과 군산만에 와서 약 1개월 동안 섬사람들에게 선교활동을 하기도 하였고, 고종 10년(1873)에는 조선 선교에 뜻을 두었던 스코틀랜드일치자유교회 출신인 로스(Rose J.)와 그의 매부인 매킨타이어(McIntyre, J.)가 만주 통화현(通化縣) 고려문(高麗門)에서 조선인 이응찬·이성하·김진기 등에게 성서를 가르치면서 성서 번역에 착수하여 1882년 봉천에서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을 간행하였던 일이 있다. 한국 기독교의 발전은 1945년 이후에 이루어졌다. 광복을 맞으면서 다양한 교파의 외국선교사들이 속속 입국하여 교파교회로의 발전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1984년 기독교 선교 100주년을 맞이하였을 때 등록된 교단은 69개로 신도수가 900만에 이르러 전 인구의 25%에 이르렀다.

한국의 민족종교<sup>7)</sup>는 구한말에서 일제강점기 사이의 사회변혁기에 대두된 새로운 종교운동을 가리키는데 보통 1860년 최수운이 제창한 동학을 그 효시로 이해하고 있다. 이것은 19세기 민족 수난의 역사 속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형성된 것이다. 민족종교에는 최수운의 동학(東學) 및 천도교계(天道教系) 외에도 김일부의 정역계(正易系), 나철의 대종교(大宗教系), 강증산의 증산교계(甌山教系), 그리고 단군계(檀君系), 원불교(圓佛敎)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민족종교를 가리키는 용어로 신흥종교, 신종교, 민중종교 등 다양한 용어들이 사용되고 있기도 하다.

6) 조선시대 도교의 재초를 거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관서이다. 고려 때의 소격전(昭格殿)을 세조 12년(1466)에 개칭하였다.

7) 민족종교란 용어는 1945년에 증산교단의 이상호가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이후 1985년에 이르러 한국 자생종교 교단들이 모여서 한국민족종교협의회를 형성하면서 공식화되었다.

## 제2절 증평지역의 불교

## 제2절

현재 우리 나라에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18개 종단 외에 약

10여개 이상의 종단이 형성되어 신앙의 중심이 되고 있다. 18개 종단에는 한국 최대의 통합종단인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教曹溪宗)을 비롯하여 대한불교진각종(大韓佛教眞覺宗)·대한불교진언종(大韓佛教眞言宗)·대한불교불입종(大韓佛教佛入宗)·대한불교법화종(大韓佛教法華宗)·한국불교법화종(韓國佛教法華宗)·대한불교일승종(大韓佛教一乘宗)·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教天台宗)·대한불교원효종(大韓佛教元曉宗)·대한불교화엄종(大韓佛教華嚴宗)·대한불교총화종(大韓佛教總和宗)·대한불교법상종(大韓佛教法相宗)·천화불교(天華佛教)·대한불교미륵종(大韓佛教彌勒宗)·대한불교정토종(大韓佛教淨土宗)·대한불교용화종(大韓佛教龍華宗)·대한불교보문종(大韓佛教普門宗) 등이 있다. 한편 통합종단의 구성에 반대하여 따로 세운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教太古宗)이 있다. 이들 종단에 소속된 사찰수는 5,700여 개소이며, 승려가 2만여 명, 신도수 1,300만여 명이라고 알려져 있다. 『불교신문』을 비롯하여 각 종파·단체들에서 정기간행물도 30여 종이 나오고 있다.

중평지역에는 대한불교조계종·대한불교천태종·한국불교태고종·대한불교법화종 등의 4개 종파에 소속된 사찰들과 함께 관음종, 선교종, 선은종에 속한 3개소가 있다.

## 1. 조계종(曹溪宗)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조계종(大韓佛教曹溪宗)으로 현재 한국 내의 최대 종파이다. 일반적으로 조계종은 고려시대 지눌(知訥)에 의해 조계산에서 수선사(修禪社)를 열고 선풍이 크게 일어났던 시기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1424년(세종 6) 선종(禪宗)으로 되었고, 1899년 동대문 밖에 원흥사(元興寺)를 창건해 한국불교 총종무원(總宗務院)으로 삼았다. 1941년에 총독부의 인가를 얻어 조선불교조계종이라 했

고, 이때부터 조계종 종조(宗祖)에 대한 논란이 크게 대두되었다. 45년 비구승과 대처승의 분규가 생겨 62년 조계종재건 비상총회를 열고 종헌(宗憲)을 제정·공표하여 통합종단을 출범하였고,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해 대한불교조계종으로 단체등록을 했다. 69년 대법원에서 종권(宗權)이 비구승에게 있다고 판결하자 대처승들은 한국불교태고종을 창종했다. 조계종은 석가모니



호국총암사 전경

의 가르침을 근본으로 하고 견성성불(見性成佛)하여 중생에게 널리 진리를 전파하는 것을 종지(宗旨)로 삼고 있으며, 『금강경(金剛經)』과 『전등법어(傳燈法語)』를 소의경전(所依經典)으로 삼고 있다. 총본산은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에 위치한 조계사이며, 2006년 7월 현재 종정(宗正)은 법전스님이다. 전국적으로 25교구본사가 있고 그 밑에 말사와 포교당이 있다.

증평지역은 법주사(法住寺)를 본산으로 하는 5교구에 속해 있다.

●● 표 3. 증평지역의 조계종 사찰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기원사	1993	증평읍 남차리 1-1	주지	이철영
호국 충용사	1991	증평읍 송산리 산65	법사	이준석(무연)
호국 효표사	1993	증평읍 덕상리 사서함 13		
법천사	2002	증평읍 송산리 609-3	주지	박석호
죽림정사	1991	증평읍 죽리 509	주지	오봉희

## 2. 천태종(天台宗)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천태종(大韓佛教天台宗)으로 한국 불교 18개 종단 중의 하나이다. 1967년 충청북도 단양군 영춘면 백자리 구인사(救仁寺)에서 박상월(朴上月)이 시작하였다.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종조(宗祖)로 삼았으며,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을 근본 경전으로 삼는다. 근본 종지(根本宗旨)는 일승 묘법의 교의를 근본으로 하여 불성(佛性)의 보편과 존엄을 스스로 믿고 자각자타(自覺覺他)의 보살도(菩薩道)를 실천하여 안으로 자아완성(自我完成)을 기하고 밖으로 사회의 평화와 각화(覺化)로서 일체중생개성불(一切衆生皆成佛)과 불국토건설(佛國土建設)을 실현하는데 있다. 또한 참선(參禪)과 염불(念佛)로 선정(禪定)과 지혜(智慧)를 함께 닦아 인격 완성과 국민사상통일, 사회 평화에 공헌함을 목표로 삼고 있다.

고려시대의 의천은 선교의 대립을 융화하고 통화종단(統和宗團)을 구현하고자 『법화경』의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에 근거한 교관겸수(教觀兼修)의 사상을 높이 제창하였다. 의천의 뒤를 이은 대표적인 승려는 교웅(教雄)이며, 그 뒤 한때 침체한 고려의 천태종을 다시 일으킨 인물은 요세(了世)였다. 요세는 고종 3년(1216)에 만덕산(萬德山) 백련사(白蓮寺)로 옮겨 천태종 중흥



태화사 전경

에 힘썼고, 32년 보현도량(普賢道場)을 열어 전통적인 범화삼매의 수행을 지도하였다. 요세 이후 천태종은 개성의 국청사에서 전라남도 강진(康津) 백련사로 중심이 옮겨지게 되었다. 고려 말 천태법사종(天台法事宗)과 천태소자종(天台疏字宗)으로 갈려 내려오다가 조선 태종 7년(1407) 하나로 합쳐졌고, 세종 6년(1424)에 또 다시 조계종(曹溪宗)·충남종(淸南宗)과 함께 선종(禪宗)이라는 이름으로 통합되었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미암리의 태화사와 초중리 목정사 등 2개 사찰이 있다.

●● 표 4. 증평의 천태종 사찰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목정사	2004	증평읍 초중리 580		
태화사	1997	증평읍 미암리 946	주지	김선옥

### 3. 태고종(太古宗)



보타사 전경

정식 명칭은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教太古宗)이다. 고려말 한국불교를 원융회통의 정신으로 통일한 태고 보우국사의 통불교(通佛敎) 전통을 계승한 종단으로서, 1970년 1월 박대륜(朴大輪)을 종정(宗政)으로 시작되었다. 태고종은 ‘대중교화’를 이념으로 머리를 기를 수 있고, 결혼도 할 수 있고, 불교 교육기관과 언론 출판기관, 어린이 교육 및 복지기관, 사회복지기관 등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증평지역에는 1988년 5월 28일 전통사찰로 지정된 보타사를 비롯하여 6개 사찰이 있다. 보타사는 1875년에 암자로서 시작한 이후 1968년 김영옥 스님에 의해 계승되었다. 1976년에 취약성 독립 가옥으로 철거된 후 현재의 위치에 사찰을 창건하였는데, 불·법·승(佛·法·僧) 삼보의 「보(寶)」자와 두타산의 「타(陀)」자를 따서 이름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 표 5. 증평의 태고종 사찰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보타사	1976	증평읍 연탄리 산63-34	주지	김창호(대호)
보성사	1980	증평읍 내성동 5	주지	서성례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삼보사	1991	증평읍 죽리 산7-3	주지	김학재
용천사	1989	증평읍 율리 29-9	주지	최병철(성목)
보광정사	1997	증평읍 남차리 279-17	주지	봉재근
혜도암	2003	도안면 도당리 253	주지	정석모

#### 4. 법화종(法華宗)

한국 불교 18개 종단 중의 하나로 정식 명칭은 대한불교법화종(大韓佛敎法華宗)이다. 고려시대의 대각국사(大覺國師)를 종조(宗祖)로 하여 1946년 정각(正覺)이 서울 성북동에 무량사(無量寺)를 지은뒤 창종하였다. 『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 회삼귀일사상(會三歸一思想)을 본체로 하여 일심삼관(一心三觀)과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익혀 중생을 교화하고 널리 불법을 펴서 호국함을 종지(宗旨)로 삼고있으며, 신라의 원효(元曉)와 고려 제관(諦觀)의 사상을 계승하고 있다. 근본경전은 『법화경』이며 본존(本尊)은 석가모니불과 십계만다라(十界曼荼羅)이다. 행사로는 4월 8일의 석탄일, 5월 10일의 창종기념일 등이다.

증평지역에는 1988년 5월 28일 전통사찰로 지정된 광덕사와 미륵사를 포함하여 5개 사찰이 있다. 광덕사의 창건은 고려시대로 추정되고 있다. 1949년 광덕사 석불의 현몽으로 인하여 이 묘연 보살이 초옥으로 대웅전 3칸과 요사채를 세우고 광덕리 이동명을 따라 광덕사라 하였다. 1978년에 대웅전을 시멘트 기와 3칸으로 중수하였고, 요사채는 스트리트 기와로 중창하였다. 1994년에 사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한편 미륵사는 1938년에 서정옥 씨가 현존하는 석조관음보살 입상 옆에 작은 암자를 세웠으나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소실되었다. 이후 김맹석씨가 1989년과 1990년까지 20평의 법당과 180평의 요사채를 현대식 3층건물로 건립하여 사찰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광덕사 전경



미륵사 대웅전 전경

● 표 6. 증평의 법회중 사찰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광덕사	1979	도안면 광덕리 산21-2	주지	이계영(도선)
미륵사	1956	증평읍 송산리 산1-5	주지	정홍찬(도찬)
수도사	1956	도안면 도당리 261	주지	김동수
연화사	1991	도안면 노암리 670	주지	최광수
연성사	1993	도안면 화성리 366-1	주지	연정남

● 표 7. 증평의 관음종·선교종·선은종 사찰

종파	사찰명	설립연대	위 치	직위	대표자
관음종	영불사	1988	증평읍 신동리 161	주지	이구희(묘광)
선교종	불정사	1986	증평읍 내성리 157	주지	김수자(보경)
선은종	약수암	1970	도안면 화성리 310	보살	김교환

## 제3절

## 제3절 증평지역의 기독교

증평지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와 한국기독교 장로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한 교당들이 분포되어 있다. 2003년을 기준으로 한 증평군 『통계연보』에 의하면 기독교는 1997년에는 34개 교당이였으나 2003년에는 35개 교당이 등록되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1. 대한 예수교 장로회

한국 장로교 교단의 하나이다. 장로회는 개신교 교파의 하나로서 프랑스의 신학자였던 칼뱅(Calvin, 1509~1564)의 교리와 신앙체계 그리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의한 장로회 헌법 등에 기초한 교파이다. 장로교라고 부르는 이유는 교회의 운영이 장로들의 정치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교회의 운영은 감리교의 감독 제도와 회중교회 제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장로교의 중요한 특징은 성서의 권위를 교회와 전통의 권위보다 높게 생각한다는 것이다.

1884년에 한국 최초의 장로교 선교사였던 앨런(Allen, 1858~1932)에 의해

선교가 시작되었다. 이듬해 감리교 선교사 아펜젤러(Appenzeller, 1858~1902)와 장로교 선교사 언더우드(Underwood, 1859~1916)가 내한해 본격적인 선교가 시작되었다. 1907년에 33명의 각파 장로교 선교사와 36명의 한국인 장로교도가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모여 ‘조선예수교장로회독로회(朝鮮 예수敎長老會獨老會)’를 조직하였고, 1912년에는 ‘조선예수교장로회총회’가 조직되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38년 27회 총회에서 일제의 무력에 굴복해 신사참배를 가결하였으나, 지속적인 항쟁 속에서 평양신학교가 폐교당하고, 200여 교회가 문을 닫기도 하였다. 이후 1945년에 일제에 의하여 ‘일본기독교조선단’으로 통합되었다. 광복 후 신사참배 문제로 교권의 숙정(肅正)을 요구하는 고려파(高麗派)와 교권파의 갈등이 일어났고, 1951년 이후 조신파(朝神派 : 지금의 기독교장로회)와 예장파(예수교 장로회)의 분열이 시작되었다. 예수교장로회는 1959년에 다시 합동파(合同派)와 통합파(統合派)로 분열되었다. 여기에서 다시 합동파는 1962년 ICCC(국제기독교연합회) 탈퇴문제로 분열된 이후 여러 교단이 산재하게 되었다. 1985년도의 문공부 집계



도안제일교회 전경

에 의하면 장로교의 교파수는 47개 교단으로 발표되었다.

증평지역에는 대한예수교 장로회의 여러 교파 중 합동파(合同派), 통합파(統合派), 합동정통파(合同正統派), 장신파(長神派), 독로회파(獨老會派), 보수파(保守派), 호헌파(護憲派), 대신파(大神派), 정립파(正立派) 등이 있다. 장로교회 가운데 도안면 화성리에 위치한 도안제일교회는 1947년에 연구회 목사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박태훈 목사, 김영기 전도사, 연종현 전도사 등이 목회를 인도하여 현재 김승한 목사가 재임하고 있다.

## 2. 한국기독교장로회(韓國基督教長老會)

한국의 장로 교단의 하나이다. 장로회의 분열은 김재준을 중심으로 한 조선신학교(朝鮮神學校- 한국신학교의 전신) 교수들의 자유주의적 신학 경향과 그에 대한 비판에서 비롯되었다. 1949년에 장로회 남부 총회에서 조선신학교를 총회 직영신학교로 지정한 이후 1951년에 대구에 총회신학교를 개교하자, 조선신학교는 이에 불복하고 1952년에 한국신학대학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증평교회 전경

이후 1952년 4월 대구에서 가진 제37회 총회에서 성서오류설을 주장한 김재준을 목사직에서 제명하면서 9개 노회의 대표 47명이 1953년 6월 10일 조선신학교 강당에 모여 기독교장로회의 창단 이념과 강령 등의 선언서를 채택하여 공표했다. 이듬해 6월 1일 교단의 명칭을 대한예수교에서 대한기독교장로회로 고쳤다. 1980년 기독교장로회의 신학교육을 담당한 한국신학대학이 한신대학으로 종합화되었다.

증평지역에는 1934년 창립되었던 증평읍 대동의 증평교회가 있다. 이 교회는 충

북노회장 소열도 목사와 민노아 선교사가 피산과 청안 선교 순회 후 점촌(현 창동)에 일반가옥을 임대하여 예배장소로 사용하며 시작되었다. 1934년에 김교동 집사가 증평 국민학교 앞으로 교회당을 건축하였고, 1945년 광복 전까지는 유명찬 전도사, 이호재 장로, 이병식 전도사, 윤낙영 목사 등이 교역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지금은 복영규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 ● 표 1. 증평지역의 장로회

교회명	설립년도	직위	대표자	주소
광덕교회	1976	목사	김선희	도안면 광덕리 212
충용교회	1994	목사	이용락	증평읍 연탄리 37사단대
남하교회	1984	목사	이연풍	증평읍 남하1리 27-6
늘품교회	1990	목사	연제국	증평읍 증평리 948
덕상교회	1976	목사	원정길	증평읍 덕상3리 352
도안제일교회	1946	목사	김승환	도안면 화성리 163-1
영광장로교회	1959	강도사	권혁인	증평읍 남차2리 352
미암교회	1987	목사	허시진	증평읍 미암리 517-4
민음교회	1989	목사	최봉영	증평읍 증평리 590-13
사곡교회	1984	목사	오유성	증평읍 사곡3리 123
사평교회	1994	목사	김현섭	증평읍 사곡1리 719-1
도안소망교회	1999	목사	우상두	도안면 도당리 840-68
송산교회	1991	전도사	김대현	증평읍 소안리 454
신실교회	1997	목사	권오성	증평읍 초중리 540-3
안디옥교회	1994	목사	한영선	증평읍 초중리 540-3
산돌교회	1997	목사	김형식	증평읍 미암리 284-23
용강교회	1987	목사	최현규	증평읍 용강3리 308-5



교회명	설립년도	직위	대표자	주소
증평제일교회	1962	목사	김석환	증평읍 교동리 108
주예수사랑교회	1992	목사	한대석	증평읍 신동3리 1107-7
동문교회	1987	목사	박중도	증평읍 창동 대성주택 나-304호
흑표교회	1982	목사	전영권	증평읍 덕상리 13공여단내
예뵈교회	2001	목사	진기범	증평읍 증평리 948-3
노암교회	2000	목사	경무현	도안면 노암리 23
길갈교회		목사	박용환	증평읍 초중리 9-1
증평교회	1952	목사	복영규	증평읍 대동 8
고운교회		목사	박명진	증평읍 초중리 537-7
주립교회	2005	전도사	이범구	증평읍 증천동 228-1
평강교회	1987	목사	고영철	증평읍 연탄리 525-1
영강교회	1987	목사	김형식	증평읍 교동리 142-3
창동교회	1987	목사	유범한	증평읍 증평리 947-2

### 3. 감리교회

감리교는 영국의 존 웨슬리(john wesley)가 시작한 개신교파이다. 감리교의 가르침은 보편적 구원, 완전한 성화, 성도의 교제, 명령된 봉사 등 넷으로 요약된다. 이러한 가르침을 바탕으로 감리교는 평신도의 역할을 강조하며 교육과 사회적 문제들에 관심을 보인다.

한국 감리교회는 1884년 6월 일본 주재 미(북)감리회 선교사 매클레이(R.S. Maclay)가 내한해서 고종으로부터 ‘교육과 의료 사업’에 관하여 선교 사업을 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은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885년 8월 17일 서울 정동에서 제 1회 ‘한국 선교회’ (Korea Mission)를 개최함으로 한국 감리교회의 독자적인 연례 회의가 조직되었고, 1930년 12월 3일에 기독교조선감리회 총회가 조직되어 본격적으로 활동하였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본기독교조선감리교단’으로 교단의 명칭도 변경되었고 조직도 상당수 개편되면서 많은 변화를 겪었으나, 광복 이후였던 1949년에 분열되었던 교단이 다시 통합되었다.

증평지역에는 1971년 창립되었던 증평중앙감리교회를 비롯하여 4개 교회가 있다.



증평중앙감리교회 전경

● ● 표 2. 증평지역의 감리회

교 회 명	설립년도	직 위	대표자	주 소
증평중앙감리교회	1971	목사	전광석	증평읍 증평리 1056-367
벤엘감리교회	1982	목사	장경남	증평읍 증평리 998-10
평안교회	1987	목사	원영조	도안면 도당리 117
도안교회	1998	목사	유안중	도안면 화성리 199

#### 4. 성결교



새증평성결교회 전경

성결교회의 신학적 바탕은 감리교의 창시자인 존 웨슬리(john wesley)였다. 웨슬리의 신앙이 미국으로 전파되면서 미국에는 19세기에 웨슬리안 성결운동이 벌어졌는데 이를 이어받은 것이다. 1907년 김상준과 정빈에 의해서 ‘동양선교회 예수교 복음전도관’이 설립되었고, 1921년에 ‘조선 예수교(야소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라는 교단이 조직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동양선교회라는 명칭을 삭제하고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라는 명칭으로 바꾸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증평리에 1959년에 설립된 증평성결교회와 1992년 설립된 수정교회 2개소가 있다.

● ● 표 3. 증평지역의 성결교회

교 회 명	설립년도	직 위	대표자	주 소
수정교회	1992	목사	윤방원	증평읍 증평리 614-6
새증평성결교회	1959	목사	추용환	증평읍 초중리 383



성광침례교회 전경

#### 5. 침례교

조선에 파견되었던 선교사 M. C. 펜윅이 조직한 1' 한국 순회선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 1906년 강경에서 교단대회를 열고 '대한기독교회'를 조직하였다. 이 교단은 특정 교단의 색채를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성경의 인도에 따른 회중(會衆)의 개념만을 강조하였다. 이후 일제강점기에는 '동아기독교회', '동아기독교대', '동아기독교' 등으로 명칭 변경의 수난을 겪다가 1944년에 드디어 해체되었다.

광복 이후인 1949년에 강경총회에서 미국 남침례회 외국선교부의 동양 총무인 B. 코우텐을 초청하고 교단 명칭을 ‘대한기독교침례회총회’로 변경하였다. 1970년대에 교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중동리에 위치한 1986년에 창립된 증평침례교회와 증평읍 신동리에 위치한 성광침례교회 그리고 찬송교회 3개소가 있다.

●● 표 4. 증평지역의 침례교회

교회명	설립년도	직위	대표자	주소
찬송교회	1990	목사	송희진	증평읍 증평리 975-3
성광침례교회		목사	이종태	증평읍 신동 33
증평침례교회	1986	목사	조항수	증평읍 중동리 93

## 6. 안식일교회

안식일 교회는 고종 41년(1904)에 일본에서 교인이 된 손홍조가 평양에 교회를 세운 것이 처음이다. 1919년에 조선합회(朝鮮合會)가 조직되었으나, 1941년에 교회의 지도자가 투옥되면서 교단이 해체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가 조직되어 활동하였다.

증평지역에는 1990년 설립된 증평읍 증평리에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가 있다.



증평안식일교회 전경

## 7. 그리스도의 교

이 교파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는 환원 운동으로 일체의 헌장 양식 기록을 인정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30년 미국의 체이스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운 것이 시초이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 그리스도의 교단을 세웠다.

증평지역에는 도안면 송정리 212번지에 1997년에 조복주 전도사에 의해 세워진 송정교회는 현재 윤태진 목사가 시무한다.



송정교회



증평순복음교회 전경

## 8. 오순절 교회

이 교파는 창조주 하느님의 본체는 성부(聖父)와 성자(聖子)와 성신(聖神)이며 구세주인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재림할 것이므로 하느님의 절대적인 계시인 성경을 신앙과 생활의 근본으로 삼는 것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32년에 배부근(裴富根) 목사가 일본에서 귀국하여 오순절신앙운동(五旬節信仰運動)을 처음으로 전개하였다. 1945년 광복 이후에 미국 하나님의 성회(聖會)로부터 चेस्넛 선교사가 들어와 본격적인 전도를 시작하였다. 1953년에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가 조직되었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증천동에 1975년에 창립된 증평순복음교회와 증평읍 신동에 1980년에 창립된 순복음영광교회 두 곳이 있다.

●● 표 5. 증평지역의 오순절교회

교회명	설립년도	직위	대표자	주소
증평순복음교회		목사	김윤용	증평읍 증천동 673-10
반석순복음교회	1993	목사	곽완신	증평읍 장동 삼일A 상가 402
샘터교회		전도사	김희경	증평읍 초중리 585-3
새희망교회		목사	김 용	증평읍 신동 288

## 9. 여호와의 증인



증평왕국회관 전경

이 교파는 여호와를 참 하나님으로 믿으며 독생자인 예수는 인간을 대독코자 희생하고 부활하였으니 사람은 여호와에게 충성함으로서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교리로 하고 있다. 1912년 홀리스트 선교사가 처음으로 선교하여, 1914년에 성서연구회(聖書研究會)를 조직하였다. 이후 1952년에 워치타워 성서 책자협회를 설립하였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남하리에 1991년 설립된 증평왕국회관이 있다.

## 10. 대순진리회(大巡眞理會)

증산교의 한 교파로서 1969년 설립되었다. 증산교는 1902년에 강일순(姜一淳, 1871~1909)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 이 땅에 새로운 이상 세계를 건설한다는 후천개벽을 주장한 대표적인 신흥종교로 이해되고 있다. 또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문화·, 특히 무속(巫俗)과 선도(仙道)를 계승·발전시켜 한국 민중의 개인적인 신앙의식을 민간 중심의 공동체 신앙으로 승화시키는 음양합덕(陰陽合德)·신인조화(神人調和)·해원상생(解冤相生)·도통진경(道通眞境)의 대순진리를 종지(宗旨)로 하고 있다. 교조(敎祖)의 사후에 많은 분파가 생겨났다.

교단 조직은 최고 직책인 도전(都典) 산하에 협의기구인 중앙총의회가 있고, 그 아래에 육영사업부·수강원(受講院)·감사원·종무원·정원(正院)·포정원(布正院) 등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종무원 산하에는 교리연구를 전문적으로 하는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외에 종단 계통의 교육관으로 대학 및 고등학교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증평에는 증평읍 초중리에 교당이 있다.

## 제4절 증평지역의 천주교 성당

### 제4절

청주지역에 천주교가 전래된 것은 1801년 신유박해(辛酉迫害) 이전부터였으나, 대부분이 박해를 피해 숨어서 신앙을 유지하였다. 1882년 이후 신교의 자유가 허용되면서 여러 곳에 공소가 생기며 교세가 확산되었다.

1896년에 충북 감곡에 부이용 신부가 성당을 건립하여 첫 본당이 생겼다. 뒤이어 1906년에는 옥천에 두 번째 본당이 설립되었고, 청주·증평·제천·지현 등 6개 본당이 차례로 설립되었다. 그 중 증평본당이 6.25전쟁으로 폐쇄되었고, 1953년에 남은 5개 본당만이 감목대리구로서 메리놀 외방전교회에 위임되었다.

충청북도 감목대리구는 1958년 6월에 청주대목구로 독립하였고, 초대 대목구장으로 파디 야고보 신부가 임명되었다. 그리고 1962년에 한국 교회에 교계 제도가 설정됨에 따라 청주대목구는 정식 교구로 승격되었다. 1969년 6월에는 파디 야고보 주교의 교구장직을 사임하였고, 1970년 6월에 정진석 니콜라오 신부가 교구장 주교로 임명되어 한국인 주교가 다스리는 자치교구가 되었다. 이후 김원택 프란치스코 신부가 청주교구 교구장 직무 대행을 역임하였

고, 1999년에는 장봉훈 신부가 청주교구 제3대 교구장으로 임명되었다.



증평성당 전경

## 1. 증평 성당

위치 : 증평읍 장동리 551

증평성당은 1920년 9월 22일 설립되었다. 청주교구 소속으로 관할 지역은 증평읍·도안면·청안면(부흥공소 제외)·사리면과 진천군의 초평면과 북이면 일원이다. 신자총수: 2,566명으로 구역내 신자비율은 7.5%에 해당한다. 주임 사제는 임승철 신부이다.



초중성당 전경

## 2. 초중성당

위치 : 증평읍 초중리 10-7

1997년 6월 30일 설립되었다. 관할 구역은 증평읍 초중리, 신초중리, 창동, 신동, 초평리, 연탄리, 북이면 옥수리, 금대리, 추학리, 내추리 등이다. 신자총수는 672명으로 구역내 신자비율은 6.2%이다. 주임 사제는 박용수 신부이다.

## 제5절

## 제5절 증평지역의 신흥종교

### 1. 원불교(圓佛敎)

원불교는 1916년 4월 28일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 박중빈((朴重彬, 1891~1943)에 의하여 전남 영광군 백수읍 길룡리 영촌마을에서 시작되었다. 그는 자신이 깨달은 우주의 궁극적 진리를 일원(一圓)의 진리라 하고, 이를 「○」으로 표하였는데, 이 「○」을 원불교에서는 일원상(一圓相) 또는 법신불일원상(法身佛一圓相)이라 하고 있다.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용강리에 증평교당 1곳이 있다. 증평교당은 2002년 4월 5일 전연철·이정관 교도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증평교당은 부지 200평, 건평 50평의 지상 1층 건물로, 법당과 생활관을 갖추었고 교무는 김원화이다.



원불교 증평교당 전경

## 2.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은 일반적으로 ‘통일교’로 알려져 있다. ‘통일교’의 초기 정식 명칭은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世界基督教統一神靈協會)이다. 그러나 1997년에 개최된 세계 지도자회의에서 ‘세계기독교통일신령협회’와 ‘세계평화가정연합’의 두 기구를 통합하고 명칭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Family Federation for World Peace and Unification)』으로 개명하였다. 이 교파는 1954년에 문선명(文鮮明)이 서울에서 창설했다. 1957년에는 교리를 해설한 『원리해설(原理解說)』을 간행 세계 모든 종교, 국가 간의 평화를 위한 진리를 전파하며 주로 해외 선교에 힘을 쏟았다.



통일교 증평선교소 전경

증평지역에는 증평읍 장동리에 1975년에 창립된 증평통일교회 1곳이 있으며 목사는 박용수이다.

